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2호 2013. 1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김병호 | 오르혼 옛 튀르크語 비문과 한반도인의 옛 이름
- 킬 테긴 碑와 빌게 카간 碑에 나타나는 'Böki' 해석 7
- 박진우 | 니시키에[錦繪]를 통해서 본 근대천황상과 조선 멸시관의 형성 47
- 박삼헌 | 메이지 초년의 전쟁과 프로파간다
- 1874년 타이완[台灣] 침공 관련 이미지를 중심으로 83
- 김종준 | 개항기 일본 상인의 울릉도 침탈과 염상 김두원 사진 113
- 장 신 |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의 역사 교과서 비판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145
- 조명근 | 越境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洲國幣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181

서평

- 이청규 | 遼河文明的 寶庫 - 牛河梁 遺蹟 213
- 신주백 | 응축된 날카로움과 신선함, 그리고 우려스러움
-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오끼나와(창작과 비평사, 2013) 22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230

Contents

Articles

Kim Byungho | A New Interpretation of “Bökli” in Orkhon Stone Inscriptions as the Ancient Name of a Korean Country: A Critical Reflection on Iwasa Seiichiro’s 貂句麗 Mök(kü)li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Old Korean-Turkic 7

Park Jinwoo | The Formation of the Modern Japanese Emperor Image and Slights of Joseon from an Analysis of Nishiki-e Prints 47

Park Samhun | War and Propaganda in 1868, the First Year of the Meiji Government 83

Kim Jongjun | Commercial Problems in Ulleungdo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s as Viewed through the Salt Merchant Kim Duwon Incident 113

Jang Shin | Critique of History Textbook by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and the Ac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in the 1930s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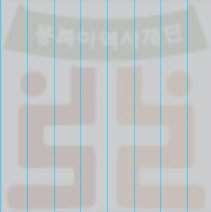
Cho Myungkeun | Currency Crossing Borderlines and an Empire Split: The Inflow of Manzhouguo Currency into Colonial Joseon 181

Book Review

Lee Chungkyu | *Niuheiliang: Excavation Report on a Hongshan Culture Site (1983–2003)* 213

Sin Juback | Condensed Shrewdness, Originality and Concernment: *Okinaawa, A Site of Structural Differentiation and Resistance* 223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르혼 옛 튀르크어 비문과 한반도인의 옛 이름

- 켈 테긴 碑와 빌게 카간 碑에 나타나는 'Böklī' 해석 -

김병호 | 주 덴마크대사, 빈 대학교(University of Vienna) 박사



몽골 오르혼(Orkhon, Орхон, 鄂爾渾, 頰根河, 嚙昆水) 계곡에서 발견된 突厥 비문들에 대한 연구¹⁾는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개요와 내용은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고,²⁾ 선행연구도 많다.³⁾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 투고일: 2013년 6월 12일, 심사일: 2013년 11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22일

- 1) 켈 테긴 碑(故闕特勤 碑, 732, 한문과 옛 튀르크어), 빌게 카간(可汗) 碑(735, 한문과 옛 튀르크어)는 오르혼 계곡에서 발견되며 突厥 비문은 예니세이 상류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이 두 碑보다 앞선 Tonuquq 碑(720년경, 옛 튀르크어) 등 3개의 突厥 제국 시대의 碑가 주된 연구대상이었으며, Ongin 碑(El Etermis Yabghu) 등 위구르 시대 비문들, 키르기즈 탈라스 지역 등에 산재된 비문들로도 연구가 확대되었다. 19세기 말 발굴 단계와 초기 연구는 주로 러시아와 서방학자들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그 연구발표도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이루어졌다. 터키계로는 Hüseyin Namik Orkun, 1936, *ESKİ TÜRK YAZITLARI* 이래 Talât Tekin, 1988, *ORHON YAZITLARI* 등의 비문 연구가 괄목할 만하다.
- 2) 禹惠燦, 1995, 「突厥史上에 나타난 몇몇 問題點에 關한 研究」,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6호, 443쪽 이하, 특히 454쪽 이하 (III, 오르콘 비문에 나타난 몇몇 고유명사의 어원문제); 우덕찬, 1997, 「고대튀르크비문에 전하는 종족명 타타비(Tatabi)에

부분은, 켈 테긴(闕特勤) 碑⁴⁾와 빌게 카간(可汗) 碑⁵⁾의 옛 튀르크어⁶⁾ 비문에

대한 연구, 『역사와 경계』 제33-1호; 우덕찬, 2004,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4-2호, 237~252쪽, 특히 239~245쪽 (II. 고대 튀르크 비문의 기록); 丁載勳, 1993, 『突厥第二帝國時期(682-745) 톤유쿠크의 役割과 그 位相: 톤유쿠크 碑文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丁載勳, 1998, 「위구르 遊牧帝國時期(744~840) 古代 튀르크 碑文의 研究와 展望」, 『歷史學報』 제160호; Talât Tekin, 1988, *ORHON YAZITLARI*, 이용성 역, 2008, 『突厥비문연구』 등

- 3) *Inscriptions de l'Iénisséi recueillies et publiées par la Société Finlandaise d'Achéologie*, 1889, Helsingfors; H. M. Ядринцев, (N. M. Yadrintsev), 1890, "Anciens caractères trouvés sur des pierres et des ornements au bord de l'Orkhon", St. Petersburg; B. B. Радлов, 1892, *Атлас древностей Монголии*, СПб; W. Radloff, *Arbeiten der Orchon Expedition: Atlas der Alterthümer der Mongolei*, St. Petersburg, erste Lieferung 1892, zweite Lieferung 1893, dritte Lieferung 1896, vierte Lieferung 1899; V. Thomsen, 1896, *Inscription de l'Orkhon déchiffrées*, Helsingfors; W. Radloff,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Neue Folge, St. Petersburg 1897, Zweite Folge, St. Petersburg, 1899; W. Bang, 1896, "Zu den kök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T'oung Pao* VII; V. Thomsen, 1922, *Samlede Afhandlinger* III, Copenhagen [톰슨의 논문집으로 기존 논문 종합: Tyrkiske runeindskrifter fra Mongoliet og Siberien (몽골과 시베리아로부터의 튀르크 룬 비문) 항목 아래 "Inscriptions runiques turques de Mongolie et de Sibérie, Notice préliminaire" (1893); "Postscriptum" (1920); "L'alphabet runiforme turc" (1894-96); "Remarques sur l'origine de l'alphabet; Une Lettre méconnue des inscriptions de l'Iénisséi" (1913); "Turcica, Études concernant l'interprétation des inscriptions turques de la Mongolie et de la Sibérie" (1916) 등 기존 발표 논문 세계 외에 "Gammel-tyrkiske indskrifter fra Mongoleit i oversættelse og med indledning" (몽골로부터의 고튀르크 비문의 재해석, 새 서문과 함께) 논문은 기존의 켈 테긴 비와 빌게 카간 비문의 기존 해석을 아우른 비문 해제 게재] 이 덴마크어 논문을 Heinrich Schaeder, 1924, "Vilhelm Thomsen, Altürkische Inschriften aus der Mongolei in Übersetzung und mit Einleitung", Leipzig, *Zeitschrift der Deutschen Mogenlandesgeschichte (ZDMG)*, Band 78 (1924/25)에 독일 번역 게재. С. Е. М алов, 1951,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тюрк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Текст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сква; H. N. Orkun, *Eski Türk Yazıtları*, Istanbul, I: 1936; II: 1938; III: 1940; IV: 1941; Annemarie von Gabain, 1941, *Altürkische Grammatik*, Leipzig; Talat Tekin, 2003, *Orhon Yazıtları, Kül Tigin, Bilge Kagan, Tunukuk*, Istanbul, 이용성 역, 2003, 『돌궐비문연구』; Talat Tekin, 이용성 옮김, 2012, 『突厥어 문법』; 森安孝夫·オチル, 1999. 3, 『モンゴル國現存遺跡・碑文調査研究報告』, 中央ユーラシア學研究會 등

山東지역에 이른 내용⁷⁾ 외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을 만한 부분으로, 첫째, 튀르크 민족의 始祖들인 '슬기로운' 카간⁸⁾ 사망 때 조문을 온 민족·국가 중에서 한반도 민족·국가의 언급 가능성, 둘째, 훨씬 뒤에 唐의 지배 아래 突厥이 唐 황제에 봉사하여 동으로 원정에 나섰는데 그 기술 대상이 한반도 민족·국가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두 부분이다. 이 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Böklī'를 일본 학자가 高句麗(← 貊句麗)로 주장한 이후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대체로 받아들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켈 테긴 비의 동쪽 면 37행(내용상 4행)에, 그리고 빌게 카간 비의 동쪽 면 37행(내용상 5행)의 튀르크어 비문 탁본에 옛 Bumīn과 İstāmi 카간의 사망시 동쪽(해 뜨는 곳)에서 조문 온 민족·국가로 '타브가즈' (拓拔) 앞에 'Böklī čölgī'이 나온다. 이 두 비문의 금석문 탁본은 1892년 몽골 오르혼 지역을 답사한 결과 이후 보고서를 펴낸 Radloff의 *Atlas*⁹⁾에 실렸다. 켈 테긴 비의 해당

- 4) Kül Tegin 碑: 732년, 3.75m 높이에 동쪽과 서쪽 면 1.22~1.32m, 남쪽과 북쪽 면 0.44~0.46m 크기의 비석에 서쪽 면에 한문 비문(故闕特勤碑 아래 약 4백여 자), 동쪽 면에 40행, 남·북쪽 면에 각각 13행과 모서리에 옛 튀르크어 비문. Bilge Kaghan(可汗) 碑에 비해 闕特勤 비 한문 비문은 해독이 가능하며 Gustav Schlegel, 1892, "La stèle funéraire de Tegin Giogh et ses copistes et traduction chinoise, russes et allemands," *Mémoire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MSFOu)* III, p. 57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5) Bilge Kaghan(可汗) 碑: 735년으로 추정, 켈 테긴 비와 비슷한 규모, 동쪽 면에 41행, 북쪽과 남쪽 면에 각각 15행의 옛 튀르크어 비문과 서쪽 면에 한문 비문.
- 6) 오르혼과 예니세이 등지에서 발견되는 옛 튀르크 문자가 북유럽에서 주로 나타나는 룬(Runic) 문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아직도 '튀르크 룬 문자'로 부르기도 하나(러시아어권에서는 Orkhon 룬 문자로 부름), 오르혼 문자와 룬 문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문자 해독에 성공한 덴마크 언어학자 빌헬름 톰슨의 견해며, 정설이다.
- 7) 켈 테긴 碑 동쪽 면 17행과 빌게 카간 碑의 동쪽 면 15행에 ilgärü jaşyġ-ügüz şanduñ jazyqa taġi sülädimiz로 나오며, "동으로 黃河와 山東 평야까지 출정하였다"(en avant vers l'ouest jusqu'au fleuve Vert et la plaine de Chantung)라고 톰슨은 해제했다. V. Thomsen,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p. 103
- 8) Bumīn Qaghan (土門, 伊利可汗, 551~552년 말·553년 초 사망)과 İstāmi Yabgu (室點密, 533~575·576, Bumīn의 동생으로 서突厥제국 Western Turkic Khaganate의 시조). 비문 벽두에 슬기롭고 법과 제도를 갖춘 튀르크 조상으로 또 이들에게 이웃 민족들이 복종했다는 기술이 나온다.
- 9) W. Radloff, 1892 (erste Lieferung) · 1893 (zweite Lieferung) · 1896 (dritte



〈그림 1〉 켈 테긴 비 탁본과 가목본



〈그림 2〉 빌게 카간 비 탁본과 가목본

부분 탁본과 이를 읽기 쉽게 손질한 결과가 위쪽 두 그림이고, 거의 같은 내용이 새겨진 빌게 카간 비의 해당 부분 탁본과 이를 읽기 좋게 손질한 결과¹⁰⁾가 그다음의 두 그림인데, 그 해석에 우리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Bökli의 해석과 관련, *bök+li* 형태의 ‘힘센’ 뜻의 형용사¹¹⁾로 ‘힘센 민족’으로 해제하는 의견,¹²⁾ 옛 튀르크어 문법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보기는 무리며

Lieferung) · 1899 (vierte Lieferung), *Atlas der Alterthümer Mongolei*, St. Petersburg

- 10) 1892년 오르혼 계곡 탐사결과 탁본과 사진을 게재한 W. Radloff, 같은 책, 1892 Tafel XVII, Tafel XVIII, 1897 Tafel XCVIII, 1892 Tafel XXIII, 켈 테긴 碑의 옛 튀르크어 비문은 우에서 좌로 써 있으며, 켈 테긴 碑 동쪽면은 1~40행으로, 라들 로프의 *Atlas*에 40행으로 표기된 아래 줄에서 위 줄로 올라가면서 읽는다.
- 11) W. Radloff, 1895,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p. 140. “stark, mächtig.”
- 12) V. Thomsen,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p. 98, “les puissants peuples”; W. Bang, 1896, “Zu den kök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T’oung Pao* VII, p. 349, “die mächtigen Äle der Steppe.”

고유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¹³⁾ 고유명사로서 특정 민족·국가를 특정하려는 입장에서 Bökli를 고구려로 특정하려는 등 여러 학설이 분분하다.

특히 고구려로 특정하려는 학설이 1930년대 나온 지 80년이 되었지만 우리 학계 나름대로의 비판적 의견이나 발전적 기여 없이 거기에 안주하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Bökli'가 고유명사라면 고구려인지, 꼭 고구려만인지, 어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옛 튀르크어 비문을 짚어가면서 선행연구도 살펴보고 우리에게 대한 기술이라면 우리 나름대로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취지다.

II. Bökli čöglj 해석 문제

이 두 碑 금석문의 옛 튀르크어 비문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가 1890년 핀란드 탐사단의 1892년 답사보고서 발간¹⁴⁾ 및 W. Radloff(이하 라들로프)의 답사보고서 발간¹⁵⁾을 계기로 그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덴마크 언어학자인 Vilhelm Thomsen(이하 톰슨)과 러시아 터키학 전문가인 라들로프의 경쟁이 두드러졌다. 톰슨이 1893년 12월 제네바 국제학술회의에서 「오르혼 및 예니

13) W. Radloff, 1895, *Die Al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p. 230, "Jetzt bin ich der Ansicht, dass es besser sei, das Wort als Titel oder Eigennamen aufzunehmen."; A. v. Gabain, 1941, *Altürkische Grammatik*, Leipzig, p. 304 (Glossary), "bökli Vorname || bir halk adı"

14) *Inscriptions de l'Énisséi recueillies et publiées par la Société Finlandaise d'Achéologie*, 1889, Helsingfors 보고서에 Axel Heikel의 여행기록 보고에 이어 Georg v. der Gablentz의 켈 테긴 비, G. Devéria의 빌게 카간 비, O Donner의 Ienissei 문자 및 언어에 대한 글과 옛 튀르크어 필사 비문 게재.

15) W. Radloff, 1892 · 1893 · 1896 · 1899, *Atlas der Alterthümer Mongolei*, St. Petersburg

세이 비문의 해제 그 첫 시도,¹⁶⁾제하의 연구결과 발표로 옛 튀르크어 글자 해독이 이루어진 후 비문의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¹⁷⁾

툽슨이 해당부분을 알파벳으로 옮긴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¹⁸⁾

두 줄 중 위 줄은 켈 테긴 비 동쪽 면 4행(I, E4)의 옛 튀르크어를 알파벳화한 것이고, 아래 줄은 같은 내용의 빌게 카간 비 동쪽 면 5행(II, E5)을 대조한 것이다.¹⁹⁾

IE4 tutmʸs ʔr̄nč̄, ilig-tutʸp törüg itmʸs. özinč̄ä (I,37) kʰrgʰk bolmʸs.
 tutmʸs-ʔr̄nč̄, ilig-tutʸp törü[.] (II,37)
 IIE5 juyč̄y syʸtč̄y önr̄ä kün toyʸsqda bökli č̄öl'igʸ-il, tʰbyʸč̄, tüpüt, ʔpar
 juyč̄y syʸtč̄y önr̄ä kün toyʸsqda bökli č̄öl'igʸ-il, tʰbyʸč̄, tüpüt, ʔpar-
 ʔpurʸm, qyrʸqʸz, üč̄-quryqʸn, otʸz-tʰtʰr, qytʰaj, tʰtʰby, bunča budʸn
 ʔpurʸm, qyrʸqʸz, üč̄-quryqʸn, otʸz-tʰtʰr, qytʰaj, tʰtʰby, bunča budʸn
 kʰipʰän syʸtamʸs juʸlamʸs. ʰndaʸ külig qʰʸn-ʰrmʸs. ʰnda kisrä
 kʰipʰän syʸtamʸs juʸlamʸs. ʰndaʸ-külig qʰʸn ʰr[.]

〈그림 3〉 Vilhelm Thomsen의 켈 테긴 비(동쪽 면 4행) 및 빌게 카간 비(동쪽 면 5행) 알파벳 작업

한편, 라들로프가 켈 테긴 비의 동쪽 면 4행(K-4)을 새겨진 대로 알파벳화한 것은 다음 그림²⁰⁾이고, 홀수 줄의 로마 알파벳과 숨겨진 모음을 추가한 짝

16) V. Thomsen, 1894, “Déchiffrement des Inscriptions de l’Orkhon et de l’Iénissei, notice préliminaire”에 1893년 12월 15일 학술대회에 발표된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는 튀르크 天神 tāngri와 켈 테긴 碑 한문 비문의 闕特勤 (Kʰiueh-ti(k)-kʰn)의 Kül tegin에서 옛 튀르크어 알파벳 해독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았고, 옛 튀르크어 문자와 비문 해독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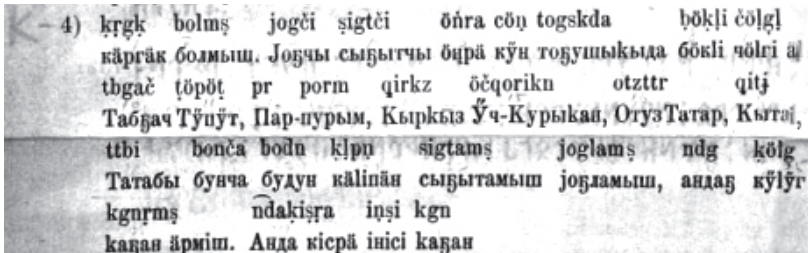
17) V. Thomsen, 1922, *Samlede Afhandlinger* III, pp. 3~26에 실린 “Déchiffrement des Inscriptions de l’Orkhon de l’Iénisséi. Notice préliminaire” (1893), “Postscriptum” (1920) 특히 p. 15

18) V. Thomsen,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p.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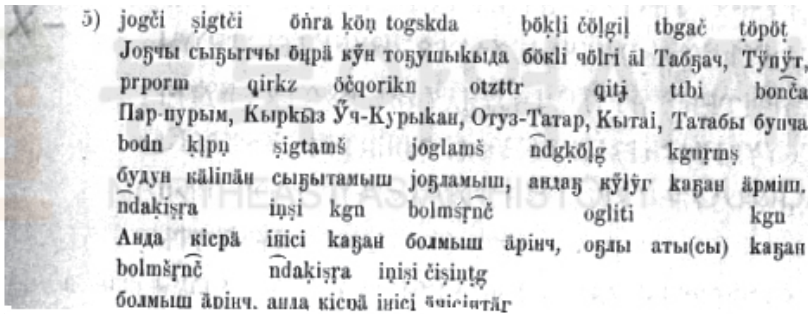
19) IE4는 켈 테긴 碑(제비) 동쪽 면 옛 튀르크어 비문 4행 (Radloff, *Atlas*의 Tafel XVII에 37행으로 Radloff는 전면 K, 37로 표시)을 뜻하며, IIE5는 빌게 카간(可汗) 비(제II비)의 동쪽 면 옛 튀르크어 비문 5행 (Radloff, *Atlas*의 Tafel XXIII 상의 37행으로 Radloff는 X, 37로 표시)을 뜻한다.

20) Radloff, 1895,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pp. 5~6

수 줄이다. 그 아래 그림은 빌게 카간 비의 동쪽 면 5행(X-5)이며 짝수, 홀수 줄은 위의 경우와 같다.²¹⁾



〈그림 4〉 Rodloff의 켈 테긴 비(동쪽 면 4행) 알파벳 작업



〈그림 5〉 Rodloff의 빌게 카간 비(동쪽 면 5행) 알파벳 작업

우리말로 그 뜻을 새기자면, “…… (그들의 장례식에) 조문으로 동쪽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 먼 Bökli 백성, 스텝인, 타브가츠(拓拔, 중국), 티베트, 아바르(Avar), (아)푸름(東로마, Bizantine), 크르그즈, 3쿠르간, 30타타르, 거란, 타타브 이들 백성이 와서 울고 슬퍼했다고 한다. 그들은 유명한 카간이었다고 한다”²²⁾ 라고 풀어 쓸 수 있다.

툽슨은 이 켈 테긴 비(K) 동쪽 면의 37행의 정서본 K 4.8-9 (탁본상 37행

21) Radloff, 1895, 위의 책, p. 45

22) Talat Tekin, 이용성 역, 2008, 앞의 책, 90쪽 및 135쪽을 참조, 필자 옮김.

이나 내용상 4행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8번째와 9번째 단어) 'Bökli cölgi'에 i 모음을 두 번 보완하여 cölgi il '빅클리 칠릭_일'로 읽었다. 톰슨은 cöl이 사막이지만 cölgi il로 突厥제국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étranger) 정도의 뜻이라는 주장²³⁾에 이어 이를 '먼 Bökli 민족'²⁴⁾으로 새겼다. 당초 '사막의 힘센 이방인'으로 새겼다가²⁵⁾ 뒤에 '먼 Bökli 민족'으로 고쳤다.²⁶⁾ 라들로프의 빌게 카간 비문(X) 탁본 38행의 5행 단어 6~7(탁본 사본상 38행이나 내용상 5행, 오

- 23) V. Thomsen, 1896, 앞의 책, p. 98에서 톰슨은 cöl<1>ig?이라고 하여 '칠릭'으로 읽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후 같은 책 p. 139 주8)에서 해당 37행(킬 테긴 碑 IE4, 빌게 카간 碑 IIE5)에 대한 별도 상세한 주에서 cölgi g 대신 cöl<1>i g il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라들로프가 cölgi il로 읽었고 산에 사는 사람에 대조된 스텝 민족 Steppenvolk (Gegensatz zu Bergbewohner tay daqy/jyš äli) 주장에 대해 톰슨의 반론이다. 한편, 톰슨은 cölgi를 '외방인'(étranger «forain»)의 의미로 새겼다. cöl 어원(etymology) 관련, cöl (고대 튀르크 및 중세·근대 터키어,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위구르, Sary-Yughur, Oyrat, Karaim, Kumyk어), čul (우즈베크어), söl (카자흐, 투바, Tofalar, Noghai, Karakalpak어), sü (Bashkir어) 등으로 나오는데, Tuva어의 šöl은 'field, plaza'의 뜻이고, Tofalar어의 šöl은 'steppe, desert'의 뜻이라고 한다. http://starling.rinet.ru/cgi-bin/response.cgi?single=1&basename=/data/alt/turcet&text_number=1893&root=config. M. Räsänen, 1969, *Versuch eines etymologisches Wörterbuchs der Türksprachen*, Helsinki, p. 117; G. Doerfer, 1963-67, *Türkische und mongolische Elemente im Neupersischen*, Wiesbaden, Bd. 3, pp. 122~123; 한편, G. Clauson,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 p. 420은 cöl 'desert' 고대 튀르크어의 cölgi에 대해 L. V. Clark, 1977, "Mongol elements in old Turkic," *Journal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JSFOe)*, t. 75, p. 135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 뜻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 24) 먼 빅클리(?)-민족: 덴마크어 원문 det fjerne Bökli(?)—folk, 독어 번역 das ferne Bökli(?)—volk, Heinrich Schaeder, 1924, 앞의 글(독어 번역), pp. 121~175, 특히 p. 145
- 25) V. Thomsen, 1896, 앞의 책, p. 98에 "les puissants peuples du désert (c'est-à-dire étrangers?)" (사막의 힘센 민족들, 즉 이방인들?)로 새겼다가 같은 책 p. 139 주8)에서 톰슨은 라들로프의 cölgi il 해석에 이의를 달면서 "les puissants peuple (empires) étrangers" (튀르크에 속하지 않은 동쪽의 이방민족) 설을 내놓았다.
- 26) V. Thomsen, 1922, "Gammel-Tyrkiske Indskrifter fra Mongoliet," *Samlede Afhandlinger* III, pp. 465~516, 특히 p. 488; Heinrich Schaeder, 1924, 앞의 글(독어 번역), 특히 p. 145

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옛 튀르크어를 살펴볼수록 고유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Bökli': 'čölgi · čölgil'이 동쪽의 어느 '힘센 이방인', '먼 Bökli 백성'³⁵⁾이며, 또 '사막 · 스텝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 · 국가'가 누구이고 어디겠는가.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 특히 'Bökli': 'čölgi'에서 Bökli가 우리나라를 뜻한다는 주장과 관련, 그 金石文의 초기 해제부터 후속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čölgi는 '철기'로 토누쿠크 비³⁶⁾의 옛 튀르크 비문에도 나오며³⁷⁾ 한반도와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 해석이 엇갈리며³⁸⁾ 'Bökli':

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133e année, N. 3, pp. 572~583 · 579에 해당부분을 "les gens des bois et les gens de la steppe" (숲속 사람과 스텝 사람)으로 번역.

- 35) V. Thomsen, 1922, 앞의 책, pp. 465~516, "Gammel-tyrkiske indskrifter fra Mongoliet i oversættelse og med indledning"에서 톰슨은 후에 동쪽에서 해 뜨는 곳에서 먼 Bökli(?) 민족, 중국인이...왔다 ("kom østfra, fra solens opgang, det fjerne Bökli(?)—folk, Kineserner ...")로 바꾸어 새겼다[Hans Heinrich Schaeder, 1924, "Vilhelm Thomsen, Alttürkische Inschriften aus der Mongolei in Übersetzung und mit Einleitung," *ZDMG*, Band 78 (1924 · 1925) 독어 번역에 "kamen von Osten, von Sonnenaufgang, das ferne Bökli(?)volk, die Chinesen ..."으로 번역].
- 36) Tonuquq碑: 720년경, 옛 튀르크어로만 된 두 개의 비, 제1碑 (서쪽에 7행, 남쪽에 8~19행, 동쪽에 19~24행, 북쪽에 26~36행), 제2碑 (서쪽에 37~45행, 남쪽에 46~51행, 동쪽에 52~59행, 북쪽에 60~63행).
- 37) Tonuquq 비문 23행에 čölgi (a)z (ä)ri bultum으로 나오는데, Radloff, Orkhun과 Malov는 čölgi로 읽고 "사막에 속하는, 사막에 있는, 스텝에 있는" 뜻으로 새겼다. 반면 Thomsen은 čül(ü)g로 읽고 "fern" 즉 '먼'으로 번역하였고, Annemarie von Gabain은 이 낱말을 "fremd" 즉 '낯선', '이방의' 뜻으로 보았다. A. v. Gabain, 1941, *Alttürkische Grammatik*, p. 308 čöl(ü)g (ü? Runenschrift) fremd (?) || yabancı (?)로 스스로 확신 없이 책의 말미 단어집(Glossar)에 제시했다.
- 38) G. Clauson은 옛 튀르크어법에서 čöl (사막, 황량한 땅)의 명사에 ig라는 소속의 토씨가 붙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막, 황량한 땅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äl/el/il과 결합해서 하나의 정치단위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G. Clauson은 W. Bang의 방위 주장에 연계되어 비문에서 동쪽의 나라 Bökli, 타브가츠(中國)에 이어 외퇴켄 · 위퇴켄 (Ötükän, 鬱督軍 · 於都斤 · 烏德鞬), 서쪽의 티베트의 순서로 언급하고 있어, čölüg-el은 方位로 볼 때 Bökli의 서쪽, 타브가츠

‘čölgl’로 금석문에 :로 두 단어로 구분해놓은 점과 개개 민족이 한 단어씩으로 열거된 문장 구조에서 ‘Bökli’, ‘čölgl’ 두 단어가 한반도에 해당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다는 점만을 언급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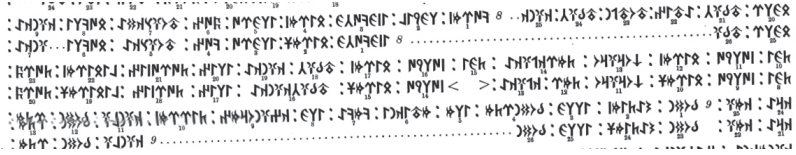
Ⅲ. Bökli Kaghan의 해석 문제

두 비의 동쪽 면 4·5행 비문의 Bökli가 어느 민족·국가인지를 특정해보는 데에 켈 테긴 비문의 8행(8, 9번 단어)과 빌게 카간 비문의 8행(6, 7번 단어)에 ‘Bökli 카간(可汗)에게까지’라고 하여 突厥이 唐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원정기록이 도움이 된다.

이때 Bökli는 카간 단어와 함께 나오는데 그때의 ‘Bökli’의 해석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부분에 대한 켈 테긴 비와 빌게 可汗 비의 옛 튀르크어 비문은 다음과 같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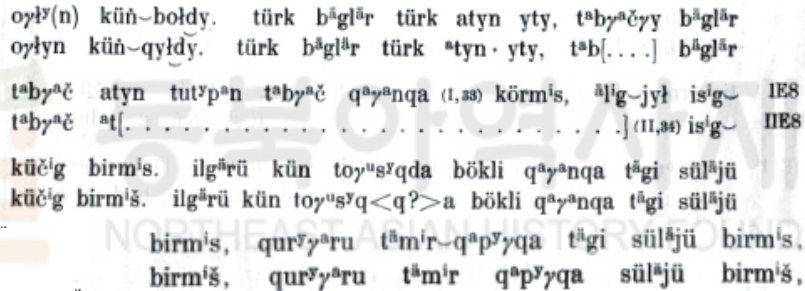
동쪽에 위치한, 혹은 한반도의 어떤 정치단위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芮傳明은 티베트 언급 이후부터 (A)par(Avar), (A)purum (비잔틴, 동로마제국), Qırqız(키르키즈)로 동서남북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čölüg-el이 꼭 Bökli와 타브가즈 사이에 위치하거나, 한반도에 있는 정치단위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면 서, 『魏書』·『北齊書』·『隨書』 등에 나타났던 鮮卑족의 叱利氏를 čölüg-el과 연계시켰다. 그러나 이는 突厥 제2제국 시기에 이미 그 영향력이 사라진 鮮卑족, 그것도 스스로 국가를 못 이룬 叱利氏를 Bökli, 타브가즈와 나란히 새긴 것으로 보기에는 균형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芮傳明, 1998, 『古突厥碑銘研究』에서 叱利가 čölüg에 대응할 수 있는 이유로 옛 튀르크어의 č가 구개음 앞소리로서 叱利의 음가(chi lie)와 유사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叱의 中古音(質韻, 第三等, tɕh ~ et: Karlgren, tɕh ~ et: 王力, tɕhilt: 鄭張尙芳, 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이 과연 튀르크어의 čölüg로 대응될지는 의문이다.

39) W. Radloff, 1896 (dritte Lieferung), 앞의 책, Tafel CII



〈그림 7〉 켈 테긴 비 8행과 빌게 카간 비 8행의 옛 튀르크어 비문 대비

톰슨이 이를 해독한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⁴⁰⁾ 그 내용은 “튀르크가 중국에 예속되어 50년간 봉사하였고,⁴¹⁾ 동쪽으로는 해 뜨는 곳에 'Böklī 카간에'(8, 9번 단어)까지 출정하였다. 중국 황제를 위하여 이렇게 정복하였다고 한다”는 것이



〈그림 8〉 Vilhelm Thomsen의 켈 테긴 비 및 빌게 카간 비 8행 알파벳 작업

40) V. Thomsen, 1896, 앞의 책, pp. 99~100

41) V. Thomsen, 1896, 위의 책, pp. 38~39에서 isig_kūčig birmis/birmiš의 | ↑ is 는 'affair (일)', 'occupation (직업)', 'travail (노동)'이며 “donner (vouer) à qn son travail et (ses) forces” (누구에게 일과 힘을 바친다)로 톰슨은 풀이하였다. 같은 책 p. 99에 해당 구절을 “ils se soumirent au kagan chinois et lui vouèrent pendant cinquante ans leur travail et leur force (그들은 중국 황제에 복종하였고 50년간 노동과 힘을 바쳤다)”로 해제하였다. 아울러 같은 책, p. 142 주12)에서 Kie-li-khan이 중국에 630년 포로로 붙잡힌 이래 켈 테긴의 아버지가 可汗으로 선포한 681·683년까지 50여 년이 그 기간이라고 보았다. 한편, W. Radloff, 1895, 앞의 책, p. 7에서 라돌로프는 해당부분이 isgkōčg birmis로 새겨진 것을 ācin kŷuīn bāpmin로 읽고 “sie unterwarfen sich dem berühmten Chane (chinesischen Kaiser) und weihen ihm Sinn und Kraft fünfzig Jahre lang (그들은 중국 황제에 복종하여 50년간 뜻과 힘을 바쳤다)”라고 번역하였는데 kŷuīn은 kŷuīn의 오타로 보인다.

다. 여기서 ‘출정하였다고 한다’의 *süläjü birmiš*(퀵 테긴 비 K 8: 11, 12번, 빌게 可汗 비 X 8: 9, 10번)의 *sü*(군대)에서 나온 동사 *sülä-*는 ‘출정하다’의 뜻이다.

그다음에 나오는 ‘정복하였다고 한다’는 톰슨의 (a)lī birmis/birmiš 또는 라들로프의 *алы бәрмиш*에서 *al-* (K 8: 22번, X 8: 19번) 단어는 ‘잡다, 取하다’의 뜻⁴²⁾으로 문맥상 ‘Bökli 카간’을 정복했다는 뜻⁴³⁾을 내포한다.

퀵 테긴 비와 빌게 카간 비의 동쪽 면 8행에 타브가즈(중국, 당시 唐) 카간(황제)을 받들어 그 동쪽 ‘Bökli’ 왕에게까지 원정 내지 정복한 대상인 ‘Bökli’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문제다. 라들로프는 이 8행에 나오는 ‘Bökli 카간’을 동쪽에 사는 ‘Bökli-ätschü’ 민족의 지도자로 읽었지만, 그는 어느 민족인지 특정하지는 못했다.⁴⁴⁾ Bang은 Bökli-Khan(-Gebirge)이라고 산맥의 이름으

42) V. Thomsen, 1916, “Turcica. Études concernant l’interprétation des inscriptions turques de la Mongolie et de la Sibérie”, pp. 37~38, *Samlede Afhandlinger* III, Copenhagen, 1922, p. 126 주에서 튀르크의 중국 황제에 대한 봉사과 관련된 구절을 “ils obéirent à l’empereur de Chine et le servirent pendant 50 ans pour lui ils firent des exéditions jusqu’à (Bökli qaghan)....., et au profit de l’empereur de Chine ils assujettirent (littéralement: pirent) les peuples. (중국의 황제를 위하여 그들을 정복하였다. 직역하면 ‘취하였다’)”라는 해석을 제시하면서, W. Radloff, 1895,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pp. 433~434에서 “sie übergaben ihre Stammgemeinschaft dem Chinesischen Kaiser”라고 하여 마치 중국 황제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해석을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톰슨은 자신의 비슷한 1896년의 해석 (V. Thomsen,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p. 100) ‘au kagan chinois ils liverèrent leur empire et leur institutions’도 수정하여 ‘für den chinesischen Kaiser eroberten sie Reiche und Macht (중국 황제를 위하여 나라와 권력·제도를 정복하였다)’로 해제하였다. 톰슨의 1922년 해당 구절 해석은 Heinrich Schaeder, 1924, 앞의 글(독어 번역), p. 146.

43) W. Bang, 1896, “Zu den Kök Türk-Inschriften der Mongolei,” *T’oung Pao* VII, p. 350에 ‘überantworteten dem chinesischen Kaiser ihre Äle and Töru’로 번역하여 ‘정복한 민족과 제도를 중국 황제의 보호 감독 (Obhut, Aufsicht)하에 맡겼다’라는 뜻으로까지 확대 해석하였다. Bang은 bis zum Bökli-Khan(-Gebirge) (‘Bökli칸 산맥에까지’)라고 새겨 Bökli를 산악지명으로 파악하였고, 같은 글 p. 349에서는 Bökli cölgl을 ‘die mächtigen Äle der Steppe(스텝의 강력한 민족들)’로 새겼다.

44) W. Radloff, 1895, 앞의 책, p. 440. Bökli-ätschü에 대해 Radloff는 같은 책 pp. 433~434에서 동쪽에 사는 퉁구스족의 지도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로 보았다.⁴⁵⁾

Bökli를 어느 민족·국가로 특정하려는 시도로는 일본인 학자의 1930년대 연구가 주목받을 만하다. 이 두 비문의 4·5행 'Bökli čölgl·čölgl'과 8행 'Bökli' 카간의 해석과 관련, 튀르크어에서 b와 m이 서로 바뀔 수 있는 현상,⁴⁶⁾ 그리고 비잔틴 역사학자 테오필락투스 시모카타테스(Θεοφύλακτος Σιμοκάτ(τ)ης)가 전하는 Moukri(μουκρί)⁴⁷⁾가 高句麗일 수 있겠다는 추측, 突厥과 고구려의 관

민족은 Bökli-에첼리르 엘(Bökli-äqylir äl)로 불리었고, 뒤에 Bökli 카간(Bökli/kağan, Bökli-Chan)으로 불리었으며, 이 동쪽에 사는 可汗을 중국이 그 예속하의 튀르크와 공동으로(die Chinesen diesen im Osten wohnenden Chan in Gemeinschaft mit den ihnen unterworfenen Türk) 전쟁에서 압도하였다(überzogen)라고 부연하였다. W. Bang은 äl을 budun과 달리 튀르크 민족이 아닌 타 민족, 즉 이방인으로 새긴 톰슨의 해석을 비판하였다. W. Bang, 1896, "Zu den Kök Türk-Inscripfen der Mongolei", *T'oung Pao* VII, pp. 334~335. 한편, G. Clauson은 äl/el/il과 budun의 관계에 대해 'el은 원래 독립적인 정치적 단위(a political unit organized and ruled by an independent ruler)이고 bodun은 그 백성(its people)'이라는 사전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Sir Gerard Clauson,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University Press, http://altaica.ru/LIBRARY/CLAUSON/Clauson_EDT.pdf, p. 121 참조.

45) W. Bang, 1896, 위의 글, p. 350

46) 현 중앙아시아어의 ming/mäng(첸), min/mä(나)이 옛 튀르크어 金石文 비문에 bäng, bän으로 쓰였는데 鼻音 n의 영향으로 b가 m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Talat Tekin, 이용성 옮김, 2012, 앞의 책, 143쪽 참조.

47) Theophylact Simocatta의 기술. Les Avars ayant été vaincus, certains d'entre eux vinrent se réfugier auprès de ceux qui occupaient Taugast(주 T-αυγάστ). Taugast est une ville illustre qui est à quinze cents milles de ceux qu'on appelle les Turcs... D'autre des Avars, tombant dans un sort plus misérable à la suite de leur défaite, vinrent se joindre à ceux qui on appelle Moukri(μουκρί): ce peuple se trouve très voisin des Taugast; leur ardeur aux combats est fort grande tant à cause de leur pratique quotidienne des exercices du corps qu'à cause de l'endurcissement de leur âme aux dangers. (아바르족이 패배하자 그 일부는 Taugast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하였다. 다른 아바르족은 패배 후 비참한 운명에 빠지자 Moukri라고 부르는 이들에 합류하러 갔다. 이 민족은 Taugast에 인접해 있는데 그들의 전투의 열의가 매우 크데 이는 위험에 처했을 때 영혼의 강인함뿐 아니라 체력 단련의 일상 때문이다.) E. Chavannes, 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cs] occidentaux* (이하 *Documents*), pp. 246~247에서 인용.

계 및 고구려의 境域⁴⁸⁾ 등을 살펴본 후, 이와사 세이이치로[岩佐精一郎]는 그의 遺稿에서 bökli의 b를 m으로 바꾸어 bök(kü)li > mök(kü)li로 貂句麗 ‘貂족의 句麗’로 읽을 수 있다⁴⁹⁾고 Bökli 단어 하나만으로 고구려와 연계시켰다. 그의 1930년대 연구를 우리 학자들⁵⁰⁾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⁵¹⁾로 보인다.

비잔틴 역사가 테오피락투스 시모카타테스의 역사서에 나오는 突厥에 패한 Avar(유연의 잔여무리) 중 일부가 타브가치(拓拔, 魏) 근처에 살고 있던 호전적인 민족 ‘Murki’에게로 도망갔다는 기술⁵²⁾의 Mukri를 헝가리인 Karoly Czeglédy는 고구려로 여겼지만⁵³⁾ Edouard Chavannes는 이를 勿吉⁵⁴⁾로 보았

48) 岩佐精一郎은 池内宏, 1934, 『滿鮮上世史』의 고구려 境域이 倭佳江에서 南滿洲에 이르렀다는 당시 발표 등을 인용하여 고구려의 지리적 광역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田中俊明, 徐吉洙 옮김,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北方境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 時代」, 『高句麗研究』 第2輯(1996. 12), 507~528쪽. 고구려의 최대 판도는 長壽王 시대에 北方境域은 서쪽으로는 遼河, 동북쪽으로는 吉林省의 農安·吉林에서 琿春을 잇는 선으로 둘러싼 범위라고 보았다.

49) 岩佐精一郎, 1933, 「古突厥碑文のbökli及びPar Purumに就いて」, 『岩佐精一郎遺稿』(1936), 62~69쪽, <http://homepage2.nifty.com/i-love-turk/reference/bokli.htm>에서 다운로드 가능

50) 우덕찬, 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237~252쪽

51) 터키 학자 Mehmet Ölmöz는 Kore halkı(한국)로 번역하였고,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웹사이트의 영문 번역은 “Böküli: Čölüg - The Korean Peninsula North State (Pekche, Kogurio)”로 주를 붙이고 있다. *TURK BITIG*, <http://irq.kaznpu.kz/>는 “Bokuli Coluq (Korea)”라고 번역하고 있다.

52) Hans Wilhelm Haussig, 1953, *Theophylakt's Exkurs über die skythischen Völker*, pp. 275~462에 도어 번역, 동 289쪽 참조.

53) 우덕찬, 2003, 앞의 글, 237~252쪽에서 재인용. Karoly Czeglédy는 스텝민족 연구로 유명하다. 한편, E. Chavannes, 1903, *Documents*, p. 230에서 이를 勿吉로 보았고 후의 靺鞨(Mo-ho)과 관련시켰다. 같은 책, 247쪽에서 샤반느는 les Moukri(Moukri)는 Taugast(Ταυγᾶστ) 인근의 민족으로 尙武적인 성격으로 위험에 처해서도 대담한 민족으로 기술했다. Tabghach(拓跋)에게 점령된 북중국의 튀르크인들은 그 종족의 이름을 따서 그 지방을 Tabghach라고 불렀고, 비잔티움의 역사가는 그리스어 Ταυγᾶστ(Taugast)로 불렀다. Thomsen,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p. 26; J. Marquart, 1898, “Historische Glossen zu den alttürkischen Inschriften,”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WZKM)* XII, pp. 157~200에서 이를 Tartar로 이해했다.

고 勿吉을 靺鞨에 연관시켰다.⁵⁵⁾

이러한 해석에서 보다 발전된 입장이 티베트어 문서 인용에서 나왔다. 敦煌에서 Pelliot가 발견하였고 프랑스로 가져간 문서 중의 하나로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분류 1283 문서(일명 Pelliot의 티베트 문서, Pelliot tibétan 1283)에 대한 펠리오의 제자 Bacot의 연구 및 이후 G. Clauson, L. Ligeti,⁵⁶⁾ Moriyasu Takao(森安孝夫) 등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Dru-gu(突厥)의 Bug-chor(默啜可汗의 12部)의 서방에 티베트인들이 He라고 중국인들이 He-tse(奚)라고 하는 Drug인 Dad-pyi라고 부르는 종족이 있고 그(奚) 동방을 보면 Dru-gu인이 Mug-lig로, 중국인이 Ke'u-li로 부르는 나라가 있다”는 내용인데,⁵⁷⁾ 이와사 세이이치로의 mökli → bökli = 고구려에 동조한다.⁵⁸⁾ 이러한

54) E. Chavannes, 1903, *Documents*, p. 230 · 247에서 *μουκρι*를 勿吉로 보았고 靺鞨과 연계시켰다. 샤반느는 Mou-ki est nord du Koa-Keou-li, on l'appelle aussi Mou-hou (Mou-ki는 Mou-hou라고도 부르는 Koa-Keou-li의 북쪽이다)라며 『北史』의 '勿吉國在高句麗北一日靺鞨'에 주목했다.

55) 白鳥庫吉은 勿吉, 靺鞨의 어원에 대해 黑龍江 유역 종족들의 언어에 黑龍江이 Mngu라고 하며 江의 뜻이며 원래 퉁구스족의 말에 n 같은 비음을 생략하기 때문에 시대나 지역에 따라 이것을 Magu로 소리 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靺鞨 (Mat-hat), 勿吉 (Mat-kat)이 실제로는 Magu를 음譯하였다면서, 勿吉과 靺鞨족 이름은 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그의 제자에 의해 알려진다. 鳥山喜一, 1915, 『渤海史考』, 奉公叢書, 11쪽. 한규철, 1994, 『발해의 대외관계사』, 42쪽에서 인용.

56) Jacques Bacot, 1959, “Reconnaissance en Haute Asie Septentrionale par cinq envoyés ouïgours au VIII. siècle,” *Journal Asiatique*, p. 152; G. Clauson, 1957, “À propos du Manuscrit Pelliot Tibétan 1283,” *Journal Asiatique* p. 12; G. Clauson, 196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http://altaica.ru/LIBRARY/CLAUSON/Clauson_EDT.pdf. 헝가리의 Lajos Ligeti(Louis Ligeti, 일명 李蓋提)는 몽골·터키·만주·퉁구스·티베트어를 연구한 튀르크·중국 전문가로 *The Collection of Mongolian Written Monuments*의 편집인이다.

57) 森安孝夫는 甘肅省에서 투르판에 이르는 지역의 어느 곳에 非티베트系 Hor국이 740년대 후반 이후 시기에 그 북방에 있던 나라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두었고, 8세기 말 吐蕃이 Hor국을併呑하고 북방으로 팽창할 때 북방제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Hor國人 기록과 그 밖의 자료와 轉聞을 참조해 티베트어로 작성한 문서라고 밝혔다. 森安孝夫, 1977, 「チベット語史料中に現れる北方民族-DRU-GUとHOR」,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14, 3쪽. 唐의 禮言의 『梵語雜名』에 梵語(산스크리트어)로 Mukuri, 한자로 畝俱理로 새겨진 것이 高麗며, Pelliot는

주장에 대해 渤海와 연계시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⁵⁹⁾

옛 튀르크어 비문에 새겨진 ‘슬기로운’ 조상 시대, 옛 Bumīn과 Istāmi 可汗의 사망 때에 조문 올 가능성, 突厥의 고구려와의 갈등 가능 설,⁶⁰⁾ 啓民 카간 시절 고구려 사절의 튀르크 카간 장막 방문⁶¹⁾ 등 직접 교류 가능성, 고구려의 境域 연구 등에 기초하여, Bökli를 고구려와 연계시킨 일본 학자 이와사 세이 이치로의 1933년 연구 결과⁶²⁾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관련된 기술이라면 우리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Marco Polo 여행기의 주석에서 Cauli는 Kao-li(高麗)이고 Corea의 옛 이름이 Kao-koi-li로 보았다. Mukuri, 敝俱理가 티베트어로 Mug-lig로 나온다고 한다. 노태돈, 1989, 『高句麗·渤海人和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23, 236~237쪽

- 58) 소그드어 연구자 Henning과 峇仲勉 등은 고구려의 莫離支가 莫離인을 통치하는 왕 (옛 튀르크어의 支는 선비족의 眞이나 몽고족의 赤과 마찬가지로의 뜻)의 의미라고 莫離를 고구려와 연결시키는 끈으로 보았다. 또 m과 b가 서로 바뀌면서 Bökli의 b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梵語雜名』에 高麗를 敝俱理로서 ‘Mukuri’로 표시한 예, 敦煌에서 펠리오가 발견해 파리로 가져간 위에 언급한 티베트어 문서에 ‘Mug-lig’로 표시한 것이 高麗고, Bökli가 고구려라는 입장이다. 노태돈, 1989, 위의 글, 236~237쪽; 우덕찬, 2003, 앞의 글, 237~252쪽
- 59) 한규철, 1994, 『발해국의 대외관계』 등에서 9세기 서역에서 高麗를 ‘Moukli’라 하였고 시기적으로 그때 高麗는 高句麗일 수가 없고, 渤海라는 입장이다.
- 60) 新城과 白巖城 攻擊 관련 『三國史記』高句麗 本紀, “突厥來圍新城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 領兵一萬拒克之 殺獲一千餘級.”
- 61) 啓民可汗 帳幕에 高句麗 密使 관련 『三國史記』高句麗 本紀, “揚帝之幸啓民帳也 我使者在啓民所 啓民不敢隱 與之見帝”, 『冊府元龜』, “揚帝大業三年親巡雲中八月幸啓民可汗所居先是高麗私通使啓民所啓民推誠奉國不敢隱境外之交是日將高麗使人見敕令牛弘宣旨諭之日朕以啓民誠心奉國故親至其所明年當往涿郡爾還口語高麗王知宜早來朝勿自疑懼存宥之禮當同於啓民如, 或不朝必將啓民巡行彼土使人甚懼.”
- 62) 岩佐精一郎, 1936, 앞의 책

IV. Bök(kö)li로 읽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이와사 세이이치로가 살펴본 당시 역사적 상황 측면 못지않게, 이 두 비에 새겨진 옛 튀르크어 비문의 'Bökli'를 고구려로 특정하는 해석의 타당성을 균형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튀르크 조상 Bumïn과 Istämi 카간의 조문에 온 것으로 거명되고 있는 타브가즈(拓拔) 즉, 중국에 주목해 살펴보자. 突厥제국을 창건한 이들 조상의 시대에 타브가즈로부터 조문을 왔다고 새겨 있는 것은, 五胡16國 - 남북조로 이어졌고 북중국을 타브가즈가 지배하고 있었고 국가 이름이 많이 바뀌어 이를 몽퉁그려 '타브가즈'로 새겼다고 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작 중국 전체가 隋로 통일되고 唐에 이른 때의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타브가즈' 카간에 북중하고 '타브가즈' 카간에 봉사했다고 '타브가즈'로 비문에 새겼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마저 唐 등 국명을 쓰지 않고 타브가즈로 몽퉁그렸다.⁶³⁾

켈 테긴 비와 빌게 카간 비의 동쪽 면 8행의 옛 튀르크어 비문에 唐 황제에 봉사하여 'Bökli 카간에까지' 원정 간 대상을 고구려로 보는 것은 당시 唐이 고구려를 치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이들 비의 동쪽 면 4행이나 5행의 튀르크 조상 Bumïn과 Istämi 카간(可汗)의 사망에 조문 온 'Bökli'가 당시 突厥 - 고구려 간의 교류뿐 아니라 갈등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꼭 고구려만을 특정한 것인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이들 비문을 새긴 8세기 중엽에 고구려는 멸망한 지 이미 2세대가 훌쩍 지난 때이고 그때에 'Bökli'로 두 번이나 비문에 새겼을 때 과거 '고구려' (岩佐精一郎의 貉子)였겠냐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튀르크 후예들에게 역사 교훈을 남기려고 했던 것도 비의 취지 중의 하나였다고 보인다. 비문은 6세기 중

63) 이는 왕조 하나하나의 바뀔에 굳이 구애되지 않고 몽퉁그려 파악한 옛 튀르크인들의 성향을 반영하거나 옛 이름으로 오래 쓰는 일반적인 경향(秦 이래 중국을 China로 범칭 등)의 타브가즈(拓拔)인지 분명치는 않다.

엽 조상의 시대에 멀리서 조문을 온 것, 또 7세기 중엽 唐의 지배 아래 突厥이 멀리 동쪽으로 'Bökli 카간에까지' 원정을 간 것 등 突厥 역사의 榮辱을 새겼다. 과연 8세기 중엽 그 비문을 새겼을 때, 모두 다 '고구려'를 특정하고 새겼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突厥제국을 지배했고 突厥인들에 잘 알려졌던 중국조차 '타브가츠'로 뭉뚱그려 기술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특정 국명으로 꼭 새겼겠냐는 의문이다.

'Bökli'가 '貂구려', 고구려라는 국명을 특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 이들 비문의 4행·5행의 'Bökli čölg'과 8행의 'Bökli 카간(可汗)의 'Bökli'가 다 고구려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면서 대상은 달라졌어도 'Bökli'로 뭉뚱그려 새겨진 한반도 국가·민족의 통칭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쉘 테긴 비와 빌게 카간의 비, 730년대 새겨진 옛 튀르크어의 두 비문의 4행과 8행의 'Bökli'가 고구려라는 국명을 특정했을 가능성 못지않게, 한반도 국가·민족의 통칭인 'Bökli'였을 가능성이거나 한반도 국가·민족의 옛 이름이 Bökli와 비슷한 발음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나 句麗의 한자음에 가까운 Kao-(ko)li가 아닌 'Bökli'로 새겨져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일본 학자 이와사 세이이치로의 '貂句麗'로 句麗라는 국명 앞에 민족 이름 貂를 새겨넣은 것이라는 설명은 Bökli가 옛 튀르크어로는 설명이 어렵고 따라서 고유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가정과 당시 역사적 정황과 고구려의 영역을 살펴본 것은 훌륭한 출발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사 세이이치로 자신이 밝혔듯이 옛 튀르크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추론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의 설에 굳이 얽매이기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설명 가능성을 옛 튀르크어와 우리 옛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튀르크어와 우리말이 같은 표음문자라는 점이라는 일반적인 관찰을 떠나, 고구려 밀사의 啓民 가간 牙帳 방문, 그것도 중국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진 점에서 고구려와 옛 튀르크가 직접 통했고 Bökli의 실마리를 꼭 한자어보다는 우리 옛말과도 연계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表意문자인 한자와는 달리 발음되는 대로 적는 옛 튀르크어라서 그 비문에도 'Bökli'라고 金石文에 새겨

진 것이고 그렇게 새긴 실마리를 옛 튀르크어와 우리 옛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사 세이치로의 貂句麗 mök(kü)li > bök(kü)li로 바뀌고 Bökli로 새겨졌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들고,⁶⁴⁾ b가 오히려 m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⁶⁵⁾ 하는 생각마저 들며 다음과 같은 언어적 측면에서 질문이 뒤따른다. '뵁'이 맥(貂)의 옛 튀르크어 자모로 굳이 경구개자음, 즉 앞에서 발성되는 자음 b와 k를 쓰게 된 것인지, 왜 연구개자음, 또는 후두 즉 뒤에서 발성되는 자음 b와 k를 쓰지 않은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⁶⁶⁾ 그리고 m과 b가 바뀔 수는 있다고 하지

64) Talat Tekin, 이용성 옮김, 2012, 앞의 책, 145쪽에서 兩唇비음 m이 b와 교체되는 것은 땅 이름의 딱 한 가지 경우만 있다고 지적하면서 V. Thomsen, 1896, 앞의 책, p. 196의 tarban-ka ('타르만에'의 뜻)와 tarman-ka를 들었다. Thomsen이 '키르기즈의 산' 지명으로 해제한 중국 문헌의 T'an-man (貪漫山)의 경우에만 兩唇비음 m이 b로 바뀐 예를 들었다. n 鼻音 영향이 없는 k로 끝난 뵁의 b가 m으로 바뀔 이유는 분명치 않다. 또 라들로프와 톰슨의 옛 튀르크어 자모표에서 b는 (경)구개음 ɣ와 후두음 ʃ(톰슨의 연구개음 velair ʃ)으로 구분되나 양순비음 m은 그런 구분이 없이 중립적이다. 貂구려의 m 양순비음은 중립적인 자음인데 이것이 b로 바뀌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중 다른 b로 새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독 경구개음 b ɣ로만 바뀐 까닭도 밝혀야 한다.

65) 岩佐精一郎은 m → b을 貂의 m이 Bökli의 b로 바뀐 것에 적용하는데, 과연 b → m 인지, m ← b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실제 原터키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중앙아시아어의 키르기즈어에서 현재 miŋ/män으로 쓰고 있어 옛 비문의 biŋ/bän → miŋ/män으로, 즉 m ← b가 아닌지, mäniŋ → bäniŋ 이 아니라 mäniŋ ← bäniŋ 거꾸로 방향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岩佐精一郎 주장대로 貂句麗의 m이 Bökli의 b로 비음 없이 k 같은 자음이 뒤따르는 경우에도 m이 b로 바뀐 다른 예를 들지 못하고 있다. 또 1933년의 岩佐精一郎 글에서 위에 상술한 톰슨의 1922년 연구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 비음 [n]이 없는 상태에서 b-m 교체가 극히 예외적으로 딱 한 경우에만 있다는 점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채 나온 주장 같아 보인다. 튀르크-몽골어 비교연구로 유명한 G. Clauson, 1962, *Studies in Turkic and Mongolic Linguistics*, p. 137은 비음을 포함한 모든 단어에서 초성 b-가 m-으로 바뀌었음을 특기하였다. 또 René Giraud, 1960, *L'Empire des Turcs Célestes les Règnes d'Elterich Qapghan et Bilge(680-734)*, p. 16도 突厥 비의 옛 튀르크어 비문 비교에서 시대가 앞선 비문에서 bän으로, 시대가 뒤에 쓰인 비에서 män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män ('나'), m(a)ŋa가 730년대의 켈테긴碑와 빌게 카간(汗)碑보다 앞서 720년대에 새겨졌다는 톰옥록碑에는 bän으로 새겨졌다. 필자는 오히려 b → m이라는 주장이다.

66) 물론 '뵁'에 전설모음인 ö가 들어 있어 경구개 즉 앞에서 발음되는 자음을 쓴 것이

만 전후 발음에서 중립적인 자음 m이 훌륭히 중립자음 ö와도 어울릴 수 있는데 왜 앞에서 발음되는 경구개자음 b로 바뀌어야 했는지,⁶⁷⁾ 이런 문제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문제들에 대한 규명, 옛 튀르크어 자모의 음운론적 규명,⁶⁸⁾ 옛 튀르크어 자음의 10개가 앞에서 발음되는 자음과 뒤에서 발음되는 자음으로 쌍을 이루며 구분되는 특성에 관한 문제 규명에 언어학계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이와사 세이이치로의 貊 Mök → Bök의 추론, 즉 'Bökli'의 'Bök'이 貊이 貊의 옛 튀르크어 音寫과정에서 m → b 즉, '貊'이 'Bök'으로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① 'Bökli'의 'Bök'이 튀르크어 자체의 강한, 힘센의 뜻을 가진 'Bök'⁶⁹⁾과 고구려의 Kao-(ko)li가 합쳐진 'Bök(kö)li'이거나 ② 'Bök'이 오히려 鬪 또는 鬪이라는 한반도어의 튀르크어 음사가 'Bök'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전자의 가능성과 관련, 고구려는 중국에서 下句麗로 卑稱한 경우에서 보듯이 高를 따로 떼어낼 수 있고 이를 힘센, 위대한(stark, mächtig), 높고

자연스럽다는 설명은 할 수 있겠으나, 바로 뒤의 'cölgil' 경우에 전·후 발음에서 중립적인 자음 č가 전설모음 ö와 함께 경구개 자음 g, l과 함께 쓰이고 있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 67) V. Thomsen, 1922, "L'Alphabet Runiforme Turc," *Samlede Afhandlinger* III, pp. 27~82 특히 pp. 51~52에서 연구개 b 𐰇와 경구개 b 𐰈를 설명하면서 b가 m으로 바뀌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뒤에서 발음되는 𐰇의 bunda ('여기' 뜻의 장소 부사)의 4격 bunny, bu ('여기'의 뜻), bu 𐰇 ('아름'의 뜻)이 위구르계 튀르크어에서는 munda, muni, bu, mung으로, 그리고 오스만계 튀르크어에서는 bunda, bunu, bu, bung으로 나오고 있으며, 경구개 b 𐰈의 경우 bin(i)p (말에 '타는') bi 𐰇 ('천'), b(ä) 𐰇 gü('영원한')가 위구르계 튀르크어에서는 min(i)p, mi 𐰇, mä 𐰇 gü로, 그리고 오스만계 튀르크어에서는 bin(i)p, bi 𐰇로 그리고 알타이와 몽골어에서 m(ä) 𐰇 g로 나오나, 오스만계 튀르크어에서는 bän, ba 𐰇 a로 나온다. 이 모든 예에서 비음 n과 함께 나음을 알 수 있다.
- 68) 톰슨의 해제 이전 O. Donner, 1894, "Wörterverzeichnis zu den Inscriptions de l'Énissimei," *MSFOe* IV, pp. 1~67. p. 5에서 옛 튀르크어 글자 모양이 다양하며 오르혼 글자 경구개 b (𐰈)가 예니세이 글자 m 𐰇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𐰈에 날개가 달린 모습 (즉, 𐰇)이 좌로 90도 회전)으로 나타난다.
- 69) W. Radloff, 1895, *Die Al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p. 140. "stark, mächtig."

고상한 뜻을 가진 'Bök(ö)'라는 튀르크어로 새긴 것이고 Kao-(ko)li가 모음 조화를 하면서 합쳐진 'Bök(kö)li'인지는 앞으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⁷⁰⁾

후자의 가능성과 관련, 양주동은 그의 『古歌研究』에서 夫餘, 貊, 發, 白은 모두 '블' 또는 '뽉'의 借字라는 설을 제시⁷¹⁾했는데, 'Bökli'의 'Bök'이 貊의 옛 튀르크어 음寫과정에서 m → b 즉, '貊'이 'Bök'으로 바뀐 것보다는 원래 '뽉'의 옛 튀르크어 음사였을 가능성이 훨씬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Bökli'는 한반도인의 옛 이름의 하나⁷²⁾로 옛 튀르크어에서 그렇게 새겨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고대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뽉’을 ‘발’ 또는 ‘박’으로 발음하였는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發’, ‘渤’, ‘勃’, ‘발’, ‘博’, ‘薄’ 등으로 적었다⁷³⁾고 한다. 浬, 浬, 浬 내지 박이 'Bökli'로 새겨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70) 貊을 浬, 浬, 浬 발음으로 보아 같은 부족명에 대한 漢字異寫라고 보는 견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3 (총설, 한국민족) 1988, 金廷鶴 집필 III. 「中國文獻에 나타난 東夷族」 특히 127쪽도 있고, 貊의 m이 Bök의 b로 바뀌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옛 터키어 Bökö (‘높거나 고상한’)의 튀르크어 'Bök'이 高句麗의 高에 해당하거나, 아니라면 한반도어의 '블', '뽉'의 옛 튀르크어로의 음사 가능성에 필자는 주목한다. 浬가 한자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면 貊의 m음이 b로 바뀐 Bökli 보다는, 貊 좌측 '발 없는 벌레 多'변을 浬 百(즈문)이거나 佰(말)의 튀르크어 음사 'Bök'이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본다. '블', '뽉'의 옛 튀르크어로의 음사, 'Bök'라는 튀르크어 표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어학계의 관심과 규명이 필요하다.

71) 梁柱東, 1977, 『古歌研究』增訂版, 일조각, 388쪽. 또한 “濊貊의 濊는 漢書 주에 濊音穢字 或 蕞, 其音同이라 된 것으로 古來에 음은 예로 읽었으나 이는 오류일 뿐 원음은 식이고 濊, 穢, 蕞의 偏旁은 隨意添加한 것이며 原音字는 歲(古音 새) 뿐이고 濊와 동일한 식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徐 또한 東의 義임은 후한서에 東夷·徐夷라고 混稱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같은 책, 389쪽에 특히 “濊가 東의 義인 식의 借字임을 한국의 지명에서 볼 수 있다”고 예시하면서, “濊貊, 鐵國, 東原京은 모두 식의 借字이니 濊 고음 식 鐵의 訓 食, 東의 訓 식이므로 서로 상통하는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같은 책, 390쪽

72) 고구려 외에 渤海(698~926)를 포함한 한반도인을 상정해볼 수 있겠다. 唐과 신라 연합군에게 망한 고구려를 계승하여 고구려 유민이 건국하여 228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 및 연해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존속하였고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넓은 지역을 장악하였던 관계로 突厥과의 관계에 대해 특히 始祖 大神榮(698~718)의 건국과 뒤를 이은 武王 大武藝(718~737, 연호 仁安) 시대에 주목해 연구가 필요하다.

73) 중국 사서에 나오는 ‘發’·‘渤’·‘勃’·‘博’·‘薄’ 지역은 환족(桓族: 환한 하늘나라에

본다. 또한 渤海의 어원이 한반도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⁷⁴⁾ 貂海가 渤海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고⁷⁵⁾ 渤海와 靺鞨을 연계시키기도 하나,⁷⁶⁾ 渤海의 渤도 불 내지 𪛗과 관련되며 渤海에서는 ‘불’, ‘발’ 음이, ‘Bökli’

서 내려온 무리)이 살았다는 지역이라고 한다. 나라 이름 발해는 고대어 ‘발(발다는 뜻의 태양)과 ‘해(태양)가 모두 해님(太陽)을 뜻하므로, 발해는 해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辰國)라는 뜻이라는 주장이나, 실제로 ‘辰國’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조철부 저, 방학봉 역, 1993, 『진국에 대한 고증』, 『발해서 연구』 2 (연변대학·서울대학교), 121~128쪽

- 74) ‘渤海’ 국호의 어원 관련 당나라의 군명 渤海郡에서 나왔다는 주장(金毓黻, 박시형), 唐代에는 渤海郡이 없어 ‘大海’의 뜻을 갖는 ‘渤海’라는 주장(趙評春), ‘渤海’를 원래 삼국 이전에도 있던 우리나라의 고장 이름이었던 주장(류렬)으로 갈리는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突厥語와 靺鞨語의 共通祖語를 살피면서 靺鞨과 渤海는 同源語詞로부터의 분화형으로 靺鞨은 종족명이고 渤海는 후에 國名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주장(李藤龍)도 있다. 金毓黻, 1971, 『東北通史』, 國立東北大學研究室叢書, 臺北: 樂天出版社, 동pdf 파일 <http://ishare.iask.sina.com.cn/f/37510801.html> 262~263쪽; 趙評春, 1987, 『渤海國名源考辨』, 樂天出版社, 141쪽; 李藤龍, 1990, 「廣開土王碑文에 쓰인 ‘烟’字의 語彙의 意味」,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40쪽; 류렬, 1990, 『조선말 역사』 1, 사회과학출판사, 112~113쪽
- 75) 渤海의 어원에 관한 견해 중 渤海가 漢의 郡名인 ‘渤海郡’에서 유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발해어가 濊·貂·韓語의 후계인 高句麗·百濟·新羅語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渤海의 국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渤海’의 ‘渤’이 ‘貂’과 통하며, 古朝鮮을 중심으로 쓰여졌던 ‘發朝鮮’의 ‘發’이 ‘貂’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渤海’의 ‘渤(發)’ 역시 ‘貂’에서 나왔을 개연성도 있고, ‘貂海’가 ‘渤海’가 되었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金貞培 등 우리 학자들은 發朝鮮의 ‘發’을 貂의 異稱으로 보고 있다. 金貞培, 1973, 「朝鮮·肅慎의 民族의 性格」,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76~77쪽; 韓圭哲, 2007, 「渤海人이 된 高句麗靺鞨」, 『高句麗研究』 26 (2007.3), 9~28·21~22쪽
- 76) 靺鞨과 渤海의 언어적 유사성을 주장하는 견해 金毓黻, 1999, 『東北通史』, 동pdf 파일 <http://ishare.iask.sina.com.cn/f/37510801.html>, 262~263쪽 및 大祚榮의 粟末靺鞨 출신이라는 전제하에 언어학적 측면에서 추정한 ① 渤과 靺이 同部字이고 海와 靺이 同聲字이므로 唐은 靺鞨과 발음이 가까운 渤海를 취하여 渤海郡王에 封하였다는 것, ② 靺鞨은 勿吉의 譯音인데다 唐이 邊方 오랑캐에게 붙인 명칭이므로, 大祚榮은 靺鞨을 雅化하여 渤海를 취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李藤龍, 1990, 「廣開土王碑文」, 『碧史 李佑成교수 정년퇴직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40쪽. 한편, 『三國遺事』 靺鞨渤海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一然의 주석 “渤海는 곧 靺鞨의 別種이지만, 開음이 같지 않을 뿐이다”에 대해 開음을 音韻學 용어인 開口呼와 合口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王承禮·劉振華, 1991, 『渤海的歷史

경우에는 ‘복’, ‘박’ 음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볼 만하다고 본다.

Bökli의 뒷부분 köli가 (高)句麗의 Kao-li일 가능성과 함께 句麗, 溝婁(kuru)의 異寫로 본다면 溝婁의 上古代 발음 골(Kol)과의 연관 주장⁷⁷⁾에서 Bökli의 뒷부분의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엿보이고, 골(Kol) 음韻을 가지는 溝婁·溝樓·溝婁가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의 원칭⁷⁸⁾이고, 고구려 한자 국명의 원래 발음이 ‘골’을 포함했을 가능성⁷⁹⁾은 5부로 나뉘고 성이 176개인 고구려는 城 ‘골’의 나라⁸⁰⁾로 불렸을 개연성에 주목된다.

이런 가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골’ (한자로는 高麗, 句麗, 溝婁로 표기)이 옛 튀르크어 오르혼 글자로 음사된 가능성을 살펴본다. Bökli로 새겨 있는데 ㅁ모음은 ö 와 ü로 모두 읽힐 수 있고 b와 k 사이에는 새겨 있고, k와 l 사이에 ㅁ모음은 새겨 있지 않는데 동일 모음이 생략된 것이라면, bök(kö)li ‘뵝클리’ 또는 бүк(kü)li ‘뵝클리로 모두 발음이 가능하다.⁸¹⁾ Bökli의 뒷부분 ‘köli’ 또는 ‘küli’를 따로 떼내어보면, ‘골’ (句麗, 高麗, 溝婁)의 옛 튀르크어 음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구려의 원칭은 곧 ‘골’이며 句麗가 당초 山谷地帶에 都邑을 이룩한 사실과 일치한다는 양주동의 주장,⁸²⁾ 高句麗

與文化』, 延邊人民出版社, 34쪽. 중국 四呼 중 開口呼 (kāikǒu hū “open mouth”)와 合口呼 (hékǒu hū “closed mouth”, finals beginning with [u])에 대해서는 Jerry Norman, 1988, *Chine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42

77) 郭錫良, 1986, 『漢字古音手冊』; 王力, 2003, 『漢語音韻』

78) 『三國志』·『魏志』高句麗傳, “溝婁者, 句麗名城也.”; 『北史』高麗傳, “溝樓者, 句麗城名也.”

79) 溝婁亦作“溝樓”. 亦作“溝婁”. 古代高句麗國的城名. 黃庭堅, 『次韻錢穆父贈松扇』, “可憐速度幘溝婁”. 宋任淵注, “今胡猶名此城爲幘溝婁. 溝婁者, 句麗名城.”

80) 『舊唐書』卷199上, “高麗國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81) 끝 모음 i 가 ö 나 ü 어느 모음과 더 잘 어울리는지 판단하기에 따르며, 터키계 학자는 종종 뵝클리로 새겼다. H. N. Orkun은 бүкли çöliğ il로, Talat Tekin은 Bükli Çöllüg il 로 새겼다. 일본 학자 岩佐精一郎은 mök(kü)li > bök(kü)li 로 읽고 또 k(k)로 k 음을 하나 더 붙였다.

82) 梁柱東, 1977, 앞의 책, 798쪽

의 句麗는 ‘城邑’, ‘國邑’을 의미하는 忽(khor), 骨(kor), 溝漚(kuru)와 같은 말의 異寫로 본래는 洞谷(골)을 뜻하는 고구려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이병도의 주장,⁸³⁾ 그리고 城의 뜻을 가진 忽 ‘xol’이 만주어 ‘holo’ 골과 관련된다는 이기문의 주장⁸⁴⁾도 주목된다.

‘Bök’와 ‘골’ (중국 사서에 高麗, 句麗, 洵漚로 음사)이 합쳐지면서 ‘Bök’의 ㄷ의 영향과 생략된 모음을 옛 튀르크어 모음동화⁸⁵⁾에 따라 재생해 ‘Bök(kö)l’

- 83) 고구려의 高는 우리말에 수리·솔·숫 등 高·上·首位를 뜻하며, 上忽을 車忽 수릿골이라 하는 것에서 고구려는 바로 ‘수릿골’·‘솔골’의 漢譯임에 틀림이 없고, 수릿골(高句麗)은 본래 首邑(都)·上邑(都)의 뜻으로 중심 部落·중심 都市를 일컫는 보통명사라는 주장이 있다. 李丙燾, 진단학회 편, 1959, 『한국사』 고대편, 228쪽. 또 『後魏書』 高句麗傳에 주몽이 紇升骨城에 살면서 국호를 高句麗라고 하였다는 紇升骨은 升紇骨(솔골)의 顛倒이며 女真語로 고려를 Sokuo, 만주어로 Solho, 몽골어로 우리나라를 Solkho, Solongos, Solongara 하는 것은 모두 高句麗(솔+골)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濊貊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中心地·首府(서울)를 ‘솔+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흥 高句麗도 부족연맹의 중심지인 首府(솔+골)에서 일어난 그 호칭을 그대로 국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이다. 한편, 필자는 貊은 佰이나 白 또는 百을 근간으로 漢인들이 動物변을 붙인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는 漢인이 고구려에 動物변을 붙여 高句麗로 또는 下句麗로 卑稱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李丙燾, 진단학회 편, 1959, 위의 책, 228~229쪽; 이병도, 1956, 「高句麗國號考」, 서울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제3집 (1956.4) 참조.
- 84) 이기문, 1991, 『국어 語彙史 연구』, 동아출판사, 318~319쪽. 아울러 325쪽에 고구려어의 pak- 伯, 튀르크어 bak- ‘schauen’ (Radloff, 1911, *Versuch eines Wörterbuches der Türk-Dialekt*, p. 1435)의 비교도 주목된다. 또 104쪽에 浬(明)과 浬(赤)의 관계 (이기문, 1954, 「語辭의 分化에 나타나는 Ablaut적 현상에 대하여」, 『최현배 선생 환갑기념 논문집』) 및 86~87쪽에 ‘ᄃᆞᆫ’의 ‘ᆞᆫ’은 ‘서ᆞᆫ’의 ‘ᆞᆫ’과 함께 고대 신라 지명에 보이는 火, 백제 지명 표기에 보이는 夫里의 계통을 잇는 것으로 村落(居住集團)을 가리켰던 것으로 믿는다는 주장에 관심이 쏠린다. 李崇寧, 1954, 「脣音攷」, 서울대학교 논문집(李崇寧, 1988, 『國語學選集』, 민公社)
- 85) 필자는 중앙아시아의 산악국가 키르기즈어는 마치 스위스어가 옛 독일어 연구에 시사점을 주는 것처럼 옛 튀르크어 연구에 시사점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키르기즈어의 엄격한 모음조화에 주목한다. 토씨조차도 엄격하게 모음조화에 따른다. 쿡구르에바, 우미경 공저(연도 무), 『키르기즈 문법』, 11쪽에 a아 ɪ으, o오 y우, ə(ə)에 이이, ɵ이 ɣ위가 늘 모음조화의 짝을 이룬다. 3인칭 명사에 붙는 토씨도 실례를 들면 극장 тэатр+ы, 고기 эт+и, 카페 кафэ+си, 거리 이름 көчө+сү로 모음조화가 엄격하다. 한편, 突厥 비문의 모음조화는 i모음은 e뿐 아니라 ö나 ü와도 어울려 키르기즈어와는 다른 모음조화를 보이고 있다.

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끝에 *i*가 붙어 Bök(kö)li가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차례다. 옛 튀르크어에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찰도 있지만⁸⁶⁾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句麗 자체에 *i* 음이 포함된 것⁸⁷⁾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옛 튀르크어의 독특한 3인칭 토씨 *i*·*i*가 자음 뒤에 붙는 현상,⁸⁸⁾ 형용사에 이들 토씨가 붙어 명사화되는 현상⁸⁹⁾도 한반도 국가·민족을 지칭하는 ‘북·북 골’을 옛 튀르크인들은 ‘Bök(kö)l 빅켄’로 음사하고 이에 옛 튀르크어 토씨 *i*·*i*를 붙여 Bökli로 새겨넣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어학계에서도 연구할 대상이다.

옛 튀르크어 비문에 고구려를 특정하는 ‘Bök(kö)l 인지 아니면 Bökö’ (강력한) 같은 옛 튀르크어에서 나온 Bök ‘빅·빅+句麗(구리)’의 Bökli인지는 더 살펴 봐야 하겠지만, 옛 튀르크 비문에 Bökli를 새겨넣으면서 옛 튀르크인은 ‘빅켄·클리’⁹⁰⁾라는 음을 생각하며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86) 톰슨은 옛 튀르크어 단어가 *i*나 *l*로 끝나는 빈도가 가장 많다는 통계를 튀르크 알파벳 해독에 심본 활용하였다. 톰슨이 해제한 것처럼 ‘힘센’의 형용사로 빅켄리를 해제하는 데에 대해 터키 학자들의 반대가 두드러진다. 형용사 토씨는 -lig이며 *li* 토씨로는 형용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H. N. Orkun의 의견이다.

87) 『康熙字典』에 따르면麗를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는 離로 읽히고, 『資治通鑑』·『新唐書』·『冊府元龜』 등에도麗를 離로 읽어야 된다고 한다. 그런 때문인지 漢人들은 高黎·高麗를 같은 발음의 高離로도 적었고, 麗는 ‘레’·‘리’·‘레’로 (鄰溪切 竝音離, 憐題切音黎, 里弟切音禮, 力霽切, 郎計切), 離는 ‘리’·‘려’로 (呂支切 鄰知切 竝音離), 禮는 ‘레’·‘레’·‘리’·‘려’로 (盧啓切 里弟切 良以切 竝音蠡) 읽었다. 高麗·高離를 모두 ‘고려’로 읽을 경우 발음상의 차이보다는 四聲의 차이로 보인다. 唐 『翰苑』에 高麗를 ‘고려’로 읽었다. 高離를 ‘고려’로 읽어야지 ‘고려’로 읽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도 있다. 『帝王韻紀』에 적혀 있는 高禮는 고려로 읽는다, 고례가 아니다 (盧啓切 里弟切 良以切 竝音蠡)는 주장은 흥미롭다.

88) W. Radloff, 1895, 앞의 책, p. 401f에 3인칭 명사에 \uparrow (*by, i*)가 자음 뒤에, 모음 뒤에 \uparrow (*ci, ci*)가 붙는 옛 튀르크어 문법 설명. Vilh. Thomsen, 1896, 앞의 책에 -y, -i, -sy, -si가 붙는다는 문법 설명이 있다.

89) René Giraud, 1960, 앞의 책, p. 135, 형용사+i/si로 명사화한 옛 튀르크 비문의 *i* *yi* (bien) → *iyši* (le bien), *doγru* (vrai, juste) → *doγrusu* (le vrai, le juste), *bilgä* (sapiens) → *bilgäsi* (sagesse), *alp* (courageux) → *alpī* (courage)의 예를 들었다.

90) 옛 튀르크어와 키르기즈어에서 ‘으’와 ‘외’ 모음은 모음조화로 어울려 ‘빅클리’ 및 ‘빅켄리’로 발음할 수 있다.

V. 맺음말

쥬얼 테긴 비 한문 말미에 大唐開元二十年歲次壬申十二月辛丑朔七日丁未建으로 새겨져 唐 玄宗 開元 20년 즉 732년에 세워진 비석이고,⁹¹⁾ 이는 신라 聖德王 31년, 발해 武王 14년에 해당한다. 빌게 可汗 비에서는 한문 銘文을 잘 읽어볼 수 없지만 735년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⁹²⁾ 唐 玄宗 開元 23년이라면 발해 武王 17년, 신라 聖德王 34년에 해당한다.

빌게 카간 비의 옛 튀르크 비문 말미에 그의 734년 사망시 조문 온 사절들을 언급하고 있는데,⁹³⁾ 거기에 ‘Bök(kö)li’ 언급은 없다. 옛 Bumīn, İstāmi 조상의 사망에 조문 왔다면 ‘(아)파르’나 ‘(아)푸름(東로마, 비잔틴)’도 나오지 않는다. ‘Bök(kö)li’를 고구려로 특정한다면 고구려가 망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난 상태라서 ‘Bök(kö)li’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Bök(kö)li’를 한반도인의 통칭으로 본다면 의외이나, 이는 突厥제국의 쇠망 상황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상정해본다. 突厥과 갈등관계에 있긴 비단길을 통한 교류관계에 있긴 관련이 많은 민족들은 나타나며 심지어는 쥬얼 테긴과 빌게 카간이 벌인 많은 전투⁹⁴⁾에

91) 옛 튀르크어 비문에 ‘羊띠 해’ (qon yilqa) 열일곱 날 쥬얼 테긴이 죽었고 그의 장례식은 아홉째 달 스물일곱째 날에 거행되었다고 새겨 있다. 731년 辛未 정월 17일, 즉 양력 2월 27일에 사망하였고 장례식은 辛未年 음력 9월 27일, 즉 양력 11월 1일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는 이듬해 732년에 세워졌다.

92) 파손이 심한 빌게 카간 비의 한문 말미에 ‘…… 元二十三 ……’로 새겨져 開元 23년(735)으로 새긴 것으로 보이며, 옛 튀르크어 비문에는 ‘개띠 해’ (it yil) 열째 달 스물여섯째 날 (양력 11월 25일)에 사망, 장례식을 돼지띠 해 (layzin yil) 다섯째 달 스물일곱째 날 (양력 6월 22일)에 치른 것으로 나온다. 734년 甲戌, 735년 乙亥에 각각 해당된다.

93) 쥬얼 테긴 비 북면 12~13행에 소그드 (Sogdian), 부하라(Buquraq), 페르시아 (?bärčäkär, 온 옥(On Oq, 十箭), 튀르기스(Türgiś, 突騎施) 조문단이 새로 나온다. Heinrich Schaeder, 1924, 앞의 논문, p. 156

94) 쥬얼 테긴과 빌게 카간의 나이와 관련된 전투는 비문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年度 뒤는 干支의 띠, K: 쥬얼 테긴 碑, X: 빌게 카간 碑, 괄호 안의 한문은 중국 연구문헌을 참조한 것). 684년 申 빌게 카간이 출생한 해에 빌게 可汗의 父의 중국에 대한 전투 (K, X), 711년 亥 빌게 카간 Modscho 삼촌과 함께 Tangut (唐古特, 堂項)에 대

서 적들이었던 민족들도 조문 사절로 왔다⁹⁵⁾고 새겨져 있다. 적대관계나 소원한 관계 때문에 조문 사절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튀르크 옛 조상 시대와는 상황이 바뀌어 특히 突厥제국이 쇠퇴에 접어들고 있어서 한반도에서 빌게 카간(可汗)의 사망 때에는 조문을 안 보낸 것인지, 한반도인들의 관심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을 뜻하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역의 사마르칸트(康國) 아프리카시압 궁전의 7세기 벽화에 鳥羽冠을 쓴 사절이 한반도인⁹⁶⁾으로 보여 한반

한 전투, 빌게 카간 27세 (X), 712년 子 빌게 카간 삼촌과 함께 Sogdak에 대한 전투, 빌게 카간 28세, 켈 테긴 27세 (K, X), 713년 丑 빌게 카간 삼촌과 함께 Basmal의 Ydykut에 대한 전투, 빌게 카간 29세 (X), 714년 寅 빌게 카간 삼촌과 함께 Bäschbalyk 원정, 빌게 카간 30세 (X), 715년 卯 빌게 카간 삼촌과 함께 Karluk(葛邏祿)과 전투, 빌게 카간 31세, 켈 테긴 30세 (X), 716년 辰 빌게 카간 중국 원정 및 Čača(沙吒忠義) 장군과 전투, 빌게 카간 32세, 켈 테긴 31세 (K, X), 718년 午 중국 원정에 나선 Oguz를 빌게 카간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이들이 되돌아가게 함. 빌게 카간 34세 (X), 720년 申 Čik에 대한 전투, 빌게 카간 36세 (X), 721년 酉 키르키즈와 Türgäš(突騎施?)에 대한 전투, 빌게 카간 37세 (X), 722년 戌 Qytai(契丹)와 전투, 빌게 카간 36세 (X), 726년 午 Az에 대한 수차례 전투, 켈 테긴 41세 (K), 730년 午 Oguzen에 대한 4차례 전투 (K, X), 731년 未 Oguzen과 전투에서 켈 테긴 전사, 켈 테긴 47세 (K), 734년 戌 Tatabi와 전투, 빌게 카간 50세 (X). W. Radloff, 1895, 앞의 책, pp. 423~424

- 95) 비문의 벽두에 사방은 적이었는데 슬기로운 조상 때 山東, 鐵門, 티베트, Böki 등 극점(les points extrêmes)에 원정을 가서 이들을 무릎 꿇렸고(켈 테긴 비 및 빌게 카간 비 남쪽 면 3~4행, 켈 테긴 비 동쪽 면 2행 및 빌게 카간 비 3~4행), Töliš Tarduš를 복속하였고, 남쪽에 타브가츠(중국), 북쪽에 Baz 可汗, Toquz Oγuz가 적이었고, qırqız(키르키즈, 堅昆), Qurıqan/Kurikan(骨利幹), Otuz-Tatar, Qıtai(契丹), Tatabi 등이 모두 敵이었고(켈 테긴 비 동쪽 면 13~14행, 빌게 카간 비 동쪽 면 12행), 이들을 상대로 한 전투의 상세가 비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켈 테긴 비 말미(북쪽 면 11~13행)에는 그의 사망에 온 조문단으로 Qıtai(契丹)와 Tatabi로부터 Udār 장군, 타브가츠(중국)로부터 Isiyi (Lisün, 宗正卿 李佺), Likäng (呂尙), 티베트로부터 bölon(← 티베트어 blon 大臣), 소그디아, 페르시아, 부하라부터 그리고 해지는 곳에서 Änik 장군과 Ogul Targan, On Oq로부터 옥쇄관 Maqarač (← 산스크리트 어 maharāja), 키르키즈로부터 Tarduš Inanču Čor가 각각 왔다고 새겨 있다(괄호 안의 한문은 중국 연구문헌을 참조한 것). 적대관계가 꼭 조문 오는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96) 金元龍·崔夢龍, 1983. 12, 『고대 한국과 西域』, 10쪽에 隋·唐 때 康國이었던 소그디아의 수도 사마르칸트의 아프리카시압 왕궁이 1220년 몽골의 침략으로 폐허가

도인이 거기까지 사절로 간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옛 튀르크어 비문에 새겨 있는 Bök(kö)li가 강하다(stark, mächtig) 높고 고상하다는 뜻의 'Bök(ö)' 튀르크어에 고구려 Kao-(ko)li가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Bök(kö)li'가 '북', '복'이라는 한반도 옛말의 음사와 한반도 북부에서 주로 쓰인 '골'의 한반도 옛말의 음사⁹⁷⁾로 한반도의 어느 특정 국가, 고구려를 특정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꼭 '북 · 북 + 句麗(구리)' 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열린 사고와 연구가 필요하다. 굳이 고구려로 특정하기보다는 고구려를 이은 渤海를 포함한 한반도 국가 · 민족⁹⁸⁾을 함께 뭉뚱그려 쓴 한반도인의 통칭 표

된 채 그 遺址가 1965년 발굴된바, 그 발굴보고서에 7세기 왕궁으로 나온다. L. I. Alibaum, 1975, *Zivopisj Afraciaba*, Tashkent의 발굴 보고서에 의거하여 아프리카 시암 벽화의 서쪽 벽과 남쪽 벽에 소그드어로 써 있는 '우나시족의 와르흐만 (『新唐書』西域列傳의 康條에 나오는 拂呼蔓으로 655년 사마르칸트 왕에 즉위, 712년까지 재위) 왕에 4마리의 鵝鳥라는 명문에 나타나서 그 궁정 벽화의 정확한 연대로 볼 때, 동 벽화에 나오는 鳥羽冠의 사절이 꼭 고구려 사절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그 벽화에 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이 엇갈린다. 穴澤和光 · 馬目順, 1976, 「아프라시아 都城址出土의 壁畫에 나타난 朝鮮人 使節」, 『朝鮮學報』 80 (1976, 7), 1~36쪽, 특히 21·31쪽에서 벽화에 그려진 한국인 사절은 고구려의 淵蓋蘇文이 唐을 인식하면서 정책적으로 파견한 고구려인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그 근거로 사신이 차고 있는 칼집에 달린 두 개의 M자형 쇠장식과 칼의 全形이 일본 東大寺 獻物臺帳에 기록된 銀莊高句麗樣大刀와 같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원룡은 더 나아가 사절의 옷이 긴 상의에 발목을 맨 바지인 것은 고구려나 신라의 벽화와 土俑에서 보는 바와 같고, 황토색에 굵은 소매 모습도 冬壽墓龕神塚三室塚 등 고구려 벽화들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 金元龍 · 崔夢龍, 1984, 「古代 韓國과 西域關係」, 『美術資料』 34

- 97) 'Bökö' (강력한), 'bäg' (귀족) 같은 옛 튀르크어와 어우러져 Bök로 새겨졌을 가능성을 필자는 짐작해본다.
- 98) 신라가 직접 突厥과 관련한 기록은 찾지 어렵지만, 신라 성덕왕 · 경덕왕 때 高僧 慧超(또는 惠超, 704~787)의 경우에서 신라가 서역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의 『往五天竺國傳』은 서역 및 동서교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데, 혜초가 8세기 天竺에 갈 때는 해로로, 또 돌아올 때는 중앙아시아의 서역 草原路로 唐으로 돌아왔고 『往五天竺國傳』이 敦煌 莫高窟에서 1908년 프랑스의 중국 연구가 펠리오가 발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신라 · 통일신라에서 출토된 유리제품, 서역의 보검 등은 실크로드인, 특히 西域을 지배하고 있던 튀르크계 사람과 문물이 신라에 알려졌을 정황이다.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아 궁정 벽화의 조우관을 하고 M자형 쇠장식 칼을 찬 사절이 고구려인이라는 주장이 무게를 얻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신라인 등 여타 韓半島人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현이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을 '타브가즈'로 한 옛 튀르크어의 표현에 대비해볼 때 그럴 개연성은 다분히 있다고 본다.

옛 튀르크어 金石文을 옛 튀르크어 연구⁹⁹⁾와 함께 짚어나가는 것과 비문의 현장 확인¹⁰⁰⁾ 등 기초작업이 아쉽다. 우선 비문의 金石文을 옛 발굴단계의 보고서에 나타난 탁본의 사본을 짚어 읽어나가면서 우리 관심사항에 대한 옛 튀르크어 비문의 초기 해제로부터 시작하여 살펴보았다. Bök(ö)li를 튀르크어 자체로는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렵고 분명한 뜻을 알기에 한계가 드러나며 따라서 고유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설에 주목하여, 우리 학계로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 가능성 - Bök(ö)li에서는 '박' 발음이 그리고 渤海에서는 '발' 발음이 작용한 옛 한반도 국가·민족의 이름에 포함된 북, 불, 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 을 염두에 둔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¹⁰¹⁾

옛 튀르크어로 Bök(köl)i로 새겨진 突厥 비의 옛 金石文 사료에 접하면서 옛 튀르크어와 그 주변어들 - 현대 터키어는 물론 중앙아시아어¹⁰²⁾과 더 나

99) Talât Tekin, 2000, *Orhon Türkçesi Grammeri*, 이용성 옮김, 2012, 『突厥어 문법』에 한글 번역, 영문으로는 Talat Tekin, 1968, *A Grammar of Orkhon Turkic*, Bloomington

100) Talât Tekin, 1988, 앞의 책. 옛 튀르크어 비문의 기존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살피는 데 그치고 있는 국내 학계와 대조적으로, 일본 오사카대학은 1996~1998년 Orkhon 碑文지역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서로 냈다. <http://ir.library.osaka-u.ac.jp/dspace/bitstream/11094/20780/3/Mongol3.pdf>, 『モンゴル國現存遺蹟・碑文 調査研究報告』, *Provisional Report of Researches on Historical Sites and Inscriptions in Mongolia from 1996 to 1998*

101) '빅필'도 '북 골' 같은 한반도 말이 高句麗·渤海 등으로 한문화되기 전의 국가·민족 이름과 관련이 없는지 즉 高句麗·渤海를 포함한 한반도인의 이름과 연관성은 없는지 그리고 불 북과 관련된 '빅'+튀르크어 '필' (바다, 호수의 뜻)의 가능성은 없는지 연구거리다. '필'은 Turgi-Yargoun 호수로 켈 테긴 비 동쪽 면 34행에도 나오고 'kara 필'로 동북 면 2행에도 나온다. '필'은 '으스 필'로 발음되는 Ыс Ык-Көл (키르기스어)/Iss ı k Göl (터키어)은 키르기스 내륙의 '따뜻한 호수'에서 나온다. 한자로 熱海로 나타난다 (『西遊記』).

102)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언어는 터키계 알타이어계라는 공통점이 있고, 특히 키르기스어는 위구르 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구르어의 원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Denis Sinor, 1963, *Introduction à l'étude de l'Eurasie centrale*, Wiesbaden, p. 75

아가 옛 소그드어, 위구르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등 - 에 대한 지식의 도움을 받는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 가능성의 단초를 살펴본 이 글에 선행연구의 성과를 많이 주에 남기고, 또 현장조사는 못했지만 그 탁본의 사본이라도 실어, 앞으로 突厥 비문 해석의 폭을 넓혀 주고 깊이도 심화하고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금석문의 보다 본격적인 해석과 보다 설득력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 가능성을 모색하는 역사학과 언어학 등의 종합연구에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舊唐書』 列傳第144上 突厥上, 列傳第144下 突厥下, 卷194上 突厥, 卷195下 北狄
 渤海靺鞨, 卷198 高昌, 卷198 焉耆, 卷199上, 卷199下, 列傳第149下 北狄
- 『南齊書』 卷58 列傳第39 蠻 東南夷 高麗傳
- 『北史』 卷94 勿吉
- 『三國史記』 高句麗 本紀
- 『隋書』 東夷傳 高麗條 卷3 煬帝紀, 卷81 百濟
- 『新唐書』 卷219 列傳第144 北狄 渤海靺鞨, 卷220 列傳第145 東夷
- 『魏書』 卷100 勿吉
- 『資治通鑑』 卷136 齊紀, 卷191, 卷192
- 『冊府元龜』 卷45 帝王部 謀略, 卷117 帝王部 親征第2, 卷119 帝王部 · 選將, 卷366
 將帥部 · 機略第六, 卷373 將帥部, 卷384 將帥部 · 褒異第十, 卷396 將帥部, 卷
 420 將帥部, 卷986 外臣部, 卷986 外臣部 · 征討第五, 卷1000 外臣部 · 讎怨
- 梁柱東, 1977 增訂版, 『古歌研究』, 일조각
- 이기문, 1991, 『국어 語彙史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백, 1985 개정판, 『국어사 개설』, 탑출판사
- 丁載勳, 1993, 『突厥第二帝國時期(682-745) 퉡유쿠크의 役割과 그 位相: 퉡유쿠크
 碑文의 分析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金毓黻, 1971, 『東北通史』, 國立東北大學研究室叢書, 臺北: 樂天出版社
- 鄭張尙芳, 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趙評春, 1987, 『渤海國名源考辨』, 學習與探索 1987-5
- 森安孝夫, 1993, 『モンゴル國現存遺跡 · 碑文調査研究報告』, 中央ユーラシア學研
 究會, 같은 pdf 파일: 오사카대학교, 『モンゴル國現存遺跡 · 碑文 調査研究報
 告』, Provisional Report of Researches on Historical Sites and Inscriptions in
 Mongolia from 1996 to 1998
- 룩 환덴, 송기중 역, 1988, 『유목민족 제국사』, 민음사
- 르네 그루쎄, 김호동 · 유원수 · 정재훈 옮김, 2010, 『유목제국사』
- Talat Tekin, 이용성 역, 2008, 『突厥비문연구』 제이앤씨
- Talat Tekin, 이용성 옮김, 『突厥어 문법』, 한국학술정보(주) 2012

- 김원룡, 1984, 『美術資料』 34, 국립중앙박물관 E-book (<http://211.252.141.1/program/ebook/ebookList.jsp?menuID=001007002&boardLines=10&ebookTypeID=3¤tPage=5>)
- 金元龍·崔夢龍, 1984, 「고대 한국과 西域」, 『美術資料』 34, 국립중앙박물관
- 노태돈, 「고구려 渤海人과 內陸아시아 住民과의 交涉에 관한 一考察」, 『대동문화연구』 2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 禹惠燦, 1995, 「突厥史上에 나타난 몇몇 問題點에 關한 研究」,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6호
- 우덕찬, 1997, 「고대 튀르크 비문에 전하는 종족명 타타비(Tatabi)에 대한 연구」, 『역사와 경계』 33-1
- 우덕찬, 2004,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韓國中東學會論叢』 제24-2호
- 李藤龍, 1990, 「廣開土王碑文」, 『碧史 李佑成 교수 정년퇴직기념논총』, 창작과비평사
- 丁載勳, 1998, 「위구르 遊牧帝國時期(744~840) 古代 튀르크 碑文의 研究와 展望」, 『歷史學報』 160호
- 岩佐精一郎, 1933, 「古突厥碑文のbökli及びPar Purumに就いて」, 『岩佐精一郎遺稿』 1936.
- Barthold, W., 1935, *12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Türken Mittelasiens*
- Chavannes, Edourd, 1900, *Dokuments sur les Tou-Kieu (Turks) Occidentaux*, Paris
- Clauson, Sir Gerard, 1972,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Century Turkish*, Oxford University Press
- von Gabain, Annemarie, 1941, *Alttürkische Grammatik*, Leipzig
- Giraud, René, 1960, *L'Empire des Turcs Célestes les Règnes d'Elterich Qapghan et Bilge(680-734), Contribution a l'histoire des Turcs d'Asie Centrale*, Paris
- Grousset, René, 2010,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 Малов, С. Е., 1951, *Памятники Древнетюр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Тексты и Исследования*, Moskva
- Orkun, H. N., 1936, *Eski Türk Yazitlari*, Istanbul, I: 1936; II: 1938; III: 1940; IV:

1941

Радлов, В. В., 1982, *Атлас древностей Монголии*, СПб.

Radloff, W., 1895, *Die alttürkischen Inschriften der Mongolei*, 1897, Neue Folge, 1897, Zweite Folge, St. Petersburg

Shiratori, Kurakichi, 1899, *Die Chinesische Inschrift auf dem Gedenkstein des K'üe-T'e-K'in am Orkhon übersetzt und erläutert*, Tokio

Sinor, Denis, 1963, *Introduction à l'étude de l'Eurasie centrale*, Wiesbaden

Tekin, Talât, 2000, *Orhon Türkçesi Grammeri*

Tekin, Talât, 2003, *Orhon Yazıtları, Kül Tigin, Bilge Kagan, Tunukuk*, Istanbul

Thomsen, V., 1896, *Inscriptions de l'Orkhon déchiffrées*, Helsingfors

Thomsen, V., 1922, *Samlede Afhandlinger III*, Copenhagen (툰슨의 논문집)

- Tyrkiske runeindskrifter fra Mongoliet og Siberien (몽골과 시베리아로부터의 튀르크 룬 비문)

“Inscriptions runiques turques de Mongolie et de Sibérie, Notice préliminaire” (1893);

“Postscriptum” (1920);

“L'alphabet runiforme turc (1894-96); Remarques sur l'origine de l'alphabet”;

“Une Lettre méconnue des inscriptions de l'Énisséi” (1913);

“Turcica. Études concernant l'interprétation des inscriptions turques de la Mongolie et de la Sibérie” (1916)

- Gammel-tyrkiske indskrifter fra Mongoleit i oversættelse og med indledning (몽골로부터의 옛 튀르크 비문의 재해석, 새 서문과 함께) 동 독일어 번역: Heinrich Schaeder, 1924, “Vilhelm Thomsen, Alttürkische Inschriften aus der Mongolei in Übersetzung und mit Einleitung,” *Zeitschrift der Deutschen Mogenlandesgeschichte (ZDMG)*, Band 78 (1924/25), Leipzig

Bang, W., 1896, “Zu den Kök Türk-Inschriften der Mongolei,” *Toung Pao* VII

Donner, O., 1894, “Wörterverzeichnis zu den Inscriptions de l'Énisséi,” *MSFOe* IV

Marquart, J., 1898, “Historische Glossen zu den alltürkischen Inschriften,”

[ABSTRACT]

A New Interpretation of “Bökli” in Orkhon Stone
Inscriptions as the Ancient Name of a Korean Country: A
Critical Reflection on Iwasa Seiichiro’s 貂句麗 Mök(kü)li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Old Korean–Turkic

Kim Byungho

The stone monuments found in Orkhon, Mongolia, that are dedicated to Kül Tegin (闕特勤) and to Bilge Qaghan mention in their Old Turkic inscriptions several countries/peoples who should come from the direction of the sun rising to offer condolences after the Turk qaghans Bumïn and İstāmi had passed away in the mid-sixth century. The fourth or fifth line in the south side of the two inscriptions each mention the country/people “Bökli čölg(i)l” before Tabgač (China). The eighth line in each inscription also mentions “Bökli” Qaghan as the target of the Turks’ military expeditions in the seventh century, when they were under Chinese rule. Vilhelm Thomsen, who first succeeded in deciphering the Old Turkic inscriptions, and W. Radloff, who published the atlas and texts of the stone inscriptions, interpreted the people as a “strong Steppe people” or as “Bökli people from far” without locating them. The Japanese scholar Iwasa Seiichirō (岩佐精一郎), taking note of the exchange of [m] and [b] in Old Turkic, interpreted 貂句麗 mök(kü)li > bök(kü)li. Elaborating the geographical topos and the expansion of 高句麗 and its conflicts and contacts with Turks from the sixth century on, he concluded that Bökli people should be 高句麗. His

assertion gained momentum from an interesting finding in the Tibetan document “Pelliot tibétan 1283,” which prompted J. Bacot, G. Clauson, L. Ligeti, and Moriyasu Takao (森安孝夫) to assume further that the people east of 奚, as “Mug-lig,” should be the same people whom the Chinese called Ke’u-li 高句麗.

The word Bökli continues to invite new interpretations. This paper examines Iwasa’s assertion that mök(kü)li may have changed into bök(kü)li. The linguistic findings of Thomsen (Samlede Afhandlinger III) and Talat Tekin (Turkish Gramma), that m–b exchange happens with nasal [n] or in a single geographic name, that of the Chinese mountain (貪漫山 Tarman–Tarban), allow us to come to the preliminary conclusion that we should find new, more plausible explanations than that of Iwasa, who neglected such linguistic findings. This paper offers two alternatives for explaining bök(kö)li: 1) either bök of Old Türkic “bök” (stark mächtig, Radloff, 1895, p. 140) and Kō(ü)li from the name 高句麗 Kao–(ko)li with vocal harmonization; or 2) Bök from 밝, 빛, 박 which means the brightness of the sun, and the later part “köli” from 句麗, 溝婁, 句麗 (kuru, kuri), meaning castl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urks’ practice of calling Chinese as Tabgač 拓拔 regardless of the dynastic changes, such as Wei, Sui, and Tang, this paper also treats the possibility of such inertia for naming the people(s) on or near the Korean peninsula as inscribed in the Turks’ stone monuments, as bök(kö)li. For Turks, the most important people name of Chinese as rulers appears repeatedly inscribed as Tabgač 拓拔 in the Turks’ inscriptions. Comparing bök(kö)li with Tabgač 拓拔, this paper notes with caution that “bök(kö)li” need not designate only the kingdom of 高句麗, but “bök(kö)li” might also designate kingdoms or dynasties on or near the Korean peninsula whose old people/country

names contain 북 박, as reflected in bök(kü)li in the Orkhon inscriptions according to the Old Turkish pronunciation, with 북/불 as reflected in 渤海.

Keywords

Turks (突厥), Orkhon/Орхон, Kül Tegin (闕特勤), Bilge Qaghan (可汗), Turkic inscriptions, Turkish empire, Kao-(ko)li (高)句麗, Bök(kö)li/Bük(kü)li, 貊句麗 mök(kü)li 북/불, 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시키에[錦繪]를 통해서 본 근대천황상과 조선 멸시관의 형성

박진우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I. 머리말

메이지유신 이후의 근대 일본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화에 근거한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신국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국민통합을 강화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가장 인접한 조선의 경우, 신화에 나타나는 진국황후[神功皇后]의 ‘삼한 정벌(三韓征伐)’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의 기억을 확대재생산하여 한일관계의 오랜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천황상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대상으로 고정해갔다. 따라서 근대 이후 일본 사회 속에 뿌리 깊게 존속해오고 있는 조선·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편견도 그 자체를 별개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상적인 특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¹⁾

※ 투고일: 2013년 5월 22일, 심사일: 2013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22일

근대 일본에서 조선 멸시관의 형성이 근대천황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는 우에스키 사토시[上杉聰]의 연구²⁾가 있다. 우에스키는 근대천황제가 아시아관, 호적제도, 배제의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를 기본 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특히 아시아관에 관해서는 조선을 번국(蕃國)으로 간주하는 고대천황제 이래의 전통적인 인식에 더하여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이라는 신화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근거로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 멸시관이 형성되어갔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 조선 멸시관의 형성을 고대천황제 이래 일관된 것으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즉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요소의 재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명화의 추진’과 ‘국권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전통의 재생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메이지 초기의 여론의 동향을 통해서 조선 멸시관의 형성이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에 미친 역할과 의의를 검토한 바가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니시키에를 비롯한 비주얼한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조선관과 근대천황상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대 일본에서 일반 민중들 사이에 유포되고 정착되어간 조선 멸시관이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1) 종래의 근대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는 막말유신기의 대조선 정책을 비롯한 정치사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근대천황상의 사상적인 특징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그다지 주목해오지 않았다. 사상사 연구에서 근세 일본의 조선에 대한 대항적인 우월감이 근세 후기부터 침략의식으로 전화되어가는 측면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衣笠安喜, 1990, 『近世日本の儒教と文化』, 思文閣; 旗田巍, 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姜徳相, 1983, 『日本の朝鮮支配と民衆意識』, 『歴史學研究』別冊特集－東アジアの再編と民衆意識; 中塚明, 1993, 『近代日本の朝鮮認識』, 研文出版 등 참조. 이들의 연구는 근대 일본의 조선 멸시관에 대한 사상적인 배경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사를 주고 있지만, 그 주된 논점이 막말의 존왕양이 사상에서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개설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근대천황상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은 아니다.
- 2) 上杉聰, 1990, 『天皇制と部落差別』, 三一書房; 上杉聰, 1990, 『明治維新と賤民解放令』, 解放出版社 참조.
- 3) 박진우, 2004, 『근대일본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엔씨, 제3장 참조.

는 것을 재차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신문과 사진이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전인 막말유신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 니시키에는 가나문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서민들에게는 시사적인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각미디어였다. 따라서 니시키에에 나타나는 조선상은 그대로 근대 일본의 일반 서민들이 가지는 조선의 이미지로 고착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이와 같이 메이지 시대의 니시키에가 일본인의 조선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쿠라이 요시유키[櫻井義之]의 선구적인 연구⁵⁾를 비롯하여 文公輝와 강덕상의 연구가 있다.⁶⁾ 사쿠라이 요시유키가 “조선을 주제로 한 판화가 당시 일본 국민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판화를 통해 이웃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식하고 있었는지, 메이지기의 대조선 인식을 고찰하는 데에 니시키에는 가장 전형적인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니시키에 속에 나타나는 조선상을 검토하는 것은 메이지시대 일본인의 조선관을 가장 리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⁷⁾ 그러나 니시키에를 통해서 형성된

4) 물론 니시키에가 모두 조선을 소재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18세기 후반에는 ‘미인화’, 19세기 전반에는 ‘풍경화’, 그리고 메이지시대에 들어오면 문명개화의 영향을 받은 ‘開化繪’라는 새로운 장르가 더해지고 이에 더하여 천황과 황후의 모습을 소재로 한 ‘宮廷繪’도 붐을 일으켰다(扇子忠, 2009, 『錦繪が語る天皇の姿 = Japanese Emperor in Ukiyo-e』, 遊子館, 109~110쪽).

5) 櫻井義之, 1977, 「明治時代錦繪に見る朝鮮問題」, 『作新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 4

6) 文公輝, 1998, 「錦繪・錦繪新聞にみる朝鮮・中國へのまなざし—江華島事件から日清戦争まで」, 『大阪人權博物館紀要』 第2號. 이 논문은 1996년 9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오사카인권박물관에서 개최한 기획전시회 「錦繪にみる日清戦争と朝鮮」에서의 성과와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강화도사건부터 청일전쟁까지의 니시키에와 니시키에신문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姜徳相 編著, 2007, 『錦繪の中の朝鮮と中國—幕末・明治期の日本人のまなざし』, 岩波書店. 한국어 번역은 김광열·박순애 역, 2010, 『우키요에 속의 조선과 중국』, 일조각

7) 이 글에서는 위의 책에 실린 니시키에 137점을 기본으로 그 밖에 小西四郎, 1977, 『錦繪幕末明治の歴史9—鹿鳴館』, 講談社; 小西四郎, 1977, 『錦繪幕末明治の歴史11—日清戦争』, 講談社; 小西四郎, 1978, 『錦繪幕末明治の歴史12—日露戦争前後』, 講談社; 扇子忠, 2009, 앞의 책; 埼玉縣平和資料館 編, 2000, 『近代戦争錦繪を中心に』, 埼玉縣平和資料館; 福生市郷土資料室 編, 2006, 『戦争錦繪に見る日露戦争百年—日露戦争と福生』 등에 수록된 수백 점의 니시키에 가운데 조선과

조선관이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그다지 주목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시키에가 성황을 이루었던 막말유신기부터 쇠퇴기에 접어드는 러일전쟁기에 이르기까지 니시키에를 비롯한 비주열한 대중매체 속에 나타나는 조선관의 추이를 살피고 그것이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막말유신기~메이지 중기 니시키에 속의 조선관

니시키에는 근세 일본의 회화장르 가운데 하나로 무로마치 시대 말기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걸쳐 그려진 우키요에[浮世繪]라는 풍속화를 모태로 한다.⁸⁾ 이것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여 사물의 고유한 색을 재현하게 되는 컬러판 니시키에로 발전하게 된다. 18세기 후반 당시 가장 인기가 많은 니시키에의 장르는 가녀리고 섬세한 미인화였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서민들의 야외놀이나 여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면서 풍경화가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무사화도 이 시기에 유행한 장르였는데 일본과 중국의 역사상의 인물, 또는 소설 등에서 주제를 뽑아 무인들의 활약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등이 활약하는 다이코기[太閤記]는 에도막부가 유포를 금지했기 때문에 가토 기요마사를 사토 마사기요[佐藤正清]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 표기하거나 다른 시대의 유사한 사건에 비유해서 묘사하기도 했다.⁹⁾

관련 있는 것을 발췌하여 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8) 大久保純一, 2007, 「錦繪－その誕生と流通の實體」, 姜徳相 編著, 앞의 책, 182쪽

9) 이 밖에도 에도막부는 시사적인 사건 등에 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말기의 정국이나 시사를 다루는 니시키에의 대부분은 시대 설정을 바꾸거나 수수께

이후 19세기 중반의 에도 시대 말기에는 안세이[安政]대지진, 존왕양이운동, 그리고 메이지유신의 왕정복고 직후에 발발한 보신전쟁(戊辰戰爭) 등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환기의 갖가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호기심에 대응하여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니시키에의 역할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열강의 접근에 따라 대외적인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조선에 대한 우월감의 표상으로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이 니시키에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을 묘사하는 니시키에에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화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세 일본의 지배계급 가운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과 진구황후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국관념에 의거하여 조선을 번국으로 간주하는 우월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¹⁰⁾ 근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신국관념과 신화에 의거한 우월감을 확신시키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되풀이되어 재생산되었다. 예컨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서 진구황후와 인연을 가지는 신불이나 전설을 유포하여 신국관념을 고양한 것은 신국관념과 진구황후의 신화가 일체화되어 침략전쟁을 부채질하는 것이었다.¹¹⁾ 이후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은 근세 일본의 지식인이 조선에 대한 우월감을 표출할 때 상투적으로 되풀이해서 재생되고 있었다.¹²⁾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은 신화에 근거한 것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은 역사

끼로 꾸미는 등의 위장을 해서 출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土屋禮子 編, 2000, 『日本錦繪新聞集成』, 文生書院

- 10) 村井章介, 1989, 「中世における東アジア諸地域の交通」, 『日本の社會史』, 岩波書店
- 11) 北島万次, 1986, 「秀吉の朝鮮侵略における神國意識」, 『歴史評論』 438號. 또한 히데요시 정권기에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신국론의 거의 대부분이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전설을 경유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 최근의 연구로는 庄佩珍, 2007, 「朝鮮との關わりから見た神國思想の特質と展開－神宮皇后三韓征伐傳にまつわる「神國」に關する分析」, 『洛北史學』 9號 참조.
- 12) 박진우, 2004, 앞의 글, 106~107쪽

적 사실에 의거한 것이지만 근세 일본의 지식인들에게는 모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감을 표상하는 근거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¹³⁾

이러한 조선관은 18세기 말부터 대외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급격하게 부상하는 천황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접근에 대한 대외적 위기감을 배경으로 집필된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해국병담(海國兵談)』(1775)과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1785)에서는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이래 조선은 대대로 일본에 조공을 바쳐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국’ 일본에 대한 조선의 복속을 정당화하였다.¹⁴⁾ 18세기 후반의 내외외환에 대한 체제적인 위기의식에서 집필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志齋]의 『신론(新論)』(1825)에서도 대외적인 위기와 연동하여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에 의거한 조선 속국관이 재생되고 있었다.¹⁵⁾ 즉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조선은 신국 일본의 ‘황위(皇威)’를 해외에 떨친 것으로 전해지는 신화와 역사를 근거로 하여 서구에 대한 열등감의 반전된 내셔널리즘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막말유신기에 걸쳐 니시키에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표상으로서 재생산되어온 것이다.

이후 조선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가 붐을 일으킨 것은 크게 세 차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막말유신기, 둘째는 메이지 초의 정한론과 임오군란기, 셋째는 청일전쟁·러일전쟁기다.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신문과 사진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니시키에가 급속하게 쇠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는 등장하지 않게 된다. 아래에서는 조선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가 붐을 이룬 세 차례의 시기를 순차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13) 塚本明은 진구황후의 전설이 몽고 침략을 계기로 조선을 멸시하는 내용을 수반하게 되며 그것이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후에는 신국관의 전환과 함께 근세 사상가들 사이에서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의거하여 조선 멸시관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塚本明, 1996, 「神宮皇后傳説と近世日本の朝鮮觀」, 『史林』 71-6 참조.

14) 『新編林子平全集』第1卷, 第一書房, 1979, 388쪽

15) 『日本思想大系53・水戸學』, 岩波書店, 1973, 71쪽

〈표 1〉 막말유신~메이지기 니시키에에 나타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

| 순번 | 제목 | 작가 | 연대 | 내용 |
|----|---------------|-------|-----------|--------------|
| 1 | 神宮皇后三韓退治ノ圖 | 國安 | 1815~1830 | 진구황후 |
| 2 | 神宮皇后 | 貞秀 | 1842 | '' |
| 3 | 神宮皇后三韓退治圖會 | 北齋 | 1843 | '' |
| 4 | 名高百勇戰神宮皇后 | 國芳 | 1844 | '' |
| 5 | 高砂尾上相生松之由來 | 廣重 | 1843~1847 | '' |
| 6 | 武内宿彌 | 國芳 | 1850경 | 기요마사 |
| 7 | 神宮皇后 | 豊國 | 1852 | 진구황후 |
| 8 | 神宮皇后三韓伐隨就給之圖 | 貞秀 | 1856 | '' |
| 9 | 正清十六臣 | 芳員 | 1859 | 기요마사 |
| 10 | 佐藤正清虎狩之圖 | 國綱 | 1860 | '' |
| 11 | 正清渤海國征戰之圖 | 芳虎 | '' | '' |
| 12 | 正清公虎狩之圖 | 芳員 | 1861 | '' |
| 13 | 神風蒙古退治 | 貞秀 | 1863 | 神風 몽고 퇴치 |
| 14 | 繪本太公記 | 芳幾 | '' | 기요마사의 호랑이 퇴치 |
| 15 | 正清三韓退治晋州城合戰之圖 | 芳年 | '' | 기요마사의 진주성 전투 |
| 16 | 正清三韓退治圖 | 芳年 | '' | 기요마사와 薩英戰爭 |
| 17 | 三韓征伐之圖 | 芳虎 | 1864 | 기요마사와 4국합대 |
| 18 | 眞柴久吉公名古屋陣 | 芳年 | 1865 | 히데요시 |
| 19 | 太平記正清難戰之圖 | 芳年 | 1866 | 기요마사 |
| 20 | 神宮皇后三韓征伐之圖 | 國芳 | 미상 | 진구황후 |
| 21 | 神宮皇后三韓征伐御調練之圖 | 貞信 | 미상 | '' |
| 22 | 三韓征伐凱旋ノ圖 | 尾竹國一 | 미상 | '' |
| 23 | 太平記朝鮮征伐行軍圖 | 貞秀 | 미상 | '조선 정벌' |
| 24 | 加藤清正虎狩之圖 | 長谷川小信 | 메이지 초기 | 기요마사 |
| 25 | 朝鮮征伐大評定圖 | 芳年 | 1877 | 히데요시 |
| 26 | 大日本史略圖會 | 芳年 | 1879 | 진구황후 |
| 27 | 新撰太閤記 | 豊宣 | 1883 | 히데요시 |
| 28 | 日本略史圖解人皇十五代 | 年方 | 1885 | 진구황후 |

| | | | | |
|----|---------------|----|------|----------------|
| 29 | 蒙古襲來之圖 | 周延 | 1891 | 원구(元寇) |
| 30 | 歌舞伎座新狂言朝鮮軍記 | 豊齋 | 1891 | '조선 정벌' 가부키선전용 |
| 31 | 加藤清正朝鮮ヨリ富士ヲ望ム | 芳藤 | 1893 | 기요마사 |
| 32 | 朝鮮之役ニ清正激シ猛虎ヲ | 周延 | 1899 | 기요마사 |

〈표 1〉은 이 시기의 조선에 대한 니시키에를 모두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니시키에 속에 나타나는 조선관의 경향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元寇에 관한 것이 가장 적은 2건이고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에 관한 것이 12건, 가토 기요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출병한 무장이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과 가토 기요마사에 관한 것을 포함하면 18건으로 가장 많다. 단지 에도 시대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가토 기요마사에 관한 출판물을 막부가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이 가토 기요마사를 전설상의 다케우치노 쓰쿠네의 이름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그림 10, 11, 12, 14, 16, 17, 19와 같이 가토 기요마사의 이름을 바꾸어 사토 마사기요, 또는 마사기요로 표기하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도 그림 18에서는 마사바 히사요시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4는 연대미상이지만 가토 기요마사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메이지유신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에서도 가토 기요마사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도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그림 25와 같이 중앙에 그려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 뒤에 '豊臣太閤秀吉公'이라는 존칭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그림 16과 17은 막말기의 현실적인 대외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그림 16은 1862년의 나마무기[生麥]사건을 발단으로 한 사쓰마와 영국의 전투를, 그림 17은 1864년의 죠슈번과 4국함대의 시모노세키전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패러디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초반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니시키에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막말부터 서민들 사이에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기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이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야사가 속출하던 시대상황과 일치하고 있다. 1850년을 전후해

서 민간에 유통되고 있던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야사류에는 山月主人 編述 『神宮皇后三韓退治圖』(1841), 齋藤正謙 『海外異傳』(1850), 靑山延光 『征韓雜誌』(1850), 藤原淑陰 『神兵稜威考』(1860) 등이 있다.¹⁶⁾ 니시키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를 해외에 ‘황위’를 떨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말기의 니시키에에 빈번하게 등장하던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는 메이지 이후 그 출연 횟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873년에 분출하는 ‘정한론’에서는 당연히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을 상기시키는 니시키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지금까지 정한론정변을 그린 니시키에에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강덕상은 정한론정변이 메이지 정부 파탄의 실상을 노출시켜 역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규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¹⁷⁾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정한론’에 관한 니시키에는 강화도사건 이후 재야에서의 ‘정한’과 ‘비정한’을 둘러싼 논쟁을 반영한 것으로 두 파 간의 대립을 묘사한 구도는 대동소이하며 작가의 개성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보일 뿐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화도사건부터 임오군란까지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를 소재로 한 것은 그림 25, 26, 27의 3건에 지나지 않는다.¹⁸⁾ 그림 28은 다분히 갑신정변 이후의 작품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 <표 2>는 강화도사건과 정한론, 임오군란, 제물포조약, 갑신정변까지의 니시키에 목록이지만 그 내용

16) 横山俊夫, 1987, 「神國への道-‘異國’接近と‘幕末’文化」, 林辰三郎 編, 『幕末文化の研究』, 岩波書店 참조.

17) 김광열, 박순애 역, 2010, 앞의 책, 63쪽

18) 임오군란 당시의 니시키에에 진구황후나 히데요시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폭도’들을 ‘미개’, ‘야만’으로 묘사한 니시키에는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82년 10월 14일자 《요미우리문》에는 “최근 繪草紙屋에서 팔리는 조선 폭동의 형상을 그린 니시키에 13종을 점두에 진열해두는 것은 곤란하니까 통행인들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각자 주의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여 임오군란에 관한 니시키에가 유통되는 것을 정부에서 단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을 보면 역시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미 이 시기부터 신문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니시키에서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당시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임오군란이 발생한 1880년대는 이미 신문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던 시기였으며 《橫濱每日新聞》(1870년 창간), 《東京日日新聞》·《朝野新聞》·《郵便報知新聞》(이상 1872년 창간), 《朝日新聞》·《讀賣新聞》 등의 기사나 독자들의 투서 속에서는 여전히 조선에 대한 멸시관을 선동적으로 부추기는 소재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대신문의 기사에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기하면서 조선에 대한 멸시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강화도사건을 전후한 ‘정한’논쟁 속에서였다. 예를 들면 《橫濱每日新聞》에서는 ‘정한’ 반대를 비판하면서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기하고 조선을 韓蕃, 敵國, 韓狗와 같은 모멸적인 언설로 매도하면서 ‘정한열’을 부추겼다.¹⁹⁾ 또한 오사카에서는 조선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드디어 정한이 시작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숙원도 성취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과연 도요토미 히데요시공이 세운 오사카성의 백성입니다”²⁰⁾고 하여 ‘정한열’을 부추겼다. 그리고 1876년 2월 조선과의 사이에 제물포조약이 체결된 이후 《橫濱每日新聞》에서는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 이래로 조선이 일본에 조공을 바쳐왔다고 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한 것은 조공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²¹⁾ 《讀賣新聞》에는 ‘淺草朝鮮長屋’의 ‘快々老人’이라는 필명으로 전권대사 구로다 기요다카[黒

19) 《橫濱每日新聞》, 1875. 10. 26 및 10. 22 논설

20) 《朝野新聞》, 1876. 1. 17

21) “朝鮮事情”, 《橫濱每日新聞》, 1876. 4. 26. 이 밖에도 《讀賣新聞》, 1875. 10. 10 등의 기사에 기요마사가, 1876. 3. 4, 3. 5의 기사에는 진구황후가, 그리고 같은 해 3. 30의 기사에는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표 2〉 강화도사건·정한론·임오군란에 관한 니시키에

| 순번 | 제목 | 작가 | 연도 | 내용 |
|----|------------------------|------|------|-----------|
| 1 | 雲揚號兵士朝鮮江華島戰之圖 | 芳年 | 1876 | 강화도사건 |
| 2 | 皇國一新見聞誌 朝鮮の戰爭 | 芳年 | " | " |
| 3 | 征韓論之圖 | 芳瀧 | 1877 | 정한론 |
| 4 | 征韓論之圖 | 周延 | " | " |
| 5 | 朝鮮變報錄 | 周延 | 1882 | 임오군란 |
| 6 | 朝鮮暴徒記 | 國利 | " | " |
| 7 | 朝鮮暴徒防禦圖 | 國松 | " | " |
| 8 | 朝鮮事件 | 國松 | " | " |
| 9 | 朝鮮事件 | 虎重 | " | " |
| 10 | 朝鮮電報錄 | 淸親 | " | " |
| 11 | 朝鮮大戰爭之圖 | " | " | " |
| 12 | 朝鮮變報話 | 未詳 | " | " |
| 13 | 朝鮮事件 日本公使館エ暴徒亂入ノ圖 | 楊州周延 | " | " |
| 14 | 日韓紛議結局談判之圖 | 歌川國松 | " | 제물포조약 |
| 15 | 朝鮮事變治大吉報之圖 | 年種 | " | " |
| 16 | 海陸兵 公使館及び日本居留民保護之圖 | 未詳 | " | " |
| 17 | 鷄林始末 | 國周 | " | "(가부키패러디) |
| 18 | 朝鮮濟物浦圖 | 周重 | " | "(가부키패러디) |
| 19 | 朝鮮傳聞記 | 吟光 | " | " |
| 20 | 明治17年12月15日京城に於て日清交戰之圖 | 未詳 | 1884 | 갑신정변 |

田淸隆]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위업’을 칭송하면서 진구황후를 상기하는 노래를 지어 실었다.²²⁾ 1883년에 진구황후의 초상을 새긴 지폐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멸시관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 정착되기 시작하는 것은 1882년 임오군란을 전후해서부터다. 그 배경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22) 《讀賣新聞》, 1876. 3. 4

‘脫亞論’과 같은 발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朝野新聞》, 《東京横浜毎日新聞》, 《東京日日新聞》 등의 매스미디어가 특파원의 조선 견문록 등을 통해서 거의 매일같이 조선의 미개, 야만을 강조하면서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던 《錦繪新聞》에서도 ‘미개’한 조선의 ‘폭도’들을 상대로 용감하게 싸우는 일본인 공사관원들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었다.²³⁾ 임오군란 당시 각 신문별로 관련기사의 게재 편수를 보면 《東京日日新聞》은 7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70여 일간 65편, 《東京横浜毎日新聞》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9편, 《自由新聞》은 8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편에 이른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時事新報》에서는 69편을 실었다.²⁴⁾

그 대부분의 내용은 미개한 조선을 응징해야 한다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었으며 1875년을 전후해서 들끓었던 ‘정한’ 열기에 재차 불을 붙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국정에 간섭하는 중국의 모습은 일본의 국익을 방해하는 존재로 비치었으며 조선에 대한 멸시관은 점차 중국에 대한 배외적 멸시관으로 확산되어갔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의용군결성 운동과 함께 반청데모가 발생한 것이 그 단적인 예다.²⁵⁾ 이러한 가운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화와 역사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883년 6월에는 야스쿠니신사에 있는 遊就館에 궁내청에서 소장하고 있던 진구황후가 삼한 정벌에서 사용한 말안장을 진열하게 되었다는

23) 메이지 시대의 《니시키에신문》에 관해서는 文公輝, 1998, 앞의 글 참조.

24) 김광열·박순애 역, 2010, 앞의 책, 66쪽. 강화도사건에서 한국 병합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에 관한 신문 기사와 사실을 망라한 자료집으로는 北原マス·園部裕之·趙景達·長谷川直子·吉野誠 編集, 1995, 『資料 新聞社説に見る朝鮮』 1~6卷, 緑陰書房 참조. 이 밖에도 메이지 시대 일본 저널리즘의 조선관에 관해서는 石川昌, 1988, 「明治期ジャーナリズムと朝鮮(上)－征韓論から甲申政變まで」上(『季刊三千里』 41號); 石川昌, 1988, 「明治期ジャーナリズムと朝鮮(中)－東學農民蜂起から閔妃殺害事件まで」(『季刊三千里』 43號); 石川昌, 1988, 「明治期ジャーナリズムと朝鮮(下)」(『季刊三千里』 44號) 참조.

25) 山田昭次, 1979, 「甲申政變と日本の思想狀況」, 『幕藩制から近代へ』, 柏書房 참조.

소식이나,²⁶⁾ 효고현[兵庫縣] 아мага사키[尼ヶ崎]에서 진구황후의 신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지역유지들이 적극적으로 모금을 하여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여 신화를 재생하고 있었다.²⁷⁾ 특히 1885년에 만들어진 〈군기의 노래〉 제2절의 내용을 보면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대외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업’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눈에 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황국의 신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이 공을 세울 장소는 이 황국의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을 알라. 진구황후와 豊太閤의 옛날 공적을 상기해야 하느니. 충과 용이 이 깃발을 지구 위에 빛내어라.²⁸⁾

니시키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선과 중국에 대한 멸시관을 더욱 증폭시키는 축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²⁹⁾ 임오군란 그림 속에는 제복과 제모를 비롯하여 근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 병사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야만적인 조선인의 얼굴과 복장을 묘사하여 우월감을 부추겼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조선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는 한동안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 다만 이후에도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에 관한 니시키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은 山月庵主人 著編·稻野年恒 畫 『神宮皇后三韓退治畫書』라는 그림책이 共隆社라는 출판사에서 정가 1엔으로 판매하는 광고를 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추정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사양길을 가던 니

26) 《讀賣新聞》, 1883. 6. 12

27) 《朝日新聞》, 1883. 6. 26

28) 《朝日新聞》, 1885. 11. 7

29) 강덕상은 메이지 시대 조선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는 임오군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으며 확인된 것만도 52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그림들은 크게 사건의 발단, 조선왕조의 상황, 공사관의 포위공격, 인천에서 영국 배에 의해 구조, 일본 공사관원의 전투,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 일행의 탈출, 일본의 문죄사와 강화의 7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김광열·박순애 역, 2010, 앞의 책, 67쪽

30) 《讀賣新聞》, 1886. 10. 3. 이 그림은 1841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것이다.

시키에가 다시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 3백여 년 만의 대외전쟁인 청일전쟁이었다. 다음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기의 니시키에에 나타나는 조선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Ⅲ. 청일전쟁~러일전쟁기 니시키에 속의 조선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이래 3백여 년 만의 대규모 대외전쟁인 청일전쟁을 계기로 정부는 거국일치, 국위선양, 부국강병, 식산흥업을 슬로건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했으며 또한 일본 국민들도 절대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이 전쟁을 지켜보았다. 니시키에 화가들은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했다. 청일전쟁에 관한 니시키에는 실제로 전쟁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가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이지만 일반 민중도 또한 화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그려진 니시키에를 보고 청일전쟁의 동향을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그려내고 있었다.³¹⁾ 본 연구에서 청일전쟁에 관하여 수집한 니시키에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의 그림 1~15까지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전쟁을 다룬 것으로 강덕상은 이를 ‘제1차 한일전쟁’, ‘제2차 한일전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림 5는 동학군의 전투 모습을 그린 유일한 그림이다. 이후 니시키에 속에 조선인이 등장하는 것은 오도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가 대원군을 호위하여 왕궁으로 입성하는 그림 11, 도열한 일본군을 배경으로 참내하는 대원군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 13, 왕궁을 나가는 민비를 묘사하여 민씨 일파의 몰락을 의미

31) 메이지 시대의 니시키에 가운데 전쟁장면을 묘사한 니시키에는 ‘근대전쟁니시키에’로 분류되고 있다. 그 주된 역사적 소재는 강화도사건, 서남전쟁, 조선사변(임오군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으로 대부분이 조선과 관련된 것이었다. 埼玉縣平和資料館 編, 2000, 『近代戰爭錦繪を中心に』, 埼玉縣平和資料館, 9쪽

〈표 3〉 청일전쟁에 관한 니시키에

| 순번 | 제목 | 작가 | 연도 | 내용 |
|----|------------------|-------|------|-----------------|
| 1 | 朝鮮京城戰爭 日本兵大勝利圖 | 年英 | 1894 | 조선과의 전쟁 |
| 2 | 朝鮮京城戰爭之圖 | 小國政 | 〃 | 7.23의 한일전쟁 |
| 3 | 朝鮮京城挑戰ノ圖 | | 〃 | 〃 |
| 4 | 日清韓戰爭記 | | 〃 | 일·청·한 전쟁 그림책 |
| 5 | 最新歷史 | 年英 | 〃 | 동학군의 전투장면 |
| 6 | 日本魂 竹内大尉東學黨と奮戰の圖 | 未詳 | 〃 | 일본군 장교와 동학군 |
| 7 | 日本軍隊 朝鮮國出兵之圖 | 周延 | 〃 | 靑山연병장 |
| 8 | 朝鮮電報實記 | 小國政 | 〃 | 육전대의 조선 상륙 |
| 9 | 朝鮮京城之小戰 | 〃 | 〃 | 〃 |
| 10 | 朝鮮電報 | 未詳 | 〃 | 〃 |
| 11 | 大鳥公使京城進入 | 春曉 추정 | 〃 | 〃 |
| 12 | 朝鮮記聞 大日本陸軍護衛之圖 | 未詳 | 〃 | 〃 |
| 13 | 朝鮮王城大院君參殿ノ圖 | 延一 | 〃 | 친일정권 |
| 14 | 朝鮮政府大改革之圖 | 未詳 | 〃 | 〃 |
| 15 | 朝鮮改革朴泳孝歸韓之圖 | 未詳 | 〃 | 〃 |
| 16 | 其初 朝鮮發端 | 吟光 | 〃 | 金玉均 暗殺 |
| 17 | 應徵義戰最新歷史 東學黨 | 年映 | 1895 | 일본 출병 |
| 18 | 日清韓談判之圖 | 經哉 | 1894 | 조선의 내정개혁 |
| 19 | 朝鮮京城 大鳥公使大院君護衛ス | 楊齋延一 | 〃 | 대원군 옹립 |
| 20 | 海軍將校等征淸の戰略議論する圖 | 年方 | 〃 | 해군작전회의 |
| 21 | 朝鮮豊島海戰之圖 | 未詳 | 〃 | 풍도 해전 |
| 22 | 帝國艦隊大勝利之圖 | 豊原國輝 | 〃 | 아산만 해전 |
| 23 | 朝鮮豊島沖海戰之圖 | 香朝樓 | 〃 | 풍도 앞바다 해전 |
| 24 | 朝鮮豊嶋近海勇戰 日淸憤激ノ圖 | 延一 | 〃 | 〃 |
| 12 | 淸國軍艦沈沒之圖 | 小國政 | 〃 | 〃 |
| 13 | 大日本海陸軍 朝鮮上陸之圖 | 未詳 | 〃 | 상륙지역은 미상 |
| 14 | 朝鮮國牙山開戰 日本大勝利之圖 | 歌川國虎 | 〃 | 成歡·牙山 전투 |
| 15 | 日本帝國 陸軍牙山全勝凱旋之圖 | 楊齋延一 | 〃 | 〃 |

| 순번 | 제목 | 작가 | 연도 | 내용 |
|----|----------------------|------|------|----------------|
| 16 | 成歡之敵壘江我兵躍入之圖 | 小國政 | 1894 | 成歡·牙山 전투 |
| 17 | 大日本帝國万万歳成歡襲擊和軍大捷之圖 | 年方 | " " | " " |
| 18 | 日本大勝利成歡ノ戰ニ清兵ヲ破 | 延一 | " " | " " |
| 19 | 日本勝利 安城渡之清兵ヲ破 | 延一 | " " | " " |
| 20 | 日清大激戰之圖 | 延一 | " " | " " |
| 21 | 日清大激戰之圖 | 延一 | " " | " " |
| 22 | 鎮川地方ニ五名ノ日本工兵百余人ヲ擊退ス | 年方 | " " | " " |
| 23 | 日本大勝利 牙山之砲壘ヲ攻撃ノ圖 | 延一 | " " | " " |
| 24 | 其六 牙山我兵勝利得 | 未詳 | " " | " " |
| 25 | 日清兵於牙山戰爭ノ圖 | 延一 | " " | " " |
| 26 | 日本陸軍凱旋門エ引上ケ | 延一 | " " | " " |
| 27 | 日·清交戰 朝鮮成觀役分捕品ノ圖 | 春曉 | " " | " " |
| 28 | 大日本大勝利分捕品縱覽之圖 | 小國政 | " | 전리품 전시 |
| 29 | 斥候騎馬軍曹川崎伊勢雄 | 年方 | " | 용감한 정찰병 |
| 30 | 黃州乘取之圖 | 周延 | " | 평양 공격 전초진 |
| 31 | 我軍平壤ノ清營ヲ襲擊 | 清親 | " | 평양 총공격 |
| 32 | 日清平壤激戰之圖 | 年英 | " " | " " |
| 33 | 帝國軍隊平壤大勝利 | 國輝 | " " | " " |
| 34 | 平壤ノ戰ニ於テ敵數百人生捕我軍大勝利ノ圖 | 梅禁 | " " | " " |
| 35 | 朝鮮國平壤 日本大勝利之圖 | 國虎 | " " | " " |
| 36 | 陸軍師團大万歳 | 延保 | " " | " " |
| 37 | 平壤進發我軍威清兵恐怖之圖 | 國虎 | " " | " " |
| 38 | 成歡之激戰松崎大尉奮勇ノ圖 | 年英 | " | 松崎眞臣 대위 분투 |
| 39 | 松崎大尉軍功を顯す圖 | 楊州周延 | " " | " " |
| 40 | 勇卒白神氏之美談 | 年英 | " | 木口小平 나팔수 |
| 41 | 日軍平壤大捷之圖 | 月耕 | 1895 | 1894년 9월 평양 전투 |
| 42 | 平壤大激戰之圖 | 楊齋延一 | 1894 | " |

| 순번 | 제목 | 작가 | 연도 | 내용 |
|----|-----------------------|------|------|----------------|
| 43 | 平壤攻撃我軍敵壘ヲ抜く | 年万 | 1894 | 1894년 9월 평양 전투 |
| 44 | 平壤夜戰我軍大勝利 | 年光 | " " | |
| 45 | 原田重吉之勇敢玄武門之城壁而敗敵軍 | 永年 | " " | |
| 46 | 平壤玄武門乘越之場 | 未詳 | " " | |
| 47 | 日本大勝利平壤落城之圖 | 楊齋延一 | " " | 평양 함락 |
| 48 | 於ル黃海ニ我軍ノ大捷第1圖 | 清親 | " " | 황해 해전 |
| 49 | 日清海戰大孤山沖大激戰大日本海軍大勝利之圖 | 小國政 | " " | |
| 50 | 日清海戰帝艦大激戰大勝利之圖 | 香朝樓 | " " | |
| 51 | 九月二十日號外 鴨綠江沖之大海戰 | 年光 | " " | |
| 52 | 日本海軍大勝利 鴨綠江口海戰 | 延一 | " " | |
| 53 | 樺山軍令部長西京丸を以て敵艦に當たる | 吟光 | " " | |
| 54 | 日本万歳 百撰百笑 地獄の大繁昌 | 清親 | " " | 청일전쟁 戲畫시리즈 |
| 55 | 龍宮の騒ぎ | " | " " | |
| 56 | 日清九連城激戰船橋之圖 | 年光 | " " | 여순 점령 |
| 57 | 我兵鴨綠江ヲ越ル | 楊齋延一 | " " | |
| 58 | 鳳凰城日本大勝利 | 未詳 | " " | |
| 59 | 鳳凰城攻撃之圖 | 延一 | " " | |
| 60 | 鳳凰城激戰我兵大勝利 | 未詳 | " " | |
| 61 | 金州城攻撃ノ圖 | 年方 | " " | |
| 62 | 日清戰爭 金州城追擊之圖 | 月耕 | " " | |
| 63 | 旅順口付近激戰之圖 | 月耕 | " " | |
| 64 | 我軍旅順口ヲ攻撃スル圖 | 年昌 | " " | |
| 65 | 九連城大戰之圖 | 小國政 | " " | |
| 66 | 日本大勝利 九連城陷落 | 小國政 | " " | |
| 67 | 帝國万歳 威海衛占領ノ圖 | 小國政 | 1895 | " |
| 68 | 台灣付近澎湖島占領之圖 | 延一 | " " | 팽호도 점령 |
| 69 | 近衛師團土賊征討彰化占領之圖 | 未詳 | " " | 대만 정복전쟁 |
| 70 | 土匪掃蕩頭家曆激戰 | 未詳 | " " | |

| 순번 | 제목 | 작가 | 연도 | 내용 |
|----|-----------------------|------|------|-----------------|
| 71 | 台南城占領之圖 | 半古 | 1895 | 대만 정복전쟁 |
| 72 | 橫須賀軍港 鎮遠號觀覽之圖 | 月耕 | " | 전리품 관람 |
| 73 | 日本兵大勝利祝宴を開く圖 | 楊州周延 | " | 여순 점령 축하연 |
| 74 | 於上野不忍池 旅順口占領祝祭之圖 | 未詳 | 1894 | " (1894. 12. 9) |
| 75 | 日本万歳百撰百笑 威海衛の大漁 | 淸親 | 1895 | 청일전쟁 희화시리즈 |
| 76 | 日本万歳百撰百笑 向ふ處に敵なし | 淸親 | " | " |
| 77 | 淸國講和使來朝談判之圖 | 小國政 | " | 강화조약 |
| 78 | 參謀本部會議之圖 | 延一 | 1894 | 천황 임석의 참모회의 |
| 79 | 廣島御發輦吳港幸行之圖 | " | " | 廣島 대본영에 행행 |
| 80 | 芸州廣島 大本營之圖 | " | " | 대본영 |
| 81 | 廣島大本營軍議ノ圖 | " | " | " |
| 82 | 大本營大軍議之圖 | 經茂 | " | " |
| 83 | 凱旋還幸 | 楊齋延一 | 1895 | 도쿄로 환행 |
| 84 | 大元帥陛下凱旋御着京之圖 | 梅朝齋 | " | " |
| 85 | 廣島行幸新橋御着輦之圖 | 未詳 | " | 소헌황태후 봉영 |
| 86 | 大元帥陛下凱旋還幸臣民歡迎圖 | 國臣 | " | 환행 마차행렬 |
| 87 | 大元帥陛下御還幸凱旋門御通輦市民奉迎之眞圖 | 未詳 | " | 시민환영대회 |
| 88 | 帝國万々歳大元帥陛下凱旋新橋御着輦奉迎之圖 | 延保 | " | " |
| 89 | 我征淸軍凱旋盃之圖 | 小國政 | " | 청일전쟁 개선 오찬회 |
| 90 | 野戰病院行啓之圖 | 淸親 | " | 황후 전상병자 위문 |
| 91 | 皇后陛下東京陸軍予備病院行啓之圖 | 小國政 | " | " |
| 92 | 九段靖國神社境內陳列淸軍器 分捕品 | 梅堂 | " | 靖國神社 전리품 전시 |
| 93 | 靖國神社臨時大祭之圖 | 東州勝月 | " | 靖國神社 臨時大祭 |
| 94 | 帝國大觀兵式之圖 | 未詳 | " | 전승기념관병식 |
| 95 | 川上一座の日淸戰爭野外戰 | 小國政 | 1894 | 여순 함락 축하회 |
| 96 | 川上演劇 日淸戰爭 | 香朝樓 | " | 淺草座 연극 상연 |
| 97 | 幼童軍人遊び | 未詳 | 1895 | 아동들의 병정놀이 |

하는 그림 14,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개혁과 정권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하는 박영효의 모습을 그린 그림 15, 그리고 암살당한 김옥균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김옥균의 죽음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 16까지다.³²⁾

이후 청일전쟁이 조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니시키에 속에 조선인을 소재로 한 그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조선은 이미 니시키에 화가들의 상상력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멸시의 대상은 일본군에게 패주하는 오합지졸 청국 병사들에게로 옮겨갔다. 당시 일본의 언론은 입을 모아 전쟁에서 꿈무니 빼는 청나라 병사들을 ‘짱골라, 豚兵, 豚尾’ 등과 같은 멸시적인 비속어로 매도하고 조롱하면서 청일전쟁을 ‘문명을 위한 전쟁’으로 미화하고 극찬했다. 니시키에 화가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림 속에서 청나라 병사들에 대한 멸시관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을 소재로 한 거의 모든 그림이 화가의 개성에 관계없이 근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규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전투하는 능률하고 용감한 일본군의 진격과 대조적으로 창과 칼을 지닌 오합지졸 청나라 병사가 고전하면서 패주하고 포로가 되는 초라한 모습을 묘사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³³⁾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당시의 언론에서는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자화자찬하는 언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는 일본의 대외팽창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신의 자손으로서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의 대외침략을 정당화하고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니시키에에서도 일본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황국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추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었다. 그림 73에서는 전승을 축하하는 일본군 장병들이 큰 술잔에 술을 부어 마시는 장면을 그리

32) 김옥균 암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청한동죄론’, ‘대외강경론’이 비등했으며 아사쿠사 히가시혼간지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하여 조선의 내정개혁을 위해 조선에서 청을 축출한다는 대청 강경여론을 환기시켰다. 김광열·박순애 역, 2010, 앞의 책, 92쪽

33) 청일전쟁을 묘사한 니시키에 속에서의 중국 멸시관에 관해서는 文公輝, 1998, 앞의 글 참조.

고 그 위의 '개선가'에는 "병사들이여 병사들이여, 몸도 마음도 모두가 황국의 백성일세, 문화에 혜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가사를 넣어 천황이 지배하는 황국 일본의 신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문명국' 일본의 승리를 축하했다. 또한 그림 76의 '日本萬歲百撰百笑 향하는 곳 적이 없다'³⁴⁾에서는 山東省을 손에 넣은 일본군의 강대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달아나는 청나라 병사들과 이를 보고 놀라는 외국인의 모습을 그려넣고 "이렇게 손쉽게 얻을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고 기뻐하고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커다란 자신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멸시감이 더욱 확산되어갔다. 그림 95, 96은 청일전쟁 승리를 가부키 극장에서 연극으로 상연한 것을 묘사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말해주고 있으며 그림 97의 '아동들의 병정놀이'에서는 힘이 센 아이는 일본군, 힘이 약한 아이는 청나라 병사로 묘사하여 어린이들까지도 중국인을 무시하고 깔보는 풍조를 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대미상의 '我義軍清ノ錢奴ヲ捕虜之圖'라는 제목의 니시키에는 일본군과 청군이 격렬하게 전투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3명의 일본군 병사가 4명의 청국 병사를 포로로 잡고 그 가운데 한 명의 목을 내리치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詞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동해에 屹立하여 나라를 세우고 멀리 神聖한 천황이 근본을 열고 列聖 무를 숭상하며 국민 또한 義氣에 충만하여 이는 실로 本邦의 良風으로서 만국에 비할 곳이 없다. 무론 우리 叡聖 文武 천황폐하 깊이 善隣의 義를 존중하시어 조선의 완고를 啓導하기 위해 干戈를 일으키고 청국의 省悟하는 바를 깨닫게 하고자 한다.³⁵⁾

실로 천황의 권위를 매개로 하여 청일전쟁을 '문명의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에 관한 니시키에에서는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

34) '百撰百笑'는 일본어 발음으로 '百戰百勝'과 발음이 같다. 이 시리즈는 당시 대표적 인 니시키에 화가인 小林清親의 작품이며, 그림에 대한 설명인 詞書의 작가는 '骨皮道人'이라는 필명의 문필가로 본명은 西森武城이다.

35) 文公輝, 1998, 앞의 글, 44~45쪽

데요시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는 여전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1893년에는 방곡령사건에 대한 강경담판으로 조선에서 배상금을 받아낸 소식을 전하면서 “고래로부터 일한교섭에 관한 사건은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진구황후의 親征과 豊太閤의 정벌이다”³⁶⁾고 하여 일본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日本外戰史』라는 책이 간행되어 “진구황후의 정한부터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의 外征에 관한 것을 모은 것으로 기사가 간명하고 확실하여 우리나라 軍史의 일부로서 볼 만한 好著”로 선전되고 있었다.³⁷⁾

이와 같이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에 따른 자신감은 일반국민들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축으로 한 충군애국적인 내셔널리즘이 대대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니시키에도 이러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 통합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에서의 천황의 역할은 1894년 8월 1일 청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79~82는 1894년 9월 8일 대본영을 궁중에서 히로시마 성터에 있던 제5사단 사령부로 옮기고 9월 15일에는 천황이 직접 히로시마로 행차하여 작전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천황은 히로시마에서 제7회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임시군사예산안과 공채 발행안을 전원 일치로 가결하여 거국일치 체제를 갖추었다. 그 직후 펼쳐진 평양 회전, 황해 해전, 여순 공략, 위해위 작전 등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청일전쟁은 <표 3>의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시키에의 절호의 소재로서 이용되어 봄을 맞이했다.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하여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메이지천황은 4월 27일 대본영에서의 약 7개월간의 체재를 마치고 교토 고쇼[御所]로 돌아가게 된다. 교토에서 메이지천황은 고메이[孝明], 닌코[仁孝], 고가쿠[光格] 등 선제의 능묘에 참배하고 제4회 내국권업박람회에 임했다. 그리고 5월 30일 기차로 도쿄 신바시[新橋]에 도착하여 연도에 운집한

36) 《朝日新聞》, 1893. 5. 23

37) 《朝日新聞》, 1895. 8. 3

군중들의 개선축하의 환성 속에서 마차를 타고 황궁으로 환행했다. 그 광경을 묘사한 니시키에는 지금도 다수 남아 있다(그림 83~88). 그림 83에는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9개월 만에 도쿄로 환행하는 천황의 마차행렬이 니쥬바시[二重橋]를 지나는 장면의 배경에 ‘대원수폐하’, ‘축 대승’, ‘제국만세’들의 깃발이 나부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제국일본의 국민통합에 천황과 함께 황후의 역할도 니시키에에 묘사되어 있다. 그림 90은 황후가 히로시마육군예비병원을 방문하여 부상 장병을 위문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황실의 ‘仁慈’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림 91에서는 1895년 2월 16일 황후가 황태자를 동반하고 도쿄육군예비병원을 위문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당시 《毎日新聞》에서는 “황후의 하사금으로 부상 병사들의 의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몸에 잘 맞아서 보행이 자유로워졌다”고 전하고 있다.³⁸⁾

청일전쟁 이후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통합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데 니시키에도 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남기고 있다. 그림 92는 청일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일반에게 공개한 것을 묘사한 그림인데,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농한기가 되어 최근 시골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평소에는 먼저 아사쿠사[淺草]나 우에노[上野]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전쟁의 전리품을 보기 위해 먼저 九段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자들이 많으며 신사 앞 도로에는 초밥집, 떡집 등이 늘어서 마치 축제일과 같은 광경”³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림 93은 야스쿠니신사의 임시대제에 천황이 직접 참배하고 여기서 천람씨름이 열린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 실제로 1895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임시대제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전사한 육군 1,346명, 해군 152명이 합사되었으며 천황은 12월 17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으나 천람씨름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야스쿠니신사에 군집한 군중들의 모습은 “구단언덕을 오르면 좌우일대에 흥행장이 늘어서 음식점을 비롯한 상인들의 노점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으며

38) 《毎日新聞》, 1895. 3. 21

39) 《國民新聞》, 1894. 10. 24

…… 군중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노약부녀자들은 그 와중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⁴⁰⁾라고 하여 축제와 같은 성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는 천황의 권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團々珍聞』에서는 “이 대승리를 거두어 우리까지도 어깨를 펴기에 이른 것은 과연 누구의 힘인가. 황송하게도 叡聖, 文武, 至仁, 至愛하신 우리 천황폐하의 餘光과 저 忠實勇武한 육해군 군인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가”⁴¹⁾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를 천황의 권위와 직결시켰다. 또한 시중에서는 ‘기미가요만두’라고 이름 지은 만두와 ‘金鷄勳章’이라는 이름의 약이 판매되고 있었다. 원래 ‘金鷄勳章’은 무공이 뛰어난 군인에게 하사하기 위해 1890년에 제정된 것으로 진무[神武]천황이 ‘東征’할 때 금색 솔개가 천황의 화살 위에 내려앉아 천황군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신화에 의거한 것이었다.⁴²⁾

이와 같이 청일전쟁의 승리는 근대천황제국가의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제국일본의 승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근린아시아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시선이 고정되어갔다. 니시키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비록 화가들의 상상력에 바탕을 둔 것이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제국일본으로의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이후 러일전쟁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에서 주목되는 것은 청일전쟁의 주된 전장이 조선이었다면 러일전쟁의 주된 전장은 청국 영토임에도 청일전쟁에서 조선인이 배제되었듯이 러일전쟁에서는 중국인이 배제되었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그림 10, 11이 있으나 그림 10은 러시아의 스파이를 하다가 체포된 한인 20명의 초라한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그림 12는 말을 탄 러시아 병사에게 납치당하는 연약한 조선인 부녀자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병사에 대해서는 청일전쟁에서 청국 병사들을 묘사

40) 《東京日日新聞》, 1895. 12. 18

41) 『團々珍聞』 第975號(1894. 8. 18)

42) 山田昭次, 「民族的差別と蔑視」, 淺田喬二 編, 『近代日本の軌跡10－帝國日本とアジア』, 吉川弘文館, 182쪽

〈표 4〉 러일전쟁에 관한 니시키에

| | | | | |
|----|---------------------|-----|------|---------------|
| 1 | 日露京城ニ激戦ス大日本帝國大勝利万歳 | 柳哇 | 1904 | 일본육군 경성 제압 |
| 2 | 日露旅順口海戰帝國海軍大勝利 万歳 | 柳哇 | 1904 | 러일해전 |
| 3 | 日露仁川口海戰大日本海軍大勝利 万歳 | 清親 | 1904 | 〃 |
| 4 | 日露京城ノ攻撃大日本大勝利帝國万歳 | 柳哇 | 1904 | 경성 전투 |
| 5 | 日露交戦畫報 其三 | 延一 | 1904 | 〃 |
| 6 | 韓國日露仁川戰鬪之圖 | 周延 | 1904 | 인천 전투 |
| 7 | 日露平壤付近衝突之圖 | 畫狂人 | 1904 | 평양 전투 |
| 8 | 日露戰爭畫報其九 | 耕曉 | 1904 | 박천 전투 |
| 9 | 日露戰爭我軍定州占領之圖 | 未詳 | 1904 | 정주 점령 |
| 10 | 露探韓人二十名逮捕せられるの圖 | 松穀 | 1904 | 한인 스파이 20명 체포 |
| 11 | 露兵韓國の少婦を騎馬にて拉し去る之圖 | 未詳 | 1904 | 한국 부녀자 납치 |
| 12 | 鴨綠江附近 日本大勝利 | 未詳 | 1904 | 압록강 도하 |
| 13 | 日露交戦記聞 | 年英 | 1904 | 여순항 폐쇄 |
| 14 | 第二回旅順港之閉鎖 | 楊齋 | 1904 | 〃 |
| 15 | 日露大戰爭サハリン嶋市街戰之圖 | 未詳 | 1904 | 사할린 시가전 |
| 16 | 七星門外斥候衝突 | 美邦 | 1904 | 정찰대 충돌 |
| 17 | 陸戰第一日本軍大勝利 | 年英 | 1904 | 의주가도 定州 전투 |
| 18 | 日本万歳 百撰百笑 逃露々々 | 清親 | 1904 | 러일전쟁 희화시리즈 |
| 19 | 南山之役中尉柴川又三郎君 | 月三 | 1904 | 남산 전투 |
| 20 | 旅順開城須將軍會見乃木將軍 | 月三 | 1905 | 스텝셀과 노기 장군 |
| 21 | 旅順降服乃木大將トステッセル將軍ノ會見 | 柳哇 | 〃 | 〃 |
| 22 | 日本海海戰 | 月三 | 1905 | 동해 해전 |
| 23 | 日露戰爭忠勇美鑑 海軍中將東郷平八郎氏 | 未詳 | 1904 | 도고 헤이하치로 |
| 24 | 大日本海軍陸戰隊上陸之圖 | 延一 | 1904 | 인천 상륙 예상도 |
| 25 | 征露雜觀其六 | 未詳 | 1905 | 진구황후, 기요마사 |

한 것과 같이 야만적이고 의기소침한 모습이 강조되고 이에 비하여 일장기와 육일승천기로 상징되는 일본군의 늠름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청일전쟁부터 니시키에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던 진구황후와 가토 기요마사가 드물게나마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표 4>의 그림 25는 동해 해전에서 승리한 직후인 1905년 6월에 그려진 것으로 '세계 제일'이라는 깃발 아래 신화상의 인물인 진구황후와 다케우치노 쓰쿠요,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가 묘사되어 있다.

한편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러일전쟁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는 청일전쟁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다. 이미 당시에는 문명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라 니시키에보다도 세밀한 묘사가 가능한 석판화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잡지 등에도 게재되었다. 또한 사진도 보급되고 있었으며 사진이 실린 신문보도가 성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화가의 상상을 통해 묘사된 니시키에는 사실적인 재현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⁴³⁾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니시키에는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이윽고 점차 그 역사적인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

IV. 러일전쟁 이후~한일합방의 조선관

막말부터 메이지 초반에 걸쳐 니시키에 속에서 빈번하게 확대 재생산되던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메이지 중기 이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묘사한 니시키에에서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니시키에 속에서는 신화와 역사에 의거하여 조선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서 문명화를 성취하고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의 통합이 강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황위를 해외에 떨친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토 기요마사의 모습에 대신해서 늙은 대일 본제국 일본 병사들의 활약이 대체되었다.

43) 扇子忠, 2009, 앞의 책, 112쪽

그러나 니시키에 속에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니시키에 이외의 대중매체에서는 근대천황상의 권위를 보강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러일전쟁이 아직도 시작되기 전인 1902년 체결된 영일 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기타자와 라쿠덴[北澤樂天]이 그린 만화에서는 천황의 조상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와 영국을 상징하는 브리타니아(Britannia)의 두 여신이 하늘에서 나란히 서서 구름에 쌓여 있는 조선을 내려다보고 있다.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조선을 덮고 있는 어두운 구름(러시아)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아마테라스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다시 등장한다. ‘러시아인의 일본인관’이라는 4컷 연속만화에서는 작은 원숭이에서 아마테라스로 변해가는 일본과 거대한 몸집의 장군에서 점차 보잘것없는 곰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러시아인을 묘사함으로써 두 나라의 지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⁵⁾

러일전쟁 승리 후에는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진구황후도 다시 등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朝日新聞》에서는

국세신장의 오늘에 되돌아 보건데 옛 영웅의 모습이 연상되는데 특히 진구황후와 豊太閤은 역사상으로도 특출하여 후세에 추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을 모시는 祠宇조차도 제대로 없는 것은 유감으로 豊太閤은 수년 전 크게 기념되었다고 하지만 진구황후에 관해서는 거의 제사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에 이번에 교토의 유지들이 상의해서 新町四條에 戰捷 기념으로 미려하고 장엄한 신사를 건립하기로 기획했다. 또한 보물로서는 황후의 옛날 그림과 황후가 휴대한 것으로 전해지는 守刀를 봉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매우 유서 깊은 것이라고 한다.⁴⁶⁾

44) 한정선, 2006,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일조각, 148쪽

45) 한정선, 2006, 위의 책, 159쪽

46) 《朝日新聞》, 1905. 8. 2

고 하여 여전히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무위를 해외에 떨친 영걸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특히 진구황후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를 건립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신도 신앙과 결합하여 일반 서민들 사이에 더욱 가까이에서 친숙한 존재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밖에도 각지에서 전통적인 축제가 진구황후의 신화와 결합하여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06년 《朝日新聞》에서는 9월 1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의 鹿島神宮 軍神祭가 특히 러일전쟁 승리 후의 일이라 한층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군신제의 유래에 관해서 진구황구의 삼한 정벌 당시 鹿島大神이 배를 지키고 있어서 삼한이 항복한 후에 歸陣할 수 있었다는 전승을 소개하고 있다.⁴⁷⁾ 3일간의 성대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제국일본의 승리에 도취한 서민들에게 이러한 진구황후의 신화가 아무런 여과 없이 침투되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朝日新聞》에서는 1905년 12월 한국통감부 설치 이후 ‘신통감 및 통감부’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새로운 보호국 통치 기구에 관하여 “진구황후 삼한 정벌의 결과 韓地에 창설된 일본의 관청을 일본에서는 내관가라 하고 한국에서는 일본부라 한 것은 고문서에서 볼 수 있다”고 하여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은 고대의 이러한 제도로 복귀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⁴⁸⁾

일본은 1907년 7월 24일 정미7조약으로도 알려진 한일신협약을 강제하여 조선에서의 모든 행정적 지휘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일본의 실질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한일신협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도쿄 편』⁴⁹⁾에서는 4면을 할애하여 화려한 색채의 ‘한일신협약의 순간’을 실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다다스[林薰]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완용이 협약서에 날인하고 있으며 하늘에서는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정한론’을 주창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오랜 역사적 숙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기뻐하는

47) 《朝日新聞》, 1906. 8. 25

48) 《朝日新聞》, 1905. 12. 23

49) 《時事新報》의 만화를 주관하면서 만화가로 인정받은 기타가와 라쿠넨이 1905년 창간한 대형 컬러판 만화잡지, 1912년 폐간. 한정선, 2006, 앞의 책, 31쪽

모습을 담고 있다.⁵⁰⁾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주사위놀이판에는 신화에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에서 조선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는 표상들이 망라되어 있다. 예컨대 놀이판에 그려진 스무 장면의 만화는 평양과 부산의 풍경, 조선의 온돌, 다듬이질 하는 조선 여성의 모습,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과 관련이 있는 귀무덤,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정한론을 주창한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놀이판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조선 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구황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가 그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毅武]가 천황의 합병 조칙을 읽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데라우치의 등 뒤에는 '만세'라는 글귀와 함께 옥일승천기와 같은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황가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동시에 대일본제국의 팽창을 표상하고 있다.⁵¹⁾ 한일합방은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이라는 오랜 숙원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⁵²⁾

한일합방을 전후해서는 만화뿐만 아니라 신문 등의 언론에서도 가토 기요마사와 진구황후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09년 《讀賣新聞》에는 “가토 기요마사공 300년제에 즈음하여 각계각층에서 찬조금이 쇄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황실에서 폐백료를 하사했다고 한다. 그 취지는 가토 기요마사공이 조선 정벌 당시 파죽지세로 회령부를 공략했을 때 두 왕자를 포로로 잡았지만 이들을 정중하게 대우하여 돌려보냈으며 그 후손이 지금의 한국 황제로서 가토 기요마사공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궁내청에서 통감부를 통해서 本妙寺에 하사하기로 했다”⁵³⁾는 기사가 실렸다. 또한 한국 병합 직후에는 신문지상에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업’을 상기하고 그

50) 한정선, 2006, 위의 책, 203쪽

51) 한정선, 2006, 위의 책, 233~235쪽

52) 《朝日新聞》, 1910. 8. 25, 8. 29, 8. 30에서 진구황후가 등장하고 있으며, 《讀賣新聞》, 1910. 10. 13에는 진구황후의 그림이 실려 있다.

53) 《讀賣新聞》, 1909. 2. 27

연장선상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의 승리와 한국 병합을 환영하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⁵⁴⁾ 한국 병합 직후 시대를 달리는 전차 안에서 호의를 보고 노파와 남성이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는 진구황후가 일반서민들 사이에 얼마나 익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노파 “그럼 조선은 일본 것이네요”

남성 “그렇죠, 진구황후님 이래의 일이니까”

노파 “아! 참 장한 일이야”⁵⁵⁾

또한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이데올로그이자 ‘일선동조론’의 주창자로서 잘 알려진 기다 데이기치(喜田貞吉)는 ‘한국의 병합과 국사의 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연에 “조선은 분가고 일본은 본가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같은 것도 실은 내란의 진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당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통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종 일본에 등을 돌려 덴무[天武]천황과 같이 한 차례 정벌을 시도했지만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를 이루지 못하고 이윽고 日韓이 同祖同國이라는 사실을 잊고 별개의 나라인 것처럼 되었다”⁵⁶⁾라고 하여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다. 또한 한일합방 직후 《讀賣新聞》에서는 부채와 활을 들고 있는 진구황후의 그림을 크게 실어 삼한 정벌의 ‘위업’을 상기시키고 있었다.⁵⁷⁾

심지어 장래 일본을 짊어지게 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소년잡지에서도 진

54) 《朝日新聞》, 1910. 8. 24, “合併と世論”; 8. 25, “合併せらるゝ韓國”, “朝鮮雜話”; 8. 28, “合併せらるゝべき韓國”; 8. 29, “美術史上の日韓” 등. 한국 병합 당시 일본 언론의 조선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관에 관해서는 吉岡吉典, 1967~1968, 「『朝鮮併合』と日本の世論」上·下, 『朝鮮研究』第65, 72號 및 中島智枝子, 「『日韓併合をめぐる總合雜誌の論調について—『日本及日本人』, 『太陽』, 『中央公論』をとおして, 『部落解放研究』第3號, 1974 참조.

55) “日韓併合と市中”, 《朝日新聞》, 1910. 8. 30

56) 喜田文學博士 演說 “韓國の併合と國史の教育”, 《朝日新聞》, 1910. 9. 9

57) 《讀賣新聞》, 1910. 10. 13

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청일전쟁을 계기로 창간된 소년잡지 『少年世界』에서는 창간호에 ‘삼한 정벌’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러일 전쟁 이후에는 조선의 후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한국 병합에 즈음해서는 잡지의 주간이자 일본 근현대 아동문학을 창시한 대표적인 인물인 이와야 사자나미[巖山小波]가 ‘조선의 병합과 소년의 각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러전쟁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일청전쟁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모두 조선을 위해서였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그 전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서남전쟁도 원래는 조선을 위해서였다. 더구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豊太閤의 外征도 진구황후의 출정도 모두 조선으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실로 우리 제국은 2천 년 이래의 목적을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 달성해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일은 오히려 지나치게 늦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제군의 대부분은 일러전쟁이야말로 기억하겠지만 일청전쟁에 이르러서는 사부의 이야기에 의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서남전쟁, 文縵의 役(임진왜란-인용자), 삼한 정벌의 사적과 같은 것은 역사에 의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대저 제군으로 하여금 이 좋은 時運을 만나게 하기 위해 가까이는 제군의 부형, 멀리는 제군의 조상이 생명, 재산, 시간, 노력, 모든 희생을 기울여 비로소 성공한 것이다.⁵⁸⁾

아동들로 하여금 제국일본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국민 만들기’에서도 여전히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상기되고 있었다. 대외적인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하는 18세기 후반부터 신국 일본의 ‘皇威’를 해외에 떨친 ‘偉業’으로 인식되어오던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는 당면과제하에서 근대화=문명화를 추진하고 국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되풀이해서 확대 재생산되었

58) 大竹聖美, 2003, 「明治期少年雑誌にみる朝鮮觀-日清戰爭(1984)~日韓併合(1910)前後の『穎才新誌』・『少年園』・『小國民』・『少年世界』」, 『朝鮮學報』 88號, 95~96쪽

으며 한국 병합은 이윽고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업이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막말유신기부터 한일 합방까지 니시키에를 중심으로 한 조선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도막부 후기부터 대외적인 위기감이 심화되면서 천황의 권위가 급격하게 부상하는데 이와 병행하여 일본의 ‘황위’를 해외에 떨쳤다고 전해지는 진구황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이라는 전통적인 조선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니시키에는 이러한 동향에 편승하여 그림의 소재 속에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를 빈번하게 등장시켜 조선에 대한 우월감을 부추기고 있었다.

둘째, 메이지유신 이후 정한론, 임오군란 등과 같이 조선을 소재로 한 니시키에 속에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등장 횟수가 감소하고 이에 대신하여 문명화된 일본에 대한 야만·몽매한 조선상이 대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니시키에 속에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신문에서는 정한논쟁, 강화도사건,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전후하여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상기시키는 기사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다. 또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도 니시키에 속에서 진구황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에서는 여전히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조선을 일본으로 복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셋째,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묘사하는 니시키에에서 조선인, 중국인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본다면 청일전쟁기까지 니시키에에서

조선인을 멸시의 대상으로 삼던 것이 청일전쟁에서는 중국인으로, 러일전쟁에서는 러시아인으로 이동해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근대화 된 장비를 갖추고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는 일본 병사들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패주하는 오합지졸의 청나라 병사나 러시아 병사들을 주변적으로 묘사하는 점에서는 모든 니시키에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와 같이 니시키에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제국일본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끼게 하면서 조선, 중국, 러시아에 대한 멸시관과 우월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을 더욱 강화해가는 것이었다.

넷째, 니시키에 속에서는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지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부터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오랜 역사적 숙원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만화를 비롯한 대중매체 속에서 진구황후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황위를 해외에 떨친 영웅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었다.

메이지 일본의 조선 멸시관은 전통적인 조선관의 확대재생산, 문명화에 의한 문명론적 우월감, 일본 민족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배외적 내셔널리즘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니시키에는 실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출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니시키에에 나타나는 조선 표상은 근대 일본의 배외적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근대천황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박진우, 2004, 『근대일본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앤씨
- 한정선, 2006,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일조각
- 김광열·박순애 역, 2010, 『우키요에 속의 조선과 중국』, 일조각
- 姜徳相 編著, 2007, 『錦繪の中の朝鮮と中國-幕末・明治期の日本人のまなざし』, 岩波書店
- 高橋克彦, 1992, 『新聞錦繪の世界』, 角川書店
- 國立史料館 編, 『明治開化期の錦繪』, 東京大學出版會
- 埼玉縣平和資料館 編, 2000, 『近代戰爭錦繪を中心に』, 埼玉縣平和資料館
- 旗田巍, 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 丹波恒夫, 1966, 『錦繪にみる明治天皇と明治時代』, 朝日新聞社
- 木下直之, 吉見俊哉 編, 1999, 『ニュースの誕生: かわら版と新聞錦繪の情報世界』, 東京大學出版會
- 福生市郷土資料室 編, 2007, 『戰爭錦繪に見る日露戰爭百年: 日露戰爭と福生』, 福生市郷土資料室
- 富澤達三, 2004, 『錦繪のちから: 幕末の時事的錦繪とかわら版』, 文生書院
- 山下武夫 編, 1977, 『日本郵便錦繪集』 限定版. 岩崎美術社
- 上杉聰, 1990, 『明治維新と賤民解放令』, 解放出版社
- 上杉聰, 1990, 『天皇制と部落差別』, 三一書房
- 扇子忠, 2009, 『錦繪が語る天皇の姿 = Japanese Emperor in Ukiyo-e』, 遊子館
- 小西四郎 著, 1977, 『錦繪幕末明治の歴史9/鹿鳴館時代』, 講談社
- 小西四郎 著, 1977, 『錦繪幕末明治の歴史11/日清戰爭』, 講談社
- 小西四郎 著, 1978, 『錦繪幕末明治の歴史12/日露戰爭前後』, 講談社
- 衣笠安喜, 1990, 『近世日本の儒教と文化』, 思文閣
- 早稻田大學圖書館 編, 1987, 『幕末・明治のメディア展: 新聞・錦繪・引札』, 早大出版
- 中塚明, 1993, 『近代日本の朝鮮認識』, 研文出版
- 増田太二郎 編, 1977, 『引札繪びら錦繪廣告: 江戸から明治・大正へ』, 誠文堂新光社

- 千葉市美術館 編, 2008, 『文明開化の錦繪新聞: 東京日々新聞・郵便報知新聞全作品』, 國書刊行會
- 土屋禮子, 1995, 『大阪の錦繪新聞』, 三元社
- 土屋禮子 編, 2000, 『日本錦繪新聞集成』, 文生書院

〈논문〉

- 姜徳相, 1983, 11, 「日本の朝鮮支配と民衆意識」, 『歴史學研究』別冊特集-東アジアの再編と民衆意識, 青木書店
- 大竹聖美, 2003, 7, 「明治期少年雜誌にみる朝鮮觀-日清戰爭(1984)~日韓併合(1910)前後の『穎才新誌』・『少年園』・『小國民』・『少年世界』」, 『朝鮮學報』88號
- 文公輝, 1998, 「錦繪・錦繪新聞にみる朝鮮・中國へのまなざし-江華島事件から日清戰爭まで」, 『大阪人權博物館紀要』第2號
- 北島万次, 1986, 10, 「秀吉の朝鮮侵略における神國意識」, 『歴史評論』438
- 山田昭次, 1979, 「甲申政變と日本の思想狀況」, 『幕藩制から近代へ』, 柏書房
- 三谷憲正, 1998, 「『太陽』における『朝鮮觀』-ある『奇妙な情熱』について」, 『日本研究』
- 石川昌, 1988, 2, 「明治期ジャーナリズムと朝鮮(上)-征韓論から甲申政變まで」上, 『季刊三千里』41號
- 石川昌, 1988, 8, 「明治期ジャーナリズムと朝鮮(中)-東學農民蜂起から閔妃殺害事件まで」, 『季刊三千里』43號
- 石川昌, 1988, 11, 「明治期ジャーナリズムと朝鮮(下)」, 『季刊三千里』44號
- 矢澤康祐, 1969, 6,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觀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 櫻井義之, 1977, 「明治時代錦繪に見る朝鮮問題」, 『作新學院女子短期大學紀要』4
- 庄佩珍, 2007, 6, 「朝鮮との関わりから見た神國思想の特質と展開-神宮皇后三韓征伐傳にまつわる「神國」に関する分析」, 『洛北史學』9號
- 村井章介, 1989, 「中世における東アジア諸地域の交通」, 『日本の社會史』, 岩波書店
- 塚元明, 1996, 10, 「神宮皇后傳説と近世日本の朝鮮觀」, 『史林』79-6
- 横山俊夫, 1987, 「神國への道-「異國」接近と「幕末」文化」, 林辰三郎 編, 『幕末文化の研究』, 岩波書店

[ABSTRACT]

The Formation of the Modern Japanese Emperor Image and Sights of Joseon from an Analysis of Nishiki-e Prints

Park Jinwoo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Japanese populace's perception of an inferior Joseon had much to do with the national integration inspired by the modern Emperor image through an analysis of the visual portrayals of Joseon in Japanese mass media, such as Nishiki-e prints.

The perception of Joseon in modern Japan was tightly interwoven with three components: the expanding reproduction of framing the image of Joseon with contempt, a sense of superiority in terms of the level of civilization, and an exclusive nationalism. The refashioning of the inferior Joseon, which adhered to traditional perceptions of Joseon, was greatly underpinned by Empress Jingū's mythical "conquest of the Three Han states" and Toyotomi Hideyoshi's "Korean conquest." As these two imperial expansionist agendas were heavily propagated as the heroic "great achievement" of "imperial power" abroad, the promotion of a sense of superiority in the level of civilization among the Japanese populace was in turn authorized by the modern Emperor image. Further, exclusive nationalism played the key role in consolidating national unity centering on the image of the modern Emperor in these imperial agendas.

These three components were plainly manifested through Nishiki-e prints, which were widely distributed in Japan from the late Edo period

to the Russo-Japanese War. In this regard, Japan's perceptions of Joseon in the form of Nishiki-e prints had great impact upon the consolidation of the exclusive nationalism of modern Japan and the national integration with the modern Emperor image at its center.

Keywords

Nishiki-e prints, modern Emperor image, Empress Jingū, the conquest of the "Three Han states," Toyotomi Hideyoshi, the "conquest of Korea," the Sino-Japanese War, the Russo-Japanese W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메이지 초년의 전쟁과 프로파간다

- 1874년 타이완[台灣] 침공 관련 이미지를 중심으로 -

박삼헌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부교수



I.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는 자국과 타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국경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국가적 과제를 '자발적'으로 떠안는 국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국가를 단위로 발생한 전쟁은 대외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그 어느 시대보다 국민과 비국민을 명확히 구분하게 만드는 국가적 과제 중 하나다.

1874년 타이완 침공은 국민국가 단위의 일본국이 해외출병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¹⁾ 이것의 발단은 1872년 1월 3일²⁾ 타이완 동남부 지역에 표

※ 투고일: 2013년 5월 22일, 심사일: 2013년 1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22일

1) 일본 학계에서는 보통 1874년 당시에 통용된 타이완 출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타이완 출병이라는 용어에는 당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을 뿐 그 침략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타이완 출병의 침략성을 드러내기 위해 타이완 침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미 일본 연구자 중에서도 이 시이 다카시[石井孝]가 '일본군 타이완 침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1982, 「第1章 日本軍台灣侵攻をめぐる國際情勢」,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

작한 류큐인[琉球人] 66명 중 54명이 현지인=‘生蕃’에게 살해당하고, 1873년 3월 8일 타이완 서남부 지역에 표착한 오다현[小田縣]³⁾ 출신 상인 4명도 현지인에게 폭행과 약탈을 당한 사건⁴⁾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청 정부가 ‘생번’은 통치가 미치지 않는 ‘化外’⁵⁾ 지역에 속한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직접 ‘생번’을 ‘징벌’하기 위해 ‘출병’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일본 정부에게 타이완 침공은 류큐인과 오다현 상인, 즉 일본국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을 대신하여 보복하고 향후 일본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출병’이었던 것이다.⁶⁾ 이런 의미에서 타이완 침공은 막부를 폐지하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되

堂), 최근 한·중·일 3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저술한 결과물에서도 타이완 침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 2) 음력으로는 1871년 11월 23일이다.
- 3) 1871년 폐번치현 직후 설치된 현으로 현재 오카야마현[岡山縣] 서부와 히로시마현[廣島縣]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 1875년 오카야마현에 통합되었다.
- 4) 일본 학계에서는 타이완 침공의 명분으로 류큐변 인민 살해사건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타이완 침공을 류큐의 일본 영토 편입과정, 즉 ‘류큐처분’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5) ‘화외’ 해석에 관한 중국의 연구는 리시주(李細珠), 2011, 「李鴻章의 대일인식과 외교책략-1870년대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32호, 일본의 연구는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2011,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동북아연구논총』 32호;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 2011, 「근대 일본 ‘대륙정책’의 구조-타이완 출병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2호 참조.
- 6) 오다현 상인 폭행 및 약탈을 기록한 당시의 중국 측 자료는 타이완의 ‘土蕃人’이 표착한 일본인 4명을 구해주고 돌려줬으므로 포상할 만하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白春岩, 2010, 「小田縣漂流民事件における中國側の史料紹介」, 『社學研論集』 15號 참조). 당시의 일본 측 자료 중 오다현 표류민 4명이 귀국 직후인 1873년 8월 8일 외무성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태풍 때문에 저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의류와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중국 측 자료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ヨリ小田縣民佐藤利八外三人漂流一件上申竝ニ別紙在清井田總領事來東其他四通」, レファレンスコード A03031119100, 4~6쪽). 하지만 국내적으로 타이완 침공을 공식화한 太政官達書 제65호에서는 “오다현 인민 4명이 표착하여 폭행과 약탈을 당했다”고 적고 있고(1874년 5월 19일 「陸軍中將西郷從道ヲ提督ニ任シ台灣人間罪ノ爲同島へ派遣セシム」, 内閣官報局 編, 1975 복각, 『法令全書』 第七卷-1, 323쪽), 타이완 침공이 마무리된 직후인 1875년 1월 4일 蕃地事務局이 작성한 공식기록도 태정관달서와 동일하게 “蕃人에게 의복과 재물을 약탈당했다”고 적고 있다(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處蕃趣旨書(明治八年一

는 일본국이 새롭게 구축된 징병제로 ‘불평사족’이라는 구체제의 불안요소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초의 해외출병이자, 일반 서민이 스스로를 일본 국민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타이완 침공은 6월 1~3일까지 실시된 대대적인 牡丹社 소멸 작전으로 사실상 끝났다. 하지만 청이 류큐왕국의 귀속문제와 일본 측의 ‘화외’ 해석 등을 지적하면서 외교갈등이 발생했고, 이것이 당시 서양 각국의 동아시아 전략과도 맞물리면서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31일 駐淸 영국 공사 웨이드(Wade)의 중재로 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보상금 50만 냥(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고,⁷⁾ 12월 3일부터 일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일본 최초의 해외출병은 일단락되었다 (<표 1> 타이완 침공 관련 연표 참조).

타이완 침공에 대한 정치사나 외교사의 평가는 당시의 일본 정부가 “안에서 亂을 생각하는 鬱屈한 士族의 銳氣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타이완 침공을 계획”⁸⁾했다는 것, 그리고 “大清帝國에 대한 대항이나 화이질서에 대한 도전 등과 같은 발상이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19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복잡한 국제정치의 磁場을 배경으로 실천되었기 때문에 화이질서 붕괴

月蕃地事務局編)正』, レファレンスコード A03023016400, 1쪽). 이렇듯 실제로는 타이완 현지인에게 도움을 받은 오다현 상인 표착 사건을 당시의 일본 정부가 ‘폭행 및 약탈’당한 것으로 ‘왜곡’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류큐인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류큐왕국이 청과 일본에 ‘兩屬’하면서도 미국·프랑스·네덜란드와 별도의 통상조약을 맺었던 ‘별도’의 존재였던 만큼, 류큐인의 피해만으로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병한다는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을 받았던 오다현(=본토) 상인들마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는 각국의 입장에서 타이완 침공에 깊이 관여하던 서양 국가에 대한 메시지라 생각된다. 타이완 침공 직후 번지사무국이 작성한 공식기록의 대부분이 청과의 담판 과정에 할애되고 있는 점, 동일한 내용의 영역본도 함께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일본 정부는 서양 각국의 동향에 매우 민감했다.

7) 피해 입은 류큐인에게 보상금 10만 냥, 일본군이 현지에 건설한 도로 등 비용으로 40만 냥.

8) 石井孝, 1982, 앞의 책, 191쪽

〈표 1〉 타이완 침공 관련 연표(양력)

| | | |
|-------|---|--|
| 1872년 | 1월 3일 | 류큐인[琉球人], 타이완[台灣] 표착 사건 발생(66명 중 54명이 살해당함). |
| | 7월 12일 | 류큐인 생존자 나하[那覇] 귀환. |
| 1873년 | 3월 8일 | 오다현[小田縣] 주민 4명, 타이완 표착 사건 발생. |
| | 12일 | 특명전권대사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일행, 베이징으로 출발(표면적 이유는 청일수호조규 비준교환과 同治帝 친정 축하였지만, 이와 별도로 류큐인 살해사건 담판도 준비함). |
| | 4월 30일 | 소에지마, 텐진에서 直隸總督 겸 북양대신 李鴻章 등과 조규비준서 교환. |
| | 5월 7일 | 소에지마 일행, 베이징 도착(황제 알현 예의를 둘러싼 의견대립). |
| | 6월 21일 | 소에지마, 副使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등을 청의 총리아문으로 보내서 류큐인 살해사건 언급(청 측, 타이완 生番은 '化外'라고 발언). |
| | 29일 | 특명전권대사 소에지마 三揖의 예로 청국 황제 알현, 국서 제출. |
| | 7월 3일 | 소에지마 일행, 베이징 출발(25일 일본 귀국). |
| 8월 8일 | 오다현 주민 4명, 무사 귀환 후 외무성에 진술서 제출. | |
| 1874년 | 2월 6일 | 참의 겸 내무경 오쿠보, 참의 겸 대장경 오쿠마, 『타이완번지처분요략』 제출(타이완 침공 결정). |
| | 4월 4일 | 일본 정부, 타이완번지사무국[台灣番地事務局] 설치(도독에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 임명). |
| | 7일 |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처음으로 사이고 쓰구미치 타이완 파견 관련 보도. |
| | 9일 | 사이고 쓰구미치, 출항 준비를 위해 나가사키[長崎]로 출발. |
| | 13일 | 기시다 긴코[岸田吟香], 《도쿄니치니치신문》에 「타이완신보[台灣信報]」 제1호 게재 시작. |
| | 19일 | 타이완 침공 유예 결정. 나가사키에 머물고 있던 사이고 쓰구미치가 강력히 반발. |
| | 27일 | 사이고 쓰구미치, 선발대 200여 명을 타이완으로 독단 출항시킴. |
| | 5월 2일 | 사이고 쓰구미치, 본진 함대(병사 천여 명)와 함께 출항. |
| | 4일 | 나가사키에서 오쿠보, 오쿠마, 사이고 쓰구미치 3자회담 결과 타이완 침공 다시 결정. |
| | 6일 | 타이완 침공 선발대, 타이완 서남부의 社寮港 도착. |
| 10일 | 타이완 침공 본진, 타이완 서남부의 사료항 도착. | |
| 17일 | 사이고 쓰구미치, 다가사고마루[高砂丸]로 나가사키 출발(기시다 긴코 동승). 일본군과 牧丹人の 충돌 결과, 일본군 척후병 1명 살해당함. | |

| | |
|---------|--|
| 19일 | 정부, 타이완 침공 공식 발표(太政官達書 第65號). 駐清 공사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중국으로 출발. |
| 21일 | 일본군 척후병 10명이 출동하여 목단인 1명 살해하고 3명 부상당함. |
| 22일 | 일본군 2소대, 石門에서 목단인과 교전(목단인 추장 살해, 3명 전사) 사이고 쓰구미치(병사 1,800명), 타이완 서남부의 사료항 도착. |
| 28일 | 주청 공사 야나기와라 사키미쓰, 상하이 도착(31일 청 관리와 타이완 문제 관련 회견). |
| 6월 1일 | 사이고 쓰구미치, 牡丹社 燒滅 작전 실시 및 제압(3일 완료). |
| 4일 | 청의 총리아문, 일본 외무성에게 영도침범이라는 통보(5월 11일 작성)를 함. |
| 20일 | 기시다 긴코, 발병으로 타이완 출발(7월 24일 일본 도착) |
| 21일 | 청의 군함 2척이 타이완에 도착했으나 일본군 철수만 요청하고 물러남. |
| 22일 | 타이완 현지에서 일본 측과 중국 측 회담(6월 25·26일). |
| 7월 9일 | 일본 정부, 교섭 여하에 따라 청과 개전도 불사할 것을 결정. |
| 8월 1일 | 전권변리대신 오쿠보 도시미치가 타이완 문제 교섭을 위해 청으로 파견 결정. |
| 5일 | 기시다 긴코, 《도쿄니치니치신문》에 「타이완수고[台灣手藁]」 제1호 게재 시작(10월 5일까지 총9회). |
| 6일 | 전권변리대신 오쿠보 도시미치, 도쿄 출발(9월 10일 베이징 도착). |
| 9월 14일 | 오쿠보, 총리아문에서 恭親王과 타이완 문제 교섭 개시. |
| 10월 24일 | 오쿠보, 총리아문에게 최후통첩 통보. 영국의 주청 공사 웨이드(Wade), 일본과 중국 양측에게 배상금 등 조정안 제시. |
| 31일 | 타이완 문제 교섭 타결(피해자 보상금 10만 냥, 일본군이 타이완에 건설한 도로 비용 등 40만 냥). |
| 11월 1일 | 오쿠보, 베이징 출발(16일 타이완에서 사이고와 회견, 18일 일본으로 출발). 8일 정부, 타이완 문제 타결을 공식적으로 발표(太政官達書 第145號). |
| 27일 | 오쿠보 도시미치 귀국. |
| 12월 3일 | 일본군, 타이완 철수 시작. |
| 27일 | 사이고 쓰구미치 일행, 요코하마 도착 |

와 대청제국 몰락이라는 장대한 세계사적 드라마가 시작됨을 세상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불평사족 대책이라는 국내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정한론 정변 이전에 타이완 문제를 주도했던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와 정한론 정변 이후에 주도한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외교노선을 연속적으로 볼 것인지 단절적으로 볼 것인지라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소에지마의 경우에는 타이완 침공의 본래 목적이 타이완 영유(식민지화)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오쿠보 도시미치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⁰⁾ 이 외에도 타이완 침공을 류큐 처분과 관련지어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또 다른 국내요인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¹¹⁾

이상과 같은 종래 연구들은 일본 정부 측의 주장 및 청과의 회담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 내부의 의견서나 개인의 일기와 편지 등 당

9) 毛利敏彦, 『台灣出兵』, 中公新書, 187~188쪽

10) 연속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石井孝, 1982, 앞의 책이다. 이와 달리 단절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家近良樹, 1983, 「『台灣出兵』方針の轉換と長州派の反對運動」, 『史學雜誌』第92編 第11號; 毛利敏彦, 1996, 위의 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절이나 연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소에지마가 타이완 영유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근대 일본의 대륙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張虎, 2001, 「副島對清外交の檢討」,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후기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타이완 침공에는 타이완을 식민지화하려는 의도, 즉 근대 일본의 ‘제국’ 흥내 내기가 시도되었음을 강조하는 로버트·에스킬드센(Robert Eskildsen), 2001, 「明治七年台灣出兵の植民地的側面」,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Robert Eskildsen, April 2002, “Of Civilization and Savages: The Mimetic Imperialism of Japan’s 1874 Expedition to Taiw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7, No. 2; 고모리 요이치 지음, 송태욱 옮김, 2002(원저 2001),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등이 있다.

11) 栗原純, 1978, 「台灣事件(1871~1874)－琉球政策の轉機としての台灣出兵」, 『史學雜誌』第87編 第9號; 張啓雄, 1992, 「日清互換條約において琉球の歸屬は決定されたか——一八七四年の台灣事件に關する日清交渉の再檢討」, 『沖繩文化研究』第19號; 小林隆夫, 1994, 「台灣事件と琉球處分1—ルジャンドルの役割再考」, 『政治經濟史學』第340號; 小林隆夫, 1994, 「台灣事件と琉球處分2—ルジャンドルの役割再考」, 『政治經濟史學』第341號; 後藤新, 2007, 「台灣出兵と琉球處分—琉球藩の内務省移管を中心として」, 『法學政治學論究』第72號 등이 있다.

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공식’ 기록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타이완 침공의 정치과정 또는 협상과정은 거의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이완 침공의 ‘공식’ 기록과는 별도로 이제 막 설립되기 시작한 신문사들이 특집 보도한 타이완 침공 기사들도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창간 1872. 2. 21)은 기사다 긴코[岸田吟香]를 중군기자로 파견하여 1~2일 간격으로 현지 취재 내용을 보도할 정도로 타이완 침공 보도에 적극적이었다.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전쟁에서 미디어는 적국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동원하는 선전=프로파간다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1874년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들은 ‘공식’ 기록과 달리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동일하게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국을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동원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에 등장한 신문 중에는 자유민권운동과 관련된 정치평론을 중심으로 하는 大新聞, 정치문제보다도 일상의 사회적 사건을 쉬운 문장으로 보도하는 小新聞과 함께,¹²⁾ 에도시대 이래의 다색판 우키요에[浮世繪]를 가리키는 니시키에[錦繪]와 막부 말기에 서구로부터 도입된 ‘뉴스’라는 개념이 결합된 니시키에신문[錦繪新聞]이 존재한다.¹³⁾ 이것은 “근세와 근대의 結節點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일본의 시각적 뉴스 미디어”이고,¹⁴⁾ 그 시작은 일간지 《도쿄니치니치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1874년 8월부터 발행된 니시키에판[錦繪版] 《도쿄니치니치신문》이다.¹⁵⁾

12) 山本文雄, 1970,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史』, 東海大學出版會, 26~29쪽 참조.

13) 니시키에신문에 대해서는 土屋禮子, 1995, 『大阪の錦繪新聞』, 三元社; 木下直之·吉見俊哉 編, 1999, 『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 ニュースの誕生-かわら版と新聞錦繪の情報世界』,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등 참조.

14) 土屋禮子, 1995, 위의 책, 12쪽

15) 千葉市美術館 編, 2008, 『文明開化の錦繪新聞-東京日日新聞・郵便報知新聞全作品』, 國書刊行會, 5쪽

본 연구는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를 근대 일본 최초의 전쟁보도로 규정하는 언론사 관련 연구들을 참고로 하면서도,¹⁶⁾ 이러한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기사, 즉 문자만이 아니라 삽화 또는 니시키에라는 이미지와 결합된 기사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기사가 삽화나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시각화되고, 이후 이것이 어떻게 재생산되어 일본 국민의 일본국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¹⁷⁾

II. 시각적으로 ‘보도’되는 타이완 침공

1_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기사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1874년 2월 6일 타이완 침공이 결정되었다.¹⁸⁾ 하지만 서

-
- 16) 岡部三智雄, 1997, 「岸田吟香と台湾」, 『台湾史研究』 第13号; 草野美智子·山口守人, 2001, 「明治初期における日本人の「台湾」理解」, 『熊本大学総合科目研究報告』 4号; 土屋禮子, 2005, 「明治七年台湾出兵の報道について」,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文化』, 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 17) 필자는 이미 1870년대에 제출된 건백서를 소재로 삼아 “1873년 정한론 정변, 1874년 타이완 침공, 1875년 강화도사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전통적인 ‘일본형 화이질서’만이 아니라, 일본 국가의 ‘자주와 자립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검토했다(2011,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2호, 208~209쪽).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혀둔다.
- 18) 이날 참의 겸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와 참의 겸 대장경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타이완문제 처리의 기본방침을 결정한 『타이완번지처분요략(台湾蕃地處分要略)』을 정부에 제출했다(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1988,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38~39쪽 수록).

양 각국의 동향을 주시하던 정부가 보도규제를 했기 때문에,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는 한동안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요코하마[橫濱]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영자신문 『재팬 가제트(Japan Gazette)』가 3월 30일자로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선전포고를 처음 보도하고,¹⁹⁾ 일본 신문 중에서도 《요코하마마이니치신문[橫濱毎日新聞]》이 3월 31일자로 타이완 침공의 가능성을 보도했다.²⁰⁾ 하지만 4월 10일 영국의 전권공사 파크스(Harry Smith Parkes) 등이 타이완 침공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같은 달 19일 일단 중지를 결정했고, 이후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는 또다시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의 《요코하마마이니치신문》 기사를 인용한 독자의 투서를 4월 6일자로 게재했던 《도쿄니치니치신문》의 경우는 달랐다. 다음 날 4월 7일 “사이고[西郷] 陸軍大輔를 生番事務都督으로 삼고, 다니 다테키[谷干城] 육군소위와 아카마쓰 노리요시[赤松則良] 육군대승이 수행하여 이번 달 12일 타이완으로 發艦, 같은 달 22일쯤 타이완에 도착한다”²¹⁾고, 타이완 침공 계획과 관련된 정책과 인명 및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정부가 중지를 결정한 직후인 20일에도 “지난 17일 오쿠마 대장경이 나가사키[長崎]로 發艦한 것은 나가사키항에 생번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함”²²⁾이라고 보도하는 등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신문들과 달리 《도쿄니치니치신문》에서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가 계속 보도된 이유는 주필 기사다 긴코 때문이었다. 기사다 긴코는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물자조달을 위해 타이완에 동행하는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에게 부탁하여 사이고 쓰구미치의 중군 허가를 받을 정도로 타이완 침공 보도에 적극적이었다.²³⁾

19) 《재팬 데일리 헤럴드(The Japan Daily Herald)》도 타이완 침공의 가능성을 4월 6일자로 보도했다(土屋禮子, 2005, 앞의 논문, 214~215쪽 참조).

20) 草野美智子·山口守人, 2001, 앞의 논문, 16쪽

21) 「江湖叢談」, 《東京日日新聞》第654號, 1874. 4. 7

22) 「江湖叢談」, 《東京日日新聞》第666號, 1874. 4. 20

23) 「台灣新報」第6號, 《東京日日新聞》第686號, 1874. 5. 13. 기사다는 1864년에 일본계 미국인 조셉 헤코(Joseph Heco)와 함께 최초의 일본어 신문 《가이가이신문

《도쿄니치니치신문》의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는 타이완 蕃地事務局 소식을 전하는 「生蕃事務局記事」, 국내 뉴스를 전하는 「江湖叢談」과 「논설」 및 「투서」, 해외의 뉴스나 신문을 번역하여 게재하는 「海外新報」와 「支那消息」 등과 같은 일반기사와 「타이완신보[台灣信報]」, 「타이완수고[台灣手藁]」, 「타이완지[台灣誌]」와 같은 특집기사로 구분된다(표 2 참조). 이 중 「타이완신보」는 기사다 긴코의 중군보도를 1874년 4월 13일~10월 7일까지 총 33회 연재한 것이고, 「타이완수고」는 7월 24일 기사다 긴코가 귀국한 이후 타이완 현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8월 5일~10월 5일까지 총 9회 연재한 것이며, 「타이완지」는 1715년 프랑수아인 선교사가 타이완에 대해 기록한 것을 번역하여 9월 18일~10월 29일까지 총 9회 연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사다 긴코는 중군까지 하면서 타이완 침공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것일까.

기사다 긴코는 타이완 침공을 “우리나라[我國] 번창의 시작”이자 “점차 일본국의 판도를 넓히고 교역과 商法을 성대하게 만들어 皇國의 명예를 萬國에 빛나도록 하는 계기”²⁴⁾라고 인식했다. 물론 여기에는 대외전쟁을 소재로 삼아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려는 상업신문으로서의 마케팅도 분명히 존재한다.²⁵⁾ 하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타이완 침공과 ‘황국’=일본국의 영토 확대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으로 보건대, 타이완 침공에 대한 기사다 긴코의 인식은 “土蕃 지역을 주인이 없는[無主] 지역으로 간주”하고 “討蕃撫民”하여 영유까지도 고려했던 당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²⁶⁾ 이런 의미에서 기사다 긴코에게 ‘討蕃’=타이완 침공은 “蕃野의 땅에서 생활하는 인민과 우리처럼 개화문명의 나라에 거주하며 자유를 누리는 자”²⁷⁾의 구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

《海外新聞》을 발행하기도 했다.

24) 「台灣信報」第6號, 위의 신문, 1874년 5월 13일

25) 草野美智子·山口守人, 2001, 앞의 글, 18쪽

26) 『台灣蕃地處分要略』,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1988, 앞의 책, 38쪽

27) 「台灣信報」第22號, 《東京日日新聞》第736號, 1874. 7. 7

〈표 2〉 타이완 침공 관련 《도쿄니치니치신문》 특집 기사

| | | |
|---------------------------------|--|--------------------------------|
| 台灣信報 第1號(1874. 4. 13) 第659號 | 台灣新聞 (1874. 6. 15) 第716號 | 台灣信報 第28號(1874. 8. 6) 第763號 |
| 台灣信報 第2號(1874. 5. 6) 第680號 | 台灣信報 第16號(1874. 6. 25) 第725號 續台灣信報(같은 날 2쪽) | 台灣手藁(1874. 8. 9) 第766號 |
| 台灣信報 第3號(1874. 5. 9) 第683號 | 台灣信報 第17號(1874. 6. 26) 第726號 續台灣信報(같은 날 2쪽) | 台灣手藁前號續(1874. 8. 10) 第767號 |
| 台灣信報 第4號(1874. 5. 10) 第684號 | 台灣信報 第18號(1874. 6. 27) 第727號 | 台灣手藁前號續(1874. 8. 12) 第768號 |
| 台灣信報 第5號(1874. 5. 12) 第685號 | 台灣信報 前後續(1874. 6. 28) 第728號 台灣信報 第19號(같은 날 2쪽) | 台灣手藁前號續(1874. 8. 14) 第770號 |
| 台灣信報 第6號(1874. 5. 13) 第686號 | 台灣信報 (1874. 6. 29) 第729號 | 台灣手稿(1874. 8. 16) 第772號 |
| 台灣信報 第7號(1874. 5. 15) 第688號 | 台灣信報 第21號(1874. 7. 2) 第731號 | 台灣新報(1874. 9. 5) 第790號 |
| 台灣信報 第8號(1874. 5. 16) 第689號 | 台灣信報 第22號(1874. 7. 7) 第736號 | 台灣新報(1874. 9. 9) 第794號 |
| 台灣信報 第9號(1874. 5. 17) 第690號 | 台灣信報 第23號(1874. 7. 10) 第739號 | 台灣報信(1874. 9. 16) 第800號 |
| 台灣信報 第10號(1874. 5. 18) 第691號 | 台灣信報 第24號(1874. 7. 24) 第751號 | 台灣手稿(1874. 9. 22) 第804號 |
| 台灣信報 第11號(1874. 5. 23) 第695號 | 台灣信報 第25號(1874. 7. 25) 第752號 | 台灣手稿前號續(1874. 9. 27) 第809號 |
| 台灣信報 第12號(1874. 6. 2) 第704號 | 台灣信報 第26號(1874. 7. 27) 第754號 | 台灣信報(1874. 9. 29) 第811號 |
| 台灣信報 第13號(1874. 6. 10) 第712號 | 台灣報信 第27號(1874. 7. 30) 第757號 | 台灣手稿(1874. 10. 5) 第816號 |
| 台灣信報 第14號(1874. 6. 12) 第713號 | 台灣手藁(1874. 8. 5) 第762號 | 台灣信報(1874. 10. 7) 第818號 |

는 계기이자 “앞으로 이 섬이 開化를 하게 되는 첫 단계”²⁸⁾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인식은 ‘현지성’이 강조되는 종군기사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호를 거듭’하면서 독자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1874년도 《도쿄니치니치신문》의 발행부수가 14,000~15,000부로 급증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²⁹⁾ 요컨대 영토 확장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는 독자=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스스로를 타이완 ‘土蕃’=미개와 구별되는 문명개화로 인식하고, 나아가 미개를 개화시키는 주체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일본국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타이완 관련 기사와 함께 실린 삽화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2_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와 삽화

《도쿄니치니치신문》은 다음과 같이 기시다 긴코의 종군을 보도하고 있다.

오늘(4월 13일-인용자) 기자 기시다 긴코가 汽船 요크샤(ヨクシヤ) 호를 타고 시나가와[品川]를 출발하여 타이완으로 향했다. 본래 타이완 중 生蕃 지역은 風教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 여러 異聞과 奇事が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弊社는 기시다 파견을 일부러 신청했다. 며칠 안으로 그 지역에 도착하면 풍속사정은 물론이고 견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성실히 搜索하고 探討하여 號를 이어서 信報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를 타이완신보의 제1호로 삼는다. 폐사는 점차 호를 거듭하면서 看官(讀者를 의미함-인용자)들이 發艦의 이유를 알게 되고 앉아서 저 섬을 두루두루 돌아보는 것처럼 느끼길 진심으로 바란다. 모쪼록 이러한 뜻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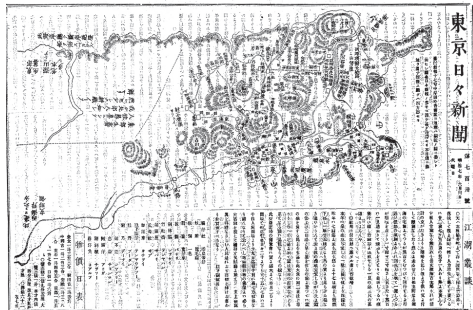
28) 「台灣信報」第28號, 《東京日日新聞》第763號, 1874. 8. 6

29) 岡部三智雄, 1997, 앞의 글, 94쪽

30) 「台灣信報」第1號, 《東京日日新聞》第659號, 1874. 4. 13, 실제로 기시다가 시나가와를 출발한 것은 4월 16일이다(「江湖叢談」, 《東京日日新聞》第670號 참조, 1874. 4. 25).



〈그림 1〉 「台灣信報」第17號, 《東京日日新聞》第726號, 1874. 6. 26



〈그림 2〉 《東京日日新聞》第730號, 1874.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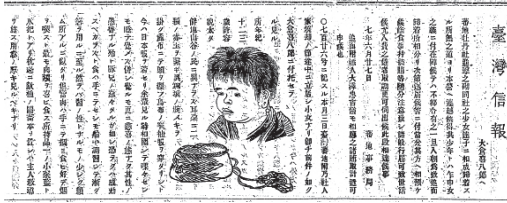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기시다 긴코의 종군 목적은 독자들이 타이완 침공의 이유를 알고 나아가 타이완 현지를 직접 둘러보는 것처럼 느끼도록 ‘풍속사정’을 ‘성실히’ 수색하고 탐토했던 견문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들에서는 다른 신문들에 비해 현장성이 강조되었는데, 삽화는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 중 삽화가 실린 것은 「타이완신보」와 「타이완수고」와 같은 특집기사다. 이 중 「타이완신보」에 실린 삽화는 모두 다섯 개다.

그중 그림 1은 ‘牧丹生蕃’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石門山과 ‘竹社’ 또는 ‘爾乃社’와 같은 ‘土民’들의 거주지를 간단히 스케치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牧丹社 소멸작전’을 보도하는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간략하여 독자들이 ‘토민’들의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기시다 긴코도 이를 우려했는지 본문에서 “지리는 別號에 게재하도록 한다”고 적고 있고, 며칠 뒤에는 ‘생변 18社’들의 거주지를 세밀하게 작성한 지도를 1면에 게재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그 결과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림 2는 타이완 ‘생변’의 거주지를 공간적으로 인식하는 데 유용한 시각 자료로서 기능한다.

또한 ‘목단사 소멸작전’ 후 보호 조치된 ‘13세 爾乃社 소녀’를 그린 삽화도 “둥글고 검은 얼굴에 눈은 작고 움푹 파였으며 미간은 매우 짧고 낮은 코에 입

은 보통”³¹⁾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그림 3).³²⁾ 이렇듯 「타이완신보」에 실린 삽화들은 사진보도가 아직 없었던 시기에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거나 보완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였다.



〈그림 3〉 「台灣信報」, 《東京日日新聞》第729號, 1874. 6. 29

이러한 삽화의 성격은 「타이완수고」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타이완수고」는 기사다 긴코가 귀국한 이후 ‘타이완 섬’의 “山川을 두루 돌아다니며 풍토를 고찰하고 견문”³³⁾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총 9회의 연재기사 중 8월 16일자 6회분을 제외하고 모두 삽화가 실릴 정도다.

예를 들어 타이완 원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土民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과 사냥을 하기 때문에 논밭이 적고 物産도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그 바로 옆에는 “오른쪽은 生蕃의 村長이 사냥하는 그림이다. 그 내용은 다음 호에 이어진다”는 보충설명을 하며 삽화를 실고 있다(그림 4 참조).³⁴⁾ ‘생번’의 얼굴



〈그림 4〉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2號, 1874. 8. 5



〈그림 5〉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6號, 1874. 8. 9

31) 「續台灣信報」, 《東京日日新聞》第725號, 1874.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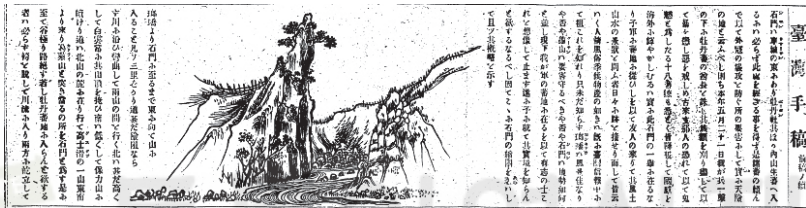
32) 이 외에도 ‘熟蕃’의 ‘精兵’을 설명하면서 ‘정병’을 그린 삽화를 게재하고 있다(「台灣信報」, 《東京日日新聞》第811號, 1874. 9. 29).

33)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2號, 1874. 8. 5

34) 위와 같은 기사.



〈그림 6〉「台灣手藁」,《東京日日新聞》第767號, 1874. 8. 10



〈그림 7〉「台灣手藁」,《東京日日新聞》第809號, 1874. 9. 27

생김새와 장신구 등의 특징을 설명할 때도 그들의 외모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하고(그림 5 참고), ‘생번’에 비해 ‘開化’되어 ‘농공상’에 종사하는 ‘熟蕃’을 설명할 때에도 그들이 거주하는 ‘車城’의 거리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6 참고). 타이완 침공의 전투지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石門’의 위치를 설명할 때도 ‘석문’의 풍경을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7 참고).³⁵⁾

이상과 같이 「타이완신보」와 「타이완수고」에서는 기시다 긴코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삽화가 사용되고 있다. 삽화야말로 타이완의 ‘풍속사정’을 ‘성실히 수색하고 탐토’하는 생생한 견문록을 제공하겠다는 기시다 긴코의 종군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와 함께 실린 삽화들은 기사내용을 보완하고 현장성을 전달한다는 성격에만 머물렀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시

35) 단, 삽화가 없는 경우는 ‘생번’의 언어 등과 같이 시각화하기 어려운 내용에 불과하다(「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72號, 1874. 8. 16).



〈그림 8〉 「台灣情報」第7號, 《東京日日新聞》第688號, 1874. 5. 15



〈그림 9〉 石井孝, 1982,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2쪽에서 인용

다 긴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지만은 않았다.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관련 보도 중 삽화가 처음 실린 것은 5월 15일자 「타이완신보」 제7호다(그림 8 참고). 여기에는 타이완 전체 지도가 1면의 3단 중 2단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 이에 비해 기사내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오른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삽화의 특징은 북쪽을 위쪽으로 위치 짓는 지도 작성의 일반적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그림 9 참고), 중앙에 高山=「支那國 領國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土蕃」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선을 전체로 분산시키는 그림 9와 달리 그림 8의 타이완 전체 지도를 바라보는 독자의 시선은 「土蕃」 지역에 고정된다. 이를 고려한 듯 지도를 설명하는 문자도 「토번」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결과 지도의 오른쪽에 배치된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병사를 보내어 우선 支那領의 경계로부터 남쪽 지역을 略取하여 식민지로 삼고, 이후 북쪽 지나령 경계의 남쪽 지역에 병사를 두어 점차 개척하고 …… 토번을 교도하여 우리 황국의 판도를 넓히고자 한다」는 기사내용을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사내용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넓어지는 「황국의 판도」를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외에도 「타이완신보」에는 삽화가 1장 더 있다(그림 10 참고). 이것은 전체 지면 중 「타이완신보 제13호」라는 제목과 함께 1단 왼쪽에 배치되어 있

다. 삽화의 오른쪽 끝에는 “社寮 琅嶠 車城 근처 인종은 마라이(マライ)와 支那의 혼혈이다”라고 적혀 있고, 육지 쪽에 ‘이곳에서 남쪽은 도키도쿠(トキトク) 지배’,³⁶⁾ ‘社寮 村家’, ‘도독부’, ‘陣營’, ‘랑교’, ‘강이 있다’, ‘車城 촌



〈그림 10〉 「台灣信報」 第13號, 《東京日日新聞》 第712號, 1874. 6. 10

가, ‘이 근처가 목단 인종’의 순서로 적혀 있다. 바다 쪽에는 선박 6척이 그려져 있고 손가락 표시와 함께 ‘西 아모이[廈門]’라 적혀 있다. 이처럼 그림 10의 삽화는 바다 쪽에서 지형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을 취함으로써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타이완 서남부 해안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2~3단까지 이어지는 기사내용, 즉 ‘기자 긴코[吟香]가 ‘타이완 신문 탐방’을 위해 5월 17일 12시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같은 달 22일 아침 7시 타이완 서남부 해안 ‘車城’에 도착한 경위, 도착 당시 ‘唐國 군함 2척’과 ‘영국 군함 1척’이 정박해 있던 상황, 그리고 ‘牧丹 인종의 동정’³⁷⁾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그림 10의 삽화에 그려진 선박 6척 중 어느 것을 일본국의 전함으로 인식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의 글을 참고하고자 한다.

36) ‘도키도쿠’는 타이완 남부의 산에 거주하는 生蕃 18社의 촌장 이름.

37) ‘목단 인종의 동정’으로는 5월 17일 척후병 2명과 목단인이 충돌한 결과, 척후병 1명이 부상당한 것, 같은 달 21일 척후병 10명이 충돌하여 목단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이 부상당한 것, 같은 달 22일 일본군 2소대가 石門에서 목단인과 교전하여 목단인 추장을 살해하고 3명이 전사한 것을 전하고 있다. 참고로 22일 석문 전투는 니시키에 《도쿄니치니치신문》 제720호로 이미지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니시키예를 검토하면서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改曆한 이후 五節句³⁸⁾나 봉[盆]과 같은 중요한 날을 없애고 天長節³⁹⁾과 紀元節 등 이유도 모르는 날을 축하한다. …… 이렇듯 세상의 인식에도 없는 날을 축하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아카마루[赤丸, 히노마루 모양을 의미함-인용자]를 파는 간판 같은 깃발이나 초징[提燈]을 들고 나오라는 것은 더욱 듣도 보도 못한 도리다.⁴⁰⁾

이것은 1872년 태양력을 채택한 일본 정부가 태음력에 기초한 전통명절들을 폐지하고 천장절이나 기원절과 같이 근대 천황제와 관련된 경축일을 새롭게 제정했지만, 이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인용되는 사료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들에게 천황과 관련된 새로운 경축일에 일본국을 상징하는 ‘아카마루를 파는 간판과 같은 깃발이나 초징’을 들고 나오도록 강제했다는 점이고, 그 결과 좋은 싫든 ‘히노마루’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시의 독자=일본 국민들은 아마도 그림 10의 삽화에서 ‘히노마루’를 연상시키는 원이 그려진 깃발을 단 왼쪽의 선박 3척을 일본국의 전함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오른쪽의 선박 3척은 기사내용에 따라 당연히 ‘당국(唐國) 군함 2척’과 ‘영국 군함 1척’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듯 그림 10의 삽화는 ‘히노마루’라는 국가적 상징 장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박한 선박 중 어느 쪽이 일본군의 전함인지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히노마루’를 매개로 피아를 구분하는 스스로를 일본 국민이라고 자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⁴¹⁾

이상과 같이 타이완 침공 관련 특집기사였던 「타이완신보」와 「타이완수

38) 음력에 따른 다섯 명절. 人日(1월 7일), 上巳(3월 3일), 端午(5월 5일), 七夕(7월 7일), 重陽(9월 9일)

39) 천황의 탄생을 경축하는 휴일.

40) 小川爲治, 1875, 『開化問答』 2編卷上, 丸屋善七 等, 55쪽.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http://kindai.ndl.go.jp/info:ndljp/pid/798422/61?tocOpened=1>

41) 기사다는 이후에도 “日章の國旗”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台灣信報」 第25號, 《東京日日新聞》 第752號, 1874. 7. 25).

고」에 실린 삽화들은 주로 현지 취재한 기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완해주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문자로는 전달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삽화의 특징이 타이완 침공이라는 대외전쟁과 결합된 결과, 타이완 침공 관련 기사와 함께 실린 삽화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일본국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된 타이완 침공의 이미지는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을 통해서 독자=일본 국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Ⅲ.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과 타이완 침공

니시키에신문[錦繪新聞]의 효시로 알려진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은 1874년 8월에 처음 발행되었다. 《도쿄니치니치신문》의 기사 중 국내 뉴스를 다루는 「江湖叢談」에서 이미 보도되었던 진기한 사건을 골라서 니시키에로 시각화하고 난해한 문장을 평이하게 바꾸어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은 1876년 12월까지 총 114점 발행되었다.⁴²⁾ 이 중 타이완 침공 관련 니시키에는 총 8장으로 전체의 약 7%를 차지하고, 단일 소재로는 가장 많다.

그중 첫 번째가 1874년 9월자로 발행된 그림 11이다.⁴³⁾ 여기에는 다음과 같

42)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앞의 책, 6쪽. 쓰치야 레이코[土屋禮子]는 총 10점이라고 하지만(土屋禮子, 2005, 앞의 글, 224쪽),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 전체를 수록한 千葉市美術館 編 『文明開化の錦繪新聞 - 東京日日新聞・郵便報知新聞全作品』에 따르면 총 8점이다. 참고로 쓰치야 레이코는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의 총수도 113점이라고 하지만, 千葉市美術館 編, 위의 책에는 114점이 실려 있다.

43)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19쪽



(그림 11) 一蕙齋芳幾, 1874. 9. 《東京日日新聞》第736號(본래 기사 1874. 7. 6)

은 설명이 적혀 있다.

기시다 긴코는 신문 탐방을 위해 육군과 함께 타이완에 있던 2개월 동안, 여러 蕃(원주민을 의미함-인용자)들이 항복한 후 종종 목단 생변의 지역을 遊步했다. 그 중 돌아오는 길에 신발을 벗고 石門의 하천을 건너려고 할 때, 土人が 다가와 업어서 건네주겠다고 말했다. 긴코는 거절했지만 거듭 건네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업혔지만, 힘이 약해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살이 찐 긴코의 체중은 약 23貫目(약 87kg)이다.

여기에서는 타이완 침공 관련 내용이라기보다 기시다 긴코가 육군과 함께 타이완에 있었을 당시의 에피소드가 서술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기시다 긴코의 얼굴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짙은 갈색의 '타이완 토인'을 그림으로써 '타이완 토인'=원주민과 기시다 긴코=일본인을 구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로 보이는 '生蕃婦'의 얼굴색이 '타이완 토인'보다 기시다 긴코에 가깝게 그려진 것으로 보아, '타이완 토인'과 기시다 긴코의 얼굴색 차이는 '타이완 토인'보다 오히려 기시다 긴코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것의 주안점은 타이완 침공이 아니라 기시다 긴코가 '신문 탐방을 위해 육군과 함께 타이완에 2개월 동안' 있었다는 '사실(fact)'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이것이 발행된 9월이라는 시점은 이미 기시다 긴코도 귀국하고 「타이완신보」와 「타이완수고」의 연재도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였다. 따라서 니시키에판을 발행하기 시작한 도쿄니치니치신문사로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기시다 긴코의 타이완 침공 종군=현장 취재라는 세일즈 포인트를 다시 한 번 선전할 필요가 있었고, 그림 11은 이러한 신문사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후에 발행된 타이완 침공 관련 니시키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시



〈그림 12〉 一蕙齋芳幾, 1874. 10, 《東京日日新聞》 〈그림 13〉 一蕙齋芳幾, 1874. 10, 〈日報社台灣記事石門口勝戰之圖〉, 《東京日日新聞》(본래 기사 없음)

각화했을까. 우선 니시키에의 주제는 일본군과 ‘생변’의 전투장면(그림 12, 13), 청과 협상하는 장면(그림 18), 타이완 소녀(그림 17), 항복하는 ‘생변’(그림 16), 오쿠보의 귀국(그림 19), 기타(그림 15)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일본군과 ‘생변’의 전투장면은 5월 22일 일본군 2소대가 石門에서 ‘생변’과 교전을 벌여 추장을 살해한 사건을 시각화한 것이고, 다른 주제와 달리 모두 연속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2의 왼쪽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때는 메이지 7년. 일본국의 군사들이 타이완 생변의 포악을 징벌하고자 타이완 섬에 舶來했다. 그런데 不教(교화되지 못함의 의미함-인용자)의 오랑개[夷]들이 人理를 모르고 저항을 하니, 마침내 5월 皇國의 兵威로 이를 제압하고자 同國 車城의 동쪽으로 3리 정도 들어가 목단 인종의 소굴을 습격했다. …… 기세에 압도된 蕃人들이 항복하고 사죄하여 일본의 天威(천황의 위광을 의미함-인용자)를 만국에 빛낸 것이 5월 22일 동틀 무렵 石門의 一戰이다.⁴⁴⁾

이 사건에서는 일본군도 3명 전사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국의 군사’, ‘황국의 병위’, ‘일본의 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만국에 빛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자로 적어놓은 설명을 보지 않더라도 3장으

44)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30~31쪽

로 연결된 화면 중 2장에 걸쳐 배치된 일본군이 수급한 '생변'의 머리를 들고 멀리 도망치는 적들을 노려보는 모습과, 화면 아래쪽과 왼쪽에 배치된 왜소한 '생변'이 겁에 질려 도망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본군의 의상이 사무라이의 전통복장이 아니라 통일된 서양식 군복이라는 점이다. 물론 당시의 일본군은 실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징병제에 의해서 징집 또는 지원한 군인들이었기에, 이들의 의상은 통일된 서양식 군복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군의 외양이 어둡고 통일되지 못한 전통복장의 '생변'과 시각적으로 대비되는 순간, 일본국이라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통일된 서양식 군복이야말로 일본군의 용맹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시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듯 통일된 서양식 군복으로 일본군의 용맹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당시의 士族 반란을 소재로 삼은 니시키에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14는 1876년 10월 27일 마에바라 잇세이[前原一誠]가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일으킨 하기[萩]의 난을 그린 것으로, 전투가 시작되기 전 정부군과 사족군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다.⁴⁵⁾ 그런데 이를 보는 독자들은 그 결과를 알든 모르든, 이 장면만



〈그림 14〉 靜齋芳邨, 1876. 11. 22. 〈山口縣下賊徒追討圖〉, 《東京日日新聞》(본래 기사 없음)



〈그림 15〉 一蕙齋芳幾, 《東京日日新聞》第 851號, 발행일자 없음 (본래 기사 1874. 11. 14)



〈그림 16〉 一蕙齋芳幾, 《東京日日新聞》第 752號(본래 기사 1874. 7. 25)

45)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80~81쪽

으로도 사족군과 대비되는 정부군의 용맹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각적 장치가 왼쪽 상단에 배치된 전통복장의 사족군과 명확히 구분되는 통일된 검은색 서양식 군복을 입은 정부군의 모습이다.

하지만 타이완 침공 당시 일본군은 앞의 그림 12와 그림 13이 주제로 삼은 5월 22일 전투에서도 3명이 전사했고, 현지의 열대성 질병으로 약 5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승승장구 일변도만은 아니었다.⁴⁶⁾ 이러한 일본군의 현실은 타이완 침공에서 병사한 ‘義弟’가 서양식 군복을 갖춰 입고 꿈에 나타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애절한 일본 국민의 이야기로 표출되기도 했다(그림 15 참고).⁴⁷⁾ 당시의 일본 국민들에게 서양식 군복을 입은 일본군의 모습은 그림 16과 같이 항복하는 ‘생변’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이제 막 실시된 징병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타이완 침공을 주제로 삼은 니시키에는 ‘타이완 소녀’에게 일본의 전통복장을 입혀주는 행위를 그려내는 등 ‘생변’에 대한 우월감을 일관되게 시



〈그림 17〉 一蕙齋芳幾, 1874. 10, 《東京日日新聞》第726號(본래 기사 1874. 6. 26)



〈그림 18〉 一蕙齋芳幾, 1874. 11, 《皇國支那和議決約之圖》, 《東京日日新聞》第847號(본래 기사 1874. 11. 12)



〈그림 19〉 一蕙齋芳幾, 1874. 11, 《東京日日新聞》第849號, 발행일자 없음(본래 기사 1874. 11. 12)

46)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2012, 앞의 책, 55쪽

47) 그림 15와 그림은 동일하지만 설명에서 타이완 침공 관련 내용이 삭제된 니시키에가 존재한다. 아마도 정부의 검열이 작용한 듯하다(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99쪽).

각적으로 표출하고 있고(그림 17),⁴⁸⁾ 이러한 우월감은 10월 31일 청과의 협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타결되자 청을 향해서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림 18은 청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인 11월에 발행된 〈皇國支那和議決約之圖〉다.⁴⁹⁾ 여기에서는 오른쪽의 집단이 일본 측이라는 것을 ‘히노마루’와 검은색 서양식 복장 또는 군복으로 나타낸 반면, 왼쪽의 집단이 청 측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머리모양과 복장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칼을 거는 지니고 있지 않은 청 측에 비해 일본 측 대부분은 칼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래쪽 설명문이 “大臣 오쿠보 공의 영단으로 公法通義(만국공법을 의미함-인용자)에 따라 이 美舉(협상타결을 의미함-인용자)를 이루어낸 것은 국가의 행복으로 후세의 역사에 기록함에 부족하지 않다. 어찌 경하하지 않으리오”라고 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만국공법이 어디까지나 ‘칼’=군사력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논리이고, 이를 근거로 실행한 타이완 침공에서 청에게 50만 냥의 배상금을 받아낸 것이야말로 ‘국가행복’이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행복’은 “히노마루 국기를 실내에 장식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벌인 ‘사쿠라[佐倉]의 구시도[申度] 씨’의 경우처럼 어느새 일본 국민의 ‘행복’으로 치환되고 있다(그림 19).⁵⁰⁾ 다시 말해서 타이완 침공을 그린 니시키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복과 일본국의 행복이 일치될 수도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스스로를 일본 국민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⁵¹⁾

48)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33쪽

49)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42~43쪽

50) 千葉市美術館 編, 2008, 위의 책, 97쪽

51) 박삼현, 2013, 「메이지유신과 국민 행복의 탄생」, 『史叢』 80, 365~36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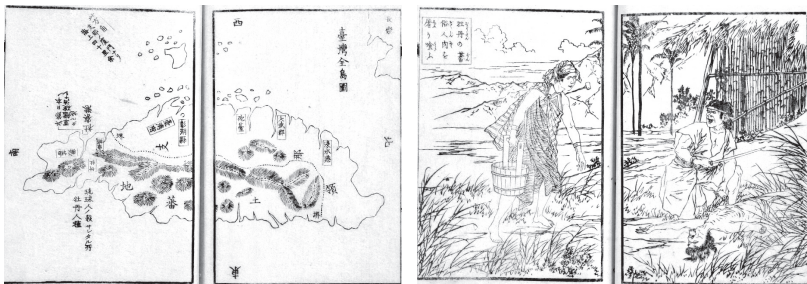
IV. 맺음말 - 재생산되는 타이완 침공의 이미지

그렇다면 이러한 타이완 침공의 이미지는 이후 어떻게 재생산되어 유포되었을까. 그 한 사례로 타이완 침공이 마무리된 직후에 간행되기 시작한 『메이지태평기』의 삽화들을 검토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메이지태평기』는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1868년 왕정복고 쿠데타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타이완 침공은 '8편 하에서 '11편 상'에서 다뤄지고 있다.

『메이지태평기』의 삽화는 타이완 전체 지도를 그린 그림 20이 「타이완신보」에 실린 타이완 전체 지도 그림 8과 동일한 구도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시다 긴코가 보도한 「타이완신보」나 「타이완수고」의 기사내용만이 아니라 삽화도 많이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타이완신보」나 「타이완수고」는 보도기사였던 만큼 사실성을 견지하고 있었고, 적어도 미디어의 성격을 지니는 니시키에판 《도쿄니치니치신문》의 경우도 기시다 긴코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던 만큼 사실성은 견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타이완 '생반'에 대한 기사 중 기시다 긴코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경우는 삽화로 시각화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직 나가사키에 머물면서 타이완으로의 출항을 기다리면서 작성한 기사에서는 류큐인을 살해한 타이완 원주



〈그림 20〉 村井靜馬 著, 1875~1877, 『明治太平記』 8編下, 東京書林, 12~13쪽

〈그림 21〉 村井靜馬 著, 1875~1877, 앞의 책, 4~5쪽

민=‘생번’에 대해 “성품이 포악하여 人類라 할 수 없고, 싸움을 좋아하며 패자의 육신을 먹는다”⁵²⁾고 설명했지만,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식인’ 풍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생번’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도 “입술에 연지를 바르는 등 일본의 婦人(여성 일반을 의미함-인용자)의 입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⁵³⁾고 설명하고 그들의 얼굴 생김새를 왜곡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그림 5 참조). ‘식인’ 풍습은 기시다 긴코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시각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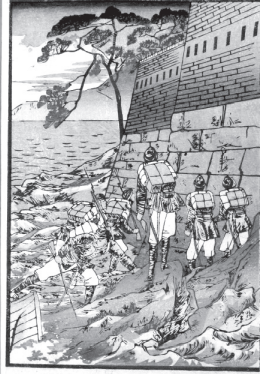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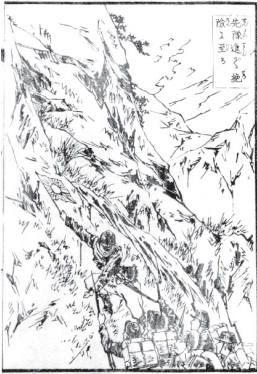
하지만 『메이지태평기』와 같이 ‘일본국’의 영광을 그리는 이야기에서는 타이완 ‘생번’이 <그림 21>과 같이 식인하는 장면을 상상하여 시각화되고, 그 결과 타이완 ‘생번’의 야만성이 강조되는 만큼 일본 국민의 문명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기시다 긴코의 보도기사와 함께 실린 삽화와 니시키에를 통해서 만들어진 타이완 침공의 표상은 청의 배상금이라는 일본국의 행복과 함께 점차 확대 재생산되어 ‘야만’의 타이완 ‘생번’과 ‘문명’의 일본 국민을 기정사실화하는 재료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국의 행복을 위해서는 “승려나 평민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⁵⁴⁾ 일본군의 존재가 강조된다. 예를 들어 6월 1~3일까지 실시된 대대적인 牧丹社 소멸작전을 서술하면서 히노마루를 들고 선봉에 서서 동료들을 챙기며 험준한 산을 올라가는 일본군을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일본국의 행복이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독자=일본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그림 22 참고).

이런 의미에서 타이완 침공이 막부 말기부터 ‘논의’만 무성할 뿐 정작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征韓’을 그 다음 해에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든 ‘국가적’ 차원의 ‘경험’이었다면, 기시다 긴코의 종군보도와 삽화 및 니시키에를 통해서 유포된 타이완 침공의 이미지는 ‘정한’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도

52) 「台灣信報」第7號, 《東京日日新聞》第688號, 1874, 5, 15

53)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6號, 1874, 8, 9

54) 村井靜馬 著, 1875~1877, 『明治太平記』10編 下, 東京書林, 16쪽



〈그림 22〉 村井靜馬 著, 1875~ (그림 23) 村井靜馬 著, 1875~1877, 앞의 책, 11編 上, 4~5쪽
1877, 앞의 책, 10編 上, 37쪽

록 만든 ‘국민적 차원의 ‘경험’이었던 것이다. 타이완 침공에 이은 강화도사건의 서술이 히노마루를 들고 밝은 표정으로 ‘韓島의 永宗城’을 습격하는 ‘雲楊艦의 병사’들을 시각화한 니시키에로 시작되는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그림 23 참고).

참고문헌

〈1차 사료〉

- 內閣官報局 編, 1975 복각, 『法令全書』 第七卷-1
- 小川爲治, 1875, 『開化問答』 2編卷上, 丸屋善七 等
- 芝原拓白·猪飼隆明·池田正博 編, 1988,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 千葉市美術館 編, 2008, 『文明開化の錦繪新聞-東京日日新聞·郵便報知新聞全作品』, 國書刊行會
- 村井靜馬 著, 1875~1877, 『明治太平記』 8編 下, 東京書林
- 村井靜馬 著, 1875~1877, 『明治太平記』 10編 上, 東京書林
- 村井靜馬 著, 1875~1877, 『明治太平記』 11編 上, 東京書林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處蕃趣旨書(明治八年一月蕃地事務局編)正』, レファレンスコード A03023016400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ヨリ小田縣民佐藤利八外三人漂流一件上申竝ニ別紙在清井田總領事來東其他四通』, レファレンスコード A03031119100

〈연구논저〉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 박삼현, 2013, 「메이지유신과 국민행복의 탄생」, 『史叢』 80
- 毛利敏彦, 1996, 『台灣出兵』, 中公新書
- 木下直之·吉見俊哉 編, 1999, 『東京大學コレクション ニュースの誕生-かわら版と新聞錦繪の情報世界』,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 石井孝, 1982,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 土屋禮子, 1995, 『大阪の錦繪新聞』, 三元社
- 岡部三智雄, 1997, 「岸田吟香と台灣」, 『台灣史研究』 第13號
- 草野美智子·山口守人, 2001, 「明治初期における日本人の「台灣」理解」, 『熊本大學總合科目研究報告』 4號
- 土屋禮子, 2005, 「明治七年台灣出兵の報道について」,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文化』, 吉川弘文館

- 「江湖叢談」, 《東京日日新聞》第654號, 1874. 4. 7
- 「江湖叢談」, 《東京日日新聞》第666號, 1874. 4. 20
- 「江湖叢談」, 《東京日日新聞》第670號, 1874. 4. 25
-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2號, 1874. 8. 5
-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6號, 1874. 8. 9
-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67號, 1874. 8. 10
-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772號, 1874. 8. 16
- 「台灣手藁」, 《東京日日新聞》第809號, 1874. 9. 27
- 「台灣信報」第1號, 《東京日日新聞》第659號, 1874. 4. 13
- 「台灣信報」第6號, 《東京日日新聞》第686號, 1874. 5. 13
- 「台灣信報」第7號, 《東京日日新聞》第688號, 1874. 5. 15
- 「台灣信報」第13號, 《東京日日新聞》第712號, 1874. 6. 10
- 「台灣信報」第17號, 《東京日日新聞》第726號, 1874. 6. 26
- 「台灣信報」, 《東京日日新聞》第729號, 1874. 6. 29
- 「台灣信報」第22號, 《東京日日新聞》第736號, 1874. 7. 7
- 「台灣信報」第25號, 《東京日日新聞》第752號, 1874. 7. 25
- 「台灣信報」第28號, 《東京日日新聞》第763號, 1874. 8. 6
- 「台灣信報」, 《東京日日新聞》第811號, 1874. 9. 29
- 「續台灣信報」, 《東京日日新聞》第725號, 1874. 6. 25
- 《東京日日新聞》第730號, 1874. 6. 30

[ABSTRACT]

War and Propaganda in 1868, the First Year of the Meiji Government

Park Samhun

This paper analyzes Nishiki-e based on illustrations for feature articles and related articles written by Kishida, who reported the Taiwan invasion in 1874. The key points are as follows.

First, the illustrations published in feature articles on the Taiwan invasion, such as “Taiwan shinbo” and “Taiwan sōgo,” were designed as visual devices to complement the articles written through Kishida’s local coverage. However, the illustrations for articles on the Taiwan invasion allowed readers to recognize themselves as “Japanese” “nationals” distinguishable from the “wild tribesmen” of Taiwan.

Second, the images of the Taiwan invasion were extensively distributed through the *Tokyo Nichi Nichi Shinbun* in Nishiki-e in its related articles and illustrations. As a result, the Nishiki-e that described the Taiwan invasion helped Japanese readers realize through visual devices that their “happiness” lie in the “happiness” of “Japan,” making themselves believe that they are the “nationals” of Japan.

Keywords

Invasion of Taiwan, Nishiki-e, nationals, image, nationalism

개항기 일본 상인의 울릉도 침탈과 염상 김두원 사건

김종준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I. 머리말

이 연구는 개항기 일본 상인의 울릉도 침탈 문제를 다루되 특히 鹽商 金斗源 사건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일본 상인의 울릉도 침탈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염상 김두원 사건에는 울릉도 상업 활동의 양상과 일본 상인의 침탈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방식이 드러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대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다. 즉 염상 김두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울릉도였고, 이후 한일 간 외교적 교섭에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울릉도 상업 문제의 연장선 상에서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근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울릉도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즉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렬해질수록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독도는 점점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변질되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울릉도 관

런 자료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다.¹⁾ 따라서 울릉도 관련 자료들을 통해 울릉도·독도·동해를 둘러싼 영토·해양 관과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항기 울릉도 상업에는 일본 상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본래 조선 정부의 울릉도 개척은 농업 이민의 성격을 띤 것이었고, 면세지역이었으며,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울릉도와 내륙 간 상업은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부산과 원산 개항 이후 활동무대를 넓혀간 일본 상인들이 울릉도에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울릉도는 통상구안이 아니었고, 공식적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거주자였고, 밀무역의 형태를 띠었으며, 작폐로 인식되었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 관리가 일본 상인에게 관세를 부과했다며 합법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벌금조에 불과한 것이었다. 염상 김두원 사건은 이 같은 일본 상인의 불법적 침탈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개항기 울릉도 상업 문제 중에서 특히 일본 상인의 불법적인 밀무역과 작폐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기존 연구성과를 보면 울릉도 상업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지만 울릉도 개척 과정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신용하, 송병기의 연구가 그러하다.²⁾ 이들 연구는 각종 자료를 섭렵하여 정리한 선구적 업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 측의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주창하기 위한 목적이 지나치게 앞서 있어 당대 사회상을 온전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김호동은 울릉도 개척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 규정하고 정부 측의 잘못을 규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³⁾ 그러나 울릉도 상업사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
- 1)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호, 221~222쪽
 - 2) 신용하, 2003,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3)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울릉도 상업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로는 허영란을 들 수 있다.⁴⁾ 이 논문은 자료와 관점 면에서도 기존 연구들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측 자료들을 다양하게 인용하였고, 울릉도의 역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연관지을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미립은 수세 관행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울릉도 상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결짓고 있다.⁵⁾ 본 논문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연구성과들에 바탕하려 한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 측 자료들을 망라하되 특히 한국 정부와 지방관아의 각종 공문서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중앙정부의 기록으로는 기본적인 연대기 외에 『日案』,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을 활용했고, 지방관아의 기록으로 경상도·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대거 이용했다. 즉 『江原道關草』·『부산항관초』·『동래항보첩』·『東萊關牒外案』 등의 지방관아 기록과 『사법품보』·『법부래거문』 등의 사법관계 자료에서 울릉도 관련 기록들을 발굴하였다.

둘째, 그간 울릉도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염상 김두원 사건을 소개한다는 점이다. 김두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일제 침탈상의 하나이자 ‘해적’ 행위로 평가된 바 있다.⁶⁾ 최근에는 영사재판권의 영역에서 소재로 사용된 바도 있다.⁷⁾ 이들 연구에서 김두원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와 소장류 자료들의 기본적 내용은 정리되었다. 일본 상인에게 속아 재산을 탕진한 김두원의 처지가 알려지자 신문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 김두원은 이후로 지속적인 소장 제출 활동을 통해 양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그러나 울릉도 상업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본 논문은

4) 허영란, 2006, 앞의 글 참조.

5) 유미립, 2012, 「수세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영토해양연구』 4호

6) 이광순, 1962, 「한일합병 전후를 통한 일인들의 침략행태-염상 김두원에 대한 木村乙吉 等の 해적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사상』 4. 일본 경시청 과장 역시 이들을 ‘해적’이라고 지칭하고 있기는 하다(“鹽商決心”, 『황성신문』, 1908년 5월 10일).

7) 김건우, 2011, 「구한말 김두원의 정소활동과 영사재판권의 實例」, 『법사학연구』 43

염상 김두원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그와 함께 울릉도 상업의 단면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보고자 하였다.

II. 개항기 일본 상인의 울릉도 밀무역 실태

개항기 울릉도와 일본 상인 간 교역의 양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나갔고, 그 수량은 얼마나 되었으며, 어느 지역과 교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담당한 상인층은 어떠한 이들이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먼저 1900년 6월 釜山 領事官補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의 조사가 있다. 그중 1897~1899년까지 3년간 울릉도의 평균 수출고를 일본 시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⁸⁾

〈표 1〉 1897~1899년까지 3년간 울릉도의 평균 수출고와 수량

| 물품 | 일본 시세(圓 ⁹⁾) | 수량(石) |
|-------------------|-------------------------|----------------|
| 大豆 | 20,000 | 3,000(총 5,000) |
| 胡太 ¹⁰⁾ | 770 | |
| 麥 | 960 | 100~150 |
| 鮑(전복) | 2,960 | |
| 天草(우뭇가사리) | 1,200 | |
| 鬚(끈끈이) | 6,000 | |
| 합계 | 30,160 | |

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국역), 13,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 (47)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1900. 6. 12

9) 1898년 부산에서 일본 엔화에 대한 엽전 시세가 20.7할이므로 3만 엔은 엽전으로 15만 냥 정도가 된다(도면희, 1989,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1894~

여기에 목재는 빠져 있다.¹⁰⁾ 대체로 콩·보리 등 농산물, 전복·해초 등 해산물과 끈끈이 등 수공업품이 이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되는 품목은 綾木綿, 金巾綿 기타 飲食用品으로 1898년과 1899년의 평균 수입고는 7,000圓 내외다. 수입품은 섬에 있는 일본인의 수요에 공급하는 외에 한인의 大豆, 胡太, 麥 등과 교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출입 창구는 일본의 境, 馬關, 鶴賀, 濱田 등으로 사카미미나토항이 70%를 차지했다.

즉 울릉도의 상업 형태는 섬 내 일본인들을 매개로 해서 중층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은 주로 목재와 해산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구입해서 일본으로 보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면직물과 식용품을 들여왔다. 그런데 울릉도 내에서 화폐 대신 통용되던 콩 등의 농산물은 한국인들만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거래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울릉도로 건너온 일본인들의 생활 형편도 좋지 않았고, 한국인은 더 나빴다는 관찰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들의 물품 구입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일본인들이 독자적으로 목재, 농산물, 해산물 등을 채취, 구입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 외중에 한국인들도 일부 수입품을 획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았다. 평균 수출액이 3만 엔이고, 수입액이 7천 엔인데 그 수입액도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유입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울릉도 내 한국인들의 입장에서서는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한 채 지역 내 산물을 역외로 내보내고 있었던 셈이다.

1902년의 조사에서도 일본인들은 주로 규목을 작별하여 일본으로 보내고 쌀, 소금, 간장, 술 등의 식품과 기타 포목을 들여와 한국인의 잡곡과 교환한다

1905),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410·450쪽). 또한 당시 부산항에서 쌀 1석의 단가는 12.12엔이었으므로, 3만 엔이면 2,475석에 해당하며, 콩 1석당 단가는 6.57엔으로 울릉도에서의 6.66엔과 거의 비슷했다(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219쪽).

10) 완두콩[胡豆]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1)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지음, 유미림 번역, 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4쪽

고 지적하고 있었다.¹²⁾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인에게 가는 물품은 金巾[가네 킨], 天竺[인도]木棉, 甲斐絹(염색한 견사로 짠 平織 비단), 紡績糸(방직 가공한 실), 石油, 燐寸[성냥], 酒, 鹽, 小雜貨類 등인데 소수의 需用者로서 이윤이 적었다. 기타는 일본인 간의 일용품 매매다. 수출품 중 대두, 胡豆, 小麥, 黃柏皮(황백나무 껍질), 소량의 繭는 한국인에게서 나오고, 기타는 일본인의 製材 및 해산물이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상주하는 한국인 어부는 전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그런데 1906년의 조사를 보면 일부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주요 수출품은 콩, 보리, 목재에 덧붙여 오징어가 추가되었고, 주요 수입품으로는 목면과 함께 쌀이 언급되었다.¹⁴⁾ 오징어 등 어업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인들의 불법 이주가 늘었고, 그에 따라 쌀 등 기본적인 일상 용품의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표 2〉 1904·1905년 울릉도 수출입 종수와 액수

| | 1904년 | 1905년 |
|----|-------------|-------------|
| 수출 | 17종 35,467圓 | 21종 71,685엔 |
| 수입 | 38종 16,407엔 | 38종 25,480엔 |

1899년과 비교해보면 수출도 늘고 있지만 수입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백미는 1904년 520석, 7,021엔에서 1905년 614.9석, 8,916엔으로, 식염은 1904년 195엔에서 1905년 1,437엔으로 증가했다. 염상 김두원 사건에서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식염의 증가는 어업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¹⁵⁾ 또한 이 시기 울릉도에서는 보리의 생산이 늘어 1만 석이 생산되

12) 〈별보〉, 《황성신문》, 1902, 4, 29

13) 『통상회찬』 10권 234호, 「한국울릉도사정」, 메이지 35년(1902) 10월(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238쪽

14)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지음, 유미림 번역, 2009, 앞의 책, 61~63쪽

15) 물론 食鹽의 증가가 어업 자체가 아니라 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따

었고, 콩보다 더 많은 양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1899년 100석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면 본래 울릉도 내 산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1886년의 기사를 보면 콩과 메밀[木麥]이 섬의 가장 중요한 종자라고 하고 있다.¹⁶⁾ 애초 개척 시 농업 이주만을 의도했던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듯이¹⁷⁾ 개척 초기 섬 내 조선인들의 관심사는 농산물 생산을 통한 자급자족에 있었다. 개척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이 면제되고 있었다는 점도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 측에서 울릉도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1894년 평해군 吏校가 호마다 麥太를 거두어 폐단을 놓고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⁸⁾ 하지만 이는 지방 관아의 자의적인 침탈이었을 뿐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울릉도는 농업만으로 자족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었다. 1900년 禹用鼎과 함께 울릉도를 시찰한 金晁秀는²⁰⁾ 울릉도민들이 화전으로 小麥·大麥·黃豆 등을 뿌려 자족하지만 수전을 만들 수가 없어 羅州 상인 등이 쌀을 싣고 와서 土産 海菜[미역]와 교역해간다고 하였다.²¹⁾ 그나마 海菜를 생산하여 외지의 농산물과 교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 내 벌목 이권을 둘러싸고

라서 연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주변 어업에서 鹽藏의 방식이 시기별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할 것인데 이 글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다.

16) <국내기사> 「鬱陵島長手本」, 『한성주보』, 1886. 7. 5

17) 김호동, 2007, 앞의 책, 151쪽

18) 『江原道關草』(규 18074) 3책, 1894. 1. 7(『각사등록』 27권, 494쪽에 수록)

19) 전라도인들에게 미역세를 거두는 경우는 있었다고 한다(유미림, 2012, 앞의 논문, 94쪽). 1892년에는 宣傳官 尹始炳을 鬱陵島檢察官으로 보냈고, 그가 藁 100粘을 3척의 배에 나누어 실어왔다고 한다. 이때 '稅藁'과 '상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江原道關草』 2책, 1892. 7. 24(『각사등록』 27권 489쪽에 수록)). 그런데 이 배가 울진에 정박했을 때 樞商의 소요가 일어나고 관련된 지방관들이 처벌받고 있는데(『江原道關草』 2책(『각사등록』 27권 490쪽에 수록)), 거문도인들에게만 미역세를 거둔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김수희,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집, 224쪽).

20) “鬱陵島調査委員”, 《황성신문》, 1900. 5. 24

21) 『東萊港報牒』(奎 17867-2) 4책, 1900. 6. 9

러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제국 정부도 직접적인 목재 개발 등을 고려하게 된다. 바로 1900년 시점이다.

러시아의 이권 획득 재확인, 일본인들의 작폐, 일본 관헌과의 시찰 등의 사안은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울릉도 관제의 제정이라는 행동을 취하게 하였다. 郡治 신설은 섬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한다.²²⁾ 당시 황실 재정 확대에 골몰하고 있던 내장원은, 울릉도 삼림에 대해서도 황실 소속이므로 누구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²³⁾ 개척 초기와 달리 대한제국 정부는 나름대로 울릉도 내 생산 활동을 직접 관할함으로써 영유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 내 상업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되지만 이전의 일본인과 한국인들 간 불공평하지만 부득이했던 공생관계가 일거에 사라지지는 않았다.²⁴⁾

한편 울릉도와의 무역을 주로 담당했던 일본 내 항구는 사카이미나토항이었다. 사카이미나토항은 오키 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1885년에 오키와 사카이미나토항 사이에는 정기항로가 개설될 정도로 사카이미나토항은 오키가 외부와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²⁵⁾ 오키와 연결된 사카이미나토항이 일본과 울릉도 사이 무역을 주도한 것이다. 울릉도 무역액 중 사카이미나토항이 7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카이미나토항 측에서 울릉도 무역은 90%를 차지할 정도였다. 또한 그 액수는 점차 늘어 1898년 55,810엔에서 1905년에는 수출 71,685엔, 수입 25,480엔, 합계 97,165엔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²⁶⁾ 특히 울릉도로의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울릉도에 들어오는 일본인 수의 증가와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5월의 조사를 보면 울릉도에 있는 일본인 548명 중 시마네현 출신

22) 『東萊港報牒』(奎 17867-2) 5책, 1901, 10, 30

23) 『訓令照會存案』(규 19143) 24책, 1901, 10, 29

24)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3~34쪽

25) 境港市, 1986, 『境港市史』 상, 732쪽

26)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지음, 권오엽·권정 편주, 2011, 『일본은 독도(죽도)를 이렇게 말한다』, 한국학술정보(주), 261·265쪽

이 남자 233명, 여자 75명, 합 308명으로 압도적이다. 그다음으로 돗토리현 60명, 구마모토현[熊本縣] 43명 순인데, 시마네현 출신은 여자가 많다는 점에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 가족 단위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직업을 보면 별목 관련 노동자가 100여 명으로 많고, 배와 관련된 직업이 60명이다. 이어 무역 24명, 仲買 3명, 酒小賣 3명 등 상업 관련자의 수치도 높은 편이다. 관찰자는 무역 24명 중 2,3명을 제외하고는 資力이 1,000엔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²⁷⁾ 한편 1906년 조사에서도 일본인 154명에 대한 직업을 조사하였다. 그중 어업 58명, 상업 47명, 별목 17명, 수공업 16명, 기타 13명, 관직 3명으로, 상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다.²⁸⁾ 앞서 1902년 조사에서 어업 종사자가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어업 종사자는 증가하고 별목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주요 산업이 별목에서 어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조사에서 무역상으로 파악되는 자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출·수입상을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울릉도와 일본 사이의 교역 증가를 반영해주는 현상이기도 했다.³⁰⁾

27) 『통상회찬』 10권 234호, 「한국울릉도사정」, 메이지 35년(1902) 10월(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242~243쪽

28)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지음, 유미림 번역, 2009, 앞의 책, 77쪽

29) 이때 조사대상은 정주자로서 봄철에 울릉도에 건너와 9~10월경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 어부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윤소영, 2012,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집, 10~14쪽). 그러나 1900년 울릉도 별목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어장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지만, 1903년 오징어잡이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울릉도 주변 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30) 허영란, 2006, 앞의 글, 235쪽

Ⅲ. 울릉도 내 일본 상인들의 불법행위와 한국 측의 대응

1880년대 울릉도 개척이 시작되고 울릉도 내 일본인의 벌목행위가 알려지면서, 상업상의 문제들도 인지되기 시작했다. 초기 조선 정부는 농업 외에 울릉도 개발을 시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교역도 허용하지 않았다. 1883년 오사카의 協同商會社와 동남개척사 김옥균 사이에 외부의 미국과 울릉도의 산물을 교환하지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지만,³¹⁾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³²⁾ 일본인들의 入島 자체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무역 행위 역시 기본적으로 불법이었다. 당시 내륙의 상황을 보면 본래 개항장 이외 지역에서 일본 상인의 거주와 무역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1882년 ‘朝日修好條規續約’에서 개항장 100리까지 통행이 확장되었고, 1883년 ‘朝英修好通商條約’ 후 최혜국조관에 따라 護照가 있으면 100리 이외 지역의 통행도 허용되었다. 이후 일본 상인들은 미개항장에도 침투해 들어가 무역행위를 일삼았다.³³⁾ 하지만 울릉도의 경우 명백히 불법거주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공권력의 통제를 무시하는 일본 상인의 활동은 조선 정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침탈이자 작폐로 받아들여졌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88·1889년에 일본 潛水器 회사 소속원들이 採鯨船을 타고 와 沙器 등을 하륙 적치한 후 豆太와 교환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다.³⁴⁾ 이에 월송포 만호는 장정에 따라 不通商口에서 사적으로 매매한 이들을 잡아들이고 洋墨 100元을 벌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미국 후루야 리쇼[古屋利涉]로부터 일찍이 免稅의 약조를 받은 바 있다고 변명하고

31) 「東南開拓使 김옥균의 鬱陵島事辦理에 관한 문의」, 『日案』 1책, 1883. 12. 11, 106쪽

32) 『統署日記』 1책, 1883. 12. 13, 28쪽

33)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136~142쪽

34) 『江原道關草』(奎 18074) 2책, 1888. 12. 24(『각사등록』 27권, 482~483쪽에 수록); 『東萊關牒外案』(奎 18119), 1889(『각사등록』 13권, 63~64쪽에 수록)

있다.³⁵⁾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인들의 상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내륙의 관리들이 정기 왕래 선척이 없어 배를 빌리려고 하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출동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인 수십 명이 작당해 창고를 부수고 沙器와 乾鰯 407근을 가져가버렸다.³⁶⁾

그나마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는 것도 일본 선편을 통해서였다.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난 10월에도 월송포 만호는 여전히 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울릉도 민들이 구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다. 당시 울릉도민들은 한데 모여 일본인 수령을 불러 죄상을 따졌다고 하는데 姜永伯처럼 본래 부산 사람으로 일본 측에 고용되어 전복 매매를 돕는 조선인도 있었다. 당시 월송포 만호가 제시한 해결책은 동래감리서에서 일본 배편에 순사를 일본 영사관인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⁷⁾ 결국 일본 관인이 일본 배를 타고 가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1894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상인과 결탁한 조선인들이 등장한다. 裴尙三, 裴致兼, 李雲景 등이 외국인과 통하여 곡물을 몰래 범선에 실어 外洋으로 運出하려 했다는 것이다.³⁸⁾ 조선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통상구안이 아니므로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생산량 자체가 자급하기에도 부족한데 경의

35) 『江原道關草』(奎 18074) 2책, 1889. 5. 6(『각사등록』 27권, 483쪽에 수록). 1882년 조일통상장정 후 후루야가 제주도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다가 제주 목사의 방해를 받았으며 배상금을 요구한 사건을 말하는데, 울릉도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김수희,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집, 219~220쪽).

36) 『東萊關牒外案』(奎 18119), 1889. 8. 11(『각사등록』 13권, 67~68쪽에 수록)

37) 『釜山港關草』(奎 17256), 1889. 10. 26(『각사등록』 13권, 73~74쪽에 수록)

38) 『江原道關草』(奎 18074) 3책, 1894. 1. 7(『각사등록』 27권, 494쪽에 수록). 여기 나오는 배상삼이 바로 나중에 도민들에게 돌로 맞아 죽은 裴正俊과 동일인물이라고 한다(〈외방통신〉, 《독립신문》, 1897. 4. 8; 김호동, 2007, 앞의 책, 162쪽). 배정준 치사사건은 1900년에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였다(『司法稟報(乙)』(奎 17279) 26책, 1900. 7. 19). 지방관 세력이 부재한 울릉도에서 강력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움을 유추하게 해준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인과의 분쟁 역시 적당한 선에서 무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 내에는 정반대로 배상삼이 일본인과 결탁한 세력에게 제거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울릉군, 2007, 『울릉군지』, 810~814쪽).

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지방관의 방곡령 선포가 일본 측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울릉도의 곡물 유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상업행위와 관련해서 몇몇 사안들이 문제시된 바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본인들의 불법 이주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잡거는 일상화되어갔다. 그리고 울릉도 내 양국인 간의 문제가 외교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논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1899년이다. 이 사안을 일본인들의 '작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한국 측과 달리 일본 측은 이런 저런 논리를 내세우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측의 주장이 옳았지만 일본 측의 논리는 울릉도 내 지역적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즉 단순히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작폐'와는 다른 방식의 서사 구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⁹⁾ 하지만 물론 일본 정부가 울릉도의 지역적 사정을 감안하여 그러한 주장을 밀어붙인 것은 아니다. 한국 침탈이라는 장기적·포괄적 포석하에 울릉도(나중에는 독도) 문제가 취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1899년부터 양국 간 외교 논란이 격화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1899년은 울릉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대립이 심해지는 시점이다. 경제적 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국제정세상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외무당국은 울릉도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1899년 8월 10일 하야시 공사는 외무성에 올린 보고를 통해 러시아 측이 그간 울릉도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

39) 도감 배계주는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작폐를 지속적으로 고발한 인물이며, 일본 측도 일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들의 작폐나 배계주의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라 배계주가 특정 일본인과 결탁하여 이익을 독점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울릉도 내 일본인과 한국인 간 이해관계의 특실에 방점을 두는 시선도 있었던 것이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국역), 13.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 (47)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1900. 6. 12).

다.⁴⁰⁾ 12월에는 러시아인 수십 명이 울릉도에 이주하여 일본인에 대해 불온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는 설을 전하기도 했다.⁴¹⁾ 이때는 한일 간 울릉도에 대한 공동 조사가 추진되던 바로 그 시점인데 일본 측은 아예 염가로 울릉도 벌목권을 러시아로부터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었다.⁴²⁾ 그러한 외증에 울릉도 내 일본인들이 모두 철거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철회되었다.⁴³⁾

실제로 당시 언론을 보면 러일 간의 대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1899년 11월 러시아의 동양 함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⁴⁴⁾ 11월 3일 러시아 군함에서 군인 30명이 실제로 상륙하여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세워놓은 채 이 섬은 러시아의 점령지라고 소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⁴⁵⁾ 이때 러시아 군인들은 天長節을 봉축하는 일본 국기를 찢기까지 했다. 이들은 섬 주변을 답사 측량하고,⁴⁶⁾ 砲聲을 연발하며,⁴⁷⁾ 병영까지 신설하였다.⁴⁸⁾ 언론은 러시아가 울릉도에 대한 기득권을 신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았다.⁴⁹⁾ 이처럼 울릉도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 관제를 제정하고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려는 행동에 나서게 된다. 1903년에는 外部參書官 趙性協이 西北邊界鬱陵島森林監理로 임명되고 있다.⁵⁰⁾ 그러나 러일전쟁 발발 후 울릉도 등지에서의 러시아 이권은 철폐되었

4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국역), 3. 本省其他歐文電報往信控 (11) 「鬱陵島問題에 관한 件」, 1899. 8. 10
 4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3권(국역), 11. 本省電報往信, (178) 「鬱陵島에 露·日 移住者間 葛藤說 武藤 領事の 視察을 위한 警備艦 便乘 許可 요구」, 1899. 12. 10
 4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국역), 9. 機密本省往信 一·二, (26) 「鬱陵島에서의 우리나라 사람의 行爲 立會 調査 件」, 1900. 5. 4
 43) “日人 撤歸”, 《황성신문》, 1899. 9. 23
 44) “아라샤 함덕”, 《독립신문》, 1899. 11. 14
 45) “俄破日旗”, 《황성신문》, 1899. 11. 28
 46) “鬱陵島의 俄國經營”, 《황성신문》, 1899. 12. 5
 47) “鬱陵島의 俄日”, 《황성신문》, 1899. 12. 7
 48) “鬱陵島에 俄人”, 《황성신문》, 1899. 12. 25
 49) “鬱陵日人과 俄官”, 《황성신문》, 1899. 12. 1
 50) “森林監理”, 《황성신문》, 1903. 6. 22

고,⁵¹⁾ 한국 측의 개발 시도도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 시기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행위, 특히 상업상의 작폐와 관련되어 일어난 마찰은 무엇이었고, 양국 외부 당국의 논리는 어떠하였을까? 먼저 출발점은 1899년 9월 도감 배계주가 내부대신에게 올린 보고다. 여기서 배계주는 일본인 수백 구가 촌락을 이루어 선척을 운행하며 木料를 실어가고 穀包物貨를 몰래 교역하되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였다.⁵²⁾ 이에 내부시찰관 우용정과 일본 관인이 함께 울릉도에 다녀왔지만 행패는 오히려 더 심해졌고, 외부는 일본 공사에게 항의하였다.⁵³⁾

비통상구안에서의 불법적인 상업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측의 대응 논리는 일본인과 도민 간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需用 공급상 긴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며 도감은 수출입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민들이 일본인 재류자들에게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판로, 일용품 공급과 대륙 교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상업행위를 금지시키면 도민들 역시 곤란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⁴⁾ 일본 측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상 울릉도 내 일본인 퇴거 명령을 되돌리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⁵⁵⁾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벌금조로 出口貨에 100분의 2를 물린 것이고 그나마 進口貨는 해당하지 않으며, 도민들이 일본인으로 곤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리하다고 여길 리가 만무하다고 항변하였다.⁵⁶⁾

51) <관보> 「勅令 勅宣書」, 《황성신문》, 1904. 5. 28

52) 『內部來去文』(奎 17794) 12책, 1899. 9. 15

53) 「鬱陵島の 日人不法在留斫木嚴辦要求」, 『日案』 5권, 1900. 9. 5, 57쪽. 이 시기 일본 측의 주권 침해와 억지 논리에 대해 대한제국 외부가 항의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내부를 제대로 통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은 공허해지기 쉬웠다(김종준, 2011, 「대한제국기 낙동강 원동 수세권의 항방」, 『역사와 경계』 79집, 171쪽).

54) 「同上日人問題의 合法化主張」, 『日案』 5권, 1900. 9. 5, 58~60쪽

5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국역), 9. 機密本省往信 一·二, (42) 「鬱陵島在留 우리나라 사람 退去에 관한 意見上申」, 1900. 7. 4

56) 「鬱陵島 日人退去不肯에 對한 論駁」, 『日案』 5권, 1900. 9. 7, 62~63쪽. 일본인

그러나 울릉도민의 입장에서 일본 측의 현실론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내륙 교통을 일본 배가 책임지고 있다는 지적이 그러하다. 앞서 본 대로 한국 지방관아는 울릉도 내 폭동 소식을 듣고도 몇 달이 지나도록 출동하지 못했고, 일본 배편에 소식을 들을 뿐이었다. 사실 정기항로를 만들려는 노력은 한국 측에서도 있었다. 1899년 4월 울진군 商民 田士能 등이 濟益船社를 창설해 울릉도 목재로 배를 만들어 울릉도와 내륙 간 무역을 담당하며 수익을 거두고자 했다.⁵⁷⁾ 울릉도 시찰관 우용정도 배편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자금을 융통했으며,⁵⁸⁾ 울릉도민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 開運會社를 설립하고 부산에서 風帆船 1척을 구입해 고객과 상품을 나르고자 했다.⁵⁹⁾ 그러나 이 같은 계획들은 모두 실행되지 못했다. 1909년에도 여전히 울릉도와 내륙 간에는 기선의 통행이 없어 부산-원산 간 기선의 통행이 협의 중이었을 따름이었다.⁶⁰⁾

그다음 일본 측이 내놓은 논리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외국선교사는 낡은 채 울릉도 일본인 퇴거만 요구함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⁶¹⁾ 그러나 한국 측은 갖은 행패를 부리는 일본인들과 외국선교사를 비교할 수 없으며, 條約合編 6권에 의거하여 비통상구안에서의 무역행위를 중지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⁶²⁾ 이후 논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중지되었다. 1901년에도 울

들에 대한 수출세 부과는 울릉도 도감과 일본인들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한제국 내부도 사실상 묵인했지만, 외부는 불법으로 간주했다. 한편 일본인들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서만 포획되는 강치 등에 대해 울릉도 도감에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유미림, 2012, 「수세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영토 해양연구』 4호; 한철호, 2012, 「독도·울릉도 '가치'(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사학보』 49 참조).

57) “船社章程”, 《황성신문》, 1899. 4. 12

58) 송병기, 2010, 앞의 책, 204쪽

59) “鬱島船運”, 《황성신문》, 1900. 6. 20

60) “鬱倅請求”, 《대한매일신보》, 1909. 8. 12, 일제 시기 들어 울릉도에는 정기·부정기 선박 운항이 생겨났고(“鬱陵島勢의一斑”, 《매일신보》, 1913. 8. 10), 이는 ‘울릉도의 대발전’으로 지칭되고 있다(“鬱陵島の大發展”, 《매일신보》, 1913. 11. 28).

61) 「鬱陵島日人の條件附退去拒否の件」, 『日案』 5권, 1900. 9. 12, 65~66쪽

62) 『內部來去文』(奎 17794) 13책, 1900. 10. 2

릉도에서는 여전히 일본인 천여 명이 작당해 돌입한다는 보고가 이어졌고,⁶³⁾ 일본은 오히려 울릉도에 경찰서를 자의로 설치하였다.⁶⁴⁾

1902년 10월 양국의 논쟁은 계속되었는데 먼저 한국 측이 정당한 호조를 가지고 다니는 선교사와 울릉도 재류 일본인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후 경찰서 철폐도 요구하였다.⁶⁵⁾ 그러나 일본 측은 2년 동안 아무런 공문이 없어 한국 정부가 승인할줄 알았다고 능청스럽게 대답한 후 울릉도 개척의 역사를 생각해보라며 현실론을 내세웠다. 경찰서 역시 신임 군수와 합의 하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였다.⁶⁶⁾ 일본 측의 이러한 태도는 가히 '적반하장'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⁶⁷⁾ 1905년 일본의 한 민간 신문사 역시 울릉도를 일본이 개척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한국 언론은 분개하고 있다.⁶⁸⁾

이처럼 1899년 이래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고 한국 정부도 시찰관에 이어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울릉도에 대한 관할을 강화해갔지만, 일본 측은 외국선교사 문제를 끌어오고 도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도내 일본인 철수에 응하지 않은 채 버텼다. 앞서 본 대로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권이나 일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울릉도의 전략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일본 측 스스로 울릉도 내 일본인들의 자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1902년 일본 측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로의 도항자는 대개 무지하고 문맹한 무리로 심지어 흥기를 휴대하고 다니며 폭행하고 타인의 물건을 강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日商組합을 만들게 된 것이고, 경찰관 주재소의

63) 『內部來去文』(奎 17794) 14책, 1901. 9. 25

64) 일본이 울릉도에 경찰관 주재소를 설치한 것은 영일동맹 체결 직후인 1902년 1월이다. 러시아를 의식해 일본인 철수를 고려했다가 거부하고 경찰관 주재소 설치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고 한다(송병기, 2010, 앞의 책, 232쪽).

65) 「鬱陵島日人警察署의 撤廢와 居留民退去促求」, 『日案』 6권, 1902. 10. 11, 87쪽

66) 「鬱陵島日人の 在留經緯와 撤收拒否」, 『日案』 6권, 1902. 10. 29, 103~104쪽

67) 〈논설〉「論鬱島報告事件」, 《황성신문》, 1902. 5. 1

68) 「鬱島問題」, 《대한매일신보》, 1905. 9. 22; 「申論鬱島問題」, 《대한매일신보》, 1905. 9. 24; 〈기서〉「鬱陵島嘔心生」, 《황성신문》, 1905. 9. 27·28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제출되었다.⁶⁹⁾ 1898년 말 시마네현 지사와 돗토리현 지사는 각각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배계주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은 단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⁷⁰⁾ 도항자 중 역센 무리가 많은데 단속할 관리가 없으므로 서로 간의 논쟁은 오로지 완력으로 결정된다면서 警部 1명에 순사 2명을 붙여 출장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⁷¹⁾ 다음에 보겠지만 염상 김두원 사건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통해 문제화된 것도 울릉도 내 일본인들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IV. 염상 김두원 사건의 전말과 사회적 파장

염상 김두원 사건은 원산의 소금 상인 김두원이 일본 상인에게 속아 울릉도에서 소금을 모두 도난당한 사건으로, 이후 김두원이 지속적으로 소장을 올리는 등 항의를 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졌으며, 당대 신문에 상세하게 등장하고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황성신문》 기사 등을 참조하여 염상 김두원 사건의 전말을 연표 형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표 3).⁷²⁾

김두원은 본래 원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소금 상인이었다. 당시 경상도

69) 『통상회찬』 10권 234호, 「한국울릉도사정」, 메이지 35년(1902) 10월(여강출판사, 1987, 영인본), 237쪽

70) 『일본외교문서』 32권(외무성, 1955), 287~290쪽

7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6권(국역), 5, 本省機密往信 一·二, (67) 「鬱陵島在留民 단속을 위한 警察官 派遣의 件 上申」, 1901, 12, 10

72) 《대한매일신보》에도 김두원 관련 기사가 등장하지만 1904년 이후에 한정되고 전체적으로 《황성신문》보다 소략하므로 《황성신문》만 가지고 정리하였다.

〈표 3〉 염상 김두원 사건 연표

| 날짜 | 주요 사항 |
|---------------|---|
| 1899년 3월 25일 | 경상도 울산 馬坪에서 소금 1,088桶 구입 후 長鬻郡 毛浦에 적치 |
| 1899년 6월 13일 | 시마네현 오키 기무라 형제의 말에 따라 그들 배에 소금을 싣고 울릉도로 출발 |
| 1899년 6월 16일 | 울릉도 도착, 김두원만 상륙하여 유숙 |
| 1899년 6월 17일 | 기무라 형제가 배를 가지고 도주함 |
| 1899년 7월 24일 | 울릉도에서 기무라 겐이치로[木村源一郎] 사망함 |
| 1901년~ | 수십 차례 외부에 毛訴함 |
| 1901년 6월 | 김두원의 소금값 요구 문제로 한국 외부에서 일본 공사관에 문의함 |
| 1901년 11월 | 일본 공사관 측에서 木村源一郎 동생 乙吉의 귀환을 기다려 처리하겠다고 대답함 |
| 1902년 2월 | 조사 결과, 木村源一郎 동생 乙吉에게 배상의 의무가 없고 배상할 자산도 없다고 답변함 |
| 1903년 3월 | 일본 공사 林權助를 만나 실랑이 중 임공사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사고 발생 |
| 1903년 11월 | 한성부재판소에서 명을 받들어 나간 관리를 구타한 법률에 비추어 김두원을 썸 90, 징역 2년 반에 처함 |
| 1905년 | 일본군 사령부, 일본 영사관 등에 上書 |
| 1906년 | 고문관 스티븐슨, 이토 통감 등에게 上書 |
| 1907년 10월 12일 | 방한하는 일본 황태자에게 直訴하려다가 경시청에 留置 |
| 1908년 3월 |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청원서를 내려다가 순사에게 포박됨 |
| 1908년 8월 | 曾彌荒助 부통감에게 상서 |
| 1909년 12월 | 내각총리대신 桂太郎, 추밀원의장 山縣有朋, 滑稽社 사무소 등에 우편으로 長書 |
| 1910년 3월 7일 | 경시청에 피착됨 |
| 1920년 5월 | 《동아일보》에 사연이 다시 소개됨 ⁷³⁾ |

73) 1910년대 《매일신보》에도 김두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김두원은 병합 후 마음을 바꾸어 먹고(“鹽商 金斗源”, 《매일신보》, 1914. 12. 4), 구휼금 300엔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金斗源에게 金三百圓”, 《매일신보》, 1917. 11. 20). 하지만 1920년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余는 鹽商 金斗源”, 《동아일보》, 1920. 5. 17).

에서 소금을 사다가 관북지방에 푸는 상인들을 水商이라고 불렀다.⁷⁴⁾ 김두원은 울산 마평에서 소금 1,088통을 구입해 원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장기군 모포(지금의 포항 부근)에 적치해두었다. 거기에서 시마네현 오키[隱岐] 섬 출신 일본 상인 기무라 형제를 만나 울릉도에 가지고가면 콩 4천여斗와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저들 배에 싣고 갔다가 하룻밤만에 모두 도난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울릉도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즉 김두원은 자신의 소금이 배와 함께 없어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후 10여 년에 걸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항의를 지속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사건 발생 초기에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김두원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노릇이었을 것이다. 당시 울릉도에는 운송수단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쫓아갈 수도 없었고, 행정망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관에게 맡길 수도 없었다. 그러한 상황은 역으로 일본 상인들의 불법적·도합적 행위가 울릉도에서 가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두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도감 裴季周의 충고에 따라 서울로 가서 청원서를 올리는 일뿐이었다.

염상 김두원 사건을 앞서 살펴본 울릉도 상업의 실태와 관련지어보면 지도 상에 그림 1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때 일본 상인 기무라 형제가 김두원을 울릉도로 유인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주목된다. 현재 울릉도에 어업이 성황인데 소금이 없어 잡은 고기를 썩힐 지경이기에 김해 구포에 왔다가 소금이 없어 포항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울릉도에 소금을 가지고가 콩으로 바꾸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다.⁷⁵⁾ 사실 김두원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득이 많다는 말에 따라 갔다.⁷⁶⁾ 그러나 막상 가보니 풍어라는 말도 소금이 없어 난리라는 말도 다 거

74) “재계산맥(212),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원산회의소(1), 苗民 林豪然”, 《매일경제신문》, 1982. 1. 11

75) “재계산맥(547),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기상괴상(13), 苗民 林豪然”, 《매일경제신문》, 1983. 4. 15

76) “金氏八難”, 《황성신문》, 1907. 1. 17



〈그림 1〉 영상 김두원의 족적을 통해 본 울릉도 상업의 구도

짓이었다고 한다.⁷⁷⁾ 이상의 기록 자체가 후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1899년경이면 울릉도가 별목지에서 어업 중심지로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⁷⁸⁾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가능성 있는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그만큼 김두원의 모험적 상인 정신이 발휘될 소지가 컸던 것이다.

조선 후기 소금과 어물, 그리고 목재는 깊은 관련이 있었다. 제사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면서 제수물 가운데 비중이 큰 어물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어물 운송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⁷⁹⁾ 그런데 소금 생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재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했다. 문제는

77) “재계산맥(547), 근세 100년 산업과 인물, 기상괴상(13), 苗民 林豪然”, 《매일경제신문》, 1983, 4, 15

78) 吉田敬市, 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469쪽; 허영란, 2006, 앞의 글, 243~244쪽; 나이트 세이쥬 지음, 권오엽·권정 편주, 2011, 앞의 책, 267쪽

79) 김호중, 1986, 「조선후기 어염의 유통실태」, 『대구사학』 31호, 111~113쪽

松木을 비롯한 대부분의 목재산지는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⁸⁰⁾ 그럼에도 실제로는 소금 생산을 위해 盜伐이 행해지고 수령은 사목을 준수하지 않아 금령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⁸¹⁾

그렇다면 울릉도의 목재가 경상도 해안가의 소금 산지로 건너가고, 여기서 구입된 소금이 다시 울릉도로 들어가 어물 보관을 위해 매매되는 방식도 구상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방식이 일반화되었더라면 그림 1의 지도상에 표기된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일단 이 시기에 울릉도와 조선 내륙 간 선박 운행이 정기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도의 목재 생산이 점차 감소하면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⁸²⁾ 김두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울릉도 상업은 사실상 일본인들이 전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모험적·초보적 수준의 상인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논점을 찾을 수 있을까? 김두원의 주장과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의 입장 및 언론의 관심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일본 상인의 사기행위로 김두원이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데에 있었다. 일본 외무당국은 지방재판소의 조사 결과 상속인이나 가해자의 동생 등은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어 배상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⁸³⁾ 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택지 4畝 15步 地價 3元 86錢, 田 1反 2畝 지가 85전, 住家 草蓋 1棟 등뿐인데 이것도 借用金으로 잡혀 있었다.

이에 대해 김두원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일본 공사관 측은 어쩔 수 없게 되었다며 홀금을 제안했으나 김두원은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⁴⁾ 처음에는

80) 오성, 1989, 『조선후기 상인연구-17·8세기 인삼·목재·미곡·염상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조각, 152쪽

81) 『비변사등록』, 숙종 20년(1694) 7월 15일

8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권(국역), 13.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 (47) 「鬱陵島 調査概況 및 山林調査概況 報告의 件」, 1900. 6. 12

83) 「金斗源鹽價의 辨價不可能通報」, 『日案』 5권, 1902. 2. 22, 590~592쪽

84) <별보>, 《황성신문》, 1905. 1. 30. 김두원은 홀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

기무라의 대리인이 여전히 울릉도에 있다며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⁸⁵⁾ 결국 김두원의 입장은 국가, 즉 일본 당국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김두원은 개인의 사적인 매매행위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두원이 어떤 법적인 논거를 가지고 반론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김두원이 내세운 것은 前例가 있다는 점이었다.

전례의 첫 번째는 1902년 충남 홍주군 長古島에서 일본 風船이 암초에 부서지자 船價 3千 圓을 그곳 주민에게 督徵하다가 대한제국 정부에서 부득이 변상한 일, 둘째, 1904년 공주군에 내왕하는 일본 상민이 군인과 싸운 손해금 수천 원을 대한제국 정부에 徵捧한 일, 셋째, 갑오 을미 이후로 인명 손해에 유족에게 恤금을 준다 칭하고 수십만 원을 거둔 일 등이다. 이를 역지사지해서 기무라의 생사, 貧富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원래 소금 1,088통 가격이 5,199圓 10전인데 배상금 계산 방식 역시 일본 식대로 8년이면 8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⁶⁾

이처럼 김두원이 내세운 前例라 함은 일종의 상황논리이자 경험적·상대주의적 논리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간 일본 측의 막무가내식 배상 요구 속에 담겨 있는 침략성을 역설적으로 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문명국가 일본에 대한 야유의 어조가 내포되어 있었다. 문명국의 법률이 원래 그런 것인지, 타국민에게만 대하여 그렇게 시행하

에 보관된 恤금을 일본공관으로 되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鹽商又訴”, 《황성신문》, 1905. 4. 8),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재촉하였다(“請給領證”, 《황성신문》, 1904. 4. 19).

85) 「金斗源鹽價請求狀의 送附와 鬱陵島의 木村遺產充當償還要請」, 『日案』 5권, 1902. 4. 2, 626쪽; 「金斗源 鹽價의 償還 再要求」, 『日案』 6권, 1903. 2. 26, 251~252쪽

86) “鹽商五泣”, 《황성신문》, 1906. 10. 26. 배상을 요구하는 鹽價 자체는 수입되던 일본산 염에 비하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羽原又吉, 1957, 『日本近代漁業經濟史』 下卷, 岩波書店, 89~90쪽). 당시 한국산 염은 청국산은 물론이고 일본산 염보다 가격이 높았다(유승훈, 2005, 「20세기 초 일제의 소금정책과 생산체제의 재편」, 『국학연구』 6집, 504쪽).

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⁸⁷⁾

《황성신문》 기자는 김두원의 외모가 촌스럽고 개명상 새로운 학식도 없다는 관찰평을 내놓고 있지만,⁸⁸⁾ 김두원은 교섭정치와 통상법은 천하 공공이라며 진일보한 인식을 보였다.⁸⁹⁾ 나아가 일본이 천하 열강 자리에 오름은 정치의 공정함 때문이라며 중국의 인구 많음과 러시아의 사나움보다 낫다는 입장까지 보였다.⁹⁰⁾ 그리고 통감이 부임하여 인민의 억울함이 없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보이고 있었다.⁹¹⁾ 1910년에도 경시총감과의 대화 중 일본이 동서양에 문명하다 자부하면서 자신에게 한 일을 관찰하면 문명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냐며 반문하였다.⁹²⁾ 북부 지역의, 상인 출신답게 김두원은 개화와 척사 중 한쪽에 편중되지 않은 채, 실리적·합리적 언설을 강단 있게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일본 측의 입장은 흠금을 제안하고 김두원의 광인적 성향을 강조하는 등 궁색하였다.⁹³⁾ 일본 역시 개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이나 국가에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끝내 배상을 해주지도 않았다. 유사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울릉도에서는 김두원 사건이 생기기 직전에 그와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바로 도감 배계주가 배상금을 받아낸 사건이다. 배계주는 1898년과 1899년 일본인 요시오 만타로[吉尾萬太郎], 후쿠마 효노스케[福間兵之助] 등이 木料를 훔쳐간 것에 대해 일본 隱岐國, 松江郡 등으로 찾아가 재판관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었다.⁹⁴⁾ 이 사건에서 배계주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고 직접 일본 지방에 찾아가 재판을 거쳐 당사자로부터 얻어낸

87) “金氏八難(前號續)”, 《황성신문》, 1907. 1. 21

88) 〈논설〉「讀金斗源上書有感」, 《황성신문》, 1905. 2. 1

89) 〈별보〉, 《황성신문》, 1905. 1. 31

90) “金斗源上書”, 《황성신문》, 1905. 3. 2

91) “鹽商可矜”, 《황성신문》, 1906. 4. 19

92) “鹽商被招의 理由”, 《황성신문》, 1910. 3. 20

93) 『日案』 5권, 1901. 12. 23, 534쪽

94) “可任一隅”, 《황성신문》, 1899. 5. 16

것이였다.⁹⁵⁾ 김두원 역시 일본에 건너가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아쉬워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안 되어 그 배의 住籍을 알아냈으나 당장 여비가 없어 건너가지 못했다.⁹⁶⁾ 1908년에도 일본 정부와 민권당에 설명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했으나 여비를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⁹⁷⁾

그런데 배계주는 김두원 사건에도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사건 당일 김두원은 沈基洙라는 자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울릉도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김두원에게 거처를 소개한 것이 배계주였던 것으로 보인다.⁹⁸⁾ 또한 다음 날 김두원에게 조언을 해주며 도움을 준 것 역시 배계주였다. 특히 사건 당일 날 밤 배계주와 일본인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즉 기무라 형제가 배계주 소송과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것이었다.⁹⁹⁾ 실제로 기무라 겐이치로[木村源一郎]는 배계주의 울릉도 물산 독점판매를 도운 공모자로 묘사되기도 했다. 배계주는 일본인에게 밀수출입에 대한 벌금을 물릴 때 기무라의 도움을 받았고, 앞의 재판에서도 기무라를 증인으로 세웠다.¹⁰⁰⁾ 목재를 실어가도록 일부러 방조한 후 나중에 되찾아오면서 기무라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배계주와 기무라는 섬 내 한국인·일본인 각각에게서 미움을 샀던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기무라 겐이치로는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울릉도에서 살해당했다.¹⁰¹⁾ 사건 당일 배계주와 기무라 사이에 어떤 언질이 있었던 것인지, 기무라가 어떻게 죽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울릉도의 유력자였던 배계

95) 나이토 세이추 지음, 권오엽·권정 편주, 2011, 앞의 책, 253~254쪽

96) “鹽商又鳴”, 『황성신문』, 1909. 6. 26

97) “鹽商被捉詳報”, 『황성신문』, 1908. 3. 26

98) <별보>, 『황성신문』, 1905. 1. 30

99) “訴推失物”, 『황성신문』, 1901. 8. 14

100) 「일본 외무성자료 616-10」 『부산영사관 보고서 2』, 1902년 5월 30일, 울릉도 경찰관 주재소 재근 경부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가 영사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에게 보낸 보고서(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8~120쪽에서 재인용).

101) 기무라 겐이치로[木村源一郎]는 ‘피살된 것으로 전해졌다(“鹽商五泣”, 『황성신문』, 1906. 10. 25).

주가 김두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뒤로 가면서 없어진다. 김두원의 상소가 수차례 계속되지만 배계주와 관련된 내용은 더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럼 한국 외교 당국의 입장은 무엇이였을까? 기본적으로 김두원을 동정하고 일본 측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 공사 하야시가 김두원에게 낭패를 본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눈치를 보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즉 그 사건에서는 김두원의 손이 하야시의 몸에 닿았는가 판단의 핵심이었는데, 한국 측 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일본 측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¹⁰²⁾ 그리고 형기를 점차 줄여 예정보다 일찍 방면하는 방식을 취했다.¹⁰³⁾ 다만 이 경우에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 측이 배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⁰⁴⁾

마지막으로 언론은 이 사건의 어떠한 측면을 높이 사고 있었던 것일까? 김두원 사건은 외교 문제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일본의 침탈상 중 하나로 상징화되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다. 언론은 지속적으로 김두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며 그를 애국혈성의 인물로 칭송하였다. 결단코 自家의 公權을 잃지 않으려 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굶주려도 일본 공사의 恤금을 받지 않은 불굴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이 모두 김두원과 같은 혈성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에게 모욕을 받지 않고 국권도 잃지 않으리라고 칭송하였다.¹⁰⁵⁾

《황성신문》은 1907년 1월 17~21일까지 4회에 걸쳐 김두원의 소송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던 1907년 3월 초 각회 연합연설

102) 『法部來去文』(奎 17795) 12책, 1903. 8. 28; 『司法稟報(乙)』(奎 17279) 40책, 1903. 8. 19

103) 『法部來去文』(奎 17795) 12책, 1903. 11. 11; 『司法稟報(乙)』(奎 17279) 40책, 1903. 11. 3

104) 『法部來去文』(奎 17795) 12책, 1904. 12. 30

105) <논설> 「讀金斗源上書有感」, 《황성신문》, 1905. 2. 1

에서는 김두원 같은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자유교섭의 권이고, 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평하고 있을 정도였다.¹⁰⁶⁾ 《대한매일신보》에도 김두원 관련 기사가 나오지만 《황성신문》에 비해서는 소략하다. 《황성신문》은 염상 김두원을 일본인의 침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고 끈질기게 자기 주장을 펼치나간 인물로 치켜올리면서 국권회복운동의 모범적 예로 규정하고 있었다.

V. 맺음말

본래 원산의 소금 상인이었던 김두원은 1899년 울산에서 소금 1,088통을 샀는데 일본인 기무라가 울릉도에 가서 소금을 콩으로 바꾸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말을 듣고 울릉도에 갔다가 통채로 탈취당했다. 이후 김두원이 이에 대한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고, 이 소송건은 1920년대까지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 김두원은 소금 가격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1905년 시점에서 25,990여 냥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해결되지 못했다. 당시 소송 문건, 외교 기록, 신문 등에서 이 사건 관련 기록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외교 문제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일본의 침탈상의 하나로 상징화되며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다. 김두원은 상소문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처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언론은 그를 애국혈성의 인물로 칭송하였다.

이 연구는 김두원 사건에서 확인되는 염상 김두원의 족적을 정리하고, 아울러 개항기 울릉도 상업의 실태를 재구성해보았다. 즉 울릉도의 목재가 경상도 해안가의 소금 산지로 건너가고, 여기서 구입된 소금이 다시 울릉도로 들어

106) 「各會聯合演說」, 《황성신문》, 1907. 3. 5

가 어물 보관을 위해 매매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몇몇 조사보고를 통해 울릉도 내 상업 형태가 일본인들을 매개로 해서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여기에 한국인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산물이 대규모로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 과정에서 일본 상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1889년 울릉도 도장은 일본인들이 沙器 등의 물건을 곡물과 교환하려고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조선 측의 입장에서 이는 작폐행위였다. 이들 일본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潛商’이자 ‘곡물을 훔치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울릉도는 통상구안이 아니었고, 공식적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거주자였고, 밀무역의 형태를 띠었으며, 작폐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00년 9월 울릉도 관제를 규정한 칙령 41호가 반포되기 직전, 한일 양국은 울릉도에 머무는 일본인 퇴거 문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일본 측은 일본인과 島民 간 행하는 사업은 需用供給상 긴요하며 또한 도민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며 관세를 부과하면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대한제국 정부는 조약에 위배된다고 반박하였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시 울릉도와 내륙 간 교통을 일본 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현실론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일본 측이 현실론을 밀어붙인 것은, 기본적으로 러일 간의 대립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시기 일제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배경과도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울릉도민들의 입장과 정부 측의 태도, 외교적 수사와 지역의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울릉도·독도의 상업사 연구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江原道關草』(규 18074), 『內部來去文』(奎 17794), 『東萊關牒外案』(奎 18119), 『東萊港報牒』(奎 17867-2), 『法部來去文』(奎 17795), 『釜山港關草』(奎 17256), 『司法稟報(乙)』(奎 17279), 『訓令照會存案』(규 19143)
- 『비변사등록』, 『統署日記』
- 『일본외교문서』, 『日案』, 『주한일본공사관기록』, 『통상취찬』
-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매일신보》, 《한성주보》, 《황성신문》
- 김호동,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신용하, 2003,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 오성, 1989, 『조선후기 상인연구-17·8세기 인삼·목재·미곡·염상의 활동을 중심으로』, 일조각
- 울릉군, 2007, 『울릉군지』
-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 김건우, 2011, 「구한말 김두원의 정소활동과 영사재판권의 實例」, 『법사학연구』 43
- 김수희,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
- 김종준, 2011, 「대한제국기 낙동강 원동 수세권의 향방」, 『역사와 경계』 79
- 김호중, 1986, 「조선후기 어업의 유통실태」, 『대구사학』 31
- 도면희, 1989, 「갑오개혁 이후 화폐제도의 문란과 그 영향(1894~1905)」,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유미림, 2012, 「수세 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 『영토해양연구』 4
- 유승훈, 2005, 「20세기 초 일제의 소금정책과 생산체제의 재편」, 『국학연구』 6
- 윤소영, 2012, 「1900년대 초 일본 측 조선어업 조사 자료에 보이는 독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 이광순, 1962, 「한일합병 전후를 통한 일인들의 침략행태 - 염상 김두원에 대한 木村乙吉 等の 해적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사상』 4
- 한철호, 2012, 「독도·울릉도 '가치'(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의미」, 『한국사학

보』 49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호

境港市, 1986, 『境港市史』 상

吉田敬市, 1954,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지음, 권오엽·권정 편주, 2011, 『일본은 독도(죽도)를 이렇게 말한다』, 한국학술정보(주)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 지음, 유미림 번역, 2009, 『「독도와 울릉도」 번역 및 해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羽原又吉, 1957, 『日本近代漁業經濟史』 下卷, 岩波書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ommercial Problems in Ulleungdo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s as Viewed through the Salt Merchant Kim Duwon
Incident

Kim Jongjun

This study re-examines the commercial situation in Ulleungdo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Korean ports through the salt merchant Kim Duwon's whereabouts in Wonsan. There was a method by which wood in Ulleungdo went to salt producers on the Gyeongsang Province coast and was purchased there for return to Ulleungdo to be sold for storage. In addition, commercial groups in Ulleungdo were formed in a multi-layer structure through Japanese. Koreans also participated in these commercial transactions. In conclusion, it may be stated that products from this area went to other areas on a large scale.

Also, in business transactions the problem of how to view the actions of Japanese merchants was examined. Since the development of Ulleungdo, Koreans considered Japanese residence there to be illegal, and the commercial acts by Japanese people, too, were considered illegal. However, there were no means to prevent Japanese commercial acts, and the people living in Ulleungdo, who depended upon Japanese for their transportation, were forced to endure plunder by Japanese.

In particular, immediately preceding Imperial Order No. 41, which stipulated relations with Ulleungdo in September 1900, both countries had sharp discussions on the problem of expelling Japanese people from

Ulleungdo. At the time, the Japanese side asserted that Japanese commercial acts were done at the request of people living in Ulleungdo and thus requested that the Korean side impose a tariff. In reply to the Japanese assertion,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that Japanese commercial acts were in violation of the treaty. Of course, the reason that the Japanese side pushed forward with such commercial acts was not for the Japanese people who went to Ulleungdo, but rather to hold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nfrontation with Russia. This was also indirectly related to the background in which Japanese sought to plunder the right to possess Dokdo.

Keywords

Ulleungdo, Commerce, Salt merchant, Kim Duwon, Japanese merchants

1930년대 경성제국대학의 역사 교과서 비판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장신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1935년 2월에 조선총독부는 독립기관으로서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이하 ‘역사교과서위원회’로 줄임)를 설치했다. 권오현에 따르면, 1930년대 전반 재조일본인 교육자와 경성제대의 역사학자들이 國體明徴의 철저를 요구하는 역사교육 개혁론을 제기하고, 조선총독부가 이 여론을 수용하면서 역사교과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역사교과서위원회는 기존 역사 교과서의 조사·분석 외에 역사 교과서의 단일화, 4년제 보통학교의 국사지리과 설치 등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역사교육정책을 크게 전환시켰다. 이것은 대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실시와 함께 제도적·내용적으로 역사교육에 반영되고, 황국신민화 교육정책의 원천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고쿠

※ 투고일: 2013년 4월 13일, 심사일: 2013년 8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22일

1) 권오현, 2003,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歷史教育論集』 30

분 마리[國分麻里]는 조선총독부의 朝鮮事歷을 향토사 교수와 상호관계 속에서 검토하면서 역사교과서위원회를 다루었다. 그는 이 위원회 설치의 주요한 계기로 1934년 초에 팸플릿 형태의 중앙고등보통학교 조선사 교재 적발사건을 들고, 이 사건 이후 제기된 재조일본인 교육자와 학자들의 조선총독부의 국사 교육 비판을 정리하였다.²⁾

필자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재조일본인 역사교육자와 경성제대 교수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국체명징을 위해 한마음으로 역사 교과서의 개정을 추진한 것처럼 서술한 데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또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 역사 교과서의 개편이 역사교과서위원회 활동의 즉각적 결과로 해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에서 역사교육, 특히 조선사 교육의 목표를 놓고 조선총독부와 민간전문가, 또는 조선총독부 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인 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치배경으로 재조일본인 교육자들의 비판적 의견도 거론되지만 그들의 제안이 조선총독부를 움직이지는 못한다. 역시 총장이 대표하지만 식민지의 최고학부 경성제대의 건의서가 결정적이었다.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 총장과 경성제대의 역사전공 교·강사들은 건의서에서 드러낸 것 외에 역사교과서위원회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였는가? 이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다. 제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의 帝大 교수들에게 주어진 학자로서의 '소명' 의식은 무엇인가? '국사의 체계'는 역사교육자들도 주장했지만 구체화되기 어려웠던 반면에, 경성제대 교수들은 행정력이 뒷받침된다면 비판 외에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가 왜 역사교과서위원회를 설치했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다. 당시 비판은 1932·1933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교사』에 집중되었다. 조선 통치의 안정을 위해 조선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뒤 조선총독부 스스로 이 책을 높이 평가했는데, 외부의 비판 때문에 그것을 쉽게

2) 國分麻里, 2010, 『植民地期朝鮮の歴史教育－「朝鮮事歷」の教授をめぐって』, 新幹社

부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조선총독부가 경성제대의 건의서 제출 후 두 달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

셋째로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제도개편과 교과서 서술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경성제대 교수들이 주장했던 본질적 내용 개선, 곧 국사의 체계를 흔드는 서술의 삭제 또는 수정은 없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조선특수사정론’³⁾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바뀐 부분보다 변하지 않은 부분에 주목하였다. 국사의 체계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공포 이후, 1940년에 발간된 교과서에서 반영되었다.

자료는 역사교과서위원회 위원이었던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가 남긴 두 권의 문서철, 곧 『初等中等教科書中日鮮關係事項摘要』와⁴⁾ 『中等歷史教科書調査要旨(原案)』⁵⁾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신문과 잡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 3) 김재정은 ‘조선’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특수성’의 의미를 ‘조선인 또는 조선민족’, ‘조선지역’, ‘조선통치’의 특수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곧 조선(인)을 차별하는 논리를 필요로 할 때, 내지(일본)로부터 조선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때, 제국 정부로부터 통치의 자율성 또는 독자성을 획득하려고 할 때 나온 조선총독부의 주장이 조선특수사정론이었다(「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 경제관료의 ‘지역으로서의 조선’ 인식」, 『역사문제연구』 22, 2009, 101쪽). 필자가 사용하는 개념은 세 번째에 가깝다. 그런데 통치의 자율성 획득은 반드시 제국 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제국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대하였다.
- 4) 이 자료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였던 田保橋潔이 편철해 보관했던 자료로서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주된 자료는 「건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기초분석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5)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조선총독부 김정·인가 교과용 도서 목록 외에 「歷史教科用圖書調査要旨 國史 其二(自鎌倉幕府創立 至明治維新)」, 「歷史教科用圖書調査要旨(國史, 上級用) 全」, 「調査要旨附表 外國史(東洋史) 要目對照表 其二(自五代至明末)」, 「歷史教科用圖書調査要旨 外國史(東洋史) 其三(自清 至中華民國)」, 「調査要旨附表 外國史(東洋史) 要目對照表 其三(自清 至中華民國)」 등이다.

II. 경성제대의 역사 교과서 조사와 ‘국사의 체계’ 인식

1_ 경성제대 역사 교과서 조사위원회의 활동

1934년 12월 26일 경성제대 총장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 재임기간 1931. 10~1936. 1]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총독에게 「역사교과서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⁶⁾ 이 건의서에는 역사교과서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야마다 사부로의 의도가 담겨 있다.

본관이 본대학에 봉직한 이래 조선 각 학교의 역사교과서를 瞥見하니 중등학교용 국사교과서와 동양사교과서 중에는 조선의 史實에 관해 심한 오류를 기재한 것이 적지 않고, 보통학교국사에는 국사에 관계없는 조선의 古傳説, 先賢의 事蹟 등을 아무 관계도 없이 삽입하여 도리어 국사의 체계를 흐리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 조선 문교를 위해 속히 그 선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후략-인용자)

곧 야마다 사부로는 조선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보고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로 중등학교용 교과서에서는 조선사의 史實에 오류가 적지 않다는 것, 둘째로 보통학교 국사에 국사(일본사)와 관계없는 조선사를 삽입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사의 체계’를 흐리는 것으로서 조선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사, 조선사, 동양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인재들을 보유한 경성제대가 출현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었다.⁷⁾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야마다 사부로 총장은 1934년 4월 경성제대에

6) 『初等中等教科書中日鮮關係事項摘要』에서 인용했다. 이하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1장에서는 이 자료를 전거로 이용했음을 밝혀둔다.

7) 1933년 10월 무렵 山田을 비롯한 조선의 요인들이 총독부의 초청을 받고 조선총독 부시정25주년(1935)기념행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國際私法

소속된 역사전공 교수 10명을 중심으로 ‘국사상 조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 조선문학담임 교수 | 高橋 亨 | 동양사학담임 교수 | 鳥山喜一 |
| 국사학담임 교수 | 松本重彦 | 동양사학담임 교수 | 大谷勝眞 |
| 조선사학담임 교수 | 藤田亮策 | 국사학담임 교수 | 田保橋潔 |
| 동양사학 조교수 | 玉井是博 | 조선사학 강사 | 中村榮孝 |
| 조선사학 강사 | 末松保和 | 국사학 예과교수 | 喜田新六 |

아마도 사부로는 스스로 위원장을 맡아 열 몇 차례의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위원회는 당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사용하는 국사와 동양사 교과서 중에서 조선에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그 適否를 검토했다. 이때 분석한 교과서는 <표 1>에서 보듯이 초등학교용 국사 교과서 6종 12권, 중등학교용 국사 교과서 17종 22권, 중등학교용 동양사 교과서 5종 5권 등 총 28종 39권이었다.

<표 1> 참고 교과서 목록

| 과목 | 교과서명 | 권수 | 저작자 |
|------------------|------------------------|----|---------|
| 초 등 국 사 | 尋常小學國史 卷上(新版) 卷下(4판) | 2 | 文部省 編 |
| | 普通學校國史 卷一·二 | 2 | 朝鮮總督府 編 |
| | 高等小學國史 卷上·下 | 2 | 文部省 編 |
| | 小學國史教師用書 卷上·中·下 | 3 | 文部省 編 |
| | 普通學校國史教授書 卷一(昭和六·七·八年) | 1 | 蝦道隆·吉尾勳 |
| | 普通學校國史教授書 卷一·二 | 2 | 手島繁雄 |
| 중 등 국 사 | 中學新國史 甲種 제1학년용 | 1 | 三浦周行 |
| | 中學新國史 甲種 제4학년용 제5학년용 | 2 | 三浦周行 |
| | 新定日本史 甲種 제1학년용 | 1 | 三省堂 編 |

연구의 권위자인 山田 총장이 國史教育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國分麻里, 2010, 앞의 책, 175쪽

| | | | |
|--------------------------|-----------------------|-------------|-----------|
| | 新定日本史 甲種 제4학년용 제5학년용 | 2 | 三省堂 編 |
| | 四訂増補 日本歴史教科書 上級用 | 1 | 三省堂 編 |
| | 新體日本歴史 甲種 제1학년용 | 1 | 八代國治・三上參次 |
| | 新體日本歴史 甲種 제4학년용 제5학년용 | 2 | 八代國治・三上參次 |
| | 新制國史 甲種 初級用 | 1 | 渡邊世祐 |
| | 新制國史 甲種 上級用 上・下 | 2 | 渡邊世祐 |
| | 綜合日本史 제1학년용 | 1 | 中村孝也 |
| | 綜合日本史 上級用 | 1 | 中村孝也 |
| | 中學綜合日本史 初級用 | 1 | 栗田元次 |
| | 中學綜合日本史 上級用 | 1 | 栗田元次 |
| | 新制中等國史 제1학년용 | 1 | 龍肅 |
| | 新第中等國史 제4·5학년용 | 1 | 龍肅 |
| | 中學國史 제4·5학년용 | 2 | 芝葛盛 |
| | 大日本歴史提要 제1학년용 | 1 | 高橋俊乘・加藤盛一 |
| | 중 고 사 | 新編中等東洋史 甲種用 | 1 |
| 中等東洋史 甲案準據 | | 1 | 大谷勝眞 |
| 中學東洋史 新制甲要目用 | | 1 | 桑原隲藏 |
| 改訂 新體東洋史 中學校(甲表) 제2·3학년용 | | 1 | 鳥山喜一 |
| 新制版 中等東洋史 甲案準據 | | 1 | 羽田 亨 |

대략 7개월간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1934년 11월 19일 위원 후지타 료사쿠 [藤田亮策],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기타 신로쿠[喜田新六] 등은 연명으로 총 45쪽의 「국사교과서에서 조선에 관한 사항 조사개요」(이하 ‘조사개요’로 줄임)를 총장에게 보고했다. 집필자들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적당하지 않거나 따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침삭할 부분을 지적해서 집필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최종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총장의 의도에 충실히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조사개요」는 “국사에서 조선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비록 간단하다 하더

라도 태고부터 근대까지 연락을 유지하도록 기술하여 항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을 요한다”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上代の 關係

- | | | |
|-----------|-------------|-----------|
| 1. 素戔鳴尊 | 2. 任那·三韓 | 3. 神功皇后 |
| 4. 文物의 傳來 | 5. 任那日本府 滅亡 | 6. 百濟의 興亡 |

奈良·平安時代の 關係

- | | |
|---------------|----------------|
| 1. 新羅·渤海와의 關係 | 2. 高麗와의 關係(前期) |
|---------------|----------------|

鎌倉時代の 關係

- | | |
|----------------|-------|
| 1. 高麗와의 關係(後期) | 2. 元寇 |
|----------------|-------|

室町時代の 關係

- | | |
|-------------|-------------|
| 1. 室町幕府의 修交 | 2. 通交貿易과 對馬 |
|-------------|-------------|

安土·桃山時代の 關係

朝鮮役

江戸時代の 關係

- | | | |
|-------------|--------------|-----------|
| 1. 交隣關係의 復舊 | 2. 朝鮮通信使의 來聘 | 3. 外交와 貿易 |
|-------------|--------------|-----------|

明治時代の 關係

- | | | |
|---------|---------|---------|
| 1. 修好條約 | 2. 日清戰役 | 3. 韓國併合 |
|---------|---------|---------|

이어 위의 차례처럼 일본 각 시대별로 한일관계가 서술된 부분을 제시했다. 대개 上代の 관계는 기존 교과서에 열거한 ‘항목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奈良時代부터 江戸時代까지는 소략하며 그중에는 아예 빠진 것도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것을 補遺하여 전후 맥락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에 보듯이 「조사개요」는 기존 교과서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결함 21가지를 골라 사실 관계의 오류, 서술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 1) 素戔鳴尊의 新羅 天降, 2) 三韓·三國과 任那日本府의 起源, 3) 神

功皇后의 三韓征服, 4) 文物 傳來, 5) 佛敎 傳來, 6) 任那日本府, 7) 日本의 百濟救援, 8) 新羅·渤海와의 관계, 9) 平安時代 高麗와의 公의 關係, 10) 刀伊의 入寇, 11) 鎌倉時代 高麗와의 關係, 12) 元寇, 13) 室町幕府外交의 發端과 高麗·朝鮮과의 關係, 14) 室町時代의 通交貿易, 15) 朝鮮役의 發端, 16) 江戸幕府의 修交始末, 17) 通信使의 江戸參向, 18) 對馬外交, 19) 明治初期의 關係, 20) 壬午政變, 21) 朝鮮國改革 및 露韓關係

제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원 중의 다보하시 기요시, 후지타 료사쿠, 도리아마 기이치[鳥山喜一] 등은 <표 1>의 역사교과서들을 분석·검토한 뒤 별도로 山田 총장에게 ‘의견 및 희망사항’을 제출했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역사교과서 편찬 시스템의 근본적 수정방안 등이 주 내용이었다.

국사학의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현행 교과서를 분석한 뒤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明治時代의 한일관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충분한 설명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할 것, 둘째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조약, 법령 속의 용어 등을 정확하고 쉬운 교과서 용어로 바꿀 것, 셋째로 종종 통속적이고 부정확한 편찬물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서에 쓰이는 사료는 확실한 것에 근거할 것, 넷째로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普通學校國史』에는 무책임한 想像畵를 게재했는데, 교과서에 사용되는 삽화는 확실한 증거에 따를 것, 다섯째로 『普通學校國史』의 체재를 『尋常小學國史』에 준거하며 朝鮮史는 郷土史로써 별도로 가르칠 것 등이었다. 특히 마지막 제안은 국사(일본사)에 관계없는 조선사를 삽입함으로써 국사교육의 체계를 문란하게 만들고 그 효과를 滅殺시킨다는 주장으로서 山田의 건의서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조선사학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교과서 선정에 대해 다섯 가지, 교사에 대한 희망사항 세 가지를 제안했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첫째로 교과서 편찬자가 조선 역사를 검토할 뿐 아니라 최근 연구논문을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교과서는 거의 明治年代의 연구성과에 기대고 있고, 특히 동양사에

오류가 많아 조선 역사를 아는 학생들에게 국사교육의 신뢰를 잃게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조선 관련 사항을 국사의 일부로 취급하더라도 그 관계 변천을 연결되게 기술하고,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할 것을 제안했다. 한일이 말로만 脣齒관계일 뿐 교과서에서는 天智天皇 이후부터 江戸時代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明治維新에서 갑자기 관계가 고조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는 지적이었다. 셋째로 국사 교과서에서 초·중등용은 물론 동양사·서양사 교과서에서도 동일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을 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교과서 검정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이 때문에 모든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넷째로 조선에서 사용하는 국사 교과서와 교수 참고서를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해야 하며, 다섯째로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교과서를 검정할 때 국사·조선사·동양사·서양사의 각 전문가를 망라한 위원회를 조직해 신중히 심의할 것을 바랐다.

또 교사에 관련된 희망사항으로서 우선 중등학교 역사교원을 반드시 유자격자로 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로 역사교원의 소질을 높이고 확실한 역사지식을 보급시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교원·교수법·참고서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조선의 교과서뿐 아니라 조선을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교과서도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문부성에 적당한 처치를 촉구하도록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동양사학의 도리야마 기이치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역사 교과서 편찬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다보하시와 비슷하다. 역사 교과서는 정확한 사실을 상세하고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며, 사실 이해와 흥미 유발을 위해 挿書와 挿圖를 적절히 활용하며 이때도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 국사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조선총독부 관계자를 포함한 대규모 역사교과서편찬위원회의 설치를 문부성에 촉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국사와 동양사 교과서 속의 조선 관계 사항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의 시급한 이행이 곤란하다면 우선 조선총독부에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 역사교과서 편찬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각각 『보통학교국사』와 『심상소학국사』를 사용하는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교과서를 통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공통교과서는 앞서 제기한 위원회에서 기초한 새교수요목에 근거해야 하며, 기존처럼 국사 중간에 조선의 인물이나 사실이 들어가는 요목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만약 문부성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조선총독부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조선 내의 초등교육에 필요한 공통교과서뿐 아니라 중등학교용 국사와 동양사 교과서의 편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를 토대로 문부성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호소하자는 것이었다.

2. 역사교과서조사위원회 설치 건의와 ‘국사의 체계’

1934년 12월 26일 야마다 사부로 총장은 「조사개요」와 「의견 및 희망사항」을 토대로 「역사교과서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했다. 「건의서」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건의서 제출의 배경과 경성제국대학의 조사활동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행 역사 교과서는 조선사에 심한 오류가 적지 않고, 특히 『보통학교국사』에는 국사와 관계없는 조선사를 무분별하게 삽입하여 국사의 체계를 흐린다는 것으로서 다보하시 기요시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로 경성제국대학 역사 교수로 구성된 ‘국사상 조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역사 교과서의 개선점 다섯 가지다. 권오현의 간략한 정리를 인용하면, ① 조선사 교재에 사실에 반하는 기술과 해석이 많이 보이는 것, ②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의 밀접한 관계가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③ 초·중등 교과서를 비교한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한 기술에 차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④ 『普通學校國史』(卷一·二)의 경우, 일본사와 관계없는 조선사 교재가 삽입되어 일본사의 체계를 흐트리고 있는 것, ⑤ 특히 한국 병합에 관한 기술은 병합의 의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었다.⁸⁾ 이 중에서 ①~

③항은 후지타 료사쿠 의견서의 ①~③항에서 가져온 것이며, ④항은 다보하시 기요시 의견서의 ⑤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건의서」 5항은 기존 의견서에서 찾을 수 없지만 조선근세사를 담당한 다보하시 기요시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건의서」의 세 번째 내용은, ‘임시역사교과서조사위원회’의 설치 제안이었다. 교과서위원회의 설치 제안은 후지타 료사쿠와 기타 신로쿠[喜田新六] 두 사람이 했지만 「건의서」와 차이를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우선 문부성에 설치하여 일본 전역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조선총독부라도 우선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문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건의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문부성에 대한 제안을 포기하고 바로 조선총독부에 ‘임시역사교과서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內地에서는 문부성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조선에서는 일의 급박함을 느낀다. 따라서 총독부는 이번 기회에 빨리 국사, 조선사, 동양사에 정통한 각 전문학자와 교육행정, 교육실무에 경험이 있는 유력인사를 망라한 역사교과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먼저 현재 조선의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교과서와 동양사교과서를 총독부가 직접 편찬·반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다.

「건의서」에 나오는 국사와 동양사 교과서의 조선총독부 편찬은 기타 신로쿠의 의견을 수용했다. 후지타 료사쿠는 국사 교과서만 조선총독부 편찬을 주장했다. 후지타 료사쿠는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편찬이 여의치 않을 때 각 전공별로 전문가를 망라한 충실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의서」는 이 전공 학자들에게 역사 교과서 편찬의 원칙을 만들도록 하고, 여기에 교육행정과 교육실무에 경험이 많은 관료와 교사를 더했다.

기타와 후지타 료사쿠의 의견서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주장 중 「건의서」에

8) 권오현, 2003, 앞의 글, 14쪽

서 빠진 내용은, 소학교과 보통학교의 공통교과서 사용이었다.⁹⁾ 심지어 기타 신로쿠는 보통학교의 국사 교과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후지타 료사쿠의 의견 ①항을 「건의서」에 반영하면서 “교과서 편찬자는 특히 조선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근 연구논문을 주목”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했다.

요컨대 경성제국대학 역사전공 교수진의 「조사개요」와 「의견 및 희망사항」, 그리고 야마다 사부로 총장의 「건의서」의 핵심은 역사교육에서 ‘국사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였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등 교과서들은 식민지, 특히 조선사를 잘 알지도 못한 채 국사를 기술하였다. 이것은 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국의 일원인 식민지를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모르는 교수요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면에 조선총독부는 통치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사의 흐름과 관계없이 조선사를 삽입하여 국사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이미 일본은 광범한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이 되었고, 따라서 국사도 일본만 아니라 식민지를 포함한 역사서술이 되어야 한다는 게 경성제대가 생각하는 국사의 체계였다. 아니 대외적으로 “조선은 결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며 一視同仁, 内地의 一部分”이었다.¹⁰⁾ 그런데 일본 본국은 식민지에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조선총독부는 국사야 어떻게 되든지 통치의 특수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한 전문가를 망라하여 일본에 교과서 문제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상책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문부성이 주도적으로 이 일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차선책으로 조선총독부에 위원회를 설치·조사하여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영향을 미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9) 이 주장은 후일 임시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 되살아났다.

10) 일본의 만주 침략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연맹에서 파견된 린튼 조사단이 경성제대를 방문하였을 때 山田 총장이 한 말이다. 山田三良, 1957, 『回顧錄』, 山田三良先生米壽祝賀會, 224쪽

에 없었다. 제국의 팽창을 지켜보면서 날로 확장되는 식민지를 ‘국사의 체계’ 속에서 사고하는 집단은, 식민지에서 식민지 문제를 고민하는 식민지의 제국 대학 외에는 없었다. 학문에서 제국의 변방이지만, 경성제대는 ‘국사의 체계’를 바로 세움으로써 팽창하는 제국의 중심에 서고자 하였다.

III.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1_ 同床異夢: 목적과 구성

조선총독부는 아마다 사부로 총장의 건의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1935년 2월 15일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고 위원을 인선한 뒤 『조선총독부관보』에 공지했다. 조선총독부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규정 제1조의 목적은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해 조선의 제 학교 역사교과용도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이었다.

學務局長 와타나베 도요니치코[渡邊豊日子]는 교과서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해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와타나베 도요니치코 국장은 “국사와 국사에 가장 관계 깊은 동양사 교육은 국민 교육상 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조선 교육에서 특히 조선의 변천과 事歷을 명백히 할 것이 매우 肝要”함을 강조했다. 이런 까닭으로 「보통학교규정」과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요지와 요목을 삽입하였음을 밝혔다. 당연히 교과서 편찬과 검정에서도 같은 취지에 기반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곧 초·중등 교과서가 내용상 연결이 되지 않거나 기술할 내용의 선택에서 타당성을 잃거나 또는 輕重을 가리지 못한 점 등이었다. 단 이것은 총독부의 잘못이라기보다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는 학무국 편집과의 당시 인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음을 하소연

했다. 이 때문에 총독부는 보통학교용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중등 제 학교용 교과서는 검정과 인가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¹¹⁾

이어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위상을 설명했다. 역사교과서위원회는 조선총독부 산하 제 학교, 나아가 초·중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교과서 관련 위원회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종래 위원회는 총독부가 제시한 사업을 심의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반면에 이번의 역사교과서위원회에게는 구체적인 성안, 곧 실제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1932·1933년에 발간된 『보통학교국사』(상·하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중등 제 학교용 국사 및 동양사 교과서의 편찬에 관한 근본방침, 곧 교수요목을 심의하고 구체적 成案을 만들어 총독부에서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중등 역사교과서의 통일·완비를 기하겠다는 것이었다.¹²⁾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설치를 받아들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총독부는 건의서의 문제제기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려고 했다.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건의서와 총독부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역사교과서위원회는 “조선의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중등학교 국사·동양사 교과서의 조사·검토, 역사 교과서 편찬 또는 취급에 관한 기본적 방침을 결정하는 지도기관”이었다.¹³⁾

그러나 그 역할을 달리 보았다. 건의서는 ‘국사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조선사 교재의 내용 개선과 초·중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편찬을 총독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무게 중심이 내용 개선에 있었다. 이에 비해 총독부는 인력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중등 역사 교과서의 편찬을 역사교과서위원회를

11) 渡邊豊日子, 1935. 2. 15(2), “精細한 檢討를 加하여 歷史教科書 統一—調査委員會設置趣旨에 對하여”, 《每日申報》; 渡邊豊日子, 1935. 2. 16(3), “臨時歷史教科用圖書調査委員會設置に就て”, 《京城日報》

12) 渡邊豊日子, 1935. 2. 15(2), 위의 글; 渡邊豊日子, 1935. 2. 16(3), 위의 글

13)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 3, 1939. 4, 55쪽

통해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문가들이 교수요목을 작성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이라는 외부 비판을 차단하고, 나아가 역사학자들이 교과서 편찬까지 맡았으면 하는 본심까지 내비쳤다. 비판의 대상이던 『보통학교국사』는 항상 하듯이 개정하는 선에서 그칠 듯이 말했다. 역사 교과서의 근본적 개선보다 건의서를 계기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러한 구상 아래에서 조선총독부는 위원장인 정무총감 외에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역사교과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 구성을 보면 학무국 관료 3명, 조선사편수회 修史官과 위원 각 2인, 총장을 비롯한 경성제대 교수진 10명, 초·중등학교장 6명, 기타 2명이었다. 학무관료와 초·중등학교장은 「건의서」의 교육행정과 교육실무 경험자에 해당한다. 「건의서」 작성에 참여했던 총장 이하 경성제대 역사전공 교수진 10명이 모두 위원에 위촉되었다. 개정되거나 새로 편찬될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이 주어졌다. 나카무라 히데타카는 조선사편수회 수사관이면서 동시에 「건의서」 작성에 참여한 역사전공 학자의 1인이었다. 조선사편수회 관련자는 최신 연구성과의 반영 외에도 『朝鮮史』가 사료집인 만큼 교과서에 인용된 사료의 근거를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사편수회 위원인 최남선과 이능화는 안인식과 함께 조선인을 대표했다. 오다 쇼고[小田省吾]는 학무국 편집과장과 경성제대 예과부장을 역임한 역사학자로서 관료와 전문가 양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이었다.¹⁴⁾

〈표 2〉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 설치 당시의 위원과 학력

| 이름 | 소속과 직책 | 출신교(졸업년도) | 전공 | 비고 |
|-------|----------|------------|-----|----|
| 今井田清徳 | 정무총감 | 동경제대(1909) | 政治科 | |
| 渡邊豊日子 | 학무국장 | 동경제대(1912) | 獨法科 | |
| 大野謙一 | 학무국 학무과장 | | | |

14) 小田省吾가 위원장을 맡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국사부와 동양사부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歷史教科書－中等校分編纂舉了”, 《每日申報》, 1936. 4. 17(3)

| | | | | |
|------|-------------|---------------------|-------------|----|
| 稻垣茂一 | 학무국 편집과장 | 東京高師(1908) | 國語漢文部 | |
| 稻葉岩吉 | 조선사편수회 修史官 | 京都帝大(1932) | 사학과 | 박사 |
| 中村榮孝 | 조선사편수회 修史官 | 東京帝大(1926) | 國史學科 | |
| 山田三良 | 경성제대 총장 | 동경제대(1896) | 英法科 | |
| 高橋亨 | 경성제대 교수 | 동경제대(1902) | 支那哲學科 | |
| 島山喜一 | 경성제대 교수 | 동경제대(1911) | 사학과(東洋史學專修) | |
| 大谷勝眞 | 경성제대 교수 | 동경제대(1908) | 支那史學 | |
| 松本重彦 | 경성제대 교수 | 동경제대(1912) | 사학과(國史學專修) | |
| 藤田亮策 | 경성제대 교수 | 동경제대(1918) | 사학과(國史學專修) | |
| 田保橋潔 | 경성제대 교수 | 동경제대(1921) | 국사학과 | |
| 玉井是博 | 경성제대 조교수 | 동경제대(1922) | 동양사학과 | |
| 末松保和 | 경성제대 강사 | 동경제대(1927) | 국사학과 | |
| 喜田新六 | 경성제대 예과강사 | 동경제대(1929) | 국사학과 | |
| 渡邊信治 | 경성사범학교 교장 | 東京高師(1905) | 官費地理歷史專修科 | |
| 鳥飼生駒 | 대구사범학교 교장 | 廣島高師(1906) | 지리역사부 | |
| 高木善人 | 용산중학교 교장 | 동경제대(1908) | 사학과(西洋史學專修) | |
| 高本千鷹 | 경성여자고보학교 교장 | 廣島高師(1907) | 國語漢文部 | |
| 藤好虎秀 | 용산소학교 교장 | 福岡師範學校 (1902) | | |
| 三好義雄 | 효창보통학교 교장 | 東京靑山師範學校 (1910) | | |
| 李能和 | 조선사편수회 위원 | 漢城漢語・法語 學校(1896) | | |
| 崔南善 | 조선사편수회 위원 | 早稻田大學 (1907) | 歷史地理科 | 중퇴 |
| 安寅植 | 경학원 司成 | 東京大東文化學 院(1928) | | |
| 小田省吾 | 전 경성제대 예과부장 | 동경제대(1899) | 사학과 | |

출전: 『朝鮮總督府官報』, 1935, 2, 15; 廣島文理科大學, 1935, 『廣島文理科大學・廣島高等師範學校・元第二臨時教員養成所一覽(昭和十年)』; 東京文理科大學, 1937, 『東京文理科大學・東京高等師範學校一覽(昭和十二年)』; 東京帝國大學, 1939, 『東京帝國大學卒業生氏名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표 3〉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출신학교별 · 전공별 분류

| 전공 | 학교 | 東京帝國大學 | 高等師範學校 | | 師範學校 | | 其他 |
|-----|-------------|--|----------------|----------------|----------------|----------------|--------------------|
| | | | 東京 | 廣島 | 東京青山 | 福岡 | |
| 역사 | 일본사 (국사) | 小田省吾(1899) 松本重彦(1912) 藤田亮策(1918) 田保橋潔(1921) 中村榮孝(1926) 末松保和(1927) 喜田新六(1929) | 渡邊信治 (1905) | 鳥飼生駒 (1906) | 三好義雄 (1910) | 藤好虎秀 (1902) | 李能和 崔南善 稻葉岩吉 |
| | 동양사 | 大谷勝眞(1908) 島山喜一(1911) 玉井是博(1922) | | | | | |
| | 서양사 | 高木善人(1908) | | | | | |
| 비역사 | | 山田三良(1896) 高橋亨(1902) 今井田清徳(1909) 渡邊豊日子(1912) | 稻垣茂一 (1908) | 高本千鷹 (1907) | | 大野謙一 安寅植 | |

출전: 〈표 2〉와 같음.

이처럼 위원장을 포함한 26인의 위원은 역사전문가, 교육행정과 교육실무를 겸비한 교육자였다. 또한 출신학교와 전공으로 나눈 〈표 3〉에서 보듯이 위원들은 관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에서 역사 또는 역사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다.

2_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활동

교과서위원회는 1935년 2월 25일 제1회 조사위원회를 열어 근본방침을 결정하고 각부 세목의 연구입안은 國史部와 東洋史部로 나뉜 특별위원에게 위탁했다.¹⁵⁾

15) “男女高等普通學校의 歷史教科書改正”, 《每日申報》, 1935. 5. 11석(2)

〈표 4〉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 회의 개최 상황

| 날짜 | 회의 명칭 | 장소 | 안건 |
|------------------------------|--------------------|-------------|-----------------------------|
| 1935. 2. 25 | 제1회 조사위원회 | | |
| 1935. 3. 14 | 제1회 특별위원회 (국사부) | 경성제국대학 본부 | 중학교역사교과서교수요목 |
| 1935. 5. 10 | 제2회 조사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 | 각부 특별위원 主査의 원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
| 1935. 6. 12 | 제3회 조사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 | |
| 1935. 6. 17 | 협의(비공식) | 경성제국대학 총장실 | |
| 1935. 7. 2 | 제4회 조사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 | |
| 1935. 7. 4 | 제5회 조사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 | |
| 1935. 9. 27 | 협의(비공식) | 경성제국대학 총장실 | 역사교과용도서조사요지 (국사, 상급용) 검토 |
| 1935. 10. 29 1935. 10. 30 | 제6회 조사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 | |
| 1936. 4. 7 | 초등학교특별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3회의실 | |
| 1936. 12. 10 | 제7회 조사위원회 | 조선총독부 제2회의실 | |

다보하시 기요시는 1935년 3월 11일자로 국사부 특별위원회에 위촉되었는데¹⁶⁾ 다른 위원들도 대개 전공을 고려해 배정하였을 것이다. 교과서위원회의 활동자료가 많지 않지만 〈표 4〉는 다보하시 기요시가 소장했던 『중등역사교과서조사요지(원안)』에 근거해 정리한 회의 상황이다. 공식적인 조사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외에도 아마도 사부로 총장이 주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비공식 협의가 두 차례 경성제대 총장실에서 열린 점이 눈에 띈다.

3월 14일에 열린 국사부 제1회 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중등학교역사교과서조사요목」과 중학교용 교과서를 검토하기로 한 듯 실무진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했다.¹⁷⁾ 제2회 조사위원회 소집을 알리는 공문을 보면, 이 회의의 안건으

16) 「中等歷史教科書調査要旨(原案)」(면수 없음)

17) 「교수요목」은 3월 25일, 우선 확보된 교과서 4종은 4월 25일에 전달되었다.

로 각부 특별위원 主査의 원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다. 대상 시기는 동서양사의 上古에서 中古까지였다.¹⁸⁾ 한 달 뒤인 6월 12일에 열린 제3부 조사위원회에서는 국사와 동양사부의 中古 이후 자료를 토의했다.¹⁹⁾ 제4회와 제5회 조사위원회는 7월 2일과 4일에 열렸다. 이때 복수의 언론에서 국사와 동양사 교과서에 이전보다 훨씬 많이 조선사 교재를 취급할 것이라 보도했다. 그 구체적 방침은 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중등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제5회로 마친다는 내용이었다.²⁰⁾

예상과 달리 중등 역사 교과서 논의는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열린 제 6회 조사위원회에서 마무리되었다. 총독부가 보도자료를 돌린 듯 《매일신보》와 《조선중앙일보》의 기사는 문구까지 거의 비슷하다. 이 신문들에 따르면, 교과서위원회는 현재 쓰이는 각 교과서를 대조·연구하고, 또 “당국의 의향을 참작하여 근본적 표준”을 만들었다. 단 이 시점에서 이 표준, 곧 교수요목에 따라 민간업자가 출판하는 검정제를 할지 아니면 총독부가 편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국정제로 가게 될 것이라 보도했다.²¹⁾ 한편 《京城日報》와 《朝鮮新聞》은 “당국의 의향을 참작”하는 것을 조선의 “특수(특이)사정”을 반영하여 편찬하는 것으로 보도했다.²²⁾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선간의 역사적 관계를 특히 필요로 하는” 조선의 역사 교과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두 일본어 신문이 학무국의 내부 사정에 더 정통하였다.

‘당국의 의향 참작’, 곧 ‘특수사정’의 강조는 조선총독부 관료와 경성제대 학자들 간의 힘겨루기에서 전자의 입장이 관철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사부

18) “男女高等普通學校의 歷史教科書改正”, 《每日申報》, 1935. 5. 11석(2)

19) “中古以後의 資料를 討議 歷史用圖書調査委員會”, 《每日申報》, 1935. 6. 13석(1)

20) “朝鮮史教材 豊富히 取扱어야 從來 不評緩和”, 《每日申報》, 1935. 7. 5(5); “中等 歷史教科書에 朝鮮史 多量 編入”, 《朝鮮中央日報》, 1935. 7. 5(2)

21) “各中等學校의 教科書를 一新- 통일할 방법은 추후로 연구”, 《每日申報》, 1935. 11. 1(5); “中等歷史教科書調査委員會 開催”, 《朝鮮中央日報》, 1935. 11. 1(2)

22) “中等歷史教科書を今後本府で作る- 特異の事情を考へて”, 《京城日報》, 1935. 11. 1(7); “中等學校の歴史教科書 特殊事情を織込んで總督府で編輯”, 《朝鮮新聞》, 1935. 11. 17

로의 건의서는 중등학교의 국사·동양사 교과서의 문제점도 다루었지만 실질에서는 1932·1933년에 조선총독부가 의욕적으로 편찬한 『보통학교국사』(卷一·二)를 겨누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실무 전문가인 사범학교장과 중등학교장은 역사학보다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총독부의 견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에서 역사 교육의 추이를 보면, 1910년대는 4년제라는 이유로 보통학교에 역사과목을 통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 1920년대 보통학교가 6년제로 바뀌면서 문부성 편찬의 『심상소학국사』에 朝鮮事歷을 적당한 곳에 기계적으로 배치한 『보통학교국사』(上·下卷)가 편찬되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조선사를 일관되게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1932년에 역사 교과서의 ‘근본적 개정’을 단행했다. 이때의 개정방향은 “조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인 점을 극도로 고려”하여 저본이 된 『심상소학국사』의 내용도 상당히 고치고, 조선사를 서술한 과를 늘렸다. 조선의 사정을 고려한다는 이 원칙은 역사뿐 아니라 이과 교과서, 국어독본 등에도 적용되었다. 총독부 스스로 『보통학교국사』(卷一·二)의 편찬을 “조선 역사 교육상 한 시기를 그었”을 뿐 아니라 그 편찬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식자 간에 ‘비평’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이 ‘비평’은 와타나베 국장이 교과서위원회의 출범 때 언급했던 ‘오해’와 같은 의미로서,²⁴⁾ 야마다 총장의 「건의서」도 이러한 ‘비평’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총독부의 입장이었다.²⁵⁾

23)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 3, 1939. 4, 49~51·55쪽

24) “國史에 있어서 朝鮮事歷의 取扱에 關한 本府의 方針에 關하여 從來 誤解도 잇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茲에 特히 關係의 條項을 摘示하여 大綱의 參考에 資하는 바 이다.” 渡邊豊日子, 1935. 2, 15(2), 앞의 글

25) 國分麻里는 이 ‘오해’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역사교수에 관해 1922년에 만들어진 보통학교규정을 당시의 시대배경을 무시하고 여전히 해당 조문만을 반복해서 근거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조선사력 취급방침을 조선총독부가 오해하고 있었음을 自認하고, 그 후 정책에 크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國分麻里, 2010, 앞의 책, 182~183쪽). 渡邊 국장의 담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오해의 주체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편찬자의

총독부는 교과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학교용 역사 교과서의 편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1936년 1월 역사 교과서 편수비용으로 6천 원을 계상했지만²⁶⁾ 4월에 열린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²⁷⁾ 총독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1937년에 편찬한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혔지만²⁸⁾ 끝내 중등학교용 역사 교과서의 편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35년 10월의 제6회 조사위원회에서는 초등 역사 교과서의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특별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했다. 다보하시 기요시의 경우를 볼 때 총독부는 1936년 3월 27일에 ‘초등학교특별위원’을 위촉하고, 4월 7일에 제1회 초등학교특별위원회를 소집했다. 초등학교특별위원회는 1934·1935년에 개정된 『尋常小學國史』와 『普通學校國史』에서 조선관계 사항을 조사하고 교재를 검토했다. 이때 교재 배당의 기준은 『심상소학교사』였다.²⁹⁾ 이즈음 총독부는 매년 하던 수시개정이 아닌 『보통학교국사』의 전면개정을 방침으로 정했는데, 1935년 ‘천황기관설’ 사건 이후 일본에서 전개되던 國體明徴과 教育刷新의 영향이 컸다.³⁰⁾ 1936년 12월 10일에 제7회 조사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볼 때 「건의서」에 기반한 역사 교과서의 조사활동은 이때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³¹⁾ 이미 1936년에 초등과 중등용 역사 교과서의 새 요목이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비판하는 재조일본인 교육자들이었다. 본문에 언급한 대로 조선총독부는 1932·1933년판 『보통학교국사』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 26) “赤化思想 防止로 各校內에 思想指導係”, 《每日申報》, 1936. 1. 26(5); “女高普高普の歴史教科書 本府で編纂する”, 《大阪朝日新聞(南鮮版)》, 1936. 3. 1(5)
- 27) “新編歴史教科書는 豫算削減으로 流産”, 《東亞日報》, 1936. 3. 14(2)
- 28) “國體明徴에 立脚하여 中等教科書 改訂”, 《每日申報》, 1936. 6. 4(7)
- 29)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 3, 1939. 4, 57쪽
- 30) “普通學校使用教科書 全面的 改訂을 斷行”, 《每日申報》, 1936. 7. 2(7); “普通學校各教科書 全面的 改訂斷行 歷史科는 이미 完成”, 《朝鮮中央日報》, 1936. 7. 3(2)
- 31) ‘임시’였음에도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는 해방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朝鮮總督府官報』에서 학부관료와 학교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의 변천을 계속 확인할 수 있다. 또 1939년과 1944년에 각각 1935·1936년과 다른 위원들이 다른 안건을 가지고 회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 “歷史教科書編纂調査委員會”, 《朝鮮日報》, 1939. 11. 7(2); “戰時國史教育具現－歷史教科用圖書調査委員會總會開催”, 《每日新報》, 1944. 6. 10(1)

준비되었고, 1937년에는 초등교과서 개정판의 사용과 중등교과서 편찬계획이 잡혀 있었다. 따라서 1936년 말은 조사·연구·검토를 넘어선 집행단계였다.

IV. 국사의 체계와 조선특수사정론의 충돌

1. 역사 교과서 편찬 시스템 개선안

교과서위원회는 약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역사교육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의 제도개선을 결의했다. 첫 번째는 교과서의 통일이었다. 일본어의 상용 여부로 구분했지만 조선 교육은 사실상 일본인과 조선인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곧 대개 조선인은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녔고, 일본인은 소학교와 중학교·여자중학교를 다녔다. 각 학교마다 규칙이 달랐고, 역사교육의 목표와 사용하는 교과서도 같지 않았다. 초등의 경우 소학교는 문부성 편찬 교과서를 사용했지만 보통학교는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로 수업했다.

당시까지 이원적 교육은 조선의 특수사정을 이유로 당연시되었지만 비판론자들에게는 마치 교육의 근본정신이 이원적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조선인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특수한 정책 의도 아래 곡필 또는 은폐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건의서」에 교과서의 일원화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도리아마 기이치가 의견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이었다. 교과서위원회에서도 교과서 통일은 당시 모든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문부성 교과서, 곧 『심상소학교사』를 대대로 하여 朝鮮事歷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사의 본체와 밀접한 사항을 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여 소학교와 보통학교에서 함께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중등학교에서도 일본과 조선이 함께 사용하는 국사와

동양사 교과서의 편찬 필요성을 제기했다.³²⁾

그런데 역사 교과서의 이원화는 학제의 이원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학제의 일원화를 전제로 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소학교와 보통학교, 중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학제와 교과서도 통일되었다. 역사 교과서의 일원화론이 식민지 조선 학제의 일원화를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³³⁾

단 같은 일원화론이라도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주장과 제3차 조선교육령의 정신은 같지 않았다. 최초의 제안자인 도리야마 기이치나 교과서위원회 모두 『심상소학교사』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할 것을 주장했다. 조선 내의 내선일원화를 먼저 이룬 뒤 이를 ‘내지 일본’으로 확장하여 식민모국과 식민지의 교과서를 하나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반면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된 1938년 3월의 소학교규정 제64조는 소학교의 교과용도서로서 문부성에서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정했다. 조선총독부에서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할 필요 없이 문부성이 편찬한 교과서를 조선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였다. 문부성 편찬 교과서를 통한 일본과 조선의 교과서 일원화였다. 식민지 통치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일본사의 체계를 그대로 조선에 적용하는, 이른바 ‘교과서의 내지연장주의’였다.

그런데 조선교육령의 취지는 1938년부터 國體明徴, 忍苦鍛鍊, 教學刷新을 주장한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학무국장의 입장이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당대의 학무관료들은 시오바라 도키사부로의 안에 전적으로 찬동하지는 않았다. 시오바라 도키사부로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을 등에 업고 조선교육령을 밀어붙였지만 오랫동안 조선에서 근무한 학무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학무과장 야기 노부오[八木信雄]는 상사인 시오바라 도키사부로를 “통치이념에서 한국인이 처한 입장이나 심정에 대해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³⁴⁾

32)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 3, 1939. 4, 57~59쪽

33) 권오현, 2003, 앞의 글, 25~26쪽

34) 八木信雄, 1980, 『日本과 韓國』(한글 번역판), 日韓文化協會, 246쪽

사람으로 회고할 정도였다. 곧 시오바라 도키사부로는 다른 총독부 관료와 달리 “조선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문적 입장에서 『보통학교교사』의 빠른 폐기를 주장했던 도리야마 기이치가 식민지를 포함한 국사의 체계를 조선에서 정립하여 일본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시오바라 도키사부로는 그간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일본사의 체계를 조선에 적용하자는 내지연장주의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명령에 따라 수밖에 없는 관료의 성격상 제3차 조선교육령과 그 부속법령은 시행되었지만 교과서 편찬에서 ‘조선특수사정론’은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 교과서위원회는 조선총독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야 하는 이유로서 “내지에서 편찬하는 것은 내지 중심에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조선과 내지관계에 대한 교재취급이 소홀”하기 때문에 총독부가 조선의 특색을 가미해 편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³⁵⁾ 제3차 조선교육령 공포 이후 문부성 교과서를 조선에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시오바라 학무국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³⁶⁾ 반면에 학무국의 편수관은 특수사정 때문에 조선 교과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³⁷⁾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표현을 빌리면 당국의 “舊態墨守”로 인해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內鮮一本論은 채택되지 않”았다.³⁸⁾ 결국 조선교육령 개정 후인 1939년부터 조선 내의 교과서 일원화는 이루어졌지만, 조선총독부는 문부성 교과서와 별도로 역사 교과서를 편찬·사용했다.³⁹⁾ 조선교육령의 취지와 다르게 ‘교과서의 내지연장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두 번째 안은 4년제 보통학교(簡易學校)에 국사과를 설치

35) “中等學校使用 歷史教科書 朝鮮것은 따로 編纂”, 《매일신보》, 1936. 5. 1(3)

36) “教育施設의 新展開”, 《동아일보》, 1938. 11. 23(2); “小學校教科書는 統一도 無妨”, 《조선일보》, 1938. 11. 24(2)

37) “특수사정이 있음으로 조선 것을 사용하겠다-井上 編修官談”, 《동아일보》, 1938. 11. 19(2)

38) 中村榮孝, 1938. 10. 「時局下に於ける朝鮮の歴史教育」, 『研究評論 歴史教育』 제13권 제7호, 20쪽

39) 장신, 200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 51쪽

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경성사범학교 와타나베 신지[渡邊信治] 교장 등이 강력히 주장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⁴⁰⁾ 4년제 보통학교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일제가 교육침략을 시작했던 대한제국 학부 때부터의 '전통'이었다. 당시의 교과서 편찬 책임자 산시 주조[三士忠造]는 “보통학교의 교과목을 과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강점 후에도 일본에서는 5·6학년 때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4년제인 조선에서 배울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전통'은 4년제 간이학교에서도 계속 이어지다가 1931년 10월에 열린 전선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처음으로 4년제 보통학교에서 매주 1시간씩 국사교육을 실시하자는 건의안이 제출되었다.⁴¹⁾ 이때 대회를 주관한 조선초등교육연구회의 회장이 와타나베였다.⁴²⁾ 총독부가 이 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제3차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기회로 1938년 4월 학기부터 4학년들이 배우는 『國史地理』 교과서의 편찬으로 실현되었다.

2_ 역사교과서 내용 개선안과 『初等國史』(1937)

역사교과서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편찬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내용적 측면으로 ① 國體明徴의 철저, ② 새로운 학술적 연구성과를 반영한 교재의 쇄신, ③ 조선사 교재의 수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朝鮮事歷은 최근 조선사 연구의 발전으로 밝혀진 것을 채용하여 오류를 一掃하고, 古今의 일관된 변천의 자취를 가르침으로써 국사·동양사에서 교재의 연락과 취급태도의 일치를 期하고, 日鮮關係의 연혁에 이르면 전후맥락을 흐르게 하여 밀접불가분한 관계를 밝히고, 한국병합의 유래에서는 투철한 설명을 요구”했다.⁴³⁾

이것은 중등교과서를 검토한 결과였지만 초등에도 해당되었다. 초등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의견은, 문부성 교과서를 기초로 하여 朝鮮事歷의 오류를 바로

40)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 3, 1939. 4, 59쪽

41) 권오현, 2003, 앞의 글, 5~9쪽

42) 會長 渡邊信治, 1931. 12, 「開會の辭」, 『朝鮮の教育研究』 제4권 제12호, 10쪽

43) 「朝鮮の國史教育と教科用圖書の變遷」, 『教科書編輯彙報』 3, 1939. 4, 56쪽

잡고, 국사의 본체와 밀접한 사항을 선택하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새로운 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⁴⁴⁾ 총독부는 이 결의를 토대로 신속히 초등 교과서를 개정하여 1937년 3월에 『普通學校國史 卷一』의 개정판(1938년에 『初等國史 卷一』로 改題)을, 1938년 2월에 『初等國史 卷二』를 편찬했다.⁴⁵⁾

『초등국사』는 기존의 『보통학교국사』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권오현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사 교재로 課를 삼았던 것을 모두 없애고, 일본사 교재 속에 녹여버렸다. 『초등국사』는 국체명칭의 철저, 내선일체 강조, 국민의 해외발전 태도의 함양, 국민의 전쟁동원 등의 목적에서 이와 연관되는 교재가 상세히 서술되고, 새롭게 선택되었다.⁴⁶⁾

이처럼 『초등국사』는 국체명칭이라는 큰 틀에서 기존의 『보통학교국사』에 쏟아진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다. 하지만 「건의서」에서 요구한 국사의 체계를 바로잡는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다. 조선사를 독립시킨 목적을 없애고 「이퇴계와 이율곡」, 「영조와 정조」 등 일본사와 전혀 관계없는 朝鮮事歷은 양을 줄였을 뿐 본문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곧 조선 통치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기존 서술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다. 「건의서」에서 치명적 결함으로 제기했던 21가지 문제점 중 한일관계가 밀접했던 고대사에서 두 가지 예를 검토해보겠다.

44) 위의 글, 58~59쪽

45) 장신, 2004,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18쪽. 단 이때의 개정은 역사교과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제3차 조선교육령의 정신에 의거해 편찬된 교과서는 『초등국사 오학년』(1940)과 『초등국사 육학년』(1941)이었다.

46) 또 조선사 교재와 관련해서는 ① 한일 간의 지속적 관계와 내선일체의 역사적 유래를 강조하기 위해 한일 간의 빈번한 교류에 관한 교재가 증가하고, ② 조선 중기의 경우 영·정조의 善政, 유학의 발전과 서양문화의 전래, 이퇴계와 이율곡의 생애와 활약 등의 교재를 삭제함과 동시에 주로 당쟁의 격화와 청에의 종속 등을 강조했다. 이것은 조선인의 당파성과 비주체성이 한국 병합의 주요한 원인을 증명하고, 그것이 조선 중기부터 심화되었음을 보이려고 했다. ③ 대외관계사의 경우 조선사의 대외종속성을 강화하고, ④ 조선사 교재의 선택은 조선사의 대요를 인식시키는 것보다 일본사와의 관련에 중점이 두어졌다. 權五鉉, 1998, 『朝鮮總督府における歴史教育内容史研究』, 廣島大學 博士學位論文, 348~367쪽

역사 교과서에서 한일관계의 시작은 ‘素戔鳴尊의 新羅 天降’이다.⁴⁷⁾ 이와 관련해 1922년판 『보통학교국사』는 “素戔鳴尊은 신들에게 추방되어 出雲으로 내리셨다”고 기술했다. 이어 素戔鳴尊은 簸川の 상류에서 八岐大蛇를 베어 天叢雲劍을 얻은 뒤 天照大神에게 헌상했다.⁴⁸⁾ 이 서술은 1920년판 『심상소학국사』의 서술과 글자 한 자 다르지 않다.⁴⁹⁾ 1932년판 『보통학교국사』에서는 1922년판의 서술을 그대로 반복하고 天叢雲劍을 헌상한 다음 문장에 “尊은 또한 조선에도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⁵⁰⁾를 첨가하였다. 이 문장의 삽입은 天神代부터 이미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교통이 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⁵¹⁾ 문부성 저작의 1927년판 『심상소학국사』에는 없는,⁵²⁾ 조선인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내용을 놓고 경성제대 역사전공 교수들이 분석한 「조사개요」는 “의식적으로 太古에 반도와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중등교과서에 실린 “素戔鳴尊이 出雲지방을 경영하고 朝鮮을 지배했다”거나 “素戔鳴尊은 반도의 동남부를 다스렸다고 전해진다”는 서술에 대해서는 妄說이 심하다고 평했다.⁵³⁾ 「조사개요」의 원자료인 「上代の關係」에서는 이 신화를 “신라에 대한 上代 大和民族의 깊은 신념을 나타낸 것”으로서 “의식적으로 上代 半島와의 관계를 과장”한 것으로 평했다.⁵⁴⁾

또 일부 중등교과서의 과장된 서술은 국정교과서, 곧 『보통학교국사』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신화를 역사사실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교사가 아동에게 완전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고의로 上代와

47) 장신, 2009,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戔鳴尊 신화」, 『역사문제연구』 21

48) 朝鮮總督府, 1922, 『普通學校國史 上卷 兒童用』, 3쪽

49) 文部省, 1920, 『尋常小學國史 上卷』, 3쪽

50) 朝鮮總督府, 1932, 『普通學校國史 卷一』, 4쪽

51) 蝦道隆, 1932, 「改訂國史上卷の教材解説と指導上の留意點」, 『朝鮮の教育研究』 제5권 제4호, 69·71쪽

52) 文部省, 1927, 『尋常小學國史 上卷』, 3쪽

53) 「조사개요」, 4~5쪽

54) 「上代の關係」, 1~5쪽

반도와의 관계를 결부시킨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본서기의 기사를 曲解附會하고, 두셋의 신화를 하나로 결합하여 사실을 作爲하여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교육관계자의 上代史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했다.⁵⁵⁾

그런데 개정판(1937년) 『普通學校國史 卷一』에는 여전히 “素戔鳴尊은 신들에게 추방되어 조선 지방에 내려오셨으나 얼마 후에 出雲(島根縣)으로 가셨다”⁵⁶⁾고 하였다. 또 『國史地理 上卷』에서도 “素戔鳴尊은 (중략-인용자) 신들에게 추방되어 조선 지방에 내려오셨다가 얼마 후에 지금의 島根縣으로 가셨다”고 썼다.⁵⁷⁾ 이러한 서술은 문부성의 1935년판 『심상소학국사』의 “素戔鳴尊은 신들에게 추방되어 出雲에 내려오셨다”⁵⁸⁾에서 出雲 앞에 ‘조선’을 삽입한 것으로서 조선총독부가 素戔鳴尊의 행적을 여전히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교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여기에서 학자가 史實을 추구하는 것과 역사교육은 다른 차원임을 보여준다.⁵⁹⁾ 동시에 총독부는 통치 목적에 따라 교과서위원회의 결정을 제한적으로 수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三韓·三國과 任那日本府의 起源’ 서술이다. 「조사개요」는 “국사에서 삼한을 설명하고, 임나일본부의 始末을 논하는 것은, 결코 조선반도의 역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다. 또 외교관계로서 논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上代史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임나일본부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근거로 제시한 『新撰姓氏錄』의 기사는 믿기 어려운 것이며, 삼국의 기원을 설명한 부분은 대부분 실패로서 중

55) 「國史教科書に於ける朝鮮に關する事項調査概要」, 『初等中等教科書中日鮮關係事項摘要』

56) 朝鮮總督府, 1937, 『初等國史 卷一』, 3쪽. 호사키는 이 부분을 1932년판으로 오해했다. 保坂祐二, 2002,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 分析』, 제이앤씨, 141~142쪽.

57) 朝鮮總督府, 1939, 『國史地理 上卷』(개정판, 초판은 1937년 출간), 13쪽

58) 文部省, 1935, 『尋常小學國史 上卷』, 3쪽

59) 梁正鉉, 1997, 「日帝 強占期 歷史教育 理念과 政策-1920~30년대 중반 普通學校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7, 국사편찬위원회, 235쪽

래의 속설을 소개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하였다. 또 이러한 오류의 원인으로 교과서 집필자들이 조선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삼국의 기원은 국사의 체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국사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동양사 교과서들의 예이지만, 임나를 한 나라의 이름으로 신라·백제와 서로 대립하는 국가처럼 취급하는 교과서가 많은 것도 역시 불가라고 주장하였다.

〈표 5〉 『普通學校國史 卷一』과 『初等國史 卷一』의 '삼국 기원' 서술

| 보통학교국사 권일(1932) ⁶⁰⁾ | 초등국사 권일(1937) ⁶¹⁾ |
|---|---|
| <p>第五 옛날의 조선 옛날 箕子라는 사람이 支那에서 와서, 반도의 북부에 나라를 세우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한다. 후에 그 지방은 지나의 공격을 받아, 반도의 대부분은 그 領地로 되었다. 그 무렵 반도의 남부는 馬韓·辰韓·下韓의 세 지방으로 나뉘고, 그들의 지방은 다시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일찍부터 內地와 왕래하였다. 崇神天皇의 代에, 진한 지방에서 朴赫居世라는 사람이 나서, 新羅國을 세우고, 그 왕이 되어, 내지에서 건너온 瓠公을 등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 같은 代에 滿洲 지방에 朱蒙이라는 사람이 나서, 高句麗國을 세우고, 그 왕이 되었다. 고구려는 또한 高麗라고도 한다. 垂仁天皇의 代에 주몽의 아들 溫祚는 남쪽으로 내려가 마한 지방에 百濟國을 세우고, 그 왕이 되었다. 新羅·高句麗·百濟를 三國이라 한다.</p> | <p>第四 神功皇后 …… 처음에 조선 지방은 북에는 箕子가 세운 朝鮮國이 있고, 남에는 馬韓·辰韓·下韓의 三韓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후에 滿洲 지방에, 朱蒙이 세운 高麗(高句麗라고도 한다)國이 조선의 북쪽 지방을 공격하여 세력이 강해졌다. 이어 남쪽에서는 溫祚가 시작한 百濟國과 朴赫居世가 세운 新羅國이 차례로 강해졌다. 고려·백제·신라를 합하여 三國이라 부르고 또한 三韓이라고도 한다. 또한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任那國이 있었다.</p> |

60) 朝鮮總督府, 1932, 『普通學校國史 卷一』, 19~21쪽

61) 朝鮮總督府, 1937, 『初等國史 卷一』, 21쪽

〈표 5〉에서 두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하면, 이미 밝혀진 대로 조선사의 독립 단원(과)이 사라지고 일본사 속에 편입되었고, 양도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에 일본 上代史를 이해하는 관계사가 아니라 국사의 체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인 삼국의 기원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게다가 임나도 어엿한 국가로 서술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이은 조사요지를 참작하고, 문부성 편찬의 『小學國史編纂趣意書』와 문부성의 중등학교 교수요목의 취지 등을 참고하여⁶²⁾ 『初等國史』 제5학년용과 제6학년용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발간된 『初等國史 第六學年用』에서 조선사는 일본 천황가의 해의 ‘진출’에서 시작하는 ‘海外的 政事’라는 소제목 아래 “옛날 조선에서는 남부에는 韓人이, 북부에는 만주인이 살고, 서쪽에는 지나인, 남쪽에서는 우리나라(일본-인용자) 사람이 섞여 살았다”고 서술하였다.⁶³⁾ 여기에서 ‘해외’는 ‘임나’이며, 다음 장에 가서야 대륙(支那) 문화의 전파를 설명할 때 부수적으로 삼국의 건국과 기원을 설명하였다.⁶⁴⁾ 그것도 독자적 국가발전이 아닌 문화 수용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졌다.

V. 맺음말

1934년 초 경성제대 총장 야마다 사부로는 역사학 전공 교수진 10명으로 ‘國史上 朝鮮에 關한 事項을 調査하는 委員會’를 조직했다. 위원에 위촉된 교수들은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는 초·중등 역사 교과서 28종 39권을 조사·분석했

62) 朝鮮總督府, 1940, 『初等國史編纂趣意書 第五學年用』, 3쪽

63) 朝鮮總督府, 1941, 『初等國史 第六學年用』, 12쪽

64) 朝鮮總督府, 1941, 『初等國史 第六學年用』, 18~28쪽

다. 약 7개월간 진행된 조사활동의 결과로 1934년 11월 19일 「國史教科書에서 朝鮮에 關한 事項 調査概要」라는 보고서와 「의견 및 희망사항」이 총장에게 제출되었다.

1934년 12월 26일 야마다 사부로 총장은 「조사개요」와 「의견서」를 종합하여 총독에게 「역사교과서 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 비판의 초점은 조선통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편찬된 『보통학교국사』였다. 경성제대 교수들은 역사 교과서의 조선사에 심한 오류가 적지 않고, 특히 『보통학교국사』에는 朝鮮事歷을 무분별하게 집어넣어 國史의 체계를 흐린다는 것이었다. 또 史實과 고증의 오류 등 비전문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 교육실무,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역사교과서조사위원회'의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경성제대는 비록 제국의 변방이었지만, 식민지를 포함하는 국사의 체계를 고민함으로써 날로 확장되는 제국의 중심에 서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건의서」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2개월 만에 역사교과서위원회를 설치했다.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조선의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중등학교 국사·동양사 교과서의 조사·검토, 역사 교과서 편찬 또는 취급에 관한 기본적 방침을 결정하는 지도기관”이었다. 총독부가 「건의서」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총독부는 역사 교과서의 근본적 개선보다 학무국 편집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숙원사업으로 남았던 중등교과서의 편찬을 일차 과제로 삼았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역사교과서위원회의 권위를 빌려 전문성 부족이라는 외부 비판을 차단하고자 했다.

총독부는 역사교과서위원회를 설치한 뒤 먼저 중등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여 새 교수요목의 완성에 나섰다. 「건의서」가 역사 교과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국정교과서, 곧 『보통학교국사』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의 조속한 폐기를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행보였다. 오히려 총독부는 매년 해오던 교과서 개정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보통학교국사』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

역사교과서위원회의 조사활동은 1935년에는 중등용 역사 교과서의 분석과 편찬사업에, 1936년에는 초등용 역사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약 2년 동안 진행되었다. 교과서위원회는 총독부 역사교육의 근본적 변혁을 가져올 제도와 내용의 개선안을 결의했다. 제도개선의 첫 번째는 조선 내 교과서의 일원화였고, 두 번째는 4년제 보통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 전자는 1938년 조선교육령과 그 부속법령의 개정으로 1938년부터 실현되었다. 후자도 1938년 4월 학기부터 『국사지리』라는 교과서의 편찬으로 실현되었다.

내용 개선의 방향은 ① 國體明徵의 철저, ② 새로운 학술적 연구성과를 반영한 교재의 쇄신, ③ 조선사 교재의 수정 등이었다. 1936년부터 추진된 중등 역사 교과서의 편찬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절되었지만, 초등 역사 교과서는 1937년부터 『보통학교국사』의 개정판이 나왔다. 개정판은 목차에서 조선사를 표제로 다른 課를 삭제하는 것에서 시작해 「건의서」와 교과서위원회의 결의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외형적으로 ‘조선교육의 특수성’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려울 정도였다.

다만 조선 통치의 특수사정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제도와 교과서에도 여전히 반영되었다. 문부성이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만을 사용한다는 소학교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역사 교과서를 별도로 편찬했다. 또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국사의 체계를 어지럽히는 내용임에도 조선 통치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내용체계를 여전히 답습하였다. 역사교과서위원회가 제안했던 ‘국사의 체계’는 1940·1941년에 새롭게 『초등국사』 5학년용과 6학년용의 발간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자료〉

- 『朝鮮總督府官報』
- 『京城日報』, 『大阪朝日新聞(南鮮版)』, 『東亞日報』, 『每日申報』,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 『教科書編輯彙報』 『朝鮮の教育研究』
- 『初等中等教科書中日鮮關係事項摘要』(고려대 소장)
- 『中等歷史教科書調査要旨(原案)』(고려대 소장)
- 文部省, 1920, 『尋常小學國史 上卷』
- 文部省, 1927, 『尋常小學國史 上卷』
- 文部省, 1935, 『尋常小學國史 上卷』
- 朝鮮總督府, 1922, 『普通學校國史 上卷 兒童用』
- 朝鮮總督府, 1932, 『普通學校國史 卷一』
- 朝鮮總督府, 1937, 『初等國史 卷一』
- 朝鮮總督府, 1939, 『國史地理 上卷』
- 朝鮮總督府, 1940, 『初等國史編纂趣意書 第五學年用』
- 朝鮮總督府, 1941, 『初等國史 第六學年用』
- 廣島文理科大學, 1935, 『廣島文理科大學·廣島高等師範學校·元第二臨時教員養成所一覽(昭和十年)』
- 東京文理科大學, 1937, 『東京文理科大學·東京高等師範學校一覽(昭和十二年)』
- 東京帝國大學, 1939, 『東京帝國大學卒業生氏名錄』
- 山田三良, 1957, 『回顧錄』, 山田三良先生米壽祝賀會
- 八木信雄, 1980, 『日本과 韓國』, 日韓文化協會

〈단행본〉

- 國分麻里, 2010, 『植民地期朝鮮의 歷史教育 - 「朝鮮事歷」의 教授를 めぐって』, 新幹社
- 保坂祐二, 2002,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 分析』, 제이앤씨

〈논문〉

- 권오현, 2003,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歷史教育論集』 30집
- 梁正鉉, 1997, 「日帝 強占期 歷史教育 理念과 政策 - 1920~30년대 중반 普通學校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7집, 국사편찬위원회
- 장신, 2004,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호
- 장신, 2006,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호
- 장신, 2009,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戔鳴尊 신화」, 『역사문제연구』 21
- 中村榮孝, 1938. 10, 「時局下に於ける朝鮮の歷史教育」, 『研究評論 歷史教育』 제13권 제7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Critique of History Textbook by the Keijō Imperial
University and the Ac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in the 1930s

Jang Shin

History professors at Keijō Imperial University analyzed and criticized the history textbook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1934. They urged Keijō Imperial University to establish a commission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history textbooks. They demanded that the commission handle the “system of national history” correctly. In particular, they expected that the history of Joseon and the history of Japan would not be treated separately, but that a national history covering the history of the continually expanding empire and the colonies would be written.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immediately accepted the recommendation and established the Temporary Commission of Inquiry on History Textbooks. This commission recommended after two years of work that the system of school textbook writing and the contents of the school textbooks should be improved.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ccepted part of the recommendation for the improvement, but did not accept the writing according to the system of national history. That recommendation did not follow the theory of the “unique situation of Korea.” However,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did not stop writing school textbooks which took into consideration the reality of the rule

over Joseon, even obstruc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history and differing from historical facts. The system of national history thereafter was realized in the elementary school national history textbooks that began to be published in 1940. The leading role was taken by Nakamura Hidetaka, who w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Keywords

The Temporary Commission of Inquiry on History Textbooks, the theory of the “Unique Situation of Korea,” history textbooks, the system of national history, Nakamura Hidetaka, national history textbook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越境하는 화폐, 분열되는 제국

- 滿洲國幣의 조선 유입 실태를 중심으로 -

조명근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사학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연구교수



I. 머리말

근대 국민국가는 대내적으로는 특정하게 구획된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대외적 자주성을 본질로 하는데, 그 수립과정에서 국민통화가 창출되었다. 국민통화는 대내적으로는 국민경제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주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특히 화폐주권은 근대 국민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¹⁾ 이와 같이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적 배타성은 영토적 통화(territorial currencies)²⁾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화폐주권을 생각한다면, 국경을 넘어서는 화폐의 유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글은 식민지기 조선·만주 국경 간의 화폐 유입 실태를 통해 일제 대외

※ 투고일: 2013년 5월 20일, 심사일: 2013년 8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22일

1) 고병권, 2005, 『화폐, 마법의 사중주』, 그린비, 156~160쪽

2) 영토적 통화란 국가의 영토적 경계선 내에서 사용되는 동질적이고 배타적인 통화를 말한다. 벤저민 J. 코헨 지음, 박영철 옮김, 1999, 『화폐와 권력』, 시유시, 43쪽

금융정책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대외금융정책의 기본원칙은 각 식민지와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일본은행권이 아닌 각 지역 통화를 발행케 한 점에 있다. 이들 통화는 일본은행권과 等價로 연계되어 거대한 円係통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³⁾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동심원적 확장은 곧 연계통화권의 확대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일제는 이 확대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일본 본토에 파급되는 것을 저지해야만 했다. 중일전쟁 이후 중국 점령지의 인플레이션이 연계통화권을 통해 연쇄적으로 전이되고 있을 때, 조선·만주 국경선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통화 방어선이었다. 戰時期 조선의 인플레이션은 일본 본토 보호를 위해 조선이 최후 방어선이 됨으로써 심화되었는데, 이 실태를 滿洲國幣⁴⁾의 조선 유입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에 대해서는 주로 조선은행권 증발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되어왔다. 대표적으로 『朝鮮銀行史』를 들 수 있는데, 조선은행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만주국폐의 유입 현상과 이것이 조선 내 인플레이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음을 증명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주로 조선은행의 환관계 분석을 통해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 현상을 설명하였다.⁵⁾ 반면 야스토미는 이 문제를 만주국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는데 조선은행권 증발 원인에는 만주국폐의 유입뿐만 아니라 조선 내 자금 수요도 주요 원인을 차지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만주국폐 유입이 조선 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내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만주국 측의 입장을 소개하여 조선과 만주국 사이

3) 일반적으로 연계통화라고 함은 일본은행권을 중심으로 조선은행권, 대만은행권, 만주중앙은행권(만주국폐), 몽강은행권, 중국연합준비은행권, 중앙저비은행권 등을 말한다.

4) 1932년 만주중앙은행이 발행한 만주중앙은행권은 태환 규정이 없는 불환지폐로 출발하였다. 만주국이 발행한 화폐라는 의미에서 당시에는 만주국폐라고 불리었다. 이하 본문에서도 당시 통용되고 있던 만주국폐로 사용하겠다.

5) 朝鮮銀行史研究會, 1987,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632~638쪽(이하 『朝鮮銀行史』).

의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⁶⁾ 그런데 야스토미는 분석 시기를 1942년 이후로 한정함으로써 1930년대 후반부터 문제시되고 있던 만주국폐 유입의 실태와 조선 내 대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선은행과 조선총독부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는 점이다.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양측은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에 대해 상반된 인식과 서로 다른 대응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초기부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입을 저지하고자 한 반면, 조선은행은 그와 반대로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⁷⁾ 만주국폐 유입 문제를 두고서 보이는 양측의 균열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자 모두 일제의 대륙침략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관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조선총독부는 조선이라는 관찰지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던 반면, 조선은행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점령지 전비조달기관으로서 전체 연계통화권의 유지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양자 모두 제국의 붕괴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지라도 대처에서 차이가 나는 그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행이 이 문제를 경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지는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대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자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속성을 지닐지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서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이 가지는 함의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安富 步, 1997, 「滿洲中央銀行と朝鮮銀行－日中戦争・アジア太平洋戦争期を中心に」, 『人文學報』 79,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52~56쪽. 戰時期 인플레이션에 미친 만주국폐 유입의 책임론에 대한 조선 측과 만주국의 입장 차이는 상당히 흥미롭기에 검토해볼 대상이다. 양자 모두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이 심각했고, 은행권 증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보다 주된 요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를 두고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7) 조선은행이 만주국폐 유입에 대해 194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도 이 점을 방증한다. 만약 조선은행이 초기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하고자 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는 양자의 대응을 분리, 조선총독부의 적극적 대처⁸⁾와 조선은행의 방관이라는 구도 속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만주국폐의 조선 내 유입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와 점령지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정책이 정작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래 연구가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을 동일한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조선 측의 입장이 결여되었다면, 이 글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시각에서 일제의 통화금융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⁹⁾

II. 중일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른 円係통화권의 붕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은행권은 화북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던 현실을 감안하여 군용통화로 지정되었다.¹⁰⁾ 이는 잠정적인 조치로써, 이미 개전 이전부터 화북지역의 발권중앙은행을 설립할 구상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

-
- 8)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을 저지하고자 한 주체는 조선총독부였다. 그러나 한 가지 짚어둘 것은 그렇다고 해서 조선총독부의 견해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국 전체의 이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대응이라는 것도 그 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 9)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은 만주국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분석대상을 조선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본 논문에서는 만주국폐의 유입 실태와 조선 측의 대응 및 조치를 규명하기로 하고, 양자의 입장 차이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추후 만주국 측의 견해를 재검토하여 별도의 논문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 10) 전쟁 이전 조선은행 천진지점이 치외법권을 이용하여 조선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 주둔군도 조선은행권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증발하여 군사비 지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조선은행원은 “배낭에 조선은행권을 가득 채운” 채 군대를 수행하면서 군비 지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朝鮮銀行史』, 545쪽).

에¹¹⁾ 곧 일제는 중국 점령지마다 발권은행을 세우고 현지에서 은행권을 발행하여 전비를 조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¹²⁾ 그 일환으로 화북지역에서는 1938년 3월 10일자로 중국연합준비은행(이하 '연은')이 개업하고, 연합준비은행권(이하 '연은권')을 발행하였다. 이제 조선은행권을 대신해서 현지 통화인 연은권을 발행시켜 전비를 조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는 특수한 금융조작을 통해 새로운 전비조달 방식을 개발하였다. 조선은행과 연은 사이에 이른바 '예금협정'이란 것을 체결하였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일제의 전시회계인 임시군사비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군사비는 실제로 중국에 송금되지 않은 채 조선은행과 연은의 예금구좌에 금액만이 기재될 뿐이었다. 연은은 조선은행에 대한 일본엔 예금을 준비로 하여 은행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엔자금은 모두 조선은행 도쿄 지점에 고스란히 축적되었다. 조선은행은 '예금협정' 과정에서 확보한 거액의 엔자금을 국채 소화에 운용함으로써 전비조달과 함께 일본 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고 있었다. 일본은행권 증발을 통해 대부분의 전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중국 점령지에 실제로 엔자금을 공급하지 않은 채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 다름 아닌 '예금협정'이었던 것이다.¹³⁾

그런데 당시 중국 경제는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발행하는 法幣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원래 중국은 전통적인 은본위제 국가로서 일제는 조선은행을 중심으로 만주 화폐제도를 금본위제로 통일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

11) 柴田善雅, 1999, 『占領地通貨金融政策の展開』, 日本經濟評論社, 273쪽

12) 중국 점령지역의 주요 연계통화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설립일 | 발행권 소재 | 가치 |
|-----------|-------------|----------|------------|
| 蒙疆銀行券 | 1937. 12. 1 | 몽고연합자치정부 | 엔 등가 |
| 中國聯合準備銀行券 | 1938. 3. 10 | 화북정부위원회 | 엔 등가 |
| 中央儲備銀行券 | 1941. 1. 6 | 국민정부 | 100원 대 18엔 |

출전: 日本銀行 調査局 編, 1943. 4, 「戰時金融統制の展開」, 日本銀行 調査局 編, 1970, 『日本金融史資料 27』, 大藏省印刷局, 459쪽

13) 이상 '예금협정'에 대해서는 조명근, 2004, 「1937~45년 일제의 戰費調達과 朝鮮銀行券發行制度 전환」, 『韓國史研究』 127, 111~115쪽 참조. 또한 '예금협정'의 방법은 같은 논문 139쪽의 '부표 2' 중국점령지에서의 일제 전비조달 방식' 참조.

나 번번이 실패했을 정도로 강고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 중국은 1935년 기준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관리통화정책으로 이행하여 국민정부계 은행의 지폐만을 유일한 法幣(法定貨幣)로 정하고, 모든 조세 납부와 공사 금액의 거래를 법폐로 한다는 「幣制改革令」(1935. 11. 3)을 공포하였다.¹⁴⁾

일제는 중국 점령지마다 수립한 발권은행에서 발행한 연계통화를 유통시켜 법폐를 축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 초기부터 일제는 통화전에서는 법폐에게 밀리고 있었다. 발발 직후 조선은행권을 군비로 사용할 때부터 이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¹⁵⁾, 1938년 2월경에는 법폐 100원에 대해 일본엔 120엔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¹⁶⁾ 더구나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은 대부분이 소비지이거나 물산의 집산지였지 생산지가 아니었다. 중국 화북지역 주민들이 연계통화 사용을 거절함에 따라 일본군은 이를 법폐로 바꾸지 않으면 물자를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법폐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법폐를 몰아내기 위해 발행된 연계통화가 법폐에 의존하여 유통되는 모순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법폐에 대

- 14) 국민정부는 은화 유통을 금지하는 대신 은화와 태환된 중국 내 모든 現銀을 중앙에 집중하여 국유화하고, 中央·中國·交通銀行 세 은행이 발행하는 불환지폐만을 법폐로 인정하였다(1936년 1월 中國農民銀行券이 추가). 중국이 은본위제를 이탈하여 관리통화제로 이행하게 된 계기는 1935년 9월에 실시된 미국의 은매상 정책 때문이었다. 미국의 은매상 정책으로 인해 은 가격이 상승하여 중국에서 은 수출이 격심해지자 은본위제 유지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정부는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영국은 리스로스(Leith Ross)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리스로스의 기본 입장은 중국이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와 연계된 관리통화제도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은 金正賢, 1998, 「中日戰爭期 通貨戰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44쪽을 참조.
- 15) 1937년 9월에 법폐 100원에 조선은행권 107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두고 조선은행 당국은 과도적인 현상으로 보고 조만간 법폐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平津地方 國幣高 朝鮮銀行側の 觀測」, 《東亞日報》, 1937. 9. 15).
- 16) 1938년 2월 5일 「中國聯合準備銀行條例」가 공포되었는데, 그날 북지나방면군 사령관인 테라우치[寺內壽一] 대장은 중국 주둔 재무관으로 부임한 오노[大野龍太]에게 일본엔 120엔이 법폐 100원으로 교환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등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오노는 이 요구가 무리한 것이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朝鮮銀行史』, 539쪽).

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엔계통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되었다. 엔계통화의 가치 하락이 법폐의 신용을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⁷⁾ 당시 조선은행 조사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폐는 종이를 가지고 운전기에 의해서 만들어낸 지폐에 불과하지만 국민정부의 유일한 화폐라는 점에서 ‘지폐’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 법폐가 ‘지폐’ 이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직 의연히 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폐에 대한 민중 信認의 표시다.¹⁸⁾

법폐는 일본계 통화를 능가하는 구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폐에 대한 중국인들의 신뢰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폐는 단순히 국민정부가 발행한 지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정부의 전쟁을 지탱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고 “국민정부의 생명선”이 된다. 일본으로부터는 이 법폐를 몰아내지 않는다면 중국을 점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그런데 중국 경제에 강고하게 뿌리를 내린 법폐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물자 공급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엔계통화의 가치 유지는 일본의 생산력에 달려 있었는데, 일제가 취한 방식은 현지에서의 물자조달이라는 정반대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통화 자체의 구매력이 저

17) 金正賢, 1998, 앞의 글, 56~57쪽

18) 朝鮮銀行 調査課, 1939, 『法幣を繞る支那經濟の動向』, 1~2쪽

19) 이와 같이 일본계 통화가 법폐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외환 태환성이 없기 때문이다. 연은권은 정화 태환이나 외환 매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환에 대해 대응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연은권은 법폐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환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연은권이 법폐를 필요로 하는 통화이면서 동시에 법폐를 공격해야 하는 모순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은권은 항상 “법폐의 하위에 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金正賢, 1998, 앞의 글, 59쪽). 당시 조선은행은 “법폐는 물질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화 태환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법폐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금일까지 명맥을 유지한 이유는 법폐로서 외국환을 살 수 있기”(朝鮮銀行 調査課, 1939, 앞의 책, 2쪽)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하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물자의 보증을 받지 못한 엔계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유통량의 통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전혀 실시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자체구매력을 갖지 못한 엔계통화에 의한 현지물자 조달은 그 통화가치를 저하시켰고, 그 결과 더욱더 통화남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었다.²⁰⁾

엔계통화권은 일본은행권과 등가로 하여 각 엔계통화와 연계되어 있었다. 화북의 경우 對화중과의 결제는 연은권과 저비권의 직접 결제방식으로, 만주에서 對화북은 만주국폐와 연은권이 결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²¹⁾ 조선과 만주도 또한 동일한 결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저비권 → 연은권 → 만주국폐 → 조선은행권으로 엔계통화는 거대한 연쇄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접지역 간의 직접결제 방식은 결국 고물가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저물가 지역으로 전가되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²²⁾ 전쟁이 장기화 되자, 점령지별로 통화가치는 심각히 괴리되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환시세의 변동뿐이다. 환시세가 무리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물자·자금의 유통·결제가 혼란해질 것은 명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일본 당국에서도 換算산율 개정을 여러 번 검토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 개전 직전, 財政당국은 연은권 100원을 일본엔 40엔으로 절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육군이 일본엔 절상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지원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또한 일본 민간 사업투자 등에서 환차손을 입게 된다는 우려도 연은권 절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유였다. 이후 대장성은 점령지의 물가등

20) 日本銀行 調査局 特別調査室 編, 1948, 「滿洲事變以後の財政金融史」(日本銀行 調査局 編, 1970, 『日本金融史資料』 27), 160쪽

21) 日本銀行, 1944, 「大東亞各域間決濟方法一覽」(日本銀行 調査局 編, 1971, 『日本金融史資料』 30), 361~362쪽

22) 당시 통화증발 상황과 인플레 수준이 화북에서 제일 높고, 만주, 조선, 일본의 순서였다. 이는 당시 엔계통화권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서의 인플레 파급이 화북 → 만주 → 조선 →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명근, 2004, 앞의 글, 127쪽의 <표 4> 참조.

23) 山本有造, 1997, 「『大東亞金融圈』論」, 『人文學報』 79,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쪽

귀로 인한 군사비 예산 팽창을 막기 위해 수차례 換換산율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실행되지는 못했다.²⁴⁾

일본이 환시세의 조절을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점령지·식민지와 일본 본국의 단절뿐이었다. 전쟁 말기에 작성된 일본은행 조사자료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의 초점은 두 가지로) 첫째 현재 외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의 영향을 내지의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단절하는가 …… 둘째 내외지를 總觀하여 이 인플레의 진행에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가 …… 내외지를 일체로 하여 인플레 대책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하는 일본의 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지 인플레에서 단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⁵⁾

즉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토와 식민지·점령지 엔계통화 간의 연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일본은행권과 등가로 출발한 엔계통화의 원칙은 지켜질 수 없었다. 만약 엔계통화와 일본엔의 등가교환을 자유롭게 두게 되면, 방대한 엔계통화의 증발이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격화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엔계통화권은 붕괴되었던 것이다.

24) 엔을 실제 이상의 높은 비율로서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은 나치가 유럽 피점령지에 강제한 환시세 정책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는 지도국 통화로서의 엔에 대한 심리적 우월감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일본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되었던 점에서 중요 물자의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환정책의 상투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島崎久彌, 1989, 『円の侵略史』, 日本經濟評論社, 371쪽

25) 日本銀行, 1944, 『外地インフレと内地インフレとの關係如何』(日本銀行 調査局編, 1971, 『日本金融史資料』 30), 360쪽

Ⅲ. 부분적 통제: 환전을 통한 만주국폐 흡수

만주국폐의 유입현상에 앞서, 우선 그 발행경위부터 살펴보자. 1932년 만주국이 수립된 후, 7월 1일자로 만주중앙은행(이하 ‘만주중은’)이 개업하였다. 만주국의 통화제도는 1932년 6월에 제정된 「화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주국은 은본위제로 출발하였다.²⁶⁾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1조에서 “화폐의 제조 및 발행의 권은 정부에 속하고 만주중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라고 규정한 점이다. 즉 만주중은이 발행하는 지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권이 아니라 국가지폐, 즉 國幣가 된다. 만주국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²⁷⁾

당시 조선은행은 만주국에서 은본위 통화지역의 금본위제 통화로서 유통을 허락받고, 종래와 같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였다. 만주국이 금본위제로 이행하면 만주국 내 조선은행권의 유통은 당연히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²⁸⁾ 1935년 들어 세계적인 은가격 상승과 중국 국민정부의 은본위제 포기로 인해 만주국 또한 기존 화폐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만주국폐는 일본엔과 등가연계로 변경하게 되어 제도적으로 金券과 등가관계로 되었고 조선은행권은 만주에서 철수하게 되었다.²⁹⁾

26) 만주중앙은행권은 화폐법(1932. 6) 제2조에서 “純銀 양목 23.91g을 가격의 단위로 하고 이를 圓이라 칭한다”라고 규정하여 은본위제로 출발하였다. 만주국이 23.91g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중국과 만주 각지에서 유통되고 있던 각종 現代洋(圓銀)의 평균 순은 중량이었기 때문이다(『朝鮮銀行史』, 464쪽).

27) 「화폐법」 제9조에서 “만주중앙은행은 지폐발행고에 대해 3할 이상에 상당하는 은괴, 금괴, 확실한 외국통화 또는 외국은행에 대한 금은예금을 보유할 것을 요한다”라는 발행준비 규정을 두었으나 법령 어디에도 태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즉 만주국폐는 불환지폐로 출발한 것이다. 安富步, 1997, 『滿洲國』의金融, 創文社, 85쪽

28) 『朝鮮銀行史』, 421쪽

29) 1935년 12월 6일에 만주중앙은행은 조선은행과 업무협정을 맺고, 조선은행권을 회수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조선은행은 1936년 12월 14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만주 20개 지점을 신설 만주흥업은행에게 이양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날, 일본 측

당시 만주국폐는 조선·만주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 기사가 잘 요약하고 있다.

(만주국폐는) 조선 내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제나 조약도 없는 중이지만 두 지역 사이에 교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만주국에서 조선 안으로 들어오는 손은 자연 만주국 지폐를 가진 채 들어오는 일이 많고 특히 북조선인 나진·청진·나남 등지에는 신의주·중강진 등 국경 일대와 같이 만주국 화폐가 여관 기타 일용품시장에 유통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상당한 지역에 달하여 당지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에 통용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북조선을 경유해가지고 일본 내지로 가는 승객이 적어도 1년에 200만 명에 가까우므로 그들이 한 사람 평균 2원씩만 떨어트리고 간다손 치더라도 4백만 원의 만주국 화폐가 넘치게 되어 이것이 점차로 흘러들어서 현재는 경성에 까지 만주국 지폐가 흘러다니고 있는 중이다.³⁰⁾

위 기사는 법적 근거를 갖지 않은 만주국폐가 어떻게 조선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조선·만주 국경 사이의 활발한 교류에서 기인한다. 육상으로 국경을 접하여 이동이 용이하여 상호 왕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폐가 유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만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개 만주국폐를 가지고 와서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유통의 단서가 되고 있었다. 즉 “압록강 철교를 결합한 鮮滿一如를 문자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2대 국경도시 안동, 신의주”에서는 “만주국폐 一圓은 똑같이 선은권 1 원과 교환”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점, 시장, 노점 상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신의주 “부민의 돈지갑 중에는 오히려 만주국폐가 많은 날이 있”을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만주국폐를 교환하는

은행인 正隆·滿洲銀行의 해산과 이것을 계승하는 형태로 만주흥업은행이 설립되어 1937년 1월 1일에 개업하였다. 만주흥업은행은 만주국 중공업 자금 공급을 담당하였다. 安富步, 1997, 앞의 책, 58쪽

30) “滿洲貨幣가 朝鮮에 汎濫, 國境에는 流通이 一般化, 京城에까지 侵入할 形勢, 惡幣의 潮水로 經濟界 影響至大”, 《東亞日報》, 1939. 8. 4

사람들 중에 “신의주 토지의 사람은 1인도 없”을 정도로 국경지방에서는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만주국폐의 유통금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할 정도였다. 만주국폐가 조선에서 유통되는 현실 이면에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편리함이 “암묵적으로 침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게 되면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경제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로 깊게 침투해 있었다.³¹⁾ 둘째, 만주에서 조선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주국폐도 상당한 양에 달한다. 정상적이라면 만주국폐를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조선 내에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유통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을 두고서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 측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만주국폐의 유입문제가 발생하던 초기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조선은행이 만주에서 철수한 후) 총독부의 의향은 외국 지폐가 유통되는 것은 외국위체관리법에도 저촉되고 또 체면상 불량하다고 하여 양국 지폐의 혼류를 금지하라는 의향으로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국 화폐의 태환을 강제하라는 의향인데 이에 대하여 조선은행은 양국 화폐의 혼류는 실제상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강제 태환케 하더라도 兩替店이 즉출하여 결국에는 兩替店의 단속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를 생케 될 것이다라고 하여 양국 화폐의 자유 유통을 하등 차질 없다고 보므로 이 결말은 未 해결문제로 주목된다.³²⁾

31) “貨幣の日滿一如に崇る鮮銀の後退、夥しい滿洲國幣の進出を國境經濟界は如何に裁く”, 《京城日報》, 1936. 11. 25. 당시 조선상업은행 신의주 지점 지배인에 따르면 “이 유통금지가 엄격하게 되면 安義(안동-신의주) 사람들은 이것은 만주국폐, 이것은 일본 지폐이기에 2개의 돈지갑이 필요하게 되고, 안동에 갈 때에는 이 돈지갑, 신의주에서는 이것이라는 모양으로 비상이 불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경의 경제거래 상에서도 원활을 결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32) “鮮滿貨幣의 混用, 本府當局은 不可視, 鮮銀側과 見解가 相異”, 《每日申報》, 1936. 12. 5

위 기사가 작성된 시점은 1936년 말로 조선은행의 만주 철수가 확정된 때인데, 조선총독부는 만주국폐를 ‘외국 지폐’라고 분명히 규정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화폐가 조선에 유통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만주국이 ‘독립국’이란 이름하에 조선은행권의 만주국 유통을 반대했던 논리와 차이가 없다. 특히 체면상 좋지 못하다는 언급 속에서는 일종의 주권 침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까지 풍겨진다.

반면 조선은행 측은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문제에 대해 “이대로 방치해도 하등 상관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1910년대 후반 조선은행이 만주에 진출한 후 법적으로는 “조선은행권의 유통범위는 관동주 및 만철부속지에 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만주 일원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에 유통”되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조선은행권과 만주국폐가 등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³³⁾ 즉 이 전제가 무너지면 만주국폐의 유입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조선에서는 등가관계가 훼손된 만주국폐가 유통되는 현실을 “그대로 방임”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었다.³⁴⁾ 가령 1939년 8월 당시 “조선 내에서 금 한 돈에 16원 50전가량 가는 것이 만주국 내에는 이미 30원을 넘기어 매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등가는커녕 거의 50% 가까이 평가 절하된 만주국폐와 조선은행권을 등가로 유지하는 종래의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혈한 화폐가 조선 내에 뒹핑하는 셈”으로 될 것이고, 그 결과 조선에 만주국폐가 “범람되어 경제계에 일대 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³⁵⁾ 조선 내 만주국폐 유통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33) “朝鮮 滿洲 兩行券 國境地帶에 混用, 朝鮮銀行은 放置方針”, 《東亞日報》, 1938. 3. 20

34) “朝鮮銀行券과 換錢, 新義州 羅津等 支店서”, 《東亞日報》, 1939. 8. 4

35) “滿洲貨幣가 朝鮮에 汎濫, 國境에는 流通이 一般化, 京城에까지 侵入할 形勢, 惡幣의 潮水로 經濟界 影響至大”, 《東亞日報》, 1939. 8. 4

조선은행이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만주국과 직접 협의에 나섰다. 당시 기사에서는 현재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양국 간에 환전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었다.³⁶⁾ 즉 실질가치로 평가절하된 만주국폐를 조선은행권과 교환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양 화폐의 등가원칙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등가원칙의 파괴는 전체 엔통화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총독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전제는 조선은행권-만주국폐의 등가교환 원칙을 유지함에 있었다. 1939년 10월경 조선총독부 이재과장은 만주국으로 출장을 떠나 정부 관계자 및 만주중앙은행과 협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주국 측에서는 만주중앙은행의 지점을 강을 경계로 하여 만주국 측에 다수 설치하여 교환을 하게 하고
2. 조선 측에서도 역시 조선은행을 비롯하여 각 은행 지점, 금융조합 등에서 교환을 실시하게 하고
3. 따라서 무제한 교환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 내 유통을 철저히 금지하기로 하여 단속을 엄하게 하기로 함.³⁷⁾

양측 합의의 골자는 환전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경지대에 다수의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환전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손쉽게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속대책으로서 조선총독부는 1940년 1월부터 만주국폐의 조선 내 유통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 밝힌 담화의 일부다.

조선과 만주의 교역이 점차 왕성함에 따라서 교역상 수취감정의 지위

36) “現在도 折衝中, 理財課 岡村事務官談”, 《東亞日報》, 1939. 8. 4

37) “朝鮮侵入의 滿洲貨, 積極 沮止策 遂成立, 朝鮮銀行과 金融組合等에서 交換을 實行, 兩當局者 意見合致”, 《東亞日報》, 1939. 11. 2

에 있는 조선으로의 국폐 유입도 점차 증가하고 특히 최근에는 만주국의 물가 상승의 관계도 있어 그 유입은 일층 증가되어 조선 측 국경지대에서는 통화 총유통량의 대부분인 80~90%, 적어도 30~40%를 국폐로서 짐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서 장소에 따라서는 조선은행권의 影子를 보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있었다. 대체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을 有치 아니한 외국 통화의 유통을 인정하는 것은 화폐 정책상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통화의 위조 제조의 단속 기타 종종 곤란한 문제를 生하므로 금회 1개월간(1939년 12월)의 유예기간을 設하여 1940년 1월 1일부터 국폐의 조선 내의 유통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함께 조선 측 국경강안지대의 약 30여개소의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실비(교환금액의 2%)를 징수하여 국폐와 조선은행권과의 교환을 행하게 되었다. 즉 명년 1월 이후는 관공서 금융기관 등뿐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는 국폐의 수수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³⁸⁾

국경 일부 지역에서 조선은행권은 그림자조차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주국폐가 아무 거리낌 없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부로서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선 내 통화금융 통제력이 크게 훼손당한다는 점에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939년 12월 한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940년 1월 1일부터는 조선 내에서의 만주국폐 유통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조치로 조선에 유입되는 만주국폐는 금융조합에서 교환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교환토록 하였다. 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1940년 1월 이후부터는 만주국에서 조선으로 물건을 구입하려 할 경우, 조선 측 상인이 국폐로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의 금융조합 등에서 국폐를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하여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³⁹⁾ 종래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었던 만주국폐는 1940년

38) “滿洲國幣 鮮內流通, 一月一日부터 禁止, 當分 無手數料 兩替”, 《每日新報》, 1939. 11. 25

39) 환전을 금융조합에서 취급한 것은 국경 지역에 조선은행 지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진지점(1920년 3월 개설), 나진지점(1935년 8월), 신의주지점(1937년 2월), 함흥지점(1939년 9월), 웅기출장소(1933년 8월 개설, 1941년 9월 폐쇄)만으로는 제대로 된 환전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점망을

1월을 기해 일반 거래에도 적용시켰다.

그러나 이 조치는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1940년 8월경에는 “(환전을 통한 국폐 흡수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고 그 후 국경에서의 국폐 유통은 의연 빈번히 되어 신의주로부터 정주에 이르는 일원 및 남양에서 북선 3항에 이르는 일원에서는 盛히 유통을 하는 상태”라는 기사가 뜨고 있었다. 결국 만주국폐의 조선 내 유통을 금지하는 방법은 조선과 만주 양자 사이의 “화폐정책의 근본적 재건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여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했을 뿐이다.⁴⁰⁾

위의 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양 지역의 물가 차이였다. 조선총독부 물가조정과장에 따르면 “신의주로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만주돈[滿洲幣]이 신의주의 商街로 범람하고 있는데 압록강을 격하여 만주국 안동은 물건 값이 비싼 까닭에 전부 안동으로 물건이 흘러나”감으로써 “신의주는 물자가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의주는 물건이 싸니까 안동서는 신의주로만 물건을 사러오는 까닭에 신의주뿐만 아니라 삭주, 강계 같은 殷賑산업시대에는 물건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물가통제와 통제경제를 문란케 하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만주돈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과 조선은행권과의 교환시 2%의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자연 불편이 생기는 까닭에 그대로 유통이 되는 모양”이라고 그 실태를 전하고 있다.⁴¹⁾ 특히 신의주 경제는 안동의 구매력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⁴²⁾

조선총독부 대책이 실패로 끝나자, 조선은행 측은 만주국폐의 유입이 사실

가지고 있던 금융조합에서 이를 대항한 것이다. 당시 조선은행은 조선에서 발권과 함께 상업금융도 겸영하였기 때문에 일반은행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반대로 인해 지점 증설이 여의치 않았다. “國幣流通問題, 鮮銀 中銀 折衝”, 《每日新報》, 1939. 11. 16

40) “國境의 滿洲國幣 依然히 流通狀態”, 《每日新報》, 1940. 8. 28

41) “國境의 頭痛꺼리, 흘러오는 滿洲國幣, 時急한 對策이 必要”, 《每日新報》, 1941. 7. 16

42) “國幣流入阻止, 鮮銀 調查課長談”, 《每日新報》, 1941. 9. 19

좋지 못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를 전면 유통금지로 가게 되면 조선과 만주국 “양국 간에 상당히 텔리킷한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향을 靜觀하는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여 여전히 방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⁴³⁾

IV. 전면적 저지: 만주국폐 유통 금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은행권이 증발되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었다. 당시 조선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원인 중에서 ‘換’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조선은행에서 조사한 1942년도 은행권 발행 상황을 보면 환거래에 의한 발행 2억 576여만 원과 대출증가로 인한 증가액 1억 3,376여만 원에 예금증가로 인한 회수액 6,634여만 원과 기타 회수액 1,983여만 원을 빼면 약 2억 5,300여만 원의 증가로 된다. 조선은행 측은 은행권 증발의 직접적인 원인을 환거래 지불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특히 만주국폐 교환을 위한 발행이 1억 6,118여만 원으로 조사되어 환거래 중에서 약 78%를 차지하고 있었다.⁴⁴⁾ 당시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었던 미쓰타[水田直昌]도 “조선이 일본에 비해 물가가 높다는 사실에 비상히 부심”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조선은행 및 총독부 각각의 손에서 어쩔 수 없는 원인, 즉 조선 外로부터의 수취초과”에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⁴⁵⁾ 당시 조선은행이나 조선총독부에서는 은행권 증발을

43) “滿銀券 鮮內流入, 鮮銀에선 靜觀方針”, 《每日新報》, 1940. 9. 5

44) 조선은행은 환관계로 인해 발행에 대해서는 “당행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었다. 『朝鮮銀行史』, 688~689쪽

45) 水田直昌·土屋喬雄 編述, 1962,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財團法人友邦協會 朝鮮史料編纂會, 109쪽

〈표 1〉 만주국폐 교환이 조선은행권 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천 원, %)

| | 만주국폐 교환고 | 조선은행권의 조선 내 발행고(비율) | 전년대비 증가액(비율) |
|------|----------|---------------------|---------------|
| 1940 | 73,103 | 486,146(15.0) | 111,932(65.3) |
| 1941 | 69,346 | 621,069(11.2) | 134,923(51.4) |
| 1942 | 118,516 | 771,412(15.4) | 150,343(78.8) |
| 1943 | 191,565 | 1,255,991(15.3) | 484,579(39.5) |

출전: 만주국폐교환고는 近藤劬一 編, 1961, 『太平洋戰下の朝鮮 (5)』, 友邦協會朝鮮史料編纂會, 116쪽;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朝鮮銀行調查部, 1949, 『朝鮮經濟年鑑』, IV-74쪽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중 만주국폐의 교환이 조선은행권 발행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위 〈표 1〉을 보면 관동주 발행액을 제외한 조선 내 조선은행권 발행고에서 만주국폐 교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15%까지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폐가 조선은행권 증발에 미친 영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발행초과액에 대한 비율을 보면, 최대 78%, 최소 4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심각했던 1942년의 경우 새롭게 발행된 조선은행권 100원 중 80원은 만주국폐 교환을 위해서 발행된 것이다. 조선은행권 증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944년이 되어서야 조선은행은 뒤늦게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였다.⁴⁶⁾ 이 조사에 따르면 1943년 8월 1일~1944년 7월 31일까지 1개년간의 만주국폐 교환고는 2억 7,275여만 원으로 조선은행권 발행초과액 8억 5,855여만 원의 31.8%에 이르고 있었다.⁴⁷⁾ 그 실태를 보면, 1944년의 경우 함북 회령·상삼봉 지방은 약 70%, 남양 지방은 약 80%, 또 평북 국경지

46) 1944년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25일간 감사 芳賀文三, 본점 조사부의 原正保, 청진지점의 장기영이 국경 지방과 만주 주요 도시를 실지 방문하여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朝鮮銀行 調査部, 1944, 9, 「鮮滿國境地帶の國幣問題と滿洲國內における鮮銀券退藏事情」).

47) 朝鮮銀行 調査部, 1944, 9, 위의 글, 46쪽

방에서도 대체로 70% 정도를 만주국폐가 차지하고 있었다.⁴⁸⁾ 조선은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주국폐 유입이 증가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었다. 첫째는 아편을 중심으로 한 밀수, 둘째는 물자난과 양 화폐가치 차이에 기인한 물자의 유출, 셋째는 송금이다.⁴⁹⁾ 당시 밀수출에서 아편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기세가 왕성하였고, 또 부녀자를 중심으로 소량의 물자를 휴대해서 반출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남양의 경우, 면화 공출 장려책으로서 책임량의 공출을 끝낸 자에게는 잔여의 면화에 대해서 자유 처분을 인정하였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만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양 지역간의 물가차를 노리고 조선 내에서는 가정용 소장품들이 상품으로 되어 만주로 유출되고 있었다. 그 밖에 만주의 대일본 송금 제한을 우려하여 만주 내 소재 재산을 조선 내로 이전하는 자가 많았던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밀수출은 당국자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각지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양 화폐의 교환보고서에 기재된 성명의 절반 이상이 가공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밀수출을 하는 주 대상은 조선인 여성이었는데, 그 비율은 대체로 함북 국경지방에서 약 80%, 평북 지역에서는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세관의 검거실적에서 보면 밀무역의 주된 물품은 아편과 섬유제품으로서 금액으로는 아편이 전 밀수의 70%를, 나머지 대부분을 섬유제품이 점하고, 건수에서는 섬유제품이 약 80%에 달하였다고 한다.⁵⁰⁾

이상과 같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1944년에 들어서 조선총독부는 종래 만주국폐의 흡수책을 버리고 유입저지책으로 돌아섰다. 1944년 2월 8일자로 조선총독부 재무국에서 작성한 「만주국폐의 수출입 및 국폐의 단속에 관한 대책」에서는 국폐의 수입은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행자의 휴대 이외에는 원칙

48) 朝鮮銀行 調査部, 1944. 9, 위의 글, 47~48쪽

49) 朝鮮銀行 調査部, 1944. 9, 위의 글, 51~52쪽

50) 朝鮮銀行 調査部, 1944. 9, 위의 글, 59쪽

적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원거리 여행자는 200원까지, 근거리 여행자는 50원까지로 한도를 설정하였다.⁵¹⁾ 이에 따라서 1944년 5월부터 총독부는 국경지대 금융조합의 만주국폐 교환고에 한도를 설정하여 환전을 제한함과 동시에 환전상의 교환허가 한도도 종래의 절반으로 줄였다. 계속해서 조선총독부는 「외국위체관리법실시규칙」 중 일부를 개정(府令 제251호, 1944. 6. 17)하여 194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조선에서의 만주국폐 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 다만 국경에서 2리 이내의 거주자에 한해서는 1회 20원, 1개월을 통틀어 300원 이하의 사용을 인정하고, 만주국폐의 조선 반입은 허가제로 하되 여행자의 경우 200원까지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등을 결정하였다.⁵²⁾ 1940년의 조치에 비해 훨씬 엄격해진 것은 종래 무제한으로 조선 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만주국폐를 허가제로 한 것이다. 동시에 “국폐의 조선 내 유통은 동일 이후는 관공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국폐로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⁵³⁾되었다. 이전 조치는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것임에 반해, 이번 조치는 법령으로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만주국폐의 조선 내 유통금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내 만주국폐의 유통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1944년이 지나서였다. 1938년경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왜 이렇게 늦게 취해졌는가? 표면적으로는 양 국경 간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압록강 철교를 사이에 두고 동일한 경제 권역을 형성해 온 신의주·안동을 비롯한 조선·만주 국경지대에서 만주국폐의 유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은행권·만주국폐의 등가교환 원칙의 준수,

51) 만주국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여객에 대해서는 화폐 교환액을 “선천, 강계, 백암, 고무산 또는 아오지 이남의 여행자는 200원까지, 그 밖에 여행자는 50원까지”로 제한하였다. “國幣流入을 防止, 列車乘客 交換額制限”, 《每日新報》, 1944. 5. 13

52) 『朝鮮銀行史』, 634~635쪽

53) “滿洲國幣 輸入制限強化, 爲替管理規則 改正, 七月一日 施行”, 《每日新報》, 1944. 6. 18

즉 엔계통화권의 유지를 위해 무리한 환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원래 엔계통화권의 정책목표는 각 엔계통화가 엔과 등가로 연결되어 내국화와 같이 작동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 내의 국제수지가 일본의 국제수지와 일체화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태환구정을 가지지 않은 완전한 관리통화인 엔계통화와 엔의 등가교환을 자유롭게 하면, 대륙의 인플레이션이 일본에 파급될 우려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일본으로의 송금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엔계통화는 換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⁵⁴⁾ 즉 이미 등가관계가 깨진 만주국폐를 조선과 등가로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엔블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만주국폐의 조선 내 유통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엔계통화권 붕괴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만주국에서도 연은권의 유입으로 인해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⁵⁵⁾ 만주중은은 이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었다.

북중국 물가의 이상한 양등은 만주산 잡곡, 아편 등의 접경 밀수를 자극하고, 이 때문에 다량의 연은권이 아국 내에 반입되어, 국경 지대에서의 통화 팽창을 초래함과 함께 다른 한편 入滿 노동자의 북중국 송금, 통화 소지 귀환, 기타 여행자에 의한 圓系通貨 반입은 상당한 다액에 이르러 연은권 팽창의 유인도 되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국 통화의 교류가 통화정책은 물론 무역정책, 환 관리상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상 각종의 악영향을 초래할 두려움 때문에 …… 이들 외국통화의 국내유통을 억제하는 조치를 執하기에 이르렀다.⁵⁶⁾

북중국의 연은권이 만주로 유입되는 양상과 그 폐해가 만주국폐의 조선 내

54) 日本銀行 調査局 特別調査室 編, 1948, 앞의 글, 160쪽

55) “滿州國의 聯銀券 流通禁止 실행 터”, 《每日申報》, 1940. 5. 17

56) 滿洲中央銀行, 1942, 『滿洲中央銀行十年史』, 180~181쪽

유입과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점령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조선에까지 파급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만주에서, 만주의 인플레이션을 조선에서 저지하려고 할 때, “조선·만주 국경은 중대한 대동아의 통화 바리케이드”라고 조선은행은 언급하고 있었다.⁵⁷⁾ 즉 조선은 일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으로서 희생당해야 했음을 조선은행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대륙 인플레이션의 방어선으로의 조선은행의 역할은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의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로 달했던 1944년도와 1945년도에서의 통화증발 추이를 비교해보면, 조선, 일본, 대만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조선은행권이 일본은행권이나 대만은행권에 비해 월등히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일본은행권과 비교해보면, 최고 48%p, 최저 20%p, 평균 37%p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식민지 은행권인 대만은행권과 비교해도 역시 최고 49%p, 평균 25%p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⁵⁸⁾ 조선은행권 증발 원인이 조선은행이나 조선총독부가 통제할 수 없었던 환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 대부분을 만주국페 유입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선은 일본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감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일본이 점령지·식민지와 본국을 분리시킴으로써 점령지·

57) 朝鮮銀行 調査部, 1944, 앞의 책, 57쪽

58) <표> 주요 엔계통화권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비교 (단위: 배)

| | 1944년 (기준년도: 1943년도) | | | | | | | | | | | | 1945년 (기준년도: 1944년도) | | | | | | | 평균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
| 조선 은행권(a) | 1.70 | 1.78 | 1.88 | 1.92 | 2.00 | 2.10 | 2.15 | 2.21 | 2.27 | 2.26 | 2.21 | 2.14 | 2.20 | 2.24 | 2.27 | 2.34 | 2.42 | 2.41 | 2.45 | 2.15 |
| 일본 은행권(b) | 1.49 | 1.55 | 1.61 | 1.64 | 1.67 | 1.67 | 1.73 | 1.76 | 1.79 | 1.79 | 1.80 | 1.73 | 1.76 | 1.75 | 1.87 | 1.94 | 1.99 | 2.12 | 2.25 | 1.79 |
| 대만 은행권(c) | 1.48 | 1.49 | 1.57 | 1.57 | 1.58 | 1.62 | 1.67 | 1.73 | 1.85 | 1.97 | 1.97 | 1.92 | 2.02 | 2.15 | 2.23 | 2.33 | 2.47 | ? | 2.32 | 1.89 |
| a-b (%) | 21 | 23 | 26 | 28 | 33 | 43 | 42 | 45 | 48 | 47 | 41 | 41 | 44 | 48 | 41 | 40 | 42 | 28 | 20 | 37 |
| a-c (%) | 22 | 29 | 30 | 35 | 42 | 49 | 48 | 48 | 42 | 29 | 24 | 22 | 18 | 9 | 4 | 1 | -5 | ? | 13 | 25 |

출전: 日本銀行 統計局, 「戰時金融統計要覽」(1947.10), 日本銀行 調査局 編, 1971, 『日本金融史資料』 30, 大藏省印刷局, 117~118, 157~158쪽

식민지의 인플레이 영향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일제는 중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점령지마다 별도의 발권은행을 수립하여 현지에서 은행권을 발행하여 전비를 조달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국민정부가 발행하는 법폐가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엔계통화는 전쟁 초반부터 법폐에게 밀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엔계통화는 일본 본토로부터의 강력한 물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치가 유지되기 힘든 구조였으나, 일제는 정반대로 현지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일제는 중국 점령지에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법폐를 구입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엔계통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되었고, 이는 결제기구를 통해 연쇄적으로 파급되고 있었다. 일제는 인플레이션이 일본 본토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국과 점령지·식민지를 분리하였고, 이를 전가하였다.

1917년부터 만철부속지를 비롯한 관동주와 만주 지역에서 법화로서 통용되던 조선은행권은 1932년 만주국폐가 발행되자 금본위계 통화로 존속하였고, 1935년 말에 만주국에서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런데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만주국폐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는데, 만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주국폐의 실질가치가 조선은행권보다 저하됨에 따라 이 유입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만주국폐가 양 지역의 물가 차액을 노리고 유입됨으로써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조선은행권은 퇴장되는 반면, 만주국폐가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화폐의 유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만주국

과 협의하여 교환을 통해 만주국폐를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조치는 실패로 끝났는데, 실질가치가 괴리된 양 화폐를 등가로 억지로 묶어둠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조선은행은 만주국폐의 조선 유입이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엔계통화권의 등가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한 이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선은행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중국 점령지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격심해졌고, 이는 엔계통화권을 통해 연쇄적으로 파급되었다. 그 결과 만주국폐 교환이 조선은행권 증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자 1944년에 들어서 종래 만주국폐의 흡수책을 버리고 유입저지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특히 만주와 조선의 물가 차액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던 밀수출은 당시 전시통제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동일한 물건이면 조선보다 만주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밀무역을 통해서 물자가 조선 밖으로 유출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조선 내 물자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로서는 이를 그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이미 등가관계가 깨진 만주국폐를 조선은행권과 등가로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엔블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만주국폐의 조선 내 유통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국의 확대와 1국 1화폐주의라는 근대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은 서로 모순관계에 서게 된다. 이 점에서 고마고메의 다음 지적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일제의 지배는 내셔널리즘의 발전이자 동심원적 확대였다는 기존 개념과는 반대로 “식민지제국 일본의 이민족 지배 역사 속에서 내셔널리즘의 자기 부정의 계기가 배태되고 자기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제국은 초민족적 권력단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 국민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체제하에서 통합된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자는 모순관계에 서게 된다. 제국주의적 팽창은 반드시 다민족적 상황을 노출시킴으로써 통합논리의 수정이나 재정의의 불가피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국

민 공동체라는 관념의 애매함과 불안정성이 뚜렷해졌다고 한다.⁵⁹⁾

이 모순관계를 일제는 식민지 통화의 확장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일제는 제국주의 팽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행권을 일본 밖에서 유통시키지 않았다. 조선에 일본은행을 진출시키지 않은 채 조선은행을 설립한 이유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⁶⁰⁾ 대외 침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불확실성을 일본은행이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이를 대리해서 실행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조선은행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정을 일종의 원운동에 비유해보면, 卍의 확대과정은 일본은행권의 구심력과 조선은행권의 원심력이 작동한 원운동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일본은행권은 국가 경계선 밖으로 이탈시키지 않은 반면, 조선은행권은 끊임없는 확장을 추구하도록 규정되었다. 일본은행권처럼 중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심력만으로는 제국은 확장할 수 없었다. 조선은행권이라는 조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의 작동이 있어야 가능했다. 일본은행이 일본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조선은행은 제국주의 팽창에서 초래되는 위협을 식민지에 전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가 간의 경계 내에서 작동해야 할 일국통화의 운동이 끊임없이 박

59)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옮김,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역사비평사, 23~24쪽

60) 조선은행법 제정시 일본 정부는 조선에도 일본은행권을 유통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위원인 아라이[荒井賢太郎,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일본 금융기관의 중추로써 태환권의 기초를 정할이지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태환권의 기초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항상 피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조선에도 일본은행권을 유통시킨다면 조선 경제가 동요될 경우 이로 인해 태환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는 특수한 은행을 설치하고 일본은행권 이외의 태환권을 발행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기에 특별히 조선은행을 설립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서 아라이가 가장 힘주어 강조한 것은 바로 일본 본토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화폐를 조선에 유통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1911년 3월 10일 제27회 帝國議會衆議院 朝鮮銀行法案委員會會議錄, 日本國立國會圖書館, 『帝國議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http://teikokugikai-i.ndl.go.jp>)).

으로 이탈하고자 하였던 것, 그것이 조선은행권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이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은 조선 경제를 보호할 장치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식민 본국의 팽창과정에서 야기된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新報》
- 近藤劔一 編, 1961, 『太平洋戰下の朝鮮 (5)』, 友邦協會 朝鮮史料編纂會
- 滿洲中央銀行, 1942, 『滿洲中央銀行十年史』
- 水田直昌·土屋喬雄 編述, 1962,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財團法人友邦協會 朝鮮史料編纂會
- 日本銀行 調査局 編, 1970, 『日本金融史資料』 27
- 日本銀行 調査局 編, 1971, 『日本金融史資料』 30
- 朝鮮銀行史研究會, 1987,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 朝鮮銀行 調査課, 1939, 『法幣を繞る支那經濟の動向』
- 朝鮮銀行 調査部, 1949, 『經濟年鑑』
- 朝鮮銀行 調査部, 1944, 「鮮滿國境地帶の國幣問題と滿洲國內における鮮銀券退藏
事情」
- 고병권, 2005, 『화폐, 마법의 사중주』, 그린비
- 金正賢, 1998, 「中日戰爭期 通貨戰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근, 2004, 「1937~45년 日帝의 戰費調達과 朝鮮銀行券 發行制度 전환」, 『韓國史
研究』 127
- 고마고메 다케시 지음,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옮김, 2008,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
통합』, 역사비평사
- 벤저민 J. 코헨 지음, 박영철 옮김, 1999, 『화폐와 권력』, 시유시
- 島崎久彌, 1989, 『円の侵略史』, 日本經濟評論社
- 安富 步, 1997, 『「滿洲國」の金融』, 創文社
- 柴田善雅, 1999, 『占領地通貨金融政策の展開』, 日本經濟評論社
- 山本有造, 1997, 「大東亞金融圈」論, 『人文學報』 79,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 安富 步, 1997, 「滿洲中央銀行と朝鮮銀行 - 日中戰爭·アジア太平洋戰爭期を中心
に」, 『人文學報』 79,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ABSTRACT]Currency Crossing Borderlines and an Empire Split: The
Inflow of Manzhouguo Currency into Colonial Joseon

Cho Myungkeun

The essence of modern nation-states is exclusive management of a specific area and external autonomy. To achieve these purposes, monetary sovereign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quisites. A national currency was established to control and manage a nation's economy for internal purposes, and to indicate an independent sovereignty and give a national identity for external relations. In this way, the territorial exclusivity of the modern nation-state is strongly related to territorial currencies. Thus, the circulation of currencies across borders is fundamentally impossible when considering monetary sovereignty as an essential right of a modern nation-state.

Yet, national currencies of the Bank of Chōsen and of Manzhouguo (滿洲國) were being circulated in Joseon and Manzhougu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phenomenon was connected with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policies in the Japanese colonies. Japan established banks of issue in every colony and occupied territory. In each area its then government issued a local currency, not a Japanese note. These local currencies had equal values and were closely linked to the Japanese currency, forming a Yen Currency Region (円係通貨圏). This region was constructed under the ideal of unifying the currencies of the Japanese colonies into the Japanese note. Therefore, the

expansion of Japan with its mainland as a concentric circle is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Yen Currency Region.

This study examines the circulation of currencies between Joseon and Manzhouguo, and the internal breakdown of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process of colonial expansion. The Manzhouguo state used currencies issued by the Manzhouguo Central Bank in 1932, which had an equal value to notes issued by the Bank of Chōsen. After its defeat in a “currency war” against the Chinese legal currenc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yen currency brought about severe inflation. The inflation, which started in central China, spread to other regions which were directly connected through the yen region, such as northern China, Manzhouguo, and Joseon. As a result, the real value of the Manzhouguo state’s currency depreciated to around one-half against the Bank of Chōsen’s currency by 1939.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Joseon, which had the responsibility to guard against an inevitable inflation, tried to deny equivalent exchange of the currencies, but the Bank of Chōsen and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maintained their views to keep the policy.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could not accept the abolishment of the equivalent exchange of currencies policy, as abolishment could cause the collapse of the entire Yen Currency Region. However, due to severe inflation from the excessive issuance of notes from the Bank of Chōsen in exchange for the national currency of Manzhouguo, the circulation of Manzhouguo’s currency was banned in July, 1944.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zhouguo was a currency defense line to protect Japan in the course of the conception and realization of Greater East Asia based on the Yen Currency Region. The problems caused by this course were shifted directly to the Japanese colony of

Joseon, The inflow of Manzhouguo currency into Joseon clearly showed the result of the policy that the Bank of Chōsen enacted as a substitute for the Japanese central bank. In other words, it indicated the true reason why the Bank of Chōsen, instead of the Japanese central bank, carried out the national policies, which were destined to be risky and of uncertain outcome on the conti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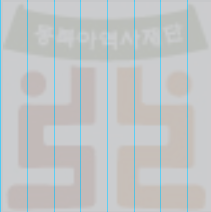
Keywords

The Bank of Chōsen, the Manzhouguo central bank, Manzhouguo currency, Yen Currency Region (円係通貨圏), infl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遼河文明的寶庫 - 牛河梁 遺蹟

이청규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I. 牛河梁 유적

5천 년 전 만리장성 이북의 동이족 땅에 문명이 탄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유적이 요령성 서부의 牛河梁 유적이다. 女神廟와 적석총, 피라미드형 제단, 玉器와 彩陶로 널리 알려진 이 유적은 1983년도에 처음 등신대에 가까운 여신상이 확인된 제1지점부터 시작해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6개 지점에 걸쳐 10여 차례 발굴조사되었다. 그 조사성과가 부정기적으로 소략하게 소개하다가 작년 2012년 11월 비로소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牛河梁-紅山文化 遺址發掘報告(1983~2003)」를 통해서 정식 보고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고고학 전문연구자를 비롯해서 단군조선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유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제시되지 않아 소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동 보고서가 출간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牛河梁 유적의 총 16개 지점 중에서 발굴조사된 6개 지점 중 13지점을 제외하고 이번 보고서에 그 내용이 소개되었다. 보고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262쪽으로 총설과 발굴조사과정, 1지점 女神廟 유적과 2지점의 무덤과 제단, 중권은 319쪽으로 3지점·5지점·16지점의 무덤 조사 내용, 인골과 玉器의 자연과학 분석의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하권에는 345쪽의 사진 도판이 게재되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 지점의 무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 관심을 끈다. 무덤의 매장시설과 墓域의 구조를 비롯하여 玉器의 부장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된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덤군 간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서평은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 유적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아울러 이 유적과 관련된 遼河文明論에 대해서 세계사나 한국사의 관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을 지적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발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전, 제단, 무덤 그리고 채도, 玉器

牛河梁 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 요령성 서쪽 凌源과 建平의 경계, 지리상으로 대릉하와 요하 상류의 경계를 이루는 努魯兒虎山 줄기에 위치한바, 근처에 평탄한 강변 충적지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구릉의 비탈면 혹은 정상부에 위치한다.

총 16개 지점 중 女神廟 신전은 제1지점으로 나머지 15개 지점의 유구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길이가 18m나 되는 당시로서 꽤나 큰 목조 건축물로서 여러 방이 연결된 평면 F자 모양의 북쪽 신전과 一字形의 남쪽 신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쪽 건물 중앙실에 여신의 머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손과 어깨, 가슴 등 여러 점의 신체부위를 표현한 塑造品이 발견된 사실이 주목된다. 실제사람 크기의 여신 얼굴상은 예배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별개의 더 큰 神像의 부위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主神은 아니다. 또한 곰의 머리, 새의 날개와 발톱 형상의 조소제품이 출토하였는데, 이들을 통해서 주신을 지키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像도 안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牛河梁 1지점 신전은 신석기시대의 중동지역 차탈회익 유적의 신전을 연상하게 한다. 이 신전에서도 여신 좌상이 모셔져 있고, 벽에는 소머리가 걸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석기시대의 여성신은 母系制 혹은 母家長의 사회를 반영하거나 혹은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자들은 이를 조상신으로 여기고 중국 고대문명의 조상숭배 나아가 禮制의 원형을 찾고 있어 설명이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예배 대상의 神像이 갖추어지지 않은 제단은 2지점, 13지점에서도 조사되었다. 특히 13지점에서 바닥 평면이 직경 60m의 원형으로서 여러 계단을 이루는 대형 토석건축물이 확인되었다. 중국 학자들은 이를 후대 元·明·清代에 황실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天壇의 原型으로서 금자탑이라고 부르는데, 금번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2지점에서 조사된 원형 제단 시설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2지점에는 무덤과 제단이 복합되어 있는바, 동쪽에 1·2호층, 서쪽에 4·5호층, 북쪽에 6호 층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원형 제단 3호층이 위치한다. 직경 22m의 원형 평면에 높지 않으나 3단계의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다. 그 동쪽 끝의 5호층도 길이 19.2m, 폭 14.6m인 방형 제단시설이다. 아울러 통형 채색토기가 열을 이루고 段 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성역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하게 하여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단시설은 이미 요서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석인상 상반신이 출토된 내몽고 오한기 草帽山에서는 무덤과 함께 방형 제단, 喀左 東山嘴에서는 원형과 방형 제단이 확인되었다.

2지점 한가운데에 3호층의 원형 제단은 같은 지점의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시설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13지구에 무덤 없이 조성된 대형 금자

탑 제단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얼핏 생각하면 전자는 특정 개별집단, 후자는 牛河梁 일대의 집단 전체가 제사에 참여하는 제단으로 추정되는바, 이 또한 심층적으로 논의될 과제가 되겠다.

牛河梁의 각 무덤군의 형태와 단위무덤의 구조, 그리고 부장유물의 종류와 그 출토상황이 보고서에 도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牛河梁 유적의 조성 기간은 3기로 구분되는데, 1기는 무덤이 축조되기 이전, 2기는 적석총 하층으로 玉器 부장묘 이전, 3기는 적석총 상층으로 이른바 唯玉爲葬의 玉器만을 부장하는 무덤의 시기이다. 2기에 속하는 무덤으로 2지점 4호층의 5, 6, 7호묘를 비롯하여 5지점, 16지점 등에서 확인되는데, 채색토기를 부장한 토광묘라는 점에서 후대의 玉器 부장묘와 차이가 난다. 같은 형식의 무덤은 50km 떨어진 객좌 東山嘴, 胡斗溝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3기의 적석총 상층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고된 唯玉爲葬의 玉器副葬墓는 크게 대형묘와 소형묘 두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형묘는 3m 내외의 깊이로 계단식으로 파 들어가 토광을 만든 다음, 맨 아래 바닥에 잘 다듬은 돌로 석관을 조성한 무덤이다. 소형묘는 토광을 깊게 파지 않고 지표에 가까운 곳에 석관을 시설한 것이다.

대형묘를 대표하는 무덤이 2지점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2호층으로 보고서에서는 이를 중심대묘라고 이해한다. 한변의 길이가 18.4m가 넘는 장방형의 적석 외곽 구획 안에 다시 길이 7.5m 폭 5.9m의 방형의 積石墓域이 조성되고, 그 한가운데에 깊게 판 토광에 석관묘가 있다. 方形墓域은 없지만 같은 대형 무덤은 2지점 1호층의 25호·26호, 5지점 1호층 1호묘, 16지점 4호묘, 79M2호묘 등이 있다. 소형묘의 경우 가장 많은 무덤이 조성된 2지점 1호층의 경우를 보면 북쪽에 치우쳐 대형묘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조성된 것과 대조적으로 남쪽에 중첩되어 24여기가 조성되어 있다. 계단식 대형묘가 1-2기이고 그 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따우고 소형의 석관묘가 다수 조성되는 사실은 5·16지점도 마찬가지다.

양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무덤 규모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부장된 玉器의 기종과 수량을 보면 소형묘라고 해

서 전자보다 반드시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지점 1호층 21호 무덤이 바로 그것으로 우하량 최대급인 20점의 각종 玉器가 부장되어 있다. 다음은 구획시설의 문제다. 2지점 2호층의 경우 中心大墓 1기를 중심으로 적석 구획시설이 내외 이중으로 되어 있다. 2지점 1호층·4호층, 5지점, 16지점의 경우 그 구획시설은 대형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소형묘가 추가 造營되고, 또한 구획이 수차에 걸쳐 재조정되면서 그 경계가 애매한 것이 확인된다. 구획경계가 후대에 유지되는 경우와 무시되는 경우 각각 그 배경 또한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대의 牛河梁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

牛河梁에 묻힌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반 구성원이 아닐 것이므로, 牛河梁 무덤의 주민집단이 位階화된 사회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牛河梁 무덤 자체 내에 묻힌 사람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 그와 관련하여 무덤에 安置된 주인공의 성별과 연령이 분석 보고된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 보면 2지점 1호층의 대형묘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안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이 드러난다. 연령을 보면 젊은 층도 있지만 30·40대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牛河梁 무덤의 주인공들은 제사의례를 주재하는 祭司長과 그와 긴밀한 관계의 구성원들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당대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성별 및 연령과 무덤규모를 玉器 부장상황과 맞물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牛河梁 유적에서는 조사된 97기의 무덤 중 玉器를 부장한 무덤이 총 48여기로 많은 경우 앞서 2지점 1호층 21호묘에서 보듯이 이십점이 부장된다. 玉器의 재료가 광물학적 분석을 통하여 수백 km 떨어진 遼東 지역의 岫巖 광산에서 온 각섬석 옥이라는 사실도 주목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조형이 사실적 모티프와 함께 세련된 구도와 조각기술이 구사되었다는 사실 또한 논의의 큰 주제로 삼을 만하다. 용 모양의 還玉과 봉황 모양의 板玉이 과연 중국 역사시대에 등장하는 용과 봉황의 원형인가, 그렇다면 그 상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승되는가. 이에 대해서 중국 연구자들의 많은 주장이 있지만, 우리 연구자들도 논의에 적극 참여할 만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용이나 괴수의 얼굴을 추상화시킨 구름무늬 勾云玉과 동물얼굴 獸面玉은 商周時代의 鬼面文 혹은 饕餮文 청동기와 통한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 圖像은 차이가 있다. 그러한 相似性和 相異性を 또한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玉器의 기종과 형태에 따라 패용하게 하거나 안치되는 신체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이 보고된 것이 주목된다. 斜口筒形玉이 머리, 환옥이 귀 혹은 어깨, 구운옥 혹은 수면옥이 복부 등에 안치되는 정형성을 보여준다. 특히 16지점 4호 무덤의 주인공이 한 손에 인물상, 5지구 1호총 1호묘의 주인공은 양손에 거북이를 쥔 모습이 주목된다. 안치된 신체부위와 특정 형상의 玉器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따져볼 일이다.

III. 遼河文明, 三皇五帝와 檀君

중국은 고대문명, 그중에서도 토인비가 말하는 母文明의 발상지다. 황하 중류의 鄭州와 安陽 등지에서 확보된 청동기와 성곽, 그리고 갑골문자가 고대문명의 존재를 입증한다. 그러나 이집트문명의 선왕조시대나,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왕조가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달리, 황하문명은 4천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중국 학자들은 5천 년 전의 牛河梁 유적에서 피라미드형 제단, 여자조상신을 모신 신전, 그리고 무덤에 부장된 龍 모양 玉器를 주목하게 된다. 황제를 상징하는 용,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 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리장성 넘어 紅山文化的 牛河梁에서 그 원형을 찾은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과 관련하여 중국 현대고고학을 주도하는 蘇秉琦는 21세기 중국의 다민족 통일국가론에 대응되는 區系類型論을 제시한다. 중국 전역이 6개 문화구로 나뉘어지며, 각 문화구마다 나름대로 발전과정을 거쳐 중국이라는 국가

체제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蘇秉琦의 이론적 틀에 힘입어 북방문화구에 속하는 요하유역의 신석기문화를 연구해온 郭大順은 牛河梁의 壇·廟·塚과 玉龍文化를 근거 삼아 중원의 황하문명, 남방의 장강문명에 대응되는 북방의 문명으로서 遼河文明을 주장한다. 황하유역의 仰昭文化를 대표하는 채색토기문화가 요하유역에 흘러 들어 문명의 형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일찌기 1930년대 이전에 내놓고 赤峰 紅山 기슭에서 채색토기가 다량 확인된 바 있다. 紅山文化는 그 유적 지명에서 온 것이며, 牛河梁 유적 또한 그에 속한다.

황하의 仰昭文化와 요하의 紅山文化의 교류를 중국 연구자들은 三皇五帝 신화에 등장하는 神農과 黃帝의 집단에 대응시킨다. 그것으로 夏商周 斷代工程으로 확립된 4천 년 전 황하 청동기문명을 거슬러 올라가 5천 년 전 신석기 문명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앞서 보듯이 紅山文化 후기의 적석총 상층에 이르러 대형묘의 출현과 함께 牛河梁 무덤에 토기 대신 玉器만을 부장하게 된 동인이 무엇일까. 보고서에서 1지점 女神廟가 적석총 상층과 하층 사이에 등장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女神廟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신앙체계와 함께 장승의례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牛河梁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蘇秉琦가 내세운 古文化-古城-古國의 사회발전단계론 맞추어 보면 古國에 해당된다고 중국 학자들은 주장한다.

고국은 고성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여러 부족이 결속하여 복합공동체를 이루면서 권력을 가진 族長 혹은 君長이 등장하고 그 권력을 세습하기도 한다. 군장이 여러 부족 혹은 공동체를 통합하는데, 특별한 신앙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은 女神廟를 통한 조상숭배, 금자탑 제단을 통한 천신숭배인 셈이다. 그러나 중국 연구자들이 인정하듯이 고국은 서구에서 말하는 state가 아니라, 그 이전의 chiefdoms 단계이다.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명은 state 단계로서 왕과 권력, 도시와 군대가 그 필수 구성요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遼河文明은 서구의 문명과는 괴리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연구할 과제다.

牛河梁의 홍산문화는 분명히 요서는 물론 요동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빗살 문 혹은 之字文 筒形罐의 토기문화와 상호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요동지역에서는 같은 신석기시대에 牛河梁의 玉器, 채도와 壇·廟·塚의 문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玉器가 한반도까지 전하지만, 특징적인 勾云玉·獸面玉은 물론 용·거북·새 모양의 玉器는 전하지 않는다.

牛河梁이 위치한 요서지역 현지에서는 4천 년 전에 접어들어 夏家店下層文化가 번성한다. 이들 문화를 대표하는 敖漢旗 大甸子 무덤에 牛河梁의 勾云玉 등의 玉器가 무덤에 부장되므로, 그 전통이 지속됨이 확인된다. 그러나 무덤은 토광묘·목곽묘로서 그 묘제가 전혀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紅山文化의 묘제 전통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遼西지역에 이미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牛河梁의 積石墓는 오히려 먼 遼東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요동반도 남단의 적석묘와 석관묘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적석묘가 산능선이나 비탈면을 따라 조성되는데, 부장되는 유물은 山東半島 혹은 膠東半島에서 건너온 龍山文化 혹은 岳石文化의 흑색마연토기 혹은 흑도다. 그 연대 또한 신석기시대 후기 기원전 2천년기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호 직접 관련짓기 어렵다.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부에서도 1990년대 이후 牛河梁에서 보고된 것과 같은 방형과 원형 積石墓域을 갖춘 지석묘 무덤이 수십 개소에서 확인된다. 그중에는 墓域의 길이가 20~40m 내외의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연대는 기원전 1천년기를 넘어가지 않으며 부장유물은 석검 등의 무기와 무늬 없는 홍도로서 牛河梁의 옥제 장신구 혹은 채색토기와 차이가 있어 그 직접적인 관계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方形과 円形의 積石 區劃을 갖춘 무덤과 제사공간을 造營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데올로기는 상호 비교할 만하다. 더군다나 요하 서쪽의 적석묘와 한반도 남부의 墓域 지석묘는 기원전 1천년기 비파형동검 문화권의 각각 북서쪽과 동남쪽의 경계에 분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紅山文化 牛河梁 유적과 유물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를 단군신화와 연결시키는 관점이 제시된다. 女神廟의 동물 소조제품, 옥룡의 원형을 곱

으로 해석하는 설을 따라 이를 단군신화의 곰토텐과 연결시킨다. 한편으로 紅山文化를 삼황오제 전설의 黃帝와 琢鹿에서 大戰한 蚩尤와 연결시켜 단군조선의 조상과 대응시키는 주장도 있다.

남한 학계에서도 신석기시대 후기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곰토텐 신앙과 연결시킨 주장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 金貞培가 제시한 것으로 민족지 자료를 근거로 桓雄 단군집단을 곰토텐 신앙을 보유한 고시베리아 종족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집단에 대응시킨 것이다. 논거가 다르지만 紅山文化 단군조선 관련설과 신석기시대 후기의 곰토텐 신앙과 연결시키는 점에서 상호 통하는 바가 있다. 신화와 고고학 자료의 대응은 시간과 공간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러한 접근은 고고학적 논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설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원전 3천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단군조선에 대하여 상당수의 남한 고고학자들은 냉담하다. 신빙할 만한 문헌기록에 전하는 고조선은 기원전 1천년기를 올라갈 수 없다는 고대사학의 관점이 무엇보다도 큰 이유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이후 기원전 3천년 단군조선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바, 그 논거는 전혀 다르다.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기원전 2천년기 이후 대동강 지역의 비파형동검과 지석묘, 그리고 팽이형토기문화를 1~2천 년 이상 상향 조정을 하고, 이를 근거 삼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5천 년 遼河文明說과 같은 맥락으로 5천 년 大同江文明說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당연히 단군조선을 대동강이 아닌 요하유역에 대응시키는 것에 북한 연구자들은 정면 반대한다.

IV. 맺음말

牛河梁 유적과 紅山文化를 둘러싼 중국의 遼河文明論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고고학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반도에서의 문명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 신화와 고고학의 관계는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 중국 고고학의 區系類型論과 같은 지역구분의 체계는 한국 고고학에서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古文化-古城-古國의 모델에 비견되는 사회발전단계론은 한국에서 논의될 수 없는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인바, 지금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질 때라 하겠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중국의 遼河文明論을 우리의 관점에서 비평하고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 개발에 따른 대규모 발굴이 진행되면서 그 성과가 엄청나게 축적되었다. 발굴조사의 기법은 크게 발전하였지만, 사실위주에 微視的인 논의에 치중할 뿐 巨視的인 틀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 고고학의 공간적 범위나 시대구분론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미시적인 발굴조사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동강문명론과 단군조선론을 세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야말로 남북한의 분단고고학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아무쪼록 한국 고대사의 공간인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를 아우른 원시고대사회를 이해함에 牛河梁 유적과 그 보고서를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 검토 분석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응축된 날카로움과 신선함, 그리고 우려프러움

-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오키나와(창작과비평사, 2013) -

신주백 | 연세대 HK연구교수

책의 저자 아라사키 모리테루는 1974년 오키나와대학에 부임한 이래 오키나와의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오키나와 평화운동의 원로이다. 또한 그는 역사학자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이미 《오키나와 이야기》(역사비평사, 1998), 《오키나와현대사》(논형, 2008)가 번역되어 있다.

그의 글은 쉽게 읽혀지고 논지가 명쾌하다. 글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오키나와의 역사와 현실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적 고뇌를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한 책을 읽으면서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이번의 책에서는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평가자에게 다가오는 논지가 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구조적 차별의 오키나와’를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문제점들 속에서 매우 날카롭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백영서의 정리에 따르면, 저자가 말하는 구조적 차별이란 “일본인이 사 고정치 상태 속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249쪽).

저자는 주일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구조적 차별의 단적인 예라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일본 정치의 ‘기초’ 내지는 ‘기본구조’는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일본의 정치가 본토와 분리되어 점령된 오키나와가 있었기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일미군기지의 74%가 집중된 오키나와가 있기에 미국의 하위동맹자로서의 지위와 천황제가 유지되며 일본 정치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키나와는 미일관계의 “모순을 한군데로 몰아넣어둘 장소”라는 것이다(251쪽).

이 책은 구조적 차별지로서 오키나와의 전후 역사와 현재를 통해 일본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일부 드러내고 있다. 제1, 2장에서는 구조적 차별지로서의 오키나와의 전후 역사를 냉전체제의 해체를 전후한 시기로 나누어 미국과 일본의 안보관계 속에서 짚어내고 있다. 이어 제3장에서는 대국화하고 있는 중국과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 속에서 오키나와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곧 센카쿠제도 문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여론의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 안팎의 연대 움직임 등을 통해 구조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대화: 낮은 국경으로 만들어가는 동아시아 평화’라는 제목으로 역자인 백영서와 아라사키 모리테루의 대담 등을 수록하고 있다.

II

평자는 이 가운데 제3장의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 그가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면서도 매우 신선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영토문제에 관해 아라사키의 특징적인 견해를 소개하면, 현재의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갈등은 중국, 일본, 미국이란 삼자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가 검토하고 있는

사례가 2010년 가을에 일어난 중일 간의 갈등이다. 저자는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금지 등 경제적 압력을 통해 난제를 풀어갔으며, 일본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국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때의 충돌은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을 정당화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의 갈등 국면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중일 간의 역사적 주장에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1895년 1월 14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무주지인 센카쿠제도의 영유를 결정했다고 적시한다. 동시에 내각회의가 열린 그때는 다렌과 뤼순이 일본군에 점령되는 등 청일전쟁의 형세가 이미 일본 측에 유리하게 돌아갔을 때이므로 그것은 영토탈취의 결과라는 중국 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와다 하루키처럼 청일전쟁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중국 측의 입장을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다른 주장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센카쿠제도의 무인도들은 푸저우와 오키나와를 왕래하는 책봉사(冊封使)의 항해에 도움을 주는 표지도(標識島)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이용한 공유물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역사적 주체로서 오키나와를 볼 경우 오키나와는 '이중 조공국가로서 독자적인 존재'였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중일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제시한 것이다. 평자가 보기에 센카쿠제도의 이러한 역사성은 역사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독도문제, 북방영토문제와 조금 다른 해법을 센카쿠제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런데 저자는 전후 중화민국이 타이완을 통치하고 미군정이 오키나와를 통치하면서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도 '공동·협력의 장에서 경쟁·적대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이어 냉전 시기 동안 무관심 지역이었던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1968년에 제기되면서 다시 센카쿠제도가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이 대국화하고, 오바마정권이 아시아에 복귀하는 외교정책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이 안보 적용지역과 영유권 문제를 구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평자가 보기에 ‘경쟁·적대의 장’인 센카쿠제도 주변 해역에서 2010년 가을경부터 일어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강한 충돌이 그 시작일 것이다. 이는 그때까지 동북아시아 영유권갈등의 상징이었던 독도 문제는 이제 후순위로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 미일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현주소에 대한 아라사키의 진단은 정확하다. 책이 나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저자의 주장을 더 뒷받침해준다. 2013년 들어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대응한 점이 그 대표적인 보기다. 11월부터 제기되고 있는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국 그리고 한·중·일 3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 또한 단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결국 센카쿠제도 문제는 미일과 중국 사이에 영토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부인과 달리 명확히 영토문제화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일본 정부의 외교전략, 곧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접근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첨언하자면,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로 중국과 일본은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까? 그리고 그것은 독도문제 및 우리의 미래전략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한국의 지식사회와 외교관 등이 고민해야 할 지점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III

저자는 현재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로 센카쿠제도 문제, 독도 문제, 북방영토 문제를 들고 있다. 일본의 영토에 관해 발언을 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아라사키처럼 영토문제로서 이들 세 곳만을 언급한다. 지면 관계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평자는 여기에 일본이 ‘섬’이라고 우기는 미나미토리시마 문제와 오키노토리시마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저자는 세 가지 영토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나갈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래

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은 현재의 실효지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추상적·관념적인 ‘고유의 영토론’을 보류하고, 이 지역들을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생활권으로 삼아 온 사람들의 이야기의 장(場)을 통해서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장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하고 공존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124쪽).

현지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의 갈등 양상을 눈에 담아왔고, 국가와 민족 단위에서의 해법찾기를 생각해왔던 평자에게조차 매우 신선한 문제제기이다. 더구나 변경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제 생활 감각과 괴리된 ‘국가주의자들의 도발적인 언설’로 국경의 장벽이 높아져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문제해결방향을 선호할 수도 있다. 때문에 비록 지금은 동북아에서 내셔널리즘이 고양되면서 국경의 벽이 높아지고 있어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고 뜬구름 잡는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과 타이완 주민 사이에 거의 최근까지 있어 왔던 교류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이에 관해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생활권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이 좀 더 현실적이고 보편적 대안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주권’과의 관계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을 보장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주권과의 관계, 특히 대외적인 모든 권력체로부터의 자유로운 독립성과 평등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권의 배타성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주권의 이러한 특징을 거부한다는 것은 주권의 대내적 특징, 곧 최고의 명령 권력에 대한 도전의 의미한다(박상섭, 《국가·주권》).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 곳에서 주권의 이러한 특징을 거부하며 평화적으로 해결된 경우는 없었다.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 이래 국민국가체제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주권에 대한 이러한 정의와 관념을 넘어설 권력적 대안을 우리가 마

련하지 않는 한 주권의 이러한 특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주권의 특징들이 신성불가침한 것은 아니다. 연방제가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주권은 제약될 수도 있고, 제한된 역사적 경험도 있다. 한국의 주변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사례가 그런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제기한 단계적 통일 방안도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전제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대안들이다. 민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안들, 예를 들어 백영서와 최원식이 적극 내세우고 있는 북한국가론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가 일정한 조건과 단계에 따라 주권이 제약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관점과 그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독도 문제, 센카쿠제도 문제와 남북한 통일문제를 동시에 사고하려는 폭넓은 문제의식과 깊이 있는 자각적 능력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왔던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아라사키의 책에서는 생활권과 주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존재가 간과되어 있다. 센카쿠제도 문제는 대국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2011년 고유영토론의 입장에서 공식 문건을 발표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센카쿠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꼬이면 꼬일수록 현재의 여건에서는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일본 영토의 0.6%만을 차지하는 오키나와에 주일미군기지가 밀집해 있고, 미공군기의 재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오키나와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는 타이완의 주민과 오키나와 주민 사이의 문제로만 사고할 수 없는 차원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현재로서는 센카쿠제도 문제를 동아시아의 G2인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아라사키의 주장에는 과거청산이란 맥락이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 오키나와에 대한 구조적 차별문제는 주로 전후문제로 더 연관되어 있다는 저자의 관점이자 태도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평가는 침략

전쟁이었던 청일전쟁과 센카쿠제도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저자가 중국 측의 입장을 소개하며 주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청산이란 차원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흔적을 글 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저자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의 장'에 국가의 대표자, 센카쿠제도 관련자, 그리고 북방영토 관련자도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세 개의 영토문제 가운데 하나로 독도 문제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야기의 장'에 독도와 관련한 사람들도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와다 하루키 등 처럼 저자도 두 곳과 다른 차원에서 독도의 역사성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일본의 침략과 지배라는 역사성을 간과하거나 주목하지 않으면서 세 개의 영토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생활권론을 계속 제기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한국, 러시아의 민중이 호응하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세 곳의 영토문제는 공통되게 일본의 근대사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역사문제이기 때문이다. 침략전쟁이란 역사성을 간과한 채 생활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영토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면 저자가 의도하지 않게도 제국(주의) 중심의 해법일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다. 한국(인)으로서 생활권 중심의 접근방식에 대해 아직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평자가 보기에 세 개의 영토문제는 당사자 간 대화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생활권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은 연성적 접근방법이며, 지금처럼 내셔널리즘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동아시아의 현실에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영토문제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대전제로 하되, 동북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마무리해야만 평화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인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미래가치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사에 매몰되거나, 양자 간 갈등에 머물거나, 내셔널리즘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지 주민의 이해와 국가 이익, 그리고 동아시아 차원의 가치공유를 동시에 사고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점과 태도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2호(2013. 12)

초판 1쇄 인쇄 2013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12월 31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